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교육 지원 실태조사

홍 숙 희·라 해 문·홍 선 영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교육 지원 실태조사

책임연구자

홍 숙 희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전략기획부장

공동연구자

라 해 문 | 마을만들기 실천 활동가

홍 선 영 | 공공정책연구소 나눔 대표



발 간 사

제주사회는 세계화 현상뿐만 아니라 도외지역으로부터의 인구의 유입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난제들이 양산되어 새로운 도전의 시대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우리 제주 사람들이 함께 삶을 나누며 살아온 마을에도 다양한 구성원의 등장으로 생활문화의 갈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현상과 문제들은 제주사회의 과제이자 곧 주민의 생활공간인 마을의 과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 동안 '마을'에 주목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 왔으나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접근은 부족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단위 주민교육 지원체제의 전면적 혁신이 필요합니다. 마을은 개인과 가족, 그리고 지역의 크고 작은 모임과 집단이 만나는 삶의 공간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발생하면서 다시금 '마을'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거주지 중심의 '마을'에서 삶을 배우고 나누는 교육환경의 조성과 주민이 주인이 되는 마을교육 실현을 위한 다양한 교육콘텐츠 발굴과 방법을 모색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본 연구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 그리고 연구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주민들이 마을 교육을 통해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주체적 역량을 기르는 교육환경 조성 과 역할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교육의 지원 정책 개발 및 정책실행의 성과를 높이는데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 12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 정 옥

연구 요약

I.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저출산·고령화를 비롯한 세계화 등 다양한 사회현상들은 제주사회 전반에 걸쳐 난제들을 양산하고 있음. 급격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 등장한 사회현상과 문제들은 국가적 과제에 그치지 않고, 곧 마을의 과제이기도 한 시대임
- 근래 ‘마을’에 주목하여 다양한 정책이 투입되고 있으나 주민 대상 교육은 개별 사업단위별로 제공되는 교육 서비스에 그치고 있음. 이에 따라 주민의 지속적인 성장의 기회 제공이 부재한 여건임. 그러므로 제주지역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적 역량 갖추기와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단위 주민교육 지원체제의 전면적인 혁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마을’ 중심의 삶을 실천하는 교육환경 조성이 요구됨
- 따라서 본 연구는 마을단위 주민교육 지원의 효과성 제고와 활성화를 위한 제주지역 공동과제와 역할 수행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제주 마을단위 주민을 위한 교육지원 현황과 국내외 지역주민 교육지원 정책의 파악을,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의 교육지원 요구를 조사하고, 마을단위 주민을 위한 교육지원 관련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초점 집단면접을 실시하여 마을단위 주민의 교육지원 효과성 제고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음

2. 연구 내용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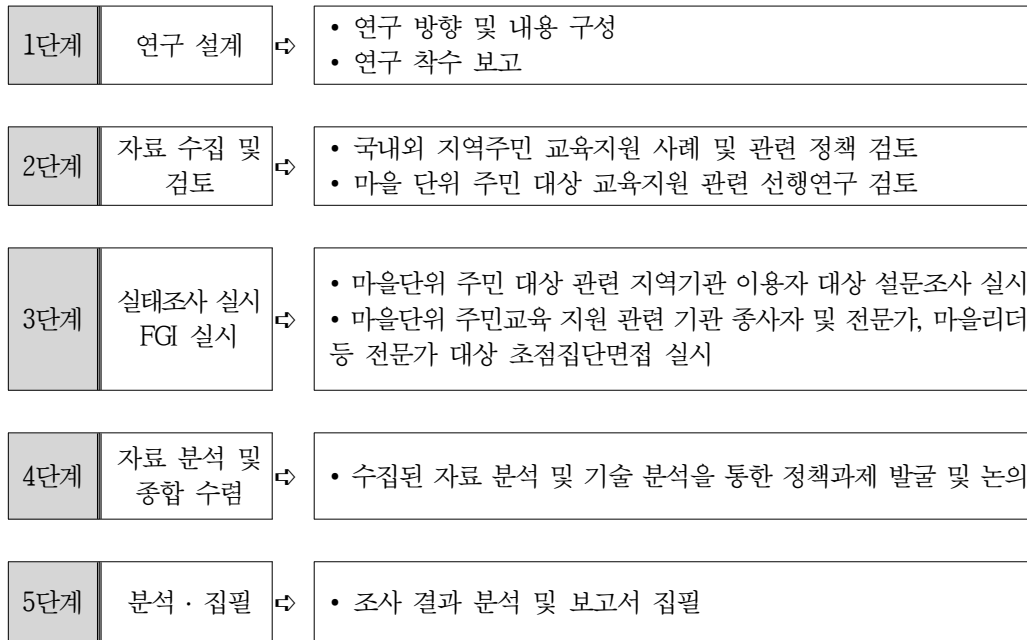
가. 연구 내용

- 제주 마을단위 주민을 위한 교육지원 실태 분석
- 국내외 지역주민 교육지원 정책 분석

-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의 교육지원 요구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을 위한 교육지원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초점 집단 면접(FGI) 조사
-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교육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 및 추진체제 구축 방안 제안

나. 연구 방법

- 문헌자료 수집 및 분석
 - 지역 주민 교육지원 관련 선행연구 분석
 - 국내·외 마을단위 주민교육 지원 정책 현황 및 추진체제 구축 사례 분석
- 설문조사
 - 대상 :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 대상 총 300명
 - 주요 조사 내용 : 마을단위 주민 대상 교육 참여 여부와 불참 이유, 주민교육 참여 기간, 참여교육의 종류와 장소, 참여 경로, 참여 이유, 참여기관의 종류, 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 참여기관 시설의 불편사항, 참여 교육 분야 및 교육별 도움 정도, 코로나로 인한 변화, 주민교육 방법에 대한 만족도, 새로운 교육의 내용, 여성교육의 추가 내용, 주민교육 개선 방안 등
- 전문가 FGI : 제주지역 마을단위 지원 사업 관계자, 지역단위 지원사업 관계자, 마을 교육관련 분야별 전문가 등 3개 집단, 10명(총 3회)
- 연구 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음



〈그림 1-1〉 연구 수행 절차

II. 국내외 지역주민 교육 정책

1. 국외 지역주민 교육지원 정책

- 외국의 주민교육 정책은 나라마다의 차이점이 있지만 대체로 일찍부터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공동체를 지향하는 교육에의 참여를 독려하는 교육환경의 조성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국가단위의 평생교육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 독일의 시민대학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거치면서 성인을 위한 교육제도로써 위치하여 시민성 강화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주 정부가 중심인 운영체제로 언제나, 누구든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든 원하는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시민대학마다 독자의 교육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운영인력이 배치되어 학

습자의 수강료, 기초자치정부와 주 정부의 예산, 그리고 연방 및 EU 지원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음

- 일본의 공민관은 1949년에 사회교육법 제정으로 실제 생활에 입각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위해 중학교 학구마다 설치하여 유년부터 노년세대까지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학습하는 ‘장’으로서 역할을 담당하였음. 일본 전후 60년을 넘어서면서 전국에 약 18,000개의 공민관이 보급되어 정착되었고, 각 공민관 마다 3명 내외의 직원이 근무하여 교육강좌를 개설하거나, 지역의 학습동아리인 자주학습집단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최근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위한 실험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음
- 호주의 지역성인교육센터는 주 단위의 지역에서 관리하며, 규모가 작은 지역일수록 그 역할이 중요해지는데,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주로 낮은 기술력과 저학력인 학습자가 주 대상으로 학습자의 접근성을 중시함. 성인지역사회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은 대표적으로 거주하거나 일하는 곳과 가까운 곳인 성인지역사회교육 센터/대학 및 TAFE 컬리지(colleges)와 부속기관 (TAFE와 ACE의 연계), 마을회관 및 지역센터, 지역 보건기구 및 노인복지회관, 노동자교육연합, 교회와 학교 등 다양한 곳에서 제공됨. 그 주된 내용은 디지털 읽기, 쓰기 및 수학 기술을 향상시키고, 자격을 얻고, 직업을 얻거나, 직업을 바꾸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받을 수 있음

2. 국내의 지역주민 교육지원 정책

- 국내 관련 정책으로 마을단위 주민교육지원체제를 마련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경기 이천시, 경남 창원시, 경기 부천시의 운영 현황을 살펴봄. 각 지자체마다 운영 배경과 추진 과정에 따라 각자의 맥락을 가지고 자리매김 되고 있음

〈표 II-8〉 서울특별시 · 이천시 · 창원시 · 부천시 주민교육 지원체제 현황 비교

구분 (명칭)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동네배움터]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창원시 [평생교육센터]	부천시 [학습반디]
운영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7개 자치구 182개 동네배움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개 주민지원센터 14명의 평생교육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26개 평생교육센터 35개의 작은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개 행정복지센터 26개 주민지원센터 36명의 학습매니저 (자원활동가)
운영 인력 특성	동 평생학습전문가 (평생교육사)	임기제 평생교육사 마급	수탁 기관 채용 인력(평생교육사, 사서, 사회복지사 등 마을 활동가)	유급 자원활동가 (월59시간)
운영 체제	평생교육진흥원 -자치구연계형 (자치구 직영운영)	주민자치연계형 (읍·면·동 직영운영)	민과협력연계형 (민간위탁 운영)	주민자치연계형 (평생교육과(평생학 습센터) 직영운영)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교육청소년과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과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네배움터 사업기 획·운영 사업 홍보 및 성과 관리 사업관계자 맞춤형 성장 지원 주민생활밀착형 프 로그램 개발·보급 프로그램 기획·운영, 학습자 상담 교강사 지원, 학습 동아리 발굴지원 동 단위 주민학습 촉진 동 평생학습 프로그 램 질관리 학습·실천 프로젝트 기획·운영 마을 자원 및 학습 공간 발굴·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자치센터 프로그 램 기획 운영 및 관리 주민자치 사업 공동 기획 마을만들기 사업 기 획 운영 예산집행 및 행정업무 성인문해교육 발굴 및 운영 읍면동 마을 축제 기 획 운영 권역별 네트워크 사 업 기획 및 운영 동아리공모사업 관리 읍면동 업무 서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민의 생애주 기 프로그램 기획, 운영 및 관리 유관기관 간의 연 계·협력 소외계층 및 저소 득층을 위한 프로 그램 개발·제공 지역특화사업 운영 작은(마을)도서관 운영 지역문화행사 기획, 운영 동아리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자 상담 및 관리 프로그램 요구조사 및 분석 의견을 반영한 프 로그램 개설 교육요구 수렴 관계자와의 매개 역할 수행 및 의견 조율 지역 자원 발굴 및 연계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부 행복학습센터 사업으로 시작 자체 브랜드로 안정화 자치구 참여로 사업 확대 동 학습전문가(평생 교육사) 배치 광역시(서울시) 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례개정 후 추진 자치단체장의 확고 한 추진력으로 시작 주민자치회 소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관협력에 의한 시범사업 계기 조례제정 및 개정 후 추진 자치단체장의 확고 한 추진력으로 시작 민간위탁에 의한 지역 사회단체 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부 행복학습센 터 사업으로 시작 자체 브랜드로 안 정화 자원활동가를 매니 저로 배치 주민자치 연계에 주력

	의 종합 지원체제 마련		량 발휘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자치구의 지속 증가 • 운영 예산의 증대 • 프로그램과 참여자 수의 양적 증가 • 프로그램 운영공간 변화 • 참여 학습자의 주체적 공동체 활동 촉진으로 자치력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의 양적 증가 • 프로그램의 개편 추진 • 프로그램 운영공간 변화 • 주민자치교육분과와 협업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의 양적 증가 • 학습과 독서 문화 복합공간 운영 변화 • 인근 주민자치센터와 협업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6개 주민센터 학습반디 지정 • 36명 학습반디매니저 배치 • 일상에서의 시민교육 활성화, 주민자치위원 교육운영, 학습동아리육성, 마을축제 확대
보완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참여 자치구의 참여 기제 마련 필요 • 동네배움터의 지속 운영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이 필요함 • 주민자치회와 협업 노력 강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평생교육 정책 부재로 평생교육사의 전문성이 흔들림 •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이 필요함 • 주민자치회와 평생교육과의 협업과 소통이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 지속성 담보의 한계 • 예산 한계에 따른 운영인력 배치의 제한 • 주민자치회와의 연계성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수립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학습자원활동가 처우개선 • 주민자치회 전환에 맞는 연계협력 구조 필요 • 행정력 향상 필요 • 유급간사와 다른 고유업무 개발 필요

※ 출처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2020). 내부자료와 홍숙희·김민호·이소연(2019).을 수정·보완하여 사용

- 네 가지 사례는 모두 공공시설 및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교육의 상시운영체제를 마련하여 거점공간으로서의 성격과 담당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실질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있음을 확인해줌. 또한 이를 위한 지자체 내의 확고한 의지와 추진력으로 시작되어 정책 수립과 추진의 지속력 담보가 가능했음을 알 수 있음
- 그리고 마을단위 주민교육 지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 누구든 마을 안에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과 다양한 세대별 학습요구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의 제공이 요구됨을 알 수 있음
- 한편,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와 이천시, 청원시, 부천시의 사례는 각각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음.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는 교육부 행복학습센터 사업을 시작으로 자치구의 참여를 통해 동 단위의 동네배움터를 발굴·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 기준 전체 25개 자치

구 중 17개 자치구의 참여, 182개의 동네배움터를 운영함. 또 동네배움터에 동 평생학습전문가(평생교육사)의 배치로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주민생활밀착형 프로그램을 개발·보급·운영하고, 학습자 상담을 통해 주민학습을 촉진하는 운영체계를 마련함. 또한 학습-실천 프로젝트를 기획·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자치력을 기르고, 마을자원 및 학습공간 발굴·연계를 통해 지역 공동체형을 도모함.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이 동네배움터 사업 기획·운영을 맡아 서울시 단위의 동네배움터 사업의 홍보 및 성과 관리, 사업관계자의 맞춤형 전문연수를 통한 성장 지원으로 동네배움터 사업의 확산을 도모하였음

- 인천시는 주민자치센터를 행정주도로 조례에 근거하여 주민자치학습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주민자치 업무에 평생학습 업무의 추가 반영을 통해 전문인력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였고, 이로써 주민의 교육 참여 활성화 뿐 아니라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는 성과를 내고 있음
- 창원시는 대동제를 계기로 기능이 전환된 지역의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민·관협력으로 평생교육센터(사회교육센터)의 설치·운영을 제도화하고,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작은도서관의 연계·운영을 통해 교육과 독서 문화를 통합서비스로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있음
- 부천시는 행정주도이나 전문인력이 중심인 평생학습센터의 추동으로 시범 운영사업인 학습반디를 36개 전 동지역 확산·운영과 지역주민을 학습반디 매니저(마을활동가)로 양성하고 배치하였고, 일상에서의 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특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 더불어 주민자치회와의 연계활동을 통해 주민 주도의 공동체 활동에의 지역주민의 참여를 강화하였음

3. 국내외 지역주민 교육정책과 시사점

- 마을단위의 주민교육은 나라마다의 사회적 환경과 특성을 기반으로 정

책과 제도로 오랜 시간에 걸쳐 자리매김 되었음을 알 수 있음. 또한 국내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저마다의 환경과 사회적 배경을 중심으로 체계화되어 있음

- 국외 및 국내 사례들은 대부분 지역주민의 성장이 곧 지역공동체의 성장의 동력임을 전제하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특히 국내 사례들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읍·면·동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과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을 통해 평생교육정책으로서 자치구 행정과 주민자치센터, 평생교육센터, 마을도서관을 연계하여 통합적 관리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III.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교육 현황 및 지원정책 분석

1. 제주지역사회 변천과정

- 해방직후인 1949년 제주 인구는 25만명 수준이었음. 이후 4·3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1960년까지 제주의 인구 변동 폭은 컸고, 근래 2012년 이후 인구증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오다 2016년을 기점으로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음. 지속적으로 인구유입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고령인구의 증가로 고령사회에 진입함
- 제주사회는 1960년 이후 전국의 산업화와 도시화의 흐름을 따라가며 변화하기 시작함. 변화의 시작은 66년의 제주도 특정지구 지정과 71년의 제주도종합개발 10개년 계획, 1973년의 제주도 특정 지역관광종합개발계획 의한 제주 관광 산업이 본격화임
- 또한 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감귤생산의 확대와 1971년의 새마을운동은 제주 농업농촌의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음. 자급자족적인 농업생산에서 상업적 농업의 시대로 나아가게 하였으며, 마을안길 포장, 초가 지붕개량 등이 이루

어지면서 농촌공간이 변화하였음. 제주 지역 어촌의 자연마을은 연안 공동어장을 중심으로 형성됨. 하지만 농업과 어업은 FTA 협상 진전에 따른 수입농수산물과의 경쟁,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에 의한 생산량 감소, 식품 안정성 수요 확산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1946년 도제 실시로 전라남도 관할에서 벗어나 2군 1읍 12면이 되었음.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는 하나의 광역체제로 개편되어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의 행정시 체계가 되었음.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하나의 광역체제와 2개 행정시, 7읍, 5면, 31동임. 또 12개 읍·면에는 172개의 행정리, 31개 행정동에는 537개 통이 조직되어 있으며, 통·리는 4,465개의 반으로 조직되어 있음. 그리고 행정리와 통의 일부는 다시 564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음. 2019년 기준 읍면동별 인구 소멸위험지역을 살펴보면 서홍동, 동홍동, 일도2동 등 20곳은 소멸주의에 해당되며, 표선면, 효돈동, 중앙동 등 13곳은 소멸위험, 추자면은 0.2 미만으로 소멸고위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음

2. 제주지역 마을단위 교육시설 현황

- 제주지역 평생교육 기관 624개소(2019년 기준/중복 배제, 595개소) 현황을 살펴보면, 평생교육법령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 기관은 42개소로 그 밖의 다른 법령에 근거한 평생교육 기관 582개소 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남. 평생교육법령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 기관 42개소는 동 지역은 33개, 읍·면 지역 9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이를 행정시별로 살펴보면, 제주시는 34개소로 동 지역은 26개, 읍·면지역은 8개소임. 반면 서귀포시는 8개소로 동 지역은 7개, 읍·면 지역은 1개소 설치됨. 우리동네학습나눔터 8개소가 제주시 마을단위로 설치되어 있음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근거한 평생교육기관 582개소 현황을 살펴보면, 시민사회단체형 평생학습기관이 84개소로 가장 많고, 박물관, 전시관, 미술관이 81개소, 지역아동센터 65개, 청소년관련시설 평생학습기관이 51개, 작은도서관

48개, 주민자치센터 43개 순임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근거한 평생교육기관인 시민사회단체형, 박물관, 전시관, 미술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관련시설, 작은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등 582개소를 행정시와 읍·면·동 지역으로 살펴보면, 전체 582개소 중에 제주시가 380개소, 서귀포시가 20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동 지역이 402개소로 읍·면 지역 180개소 보다 2배 이상 많으며, 특히 제주시 동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읍·면 지역 단위에서 평생교육기관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은 주민자치센터와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청소년문화의집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기관들은 대부분 읍·면사무소 소재지 마을에 위치함
- 마을 단위 공공 공간인 마을회관(411개)과 노인회관(444개), 새마을문고(127개) 등은 제주 지역 내에는 982개소(2019년 기준)가 있으며, 주민들의 커뮤니티를 증진하는 기능과 더불어 공적서비스를 연결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음. 또 주민들 다수의 접근 편의가 매우 높아 마을 단위 다양한 주민교육 및 학습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마을회관은 전체 411개소 중 읍·면 지역이 293개소로 동 지역 118개소 보다 많고, 노인회관은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전체 982개 공간을 행정시별로 살펴보면, 제주시는 669개로 서귀포시는 363개 보다 많음. 행정시 모두 동 지역보다 읍·면 지역에 공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읍·면 지역 마을회관은 서귀포시가 75% 동 지역 보다 높고, 제주시도 69% 동 지역 보다 높음. 또 노인회관은 서귀포시가 읍·면 지역이 64%로 동 지역보다 높지만 제주시는 동 지역이 55%로 읍·면 지역보다 높음

3.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교육 현황과 지원정책

- 읍·면·동(마을단위) 평생학습센터는 평생교육법령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는데, 2016년 교육부 시범사업으로 제주시(5개소)와 서귀포시(3개소)가 행복학습센터 운영으로 8개소를 운영하였음. 2017년 시범사업 종료 이후 제주시는

- 자체사업으로 전환 운영하였고, 서귀포시는 시민제안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 등으로 전환하여 종료함
- 제주시는 2017년 이후 ‘우리동네 학습나눔터’로 명명하여 2020년도까지 8개소를 운영함. 제주시는 ‘우리동네 학습나눔터’ 운영을 위해 학습매니저 8명을 전담인력으로 채용하여 지역에 배치하고, 거주자 중심의 주민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
 - 이와 함께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는 리 단위 마을 평생학습 공간 확보 및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제주는 삶의 배움터다! 참여형 프로젝트’를 2018~9에 5개 마을에 마을배움터를 설치·운영함
 - 제주지역 주민자치센터의 주민교육프로그램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시민의 자치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임. 교육프로그램은 주민자치학교 등 자치역량을 위한 주민자치교육과 지식함양을 위한 시민교육, 문화·여가 및 복지 등의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하지만 지역주민의 일상적인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의식과 리더십 훈련 교육과정은 부재한 상황임
 - 한편 일부 읍·면·동에서 지역이 가진 문화적 자산과 인적 자원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교육프로그램이 개설되고 있지만 읍·면·동 지역특성을 고려한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개발 부재를 인해 여전히 대부분의 읍·면·동은 문화·여가 중심의 비슷한 문화강좌가 열리고 있음. 따라서 지역특성이 반영되고 시민의식과 문화수준 향상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노력이 필요함
 - 주민자치센터를 벗어나서 지역 내 문화공간을 연결하는 등의 시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려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시민과 주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 제공에는 한계가 있음. 읍·면 단위는 중심소재지 마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동 단위는 도심권의 일부 동 지역을 제외하면 읍·면 지역과 비슷한 여건에 놓여 시민과 주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에 한계가 있음. 도보와 대중교통 이용 시 30여분 이상의 접근 시간이 필요함
 - 마을(도·농)단위 주민역량강화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하고 있음. 교육 내용은 마을지원사업의 이해, 마을지

원사업 사례, 마을발전계획 수립 현장포럼과 사업 발굴 현장포럼을 중심으로 교육 강좌가 운영되고 있음.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의 혼디모영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강좌로서 매년 20여개 마을의 80여회의 교육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도시재생분야의 주민역량강화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센터와 뉴딜사업지구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주관으로 도시재생대학, 도시재생아카데미, 도시재생 뉴딜전문가, 이슈발굴형 주민교육프로그램 등 4개 영역의 교육과정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도시재생 정책과 도시재생의 이해, 도시재생에 대한 이슈 발굴, 젠트리피케이션 등 도시재생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학습으로 구성되어 있음
- 사회적경제주체 역량 발굴 및 육성사업은 사회적경제주체 역량교육으로 커뮤니티비즈니스와 사회적경제의 이해를 돕는 특강, 워크숍, 토크콘서트, 개별 컨설팅 등의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커뮤니티비즈니스학교와 구분되는 두 개 과정, 즉 마을과 주민공동체 중심의 마을(공동체)기업의 진입과 운영, 그리고 고도화를 위한 교육 과정으로 설계되어 있음. 이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커뮤니티비즈니스 학교와 마을공동체지원사업 참여 공동체 교육을 주관하고 있으며, 마을기업 교육은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주관하고 있음
- 지역균형발전사업 주체 역량강화사업 관련해서는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에서 강사지원시스템으로 강사(교육자), 주민(피교육자), 공간(교육장소)으로 묶어내는 구조의 교육 서비스 프로그램이며 핵심은 주민이 원하는 장소에서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리고 강사플랫폼에 등록된 전체 강사는 327명으로 6개 분야 26개 강좌를 개설할 수 있음. 더불어 제주문화중개소는 서귀포시 12동 지역 시민들에게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지역균형발전사업의 권역별 사업에 해당됨. 문화중개소의 문화여가 프로그램은 단기프로그램, 장기프로그램, 기획프로그램, 동호회 프로그램 등 4개 영역으로 설계되어 있음
- 농업분야 농업인역량강화교육 관련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과 제주 농업기술센터,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동부농업기술센터, 서부농업기술센터 등

5개 기관에서 운영 중임. 농업인 전문교육은 제주 농업의 가치와 경쟁력 있는 미래농업인 육성을 목표로 다양하고 맞춤형의 농업교육을 개설하여 운영 중임. 농업인 역량교육은 지역별 농업생산품목을 고려한 강좌와 공통 과정 강좌로 구분되어 있음. 또 마을단위에서 시행되는 농업인 실용교육을 통해 보다 폭넓게 농업인 기초 교육을 시행하고 있음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사업은 농촌발전을 위한 핵심인재 양성과 농촌 관광 활성화라는 정책의 체감 및 성과 제고, 그리고 도농교류 확대를 통한 농촌활력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체험마을 리더와 체험사무장을 대상으로 역량교육을 운영함

4.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교육 현황 및 지원정책 시사점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마을단위 주민교육과 관련하여 평생교육을 비롯하여 균형발전, 마을만들기 및 마을기업, 도시재생, 관광, 문화예술 등 다양한 사업의 영역과 부서들이 연계되어 있음. 이러한 사업들 간의 연계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주민들에게는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접근성 확보와 지역사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향과 전략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읍면소재지에 위치해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국한된 주민교육 서비스는 리 단위 마을주민이 교육에 참여하기에는 많은 제약조건이 따름. 교육에의 참여 신청 방법으로부터 시작하여 농번기에는 시간을 내기가 어렵고, 걸어서 가기에는 어려운 이동거리 등 지리적 제한성 등이 존재함. 그러므로 걸어서 갈 수 있는 공간적 범위의 생활권 단위라 볼 수 있는 리 단위 마을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주민교육 지원체제에 대한 정책적 방안 모색이 요구되며,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위한 전문적 지원 노력이 필요함
- 이와 같이 마을단위 주민교육 지원은 주민자치센터센터의 주민교육 프로그램 외에도 도시재생사업과 사회적경제, 지역균형발전, 농업분야, 농어촌체험휴양

마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추진됨. 이를 종합하여 제고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다양한 주민주체들의 교육 참여와 교육을 통해 주체들의 성장과정이 나타나야 하지만 실제로는 과정 이수에 그치고 있음. 지역이 안고 있는 다양한 이슈와 문제들을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형성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설계가 필요함
- 사회적경제 주체 역량 발굴 및 육성사업을 위해 사회적경제 주체 역량교육 과정이 세 개의 교육과정으로 분리·운영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통합과 개별과정, 수준별, 분야별 교육과정 운영이 고려되어야 함.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 주체 역량교육 운영에 따른 결과와 효과 여부, 그리고 교육 과정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지표가 마련되어야 함
- 지역균형발전사업 주체 역량강화사업은 주민주도 학습공동체를 연결하는 강사지원시스템의 활성화 노력이 필요함. 현재 강사 플랫폼은 구축되었지만 실제 교육과정의 개설과 교육운영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여러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음. 현재까지 강사지원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참여마을과 법인이 7개 내외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45개 법인의 1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 개설된 강좌를 살펴보면 수강생이 1인인 경우에도 강좌가 개설되어 강사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를 통해 균형발전분야 우선순위 요소,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지속가능 전달체계의 구축이 요구됨을 알 수 있음. 또한 주민수요조사 및 균형발전 수준 평가를 바탕으로 우선순위 과제로 선정된 문화 서비스가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방식인지, 또는 강사를 지원하는 방식인지 등에 대하여 내용과 운영 측면에서의 재정립이 필요함. 강사지원시스템에서 강사(교육자), 주민(피교육자), 공간(교육장소)을 연결하는 것처럼 문화중개소의 역할도 이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음
- 농업분야 농업인역량강화교육 관련해서는 농업인전문교육 운영에 따른 변화와 효과에 대한 모니터와 그 결과를 교육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요구됨. 매년 2만여 농업인이 참여하는 농업인 전문교육이 실제 농업인의 전문역량 향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농업 생산환경 변화에 어떤 변화와 영향을 주

고 있는지 등의 조사연구가 필요함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사업과 관련해서는 농촌관광 참여마을의 리더 역량 제고에 대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교육 운영이 요구됨. 제주의 농촌관광은 제주관광 변화에 영향을 받음에 따라 관광 트렌드의 변화에 대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체험휴양마을협의회의 리더 교육은 농촌관광 참여주체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고 변화에 대응하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교육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하지만 리더 육성에 참여하는 마을의 주체들이 교육 수강 동기가 미약하여 교육 이후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후속 노력이 필요함

IV.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의 학습요구 분석 결과

1. 조사 개요

가. 조사 설계 및 방법

- 조사 대상자는 마을단위 주민, 총 300명을 대상으로 함
- 표집방법은 제주지역 43개 읍면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별 조사 인원을 배정한 목적적 표집으로 선발함. 즉, 행정구역을 근거로 제주시 동 지역 19개, 읍·면 지역 7개(마을 수 96개), 서귀포시 동 지역 12개, 읍·면지역 5개(마을 수 76개)를 고려하여 비례할당 표집하였음
 - 표본 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pm 5.66\%$ 임
- 본 연구의 설문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면접조사 방식으로 2020년 10월 29일~11월 15일 사이에 전문 조사업체를 통해서 수행되었음

나. 조사 내용

- 설문지는 박성정 외(2002), 박영란 외(2020), 장창수(2011), 김경애 외(2014), 이혜영 외(2011), 한정란(2008)의 조사 내용을 참고로 연구진이 문항을 추가

하여 구성함

○ 본 연구를 위한 조사 내용은 <표 IV-1>과 같음(<부록 1> 참조)

<표 IV-1> 조사 내용

구 분	조사내용	설문 번호	문항 수
교육 참여 여부	· 마을단위 주민대상 교육 참여 여부	1	1
교육 미참여 이유 및 개선점	· 교육 미참여 이유 · 향후 참여 의향 · 참여하려는 이유	2~3	3
교육경험 및 만족도	· 참여 기간 및 참여 프로그램 · 참여 교육의 도움 정도 · 참여 교육 장소 · 참여 경로	4~8	5
참여교육 주관 기관 이용 정보	· 참여교육의 주관 기관 · 참여교육 주관 기관 이용 사유 및 시설 여건 · 참여교육 이용 중 불편함	9~10	5
분야별 교육 참여 경험과 도움 정도	· 분야별 교육 참여 여부와 도움정도	11	1
코로나로 인한 변화	· 코로나로 교육기관 휴관한 동안 대체 활동 · 코로나 이후 주민교육 참여 의향	12~13	2
주민교육 수요	· 주민교육 방법의 적합성 · 코로나로 인한 교육방법별 적합도 · 주민교육의 내용별 필요성 · 세대별 통합 프로그램 필요성 · 여성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내용, 참여 경험, 참여하지 않은 이유 · 주민의 교육 참여 제고를 위한 개선사항 · 주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14~20	9
응답자 일반적 사항	· 거주지역, 성별, 출생년도, 학력, 직업, 현재 근로여부 · 동거인, 주관적 경제상태, 정서적 교류 빈도, 공동체 활동 참여 경험	13	7

다. 설문조사 대상자 특성

□ 전체 응답자

○ 전체 응답자는 총 300명이며, 여성 51.0%(153명) 남성 49.0%(147명)임. 연령대 별로는 '50세 이상 ~ 59세 미만'이 31.7%로 가장 많음

- 학력은 ‘대졸 이상’이 전체의 31.3%로 가장 많음
- 최종학력은 고졸이 138명으로 전체의 46.0% 차지함
- 현재 직업은 농어업, 임업과 자영업이 각각 21.7%로 가장 많음. 직장이 없는 대상자도 전체의 17.3%를 차지함
- 가족형태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 형태가 전체의 43.0%로 가장 많음
- 경제상태는 보통이라고 대답한 대상자가 전체의 70%임
- 친척, 이웃과의 교류정도는 일주일에 한 두번 교류한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116명으로 전체의 38.7%를 차지함. 거의 매일 교류가 있는 대상자도 32.0%임
- 자원봉사 및 공동체 활동 참여 여부를 살펴보면, 과거에 참여한 경험이 있지만 현재는 참여하지 않는 비중이 전체의 42.7로 가장 많음

2. 조사 결과

가. 교육 미참여 이유 및 개선 방향

- 주민교육의 참여 경험에 대해 전체의 56.7%인 170명은 참여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 주민 교육에 대한 참여의사에 대해서도 역시 응답자 중 56.5%가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민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됨
- 한편 주민교육 참여 경험은 서귀포 지역이 제주시 지역보다 참여 경험이 있는 사람이 많았고, 주민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은 참여기간이 3년 이상~4년 미만이 전체의 41.1%로 가장 많았으며, 프로그램 참여 횟수도 20회 이상이 25.7%로 그중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어 주민교육 참여자와 미참여자 간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주민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주 이유는 직장이나 직업으로 인해 시간이 없어서와 시간이 맞지 않는다는 것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주민교육에 참여한다면,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교육을 통해 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가 1순위로 응답하였고,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도 2순위에서 우선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민교육의 방향성과 교육 내용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나. 교육경험 및 만족도

□ 주민교육 중 수강한 프로그램

- 주민교육 참여 경험은 공동체 교육(지역이해하기: 마을 만들기, 도시재생, 마을발전정책 등)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생활예술교육(댄스 스포츠, 기체조 등 생활 스포츠, 그림, 노래, 서예 등 문화예술 교육)이었음. 참여한 주민 교육은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얻기, 교육을 통해 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기,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기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참여한 교육 실시 장소

- 주민교육에 참여한 장소로는 마을회관(복지회관, 경로당/노인회관, 마을 문화센터, 마을 문고 등)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임. 또한 주민교육 참여 경로로 ‘이웃, 마을회 권유’가 전체의 50%를 차지하였고, 시·읍·면 주민자치센터(관공서), 중간지원조직(마을만들기, 도시재생, 마을기업, 체험휴양마을 등) 홍보물 순으로 나타남

□ 주민교육 참여 선호 교육 및 주관 단체와 이유

- 주민교육 주관 단체별 실시 교육 참여는 마을회 및 자생단체(부녀회, 새마을회, 농민회 등)의 교육 참여가 가장 높음. 다음은 읍·면·동주민자치센터 교육, 농협, 농업기술원(기술센터), 문화시설(문화원, 도서관(작은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의 집 등) 순으로 나타남
- 가장 오래 이용한 주민교육 주관 단체의 교육은 역시 마을회 및 자생단체(부녀회, 새마을회, 농민회 등)의 교육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읍·면·동주민자치센터 교육을 오래 다닌 것으로 나타남. 그 이유는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많아서, 그리고 집과 가깝거나 교통이 편해서로 나타남. 이는 마을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교육이 다수 진행되고 있으며, 집과 가까운 곳에서 주민교육이 제

공되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음

☐ 주민교육 기관 시설 이용시 불편사항

- 주민교육 기관 시설 이용 시 불편사항으로 1순위 답변에서는 강의실이 좁고 냉난방, 환기가 잘 안됨이 가장 높았고, 옷을 갈아입을 공간이 따로 없음이 제시됨. 2순위에서는 음향, 영상, 테이블, 의자 등 교육기자재 낙후가 가장 높았고, 계단이 많고 이동약자가 이용하기 불편함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노후 교육시설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며, 제대로 교육환경을 갖출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

☐ 주민교육 분야별 참여 도움 정도

- 여러 기관이 주관하는 주민교육 중 교육분야별 도움정도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만족도를 보임. 그 중에 문해교육(한글읽기, 계산하기 등)이 가장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그 뒤로 외국어 교육(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 공동체교육(지역이해하기 : 마을만들기, 도시재생, 마을 발전 정책등)에 관한 교육 순으로 나타남

☐ 코로나-19에 따른 환경변화

- 코로나로 인해 생긴 환경변화에서 일(직업)하지 않는 시간대의 활용은 주로 집안일, 소일거리, 실내운동 등 실내 활동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종료 후 주민교육 프로그램 제공시에는 예전처럼 다시 수강하거나 참여할 것이다가 전체의 80.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주민교육의 지속 제공이 요구되고 있음을 확인함

다. 주민교육 수요

☐ 주민교육에 적합한 교육방법

- 주민교육 적합한 방법으로는 기존 방식인 강사의 강의를 통한 교육을 가장 선호하였고, 실습, 견학 등 참여를 통한 교육이 그 뒤를 이음
-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의 주민교육 운영 방법은 지금과 같이

모여서 강사의 강의를 듣되 참여 인원수를 축소하여 교육을 지속했으면 하는 의견이 전체의 40.6%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를 통해 기존 강의식 교육방법을 더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실습과 견학 등 참여 방식도 선호하고 있어 주민 참여 중심의 교육방법의 개발을 적극 고려해볼 수 있음

□ 시민성 강화를 위한 주민교육의 필요성 정도

- 시민성 강화 중심의 주민교육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필요성 정도에 대해서 전체적인 필요성은 '보통이다'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을 나타냈는데, 양성평등교육, 다문화 이해교육, 생활기술교육 순으로 나타남. 또 학교 교육 자원봉사 참여 및 아동·청소년, 청년 등 다른 세대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보통이다' 수준으로 나타남

□ 마을에서의 여성 자립 및 역량 강화 교육 참여 경험

- 여성 자립과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에 대해서는 참여 경험이 없다가 전체의 81.0%를 차지하였고, 여성자립과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으로 1순위에서는 여성리더쉽 교육, 미래 사회 변화 과정, 제주 여성 정체성교육 순으로 나타남. 2순위에서는 금융 경제 관련교육, 스피치 교육, 미래사회 변화과정 순으로 나타남
- 여성역량 교육 불참 이유에 대해 50세~59세가 참여할만한 프로그램이 부족한 이유의 집단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함

□ 마을단위 주민의 교육참여 제고를 위한 개선점

- 주민의 교육참여를 높이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1순위에서 야간, 주말, 농한기 등 교육 시간의 다양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2순위에서는 생활문화, 생활스포츠 등 취미와 여가 활동 증진 교육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제주지역 주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주지역 주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1순위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가장 높았고, 2순위에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정보제공이 높게 나타남.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교육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프

로그래밍의 개발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기를 부여하는 정책 수립과 지원이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음

- 주민교육 참여를 높이기 위한 개선사항에 대해 남성이고, 직장이 있는 집단은 야간, 주말, 농한기 등 교육기간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집단의 분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V.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교육 지원 활성화 방안 모색

1. FGI 조사 개요

가. FGI 대상 및 기간

- 조사 대상자는 주민교육 관련 마을 단위 및 지역 단위 지원 기관, 마을 및 지역 단위를 아우르며 문화예술, 마을만들기 등 다양한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집단으로 구분하였음
- 제주지역 마을단위 지원 사업 관계자, 지역단위 지원사업 관계자, 마을 교육 관련 분야별 전문가 등 3개 집단, 10명임
- 조사 대상의 특성 및 수집의견 영역에 따라 2020년 7월 7일에서 7월 8일 사이에 진행함

나. FGI 방법 및 내용

- 면접 방법은 마을단위 주민교육 지원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3개의 대상별 특성에 따른 사전 질문지를 마련하고, 공개토론(Open Discussion)을 활용하여 이루어졌음
- 심층 면담 조사 결과 수집된 질적 자료를 내용분석 방법에 따라 분석함. 즉 수집된 의견을 정리하여 제주지역 마을 단위 주민교육 지원 및 활성화 관련 주요 사항들에 대해 코딩(coding) 작업을 실시하였고, 코딩된 내용을 면담 내용에 따라 상위 범주화한 후 이를 다시 하위 범주로 구분함

○ 본 연구를 위한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음

구 분	조사내용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교육의 특성과 참여 현황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주민교육의 의미 ·제주지역 인구구조 특성과 변화에 의한 교육 운영 현황 ·고령사회 진입과 마을의 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 현황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와 장애요인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교육 교육지원 현황 및 실태, 현안과제	·지원기관에서의 교육 지원 현황 및 과제 ·지원기관에서의 교육 프로그램 특성 및 교육 여건 ·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와 과제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 교육 지원의 효과성 제고와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마을단위 주민교육 지원 정책의 기본 특성 ·마을단위 주민교육 지원 정책추진의 장애요인 ·마을단위 주민교육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 방향 ·마을단위 주민교육 지원 정책의 성과와 발전 과제

2. FGI 조사 결과

가.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교육의 변화와 지원정책 여건

□ 사회 환경 변화, 제주지역 특수성 등 여건 고려

○ 제주지역 인구 구조 변화, IT 기술 발전에 따른 학습환경 변화 등의 사회 환경 변화, 마을 내 선주민과 정착 주민 인구 구성비 불균형 및 마을 리더(이장) 역할 확대 등 제주지역 여건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저출산·고령화 심화 현상에 따른 제주 성인 인구의 지속적 증가, 베이비부머 세대인 5060세대 및 고령인구 비중 증대로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여건을 반영하고 변화에 대응하는 주민교육 프로그램 모색

○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 지원을 위해 주민과 지원기관이 함께 계

확하는 주민 참여형 마을단위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가 요구되며, 지역 공동체와 공동체 구성원이 당면한 문제해결로 연계되는 교육 프로그램 설계의 중요성이 강조됨. 이를 통해 주민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로 이어질 수 있음

- 교육 목적이 명확하고 혜택의 주체가 주민인 주민 참여형(주민이 디자인하는) 마을 단위 교육 프로그램 확대
- 최근에 진행되는 마을 단위 교육 프로그램들이 상대적으로 교육 목적과 교육 대상이 불분명하고 주민을 대상화하는 경향으로 주민역량교육이라는 프로그램들이 차별화 없이 실시되고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주민 참여형 마을 단위 프로그램의 도입하거나, 주민 자치센터 위주의 교육 장소에서 마을 단위 마을회관, 경로당, 체험마을 강당, 복합문화공간 등으로 변화되는 사례가 생겨남

나.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교육 지원정책 현황 및 실태, 현안과제

- 마을 단위 주민교육 지원정책 현황 및 실태
- 그 동안 제주에서 마을단위 주민교육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온 행정조직에서 운영하는 제주시 우리동네학습나눔터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간지원조직 및 민간에서 실시하는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교육은 각각 운영 기관의 특성과 방식에 따라 상이한 제공 현황과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고, 저마다의 과제가 도출되었음
- 마을 단위 주민 교육 현안 과제
- 마을 단위 주민 교육영역에서 도출된 일반적인 문제는 마을단위 주민교육이 실제로 필요한 교육인지에 대한 검토, 실시된 교육에 대한 성과 측정 없이 교육이 지원되고 있다는 것임. 기획의 목적과 방향성에 맞는 교육 체계가 아니라 사업에 의해, 그리고 예산에 의해 교육이 지원되고 있어 지원되는 교육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임

- 단순 강의 방식에서 참여 방식으로 변환을 시도하는 한편 교육 제공 가능 인원의 적정규모나 교육 공간에 대해서도 교육 목적과 대상에 따라 융통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주민이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 제공, 강사 재교육을 통한 교육 내용의 질적 향상, 교육 수강이 추후 활동(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 지원체계 마련은 수강자의 교육 참여 및 실천 동기 부여를 이끌어낼 것임
- 교육참여자 집단의 화합을 유도하고 갈등을 관리하는 목적의 교육이 필요함. 마을에 다양성, 차이를 인정하는 문화, 보듬는 문화를 인식하고 인식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의사소통 훈련, 상호존중 훈련, 갈등관리 훈련 차원에서 유의미한 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은 지속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기능들을 활동 속에 녹여내는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함

VI. 논의 및 정책제언

1.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교육 정책 방향

- 제주특별자치도가 향후 마을단위 주민 교육지원의 효과성 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은 크게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교육 지원체제 구축, 주민교육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환경 조성, 주민교육의 질적 향상, 학습 결과의 지역사회 실천 순환과정 마련으로 제시함

1) 마을단위 주민교육 지원체제 구축

- 제주지역 마을단위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유·아동부터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에 이르는 인구로 구성되며, 선주민과 이주민, 여성과 남성, 부모와 자녀, 고학력자와 저학력자,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직장인을 비롯한 농업인·수산업인과 관광업 등 종사자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지닌 구성원들의

집합체임. 즉 마을은 다양한 특성을 지닌 구성원들이 함께 살고 있는 생활공간이자 삶을 일구어가는 생활세계이자 지역공동체임. 그러므로 마을에서의 주민교육은 다양한 대상과 영역, 그리고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이뿐만 아니라 급격한 사회적 변화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삶에 이르기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 근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사회적 여파의 막강함을 체감하였음. 더불어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음.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를 이해하고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그러므로 마을에서의 주민을 위한 교육은 다양한 주민의 특성을 고려하고, 주민의 요구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변화에 따라 주민에게 필요한 교육을 모두 포함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마을단위 주민 요구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운영 주체와 예산 및 공간의 확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운영 성과 관리 및 평가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종합 지원체제의 구축이 우선 되어야 할 것임

〈표 VI-2〉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교육 지원체제(안)

구 분	세부사항	내용
교육공간 (잠재)	중규모(주민센터)	·제주시 지역 : 22개 읍면동 주민센터 ·서귀포시지역 : 11개 읍면동 주민센터
	소규모(마을회관, 노인회관, 새마을문고)	·제주시 읍면지역 : 338개소 ·서귀포시 읍면지역 : 250개소
운영인력	전담인력	·교육기획자(평생교육사) 배치(주민센터 당 1인/총 43명) - 프로그램 기획 운영 - 유관기관 연계, 마을 주민과 마을 주민교육 콘텐츠 그룹 매개 활동 전개
	주민 활동가	·100여 명의 마을활동가 활용/월00시간
전담인력 역할	마을특화 프로그램 제공	·요구조사(교육요구 수렴) ·지역 자원발굴 및 연계 ·지역 특화 프로그램 기획 운영 ·지역문제 해결형 프로그램 기획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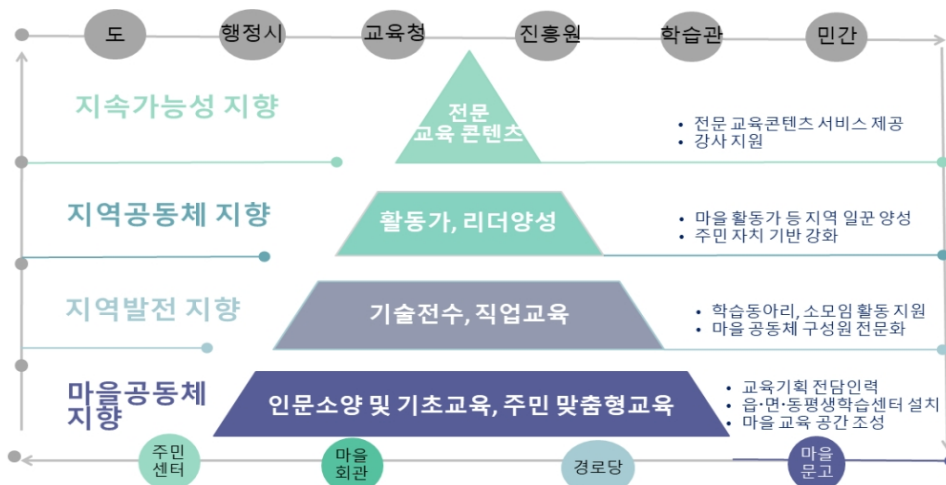
	생애주기 프로그램 제공	·지역 주민의 생애주기 프로그램 기획, 운영 및 관리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소모임 활동 지원
	유관기관 연계 프로그램	·도내 중간지원조직과 연계 협력 ·지역문제 해결형 프로그램 공동 기획 운영
주민 활동가	마을자원 발굴 강사 지원	·마을 공간 및 자원 발굴 ·인력(강사, 교육 콘텐츠 그룹) 플랫폼 운영/지원 ·강사 발굴 및 관리, 강사-프로그램 매칭 등
운영체제	주민자치연계형	평생교육과(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직영 운영
담당부서	도 평생교육과, 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기대효과	·일상에서의 시민교육(평생교육) 활성화 ·문제해결형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다각화·다양화된 마을단위 문제 개선 ·마을 활동가, 지역 활동가, 지역 지도자를 양성하는 토양으로서의 마을단위 주민 교육프로그램 위상 강화	

2) 마을단위 주민교육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환경 조성

- 마을에서 주민의 교육 참여 활성화를 도모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은 주민 교육 공간의 편의성 등을 고려한 교육환경의 조성임. 앞서 마을 주민 대상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주로 마을회와 연관된 교육과 마을회관에서 실시된 교육 참여가 가장 많았으며, 향후에도 교육실시 장소로 집과 가까운 곳인 마을회관을 1순위로 희망함. 이와 같이 마을회관을 비롯하여 마을 내에서 주민들의 생활공간과 가장 가까운 근거리에 학습공간이 위치할 수 있게 하여 주민의 교육 참여의 접근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중요함
- 마을 주민교육 공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한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함. 주민들이 참여하는 교육과정의 특성과 교육내용에 따라 강의 및 실습, 발표와 토론 등의 활동을 원활하게 전개할 수 있는 교육 공간인지, 강사 및 학습자 간의 시청각 요소가 최적화되어 있는지 여부 등 주민교육 공간의 확충 및 개선이 필요함
- 또한 마을단위 주민교육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정보제공이 체계 마련이 요구됨. 대부분 마을 교육 참여 경로가 이웃의 권유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바,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확보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교육 참여 동기를 유발할 수 있음.

3) 마을단위 주민교육의 질적 향상

- 마을단위 주민교육의 효과성 증진은 주민교육의 제공 범위와 내용의 수준에 따라 달라짐. 이를 위해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의 개발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기를 부여하는 정책 수립과 지원이 요구됨. 마을단위의 주민교육은 개인 학습자로서의 주민이 희망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뿐만 아니라 주민이 마을 구성원으로서 갖춰야할 역량 갖추기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또한 마을 구성원인 주민들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여 살아가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 즉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을 단위의 주민교육 참여자 중 농업과 임업 관계자가 교육 참여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마을에는 농업과 임업 종사자를 포함하여 자영업 및 서비스업을 비롯하여 직장인, 전업주부도 마을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음. 그러므로 읍·면지역이라 해서 농촌지역으로 규정하여 농업 관련 교육만을 제공하는데 그쳐서는 안 될 것임. 또 마을단위 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단발성, 일회성 교육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민교육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대한 목표와 내용 변화를 통해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이 요구됨



[그림 VI-1]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교육과정 운영체계

4) 학습결과와 지역사회 실천 순환과정 마련

- 주민의 성장은 개인을 넘어서 속해 있는 가족과 집단, 공동체의 성장으로 이어짐. 즉 마을과 지역사회의 성장·발전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성취에서 공동체의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활동 참여 계기 마련이 제공되어야 함
- 이를 위해 주민 요구를 반영한 교육 지원뿐만 아니라 주민과 지원기관이 함께 계획하는 주민 참여형 마을단위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가 요구되며, 지역 공동체와 공동체 구성원이 당면한 문제해결로 연계되는 교육 프로그램 설계의 중요성이 강조됨.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민 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로 이어질 수 있음
- 마을단위 주민교육은 교육 참여 주민들이 지식 습득 과정에 머물기 보다는 배움의 결과가 나눔의 실천을 통해 내재화하여 거듭 성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지역사회문제 해결 노력 전개로 이어질 수 있는 촉진 활동의 지원이 요구됨

2.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교육 지원 정책 과제

- 제주지역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적 역량 갖추기와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단위 주민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해 제주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해나가는 사회적 노력이 중요해짐. 이를 위한 마을단위 주민교육 지원 정책의 새로운 방향 설정에 따른 향후 정책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표 VI-4〉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교육 지원 정책 과제(안)

구 분	주요 과제	비고
마을단위 주민교육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 마을단위 모든 주민대상으로의 교육 지원 접근	
	· 마을단위 주민교육 지원 사업 간의 연계와 행정 부서 간의 역할 정립 및 제고	
	·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교육 지원체제 구축	
	· 마을 주민교육 지원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 필요	
주민교육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 환경 조성	· 주민 교육 참여 확대를 위한 종합 정보 제공	
	·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마을 교육 공간 조성 및 배치	
	· 마을단위 주민 교육 시설 확충 및 학습 환경 조성	
	· 교육과정 특성 및 내용, 방법에 따른 교육 기자재 확충 및 개선	
마을단위 주민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단위 주민의 교육지원 방향성 정립 필요	
	· 주민의 생애주기별 성장 지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이해 및 자치역량 강화, 리더십 훈련 과정 마련	
	· 학습과 실천의 경험을 제공하는 학습동아리 활동 및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지원	
주민의 학습-실천-성장의 선순환과정 중심의 마을공동체 형성	· 삶과 학습 현장으로서의 마을의 복원과 마을공동체 형성 지향	
	· 마을 주민교육의 실질적 주체로서의 마을회의 기능 강화	
	· 마을 주민교육 지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 마을 주민의 학습결과 내재화 중심으로의 관점 전환	
	· 마을 주민교육 범위·방법·내용의 확장 및 프로그램의 전문화 지원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가. 연구의 필요성	3
나. 연구의 목적	5
2. 연구 내용 및 방법	5
가. 연구의 내용	5
나. 연구의 방법	6
II. 국내외 지역주민 교육지원 정책	9
1. 외국 지역주민 교육지원 정책	11
가. 독일의 시민대학	11
나. 일본의 공민관	14
다. 호주의 지역성인교육센터	17
2. 국내 지역주민 교육지원 정책	20
가.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동네배움터	20
나.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25
다. 창원시 평생교육센터(사회교육센터)	28
다. 부천시 동 단위 평생학습센터 '학습반디'	32
3. 요약 및 시사점	36
III. 제주지역 마을 단위 주민교육 현황 및 지원정책 분석	43
1. 제주지역사회 변천과정	45
가. 제주관광과 도시개발	45
나. 농어촌 지역개발	46
다. 제주마을의 변화특성	46

2. 제주지역 마을단위 교육시설 현황	52
가. 제주지역 평생교육 및 학습기관	52
나. 마을단위 평생학습 기능의 공공 공간	55
3.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교육 현황과 지원정책	56
가. 읍·면·동(마을단위) 평생학습센터	56
나.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60
다. 마을(도·농)단위 주민역량강화사업	65
라.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	76
마. 사회적경제 주체역량 발굴 및 육성사업	80
바. 지역균형발전사업 주체 역량강화사업	85
사. 농업분야 농업인역량강화사업	95
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사업	103
4. 요약 및 시사점	105
IV.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의 학습 요구 분석	111
1. 조사 개요	113
가. 조사 설계 및 방법	113
나. 조사 내용	113
다. 설문조사 대상자 특성	114
2. 조사 결과	117
가. 교육 미참여 이유 및 개선	117
나. 교육경험 및 만족도	119
다. 주민교육 수요	131
라. 응답자 일반적 특성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138
3. 요약 및 시사점	140
V.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교육 지원 활성화 방안 모색	145

1. FGI 조사 개요	147
가. FGI 대상 및 기간	147
나. FGI 방법 및 내용	148
2. FGI 조사 결과	150
가.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교육의 변화와 지원정책 여건	150
나.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교육 지원정책 현황 및 실태, 현안과제 ..	154
다.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교육 지원 체제 구축 및 활성화 방안 모색 ...	165
3. 요약 및 시사점	167
VI. 논의 및 정책 제언	173
1. 요약 및 논의	175
2. 정책 제언	186
가.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교육 정책방향	187
나.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교육 지원 정책 과제	190
참고문헌	211
부록(설문지)	217

<표 차례>

<표 Ⅱ-1> 공민관 시설 수 및 이용자 수	16
<표 Ⅱ-2> 공민관의 학급·강좌 수강자 수(2004년도)	17
<표 Ⅱ-3> 서울시 동네배움터 연도별 운영 현황	23
<표 Ⅱ-4> 서울시 자치구별 동네배움터 연도별 운영 현황	24
<표 Ⅱ-5> 이천시 평생학습조례에 규정된 주민자치학습센터 연계 조항	27
<표 Ⅱ-6> 창원시 평생교육센터 및 작은도서관 운영 규정	32
<표 Ⅱ-7> 부천시 학습반디 지정 및 운영 현황	34
<표 Ⅱ-8> 서울특별시·이천시·창원시·부천시 주민교육 지원체제 현황 비교	37
<표 Ⅲ-1>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구역 현황	47
<표 Ⅲ-2> 제주시·서귀포시 마을 현황	47
<표 Ⅲ-3> 제주특별자치도 인구현황	48
<표 Ⅲ-4> 연도별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및 고령인구 추이(2012-2019)	49
<표 Ⅲ-5> 제주지역 전입·전출 및 순이동 인구 현황(2009-2018)	50
<표 Ⅲ-6> 평생교육법령에 의한 평생교육 기관 현황	53
<표 Ⅲ-7> 그 밖의 다른 평생교육법령에 의한 평생교육 기관 현황	54
<표 Ⅲ-8> 마을 단위 평생학습 활용가능 공간 현황	55
<표 Ⅲ-9> 2016년 제주지역 행복학습센터 운영 현황	56
<표 Ⅲ-10> 2018년 제주시 '우리동네 학습나눔터' 운영 현황	57
<표 Ⅲ-11> 2019년 제주시 '우리동네 학습나눔터' 운영 현황	57
<표 Ⅲ-12> 2019년 제주시 '우리동네 학습나눔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	58
<표 Ⅲ-13> 2020년 제주시 '우리동네 학습나눔터' 운영 현황	58
<표 Ⅲ-14> 2018~9년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마을배움터' 운영 현황	59

<표 Ⅲ-15> 2019년 '마을배움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	60
<표 Ⅲ-16> 연동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현황(2020년 상반기)	61
<표 Ⅲ-17> 한림읍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현황(2020)	62
<표 Ⅲ-18> 동홍동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현황(2020)	63
<표 Ⅲ-19> 남원읍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현황(2020)	64
<표 Ⅲ-20> 2016년 주민교육 프로그램 현황	65
<표 Ⅲ-21> 2017년 주민교육 프로그램 현황	67
<표 Ⅲ-22> 2018년 혼디모영 주민주도학습 운영 현황	69
<표 Ⅲ-23> 2019년 혼디모영 마을공동체 학습 운영 현황	71
<표 Ⅲ-24> 2019 제주시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세부교육내용	73
<표 Ⅲ-25> 2020 제주시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세부교육내용	73
<표 Ⅲ-26> 제주시 농촌현장포럼 운영 현황	74
<표 Ⅲ-27> 서귀포시 농촌현장포럼 운영 현황	75
<표 Ⅲ-28> 서귀포시 매력있는 마을만들기 교실 운영 현황	76
<표 Ⅲ-29> 도시재생대학 과정 및 운영현황	76
<표 Ⅲ-30> 도시재생아카데미 운영현황	77
<표 Ⅲ-31> 도시재생뉴딜전문가 및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78
<표 Ⅲ-32> 도시재생뉴딜사업 주민교육프로그램 현황	79
<표 Ⅲ-33> 커뮤니티비즈니스학교 운영현황	81
<표 Ⅲ-34> 마을공동체지원사업 단계별 교육 운영현황	82
<표 Ⅲ-35> 마을기업 설립을 위한 신규 교육 운영현황	83
<표 Ⅲ-36> 마을기업 설립을 위한 전문 교육 운영현황	83
<표 Ⅲ-37> 마을기업 단계별 교육 운영 현황	84
<표 Ⅲ-38> 마을기업 교육운영 현황(2018~2020)	85

<표 Ⅲ-39> 지역균형발전사업 강사지원 실적(2020.1.2.~6.30)	87
<표 Ⅲ-40> 지역균형발전사업 강사매칭플랫폼 강사지원 현황(2020.1.2.~6.30) ..	87
<표 Ⅲ-41> 지역균형발전사업 제주문화중개소 단기 프로그램 운영현황(2019) ..	90
<표 Ⅲ-42> 제주문화중개소 장기, 동호회, 특강 프로그램 운영현황(2019~2020) ..	92
<표 Ⅲ-43> 지역균형발전사업 제주문화중개소 운영실적(2019~2020) ..	94
<표 Ⅲ-44> 2019년 기술지원조정과 농업인전문교육 운영계획	95
<표 Ⅲ-45> 2019년 제주농업기술센터 농업인전문교육 운영계획	97
<표 Ⅲ-46> 2019년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농업인전문교육 운영계획	99
<표 Ⅲ-47> 2019년 동부농업기술센터 농업인전문교육 운영계획	101
<표 Ⅲ-48> 2019년 서부농업기술센터 농업인전문교육 운영계획	102
<표 Ⅲ-49> 2019년 농업분야 농업인전문교육 운영계획	103
<표 Ⅲ-50> 농촌체험휴양마을 리더 및 사무장 역량교육 운영 현황 ...	104
<표 IV-1> 설문조사 내용	113
<표 IV-2>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15
<표 IV-3> 응답자의 주민 참여에 관한 일반적 특성	117
<표 IV-4> 주민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118
<표 IV-5> 앞으로 주민 교육에 참여 의향 이유	119
<표 IV-6> 마을단위 주민교육 중 수강한 프로그램	120
<표 IV-7> 참여한 교육이 주는 도움	121
<표 IV-8> 교육실시 장소	122
<표 IV-9> 주민교육 참여 경로	123
<표 IV-10> 주민교육 주관 단체별 실시 교육 참여 여부	124
<표 IV-11> 가장 오래 이용한 주민교육 주관단체의 교육	125
<표 IV-12> 가장 오래 다닌 이유	126

<표 IV-13> 가장 불편한 점	127
<표 IV-14> 성차별, 성희롱 경험 유무	127
<표 IV-15> 주민교육 참여 교육 분야	128
<표 IV-16> 참여 교육 분야별 도움정도	129
<표 IV-17> 향후 주민교육 운영방법에 대한 대안 선택	132
<표 IV-18> 주민 교육 프로그램 내용 필요성 평가	133
<표 IV-19> 학교교육 자원봉사 참여 및 아동·청소년, 청년 등 다른 세대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 의 필요성	134
<표 IV-20> 여성 자립과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	135
<표 IV-21> 주민의 교육 참여를 높이기 위해 개선할 점	136
<표 IV-22> 제주지역 주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137
<표 IV-23> 응답자 일반적 특성과 주민교육에 관한 특성 간 분포 차이 분석 결과 요약	138
<표 V-1> 관계자 심층 면담 대상 및 일정	148
<표 V-2> 심층 면담 조사 내용	149
<표 VI-1> 마을 주민교육 지원사업 관련 운영 현황	192
<표 VI-2>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교육 지원체제(안)	193
<표 VI-3> 부천시 평생학습 기본 조례의 동 평생학습센터 반영 내용	195
<표 VI-4>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교육 지원 정책 과제(안)	209

<그림 차례>

[그림 I -1] 연구 수행 절차	8
[그림 II-1] 독일 시민대학 교육과정별 참여 현황	13
[그림 II-2] 독일 시민대학 연령대별 참여 현황	13
[그림 II-3] 독일 시민대학 운영 주체별 예산 부담 현황	14
[그림 II-4] 서울특별시 '동네배움터' 연도별 설치 현황	21
[그림 II-5] 서울특별시 '동네배움터' 사업추진 모형	22
[그림 II-6] 2018년 이천시 평생학습 중심의 주민교육 지원체계	26
[그림 II-7] 부천시 36개동 주민센터 프로그램 영역 변화(2018)	35
[그림 III-1] 제주특별자치도 연도별 인구 및 인구증가율(2012-2019) ...	48
[그림 III-2] 행정시별 유소년 인구, 생산가능 인구, 고령 인구 비율(2019) ...	50
[그림 III-3] 제주지역 전입·전출 및 순이동 변화추이(2010-2019년)	51
[그림 III-4] 제주지역 순이동 인구 증가율 변화추이(2010-2019년)	51
[그림 III-5] 2019년 기준 읍·면·동별 인구소멸 위험지수	52
[그림 III-6]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주민자치센터	60
[그림 III-7] 제주지역균형발전센터의 강사지원시스템	85
[그림 III-8] 제주지역균형발전센터의 강사 매칭 플랫폼	86
[그림 III-9] 제주문화중개소	89
[그림 III-10] 제주문화중개소 단기프로그램	91
[그림 III-11] 제주문화중개소 장기프로그램과 특강 및 페스티벌	94
[그림 IV-1] 주민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118
[그림 IV-2] 앞으로 주민 교육에 참여 의향 이유	119
[그림 IV-3] 참여한 교육이 주는 도움	121

[그림 IV-4] 교육실시 장소	122
[그림 IV-5] 주민교육 참여 경로	123
[그림 IV-6] 주민교육 주관 단체별 실시 교육 참여 여부	124
[그림 IV-7] 가장 오래 다닌 주민교육 주관단체의 교육	125
[그림 IV-8] 가장 오래 다닌 이유	126
[그림 IV-9] 가장 불편한 점	127
[그림 IV-10] 주민교육 참여 교육 분야	129
[그림 IV-11] 참여 교육 분야별 도움정도	130
[그림 IV-12] 일(직업) 외에 시간 활용	130
[그림 IV-13] 코로나19 종료 후 주민교육 프로그램 제공시 참여 여부	131
[그림 IV-14] 코로나19 종료 후 주민교육 적합 방법	132
[그림 IV-15] 향후 주민교육 운영방법에 대한 대안 선택	132
[그림 IV-16] 주민 교육 프로그램 내용 필요성 평가	133
[그림 IV-17] 여성의 자립과 역량향상을 위한 교육 참여 경험 여부 ...	135
[그림 IV-18] 여성 자립과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	135
[그림 IV-19] 주민의 교육참여를 높이기 위해 개선할 점	136
[그림 IV-20] 제주지역 주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137
[그림 VI-1]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교육과정 운영체계	201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I.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 ☐ 주민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단위 주민교육 지원체제 혁신 필요
- 과학기술의 발전은 저출산고령화를 비롯한 많은 사회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음. 더구나 세계화 현상은 제주사회 전반에 걸쳐 난제들을 양산하고 있으며, 새로운 도전의 시대에 맞닥뜨린 제주사회의 삶의 형태를 바꾸어 놓았음.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세상을 맞이하여 우리네 삶의 공간인 마을도 분주하기는 마찬가지임. 그리고 도외지역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늘어나면서 오랜 세월을 함께 삶을 나누며 살아 온 마을에도 구성원이 다양해졌고, 이로 인해 생활문화의 차이로 인한 갈등 양상도 나타나고 있음
- 급격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 등장한 사회현상과 문제들은 국가적 과제에 그치지 않고, 곧 마을의 과제이기도 한 시대임. 이러한 배경에서 근래 ‘마을’에 주목하여 마을만들기사업을 비롯한 마을기업·협동조합, 균형발전사업 등 다양한 정책이 투입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업단위별로 주민 대상의 정책별 교육 서비스 제공에 그치고 있어, 마을의 지속적 성장과 주민의 성장을 위한 단계별 전문교육과정은 부재한 여건임. 이에 따라 제주지역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적 역량 갖추기와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단위 주민교육 지원체제의 혁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 ‘마을’에서 배우고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교육환경 조성 필요
- 마을은 개인과 가족, 그리고 지역의 크고 작은 모임과 집단이 만나는 삶의 공간임. 과거 근대사회에서의 ‘마을’의 의미보다 희석되었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새로운 현상으로 인해 다시금 지역 중심, 나아가 살고 있는 곳인 ‘마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강대중 외, 2020)

- 제주지역은 초·중고 및 대학뿐만 아니라 595개 평생교육기관도 제주시에 66.6%가 편중되어 있어, 서귀포시 지역 33.4%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 그리고 평생교육 기관 및 시설이 동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읍면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은 주민자치센터가 주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나마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집중 배치되어 있어 리 단위 마을에서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 기관은 매우 미비한 상태임 (홍숙화·김민호·이소연, 2019)
- 생활권 단위를 고려하면, ‘마을’ 이라함은 쉽게 교통수단 없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의 범위로 설정할 수 있음. 이를 제주 지역에서는 동 단위와 리 단위로 생활권 범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임. 거주지 중심의 ‘마을’ 안에서 마을 주민이 언제든지 원하는 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배운 것을 마을에서 펼치고 나눌 수 있는 교육환경의 조성은 주민의 개인적 성장뿐만 아니라 주민 간 관계 맺기의 기회를 통해 마을공동체 형성의 토대가 될 것임
- 주민이 주인이 되는 마을교육 실현을 위한 다양한 교육콘텐츠의 발굴과 방법 모색 필요
- 최근 제주지역에서도 마을에서 주민을 위해 진행되는 교육이 다양해지고 있음.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문화예술강좌를 비롯하여 주민자치위원 교육이, 마을에서는 마을리더 역량강화교육이, 그리고 영농 기술교육과 경제교육 등 다양한 주체들이 주민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이러한 교육 운영 방식을 들여다 보면, 대부분 집합교육을 중심으로 강사에 의한 주입식 교육이 진행되고 있음. 이에 따라 마을주민은 교육의 주체가 아니라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서 교육에 ‘동원’ 되는 수동적 존재로 자리매김되고 있음
- 마을에서의 주민교육은 주민이 주체가 되는 교육내용과 방법의 적용을 통해 주민 상호간의 학습이 일어나고, 스스로 필요한 것을 찾아 배우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재정립되어야 함. 이를 위해 무엇보다 마을에서 주민교육을 왜 하는가와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함. 우선 주민이 마을의 주인으로서 갖춰야 할 마을의 역사와 문화 이해, 마을의 현안과 의제 발굴 등을 비롯하여 동 시대를 살아가면서 함께 겪는 삶의 과제들을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함

- 마을단위 주민교육은 외부로부터의 공급에 의한 교육 운영을 넘어서 다양한 교육콘텐츠의 발굴과 교육과정의 체계화를 통해 주민이 선별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발적 학습동기를 유발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의 성장 단계에 따라 학습자의 역할을 별도로 부여하는 교육 방법의 적용이 요구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제주지역 마을 단위 주민교육의 현황에 비춰 적용 방안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할 것임

나.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에서는 ‘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주민의 성장과 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교육 지원 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주민교육의 유형과 운영의 실재를 비롯한 현황을 분석하고, 주민교육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고 주민교육 참여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특히 국내외 주민교육 지원 환경 조성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교육 지원체제의 혁신과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주지역의 공동 과제와 역할 수행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 결과는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교육의 정책 지원과 실행의 성과를 높이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마을에서의 교육 참여를 통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주체적 역량을 기르는데 정책적 방향과 역할을 제시할 수 있음. 이에 근거하여 향후 마을단위 주민교육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 개발 및 마을단위 주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의 내용

- ☐ 제주 마을단위 주민을 위한 교육지원 실태 분석
- 제주지역 내 마을단위 주민의 현황과 실태 분석을 위해 다양한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마을단위 주민의 특성과 교육 필요 전반을 파악하고, 관련 주요 이슈 및 정책적 대응과 방향을 모색함

□ 국내외 지역주민 교육지원 정책 분석

- 국내외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지원 정책의 환경과 시행과정을 분석하고, 대내외 여건 변화와 연계하여 지역 주민의 성장 과 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지원 체제 구축의 방향성을 검토함
- 제주지역 마을단위의 교육지원 인프라 및 지원 실태 현황 분석을 기초로 제주지역 마을단위별 주민 참여 수요의 변화 대응 여건을 분석함

□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의 교육지원 요구 분석

-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의 교육지원 실태 파악을 위하여 지원 담당 기관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지원 현황 및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이용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에 대한 당사자의 교육 참여 현황 및 요구 조사를 실시 및 분석을 통하여 마을단위 주민의 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함

□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을 위한 교육지원 활성화 방안

- 전문가 초점집단면접(FGI) 질문을 통해 마을단위 주민을 위한 교육지원의 의미와 참여 주민의 특성, 교육에 대한 요구 등 교육 운영의 기본 성격과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프로그램 운영의 장애요인 등을 분석하여 마을단위 주민의 교육지원 효과성 제고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

□ 정책 대안 및 추진체제 구축 방안 제안

-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의 실태분석, 교육지원 정책의 환경 및 현황 분석, 교육지원 프로그램 참여 주민 및 관계자 요구와 조사, 그리고 교육지원 활성화 방안 등을 통한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의 성장과 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지원체제 구축 방안을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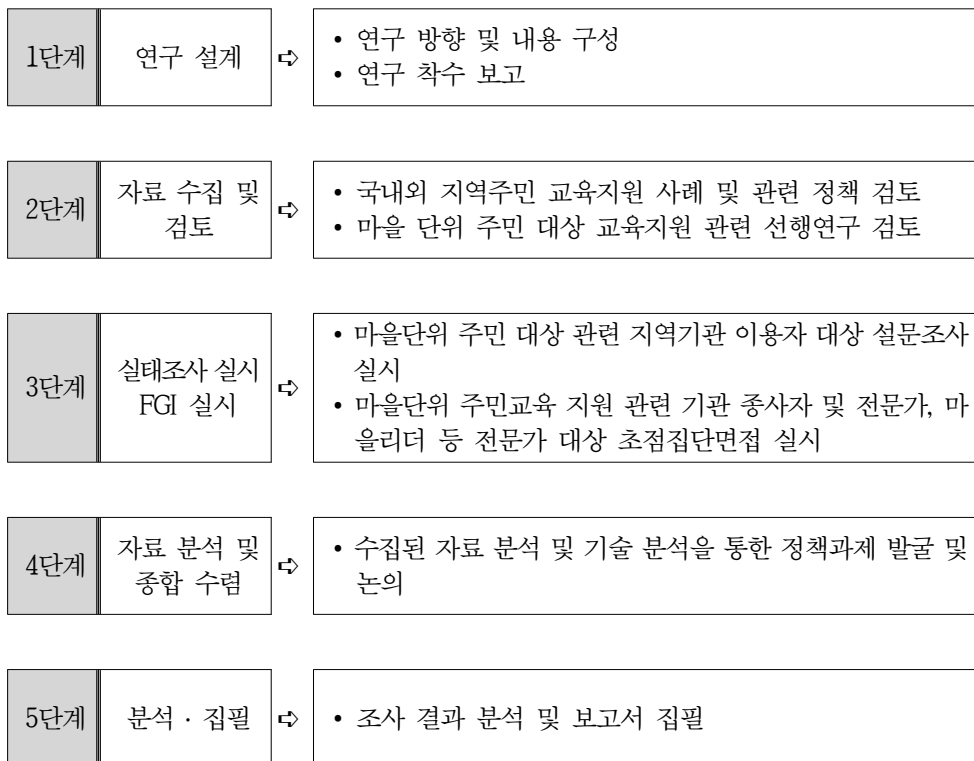
나. 연구 방법

□ 문헌자료 수집 및 분석

- 연구 주제와 관련한 포괄적인 선행연구 자료 수집을 위해 국내외 연구보고서, 학술지, 정책자료, 법령자료, 일반서적, 개별 기관 및 프로그램, 인터넷 자료 등 넓은 범위로 수집함
- 마을단위 주민교육에 대한 지원 정책 현황 및 추진체제 등과 관련된 각종 정책 자료 및 보고서, 마을단위 주민을 위한 교육지원 관련 국내외 사례 및 문헌 조사를 실시함
- 통계 분석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통계(제주특별자치도, 2019), 제주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보고서(제주특별자치도, 2019) 등을 분석하여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의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함
- 설문조사
-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 대상의 교육지원 현황과 실태, 참여 수요와 활성화를 위한 요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함
- 대상 :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 대상 총 300명
- 주요 조사 내용 : 마을단위 주민 대상 교육 참여 여부와 불참 이유, 주민 교육 참여 기간, 참여교육의 종류와 장소, 참여 경로, 참여 이유, 참여기관의 종류, 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 참여기관 시설의 불편사항, 참여 교육 분야 및 교육별 도움 정도, 코로나로 인한 변화 정도, 주민교육 방법에 대한 만족도, 새로운 교육 수요, 여성교육의 추가 내용, 주민교육 개선 방안 등
- 전문가 회의
-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교육 지원 환경 및 정책 현황실태, 교육지원 효과성 제고와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지역 관계기관 및 분야별 전문가, 그리고 마을리더 등 10명이 참여하는 전문가 회의를 집단 심층면담(Focus Group Interview) 으로 개최하였음
- 심층면담시 사전에 준비한 질문지를 제시하여, 면담 참여 대상자들이 연구과제 전반에 대한 상황 파악을 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분석하여 자료화함

□ 분석 및 종합

- 수집된 자료는 자료수집원이 문헌분석, 관계자 심층면담에 대해 각각 기술 분석 실시
- 마을단위 주민교육 지원 활성화 방안 등을 통한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의 성장 및 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함
- 기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마을단위 주민교육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주민 교육지원의 활성화 방안 및 효과적인 교육지원체계 구축 방안 모색
-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 연구자의 편견이 개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헌 검토-전문가 심층면담 및 협의를 보완적 수단으로 적용하는 삼각측정법을 활용하여 타당도 및 신뢰도를 확보함
- 이상의 연구 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음



[그림 I -1] 연구 수행 절차



II. 외국 및 국내 지역주민 교육 정책

1. **외국의 지역주민 교육지원 정책**
2. **국내의 지역주민 교육지원 정책**
3. **요약 및 시사점**

II. 국내외 지역주민 교육지원 정책

1. 외국의 지역주민 교육지원 정책

가. 독일의 시민대학

□ 시민대학의 설립 배경

- 독일의 시민대학은 성인교육 100년의 역사를 거쳐 20세기 초반부터 교육제도 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 성인교육은 다른 교육영역과 다르게 시민성 강화를 위한 교육적 노력으로 이론화하고자 하는 시도 속에 출발함
- 바이마르(Weimarer) 시기 (1919-1933)에 국가의 민주화를 위한 시민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대학(Volkshochschule)설립과 민주주의의 이론을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어 바이마르(Weimarer)시기에 많은 시민대학을 설립하게 되었음. 그리고 이 시기의 시민대학은 1945년 이후에도 이어져 독일 성인교육의 대표적인 시설로서 독일 성인교육시설의 원형으로 간주됨
- 독일 시민대학 설립은 북유럽, 특히 덴마크의 시민대학 모델에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이론적으로는 많은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발전을 해 왔음. 그리고 1871년 독일 제국의 탄생 후부터 바이마르(Weimarer)공화국의 탄생 시기까지 독일의 시민대학제도 설립에 영향을 미친 활동을 크게 세 분야로 나눌 수 있음
- 첫 번째는 시민단체협회(Vereinen)와 시민단체협의회(Gesellschaften)의 공개강좌조직을 통한 것이고 두 번째는 영국의 대학확장운동(1893년)을 통해 영향을 받은 것이며, 세 번째는 1844년부터 설립된 덴마크의 시민대학(Folkhøjskole)을 통한 영향임. 이를 통해 독일에서 “시민대학”(Volkshochschule)이라는 명칭을 처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음
- 1960년대에 새로운 시민대학의 모델을 정립하기 위하여 연구한 학자들은 1965년에 시민대학의 목적을 세 가지로 설정하였음. 즉 시민대학은 학습자들에게 첫째, 학습을 위한 도움을 준다. 둘째, 오리엔테이션을 위한 도움을

준다. 셋째,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라고 제시하였음

□ 시민대학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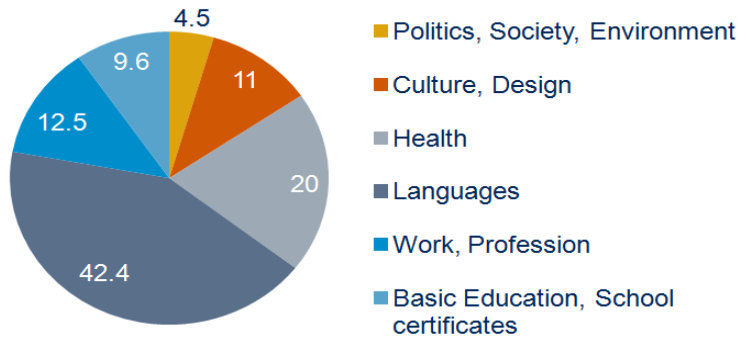
- 독일의 시민대학은 정치체제에 따라 시기적으로 서로 다른 형태로 발전을 함. 독일시민대학의 역사는 독일의 참사와 단절 그리고 재건시기 등의 시기와 함께 함. 그리고 시민대학은 100년의 긴 역사와 함께 시민대학 자체로서의 고유한 정체감을 가지고 성인교육의 모델시설로서 시민들의 발전과 국가 발전 및 개개인의 능력개발, 세계관 정립, 국제 감각 확립, 그리고 교육을 통한 국가의 민주화 실현 및 국민들의 자기실현을 위한 교육을 담당함. 이를 통해 독일의 시민대학은 시민교육을 위한 시설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음
- 독일 시민대학의 특성 1) 지역사회 공동체 지원과 함께 하는 성인교육 제공, 2) 독일에서의 최대 성인교육 제공 기관, 3) 900개가 넘는 시민대학과 3,000개의 지역 현장 사무소, 4) 연간 약 60만 명의 성인교육 강사의 참여, 5) 연간 600만명이 넘는 교육과정 참여자를 들 수 있음
- 독일의 시민대학은 1990년 10월 3일 독일 통일 후 16개 주의 크고 작은 도시에 시민대학(Volkshochschule)이 존재했으며 1994년 당시 시민대학(Volkshochschule)은 1031개나 되었음. 독일 성인교육의 제도적 조직은 너무 다양하나 시민대학(Volkshochschule)을 성인교육 계속교육의 중심조직체로 보는 견해가 많음. 국가가 인정하는 공적인 성인교육기관은 1990년대 후반 기준으로 공장, 상공회의소, 수공업협회, 노동조합 등으로 약 2,000여개가 넘으며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성인교육기관은 함부르크(Hamburg), 베를린(Berlin), 라이프찌히(Leipzig), 프랑크푸르트(Frankfurt) 등과 같은 대도시에 약 300-600개 정도 존재함

□ 시민대학 현황

- 독일 내 시민대학은 누구나 1개 이상 이용하고 있으며, 2015년 기준 매년 6백만명이 참여함. 시민대학에는 60만개 이상의 강좌가 개설되고 있으며, 900

개 이상 시민대학과 3,000개 지역현장 학습소가 운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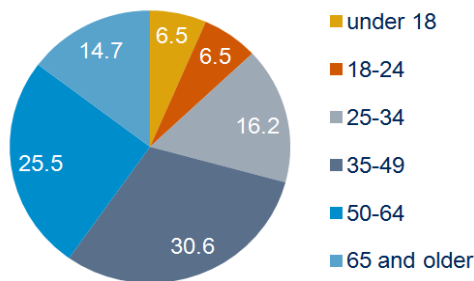
- 시민대학의 테마별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교육과정 중 언어가 42.4%, 건강 20%, 직업훈련과정 12.5%, 문화와 디자인 11%, 정치 4.5%, 기초교육 및 학력인정과정 9.6%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II-1] 독일 시민대학 교육과정별 참여 현황

* 출처 : DVV(독일성인교육협회) 소개 자료

- 시민대학 참여 연령대별 비율은 35-49세가 30.6%로 가장 많이 차지함. 그 다음 50-64세가 25.5%, 25-34세가 16.2%, 65세 이상이 14.7%를 차지함. 18-24세와 18세 이하도 각각 6.5%가 참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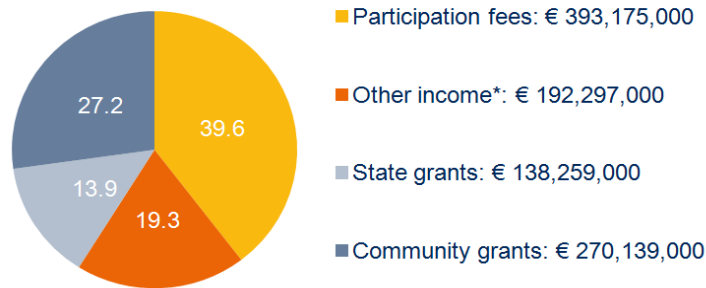


[그림 II-2] 독일 시민대학 연령대별 참여 현황

* 출처 : DVV(독일성인교육협회) 소개 자료

- 시민대학 운영 주체의 특성을 살펴보면, 기초자치정부, 사단법인, 협회 등으로 나타나며, 시민대학의 운영 예산은 참여 학습자의 수강료가 39.6%, 기초자치

정부 27.2%, 주정부 19.3%, 연방 및 EU 지원예산 13.9%로 나누어 볼 수 있음



[그림 II-3] 독일 시민대학 운영 주체별 예산 분담 현황

* 출처 : DWV(독일성인교육협회) 소개 자료

- 그리고 독일시민대학의 연합체인 독인시민대학협회의 주 파트너는 DIE(독일 성인교육연구소), 유네스코, 유럽성인교육협회 등을 들 수 있음

나. 일본의 공민관

□ 공민관의 설립 배경

-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이전의 사회교육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주민자치를 사회교육이 지향해야 할 이념으로 하는 사회교육체제가 자리매김 되었고, 공민관이 중심이 되었음
- 공민관은 1946년 문부성차관통첩 ‘공민관의 설치 운영에 관해’를 통해 공민관 설치구성이 발표된 이후 만들어지기 시작했지만 ‘사회교육법’으로 인해 그 설치의 법적 근거를 얻게 되었음. 일본 전국에 하나둘씩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일본의 사회교육시설로, 지역거점의 하나로서 기능하게 됨
- 사회교육법에서 공민관은 시정촌이 설치하는 것으로, 그 목적(제 20조)을 ‘시정촌 그 외 일정구역내의 주민을 위해 실제 생활에 맞는 교육, 학습 및 문화에 관한 각종 사업을 행함으로써 주민의 교양의 향상, 건강의 증진, 정서의 순화를 도모하고 생활문화의 진흥, 사회복지의 증진

에 기여하는 것' 이라고 하였음(김윤정, 2008)

- 1946년에 제정된 일본 헌법은 제26조 제1항에 교육을 받을 권리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로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헌법규정을 기반으로 1947년에는 교육기본법이 제정되어 제7조(사회교육)에 '가정교육 및 근로의 장소 그 외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에 의해 장려되지 않으면 안된다' 고 하면서, 제2항에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도서관, 박물관, 공민관 등 시설의 설치, 학교시설의 이용 등 그 외 적당한 방법에 의해 교육 목적의 실현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고 있음. 일본의 사회교육법이 1949년에 제정됨으로써 일본의 평생교육추진체제가 정비되었음.

□ 공민관의 특성

- 공민관은 사회교육법 제3조에서와 같이 실제 생활에 입각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다니기 편한 생활권(중학교 학구)에 위치하는 시설로 구성되었으며, 배움의 장이 충분하지 않았던 시대에 공민관은 근로 청년들과 주부 등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학습하는 '장' 이 되었음
- 일본의 고도경제성장 이후,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던 시대에 환경문제에서부터 고부갈등, 빈곤에 이르기까지 자기 자신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임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를 비판적으로 보는 안목을 기를 수 있는 공간이 되었던 것임
- 1970년대에 의무교육이 보급되고 고등학교 진학률이 상승함과 동시에 사회교육 전문직인 사회교육주사(한국의 평생교육사)의 채용과 배치가 늘어나면서 교양적인 학습에서부터 지역학을 비롯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학습까지 제공되었음
- 일본사회에서 신자유주의의 등장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민관이라는 사회교육시설이 지역과제와 사회과제라고 하는 학습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거점이 역할을 담당함. 학습자 개인의 만족에

그치는 학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학습을 지역과 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점이 중시되고 있음

□ 공민관 현황

- 공민관은 전후 60년을 넘어서면서 전국지자체에 약 18,000개의 공민관(분과 포함)이 보급되어 정착되었고, 각 공민관 마다 약 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공민관 주사 등 지도계 직원이 1명 정도 배치되어 있음. 공민관에 개설되어 있는 학급강좌는 약 125만 명이 수강하고 있으며, 지역의 학습단체 동아리나 개인 이용자는 2억3천 명 이상임(정현경, 2013)
- 실제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일본 전국에 18,182개 관이 설치(2005년 10월 기준)되어 있으며, 지역에 따라 설치율이 다양함. 공민관의 설치 상황을 보면 설치율은 89.1%이지만 시(市)는 93.9%, 정(町)은 88.4%, 촌(村)은 79.7%로 시구 정촌별 설치율에서 차이가 남

〈표 II-1〉 공민관 시설 수 및 이용자 수

연도	시설수	기간	이용자수(단위: 천명)
1993년도	18,339	1992년 4월 ~ 1993년 3월	219,468
1996년도	18,545	1995년 4월 ~ 1996년 3월	219,958
1999년도	19,063	1998년 4월 ~ 1999년 3월	221,797
2002년도	18,819	2001년 4월 ~ 2002년 3월	222,677
2005년도	18,182	2004년 4월 ~ 2005년 3월	233,115
증감수			10,438
국민 1인당 이용횟수			1.8

* 출처 : 문부과학성(2006). 2005년도 사회교육조사 보고서, 표1(p.4)과 표15(p.13)를 참조로 작성, 김윤정(2008)에서 재인용

- 공민관의 역할 중 대표적인 것(정현경, 2013)은 첫째, 공민관 주최의 ‘기획강좌운영’ 임. ‘00사회학급’ ‘00인권학급’ ‘00여성강좌’ ‘탁아양성과정’ 등 그 시대의 과제를 공부하는 강좌운영임. 강좌가 끝나면 후속 소모임인 ‘자주학습집단’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활동의 전개를 지원함

〈표 II-2〉 공민관의 학급·강좌 수강자 수(2004년도)

학급·강좌	개설 건수(%)	수강자 수(%)
교양의 향상	252,973(61.7)	6,052,038(51.0)
체육·레크리에이션	51,815(12.6)	1,752,902(14.8)
가정교육·가정생활	39,519(9.6)	1,458,902(12.3)
직업지식·기술의 향상	16,742(4.1)	333,698(2.8)
시민의식·사회연대의식	24,388(5.9)	1,246,338(10.5)
기 타	24,577(6.0)	1,034,433(8.7)
합 계	410,014(100.0)	11,878,119(100.0)

* 출처 : 문부과학성(2006). 2005년도 사회교육조사 보고서에서 산출, 데우치 아키토시, 오지마 미와(2010). p132, 김윤정(2008)에서 재인용

- 둘째, 주민들 스스로 기획하는 ‘자주 기획 강좌’ 임. 강좌는 공민과 직원의 기획이나 운영위원회 또는 소모임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등의 요구에 의해서도 개설됨. 각 강좌별로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기획위원회를 통해 기획부터 평가까지 담당하면서 회의기법과 토론 방법, 실무 등을 몸에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셋째, 강좌뿐만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게 공간을 활용하여 학습과 문화 활동을 할 수 있게 제공해 주는 역할임. 이를 통해 공민관은 지역의 다양한 주민모임의 거점이 되고, 유아부터 노년세대까지, 여성·남성 모두가 이용함
- 넷째, 다양한 주민들의 교류 장소임. 많은 공민관에 작은 카페나 간단한 음식을 파는 코너를 두어 지역의 장애인, 여성, 노년층 등이 맡아 운영하면서 지역주민을 위한 교류의 장을 제공하거나 일자리 창출을 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인큐베이팅 공간으로도 활용함

다. 호주의 지역성인교육센터

□ 지역성인교육센터의 설립 배경

- 호주에서의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은 평생학습 정책과 관련하여 고용과 재훈련 이외의 학습을 인정하고, 사회 이동성, 공동체 구축, 그리고 복

지 분야에서 그 역할을 강조함

- 평생교육 영역은 직업교육훈련(TAFE), 성인지역사회교육(ACE)의 두 영역으로 구분함. 이 중 후자인 성인지역사회교육은 호주 평생교육의 특징인 지역사회(주정부, 준 주정부) 중심의 교육원리로 인해 강조된 개념임. 호주는 교육을 운영하는 데 있어 연방정부의 막대한 재정지원과 더불어 지방정부가 관장함. 성인지역사회교육이란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성인교육을 의미함
- 그러나 TAFE 기관 역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고, TAFE 기관이 성인지역사회교육을 제공하는 기관 중 하나에 속하기 때문에 두 기관의 역할이 명확히 구별되는 것은 아님. 근래 호주의 성인학습국에서는 평생학습정책의 일환으로 학위과정의 직업 교육 및 훈련, 그리고 지역 사회와 경제에 적극 참여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육성하는 비학위 교육 모두 성인과 공동체 교육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하여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 지역성인교육센터의 특성

- 성인지역사회교육(Adult Community Education: ACE)의 특성으로는, 우선 지리적 여건상 원격교육으로서 발달하였으며, 학습과 계속교육으로서의 중요한 통로이자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는 것임. 또한 주 중심으로 지역마다 자율적으로 지역공동체를 책임지고 있음
- 그 사례를 살펴보면, 빅토리아 주 전역에 걸쳐 250개 이상의 지역에서 학습을 제공하는 주체로부터 거주하거나 일하는 곳과 가까운 지역사회에서 진학과 직장 및 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도움을 제공 받음. 그 주된 내용은 디지털 읽기, 쓰기 및 수학 기술을 향상시키고, 자격을 얻고, 직업을 얻거나, 직업을 바꾸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받을 수 있음. 더불어 영어, 컴퓨터 및 온라인, 건설과 건강, 직업 및 학습계획 작성, 지역사회 서비스, 비즈니스 과정, 서비스업 및 소매업, 기타 대학 편입과정 및 직업교육훈련 등에 관한 정보도 제공함
- 또한 직업교육훈련(VET: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의 역할을 수행함. 일반 직업교육훈련에서 소외된

사람들, 장애인 직업훈련, 직업활동에 필요한 기초능력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지역사회 또는 공동체의 이익에 뿌리를 두고 있음

□ 지역성인교육센터 현황

- 호주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담당은 성인 지역사회 교육부서로서 자율적인 지역사회 환경에서 시기적절하고 질 높은 학습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호주 성인 지역사회교육 부서는 ACFE 법령에 의해 장관이 포함되어 있는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이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분야별로 수립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성인지역사회교육(Adult Community Education: ACE) 담당센터는 주 단위의 지역에서 관리하며, 규모가 작은 지역일수록 그 역할이 중요해짐. ACE의 프로그램은 주로 낮은 기술력, 저학력 학습자가 주 대상이며, 학습자 접근성을 중시함
- 점차 고령화 사회, 이민자 수의 증가 등 사회변화에 따라 성인교육 정책은 각 지역의 ACE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새로운 기관의 증설보다는 현재 기존에 있는 기관의 참여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며, 정부의 역할은 간소화하면서 각 지역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함
- 우선 성인들에게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여성을 주 대상으로 하며, 개인과 지역사회 구성원의 사회적·문화적·경제적 발달에 기여함. 또한 직장이나 계속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이끌 수 있는 접근과 준비를 지원하고, 성인기초교육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에게 알맞은 구직을 촉진, 변화하는 직업요구를 충족시킴으로써 노동현장에 다시 들어가는 데 필요한 기능과 지식, 확신 등을 형성시킴
- 성인지역사회교육(Adult Community Education: ACE) 제공기관은 대표적으로 성인지역사회교육 센터/대학 및 TAFE 컬리지(colleges)와 부속기관 (TAFE와 ACE의 연계), 마을회관 및 지역센터, 지역 보건기구 및 노인복지회관, 노동자교육연합, 교회와 학교 등 다양함
- 이와 같이 지역에서의 학습을 제공하는 일은 비영리 커뮤니티 조직에서 담당

하는데, 이들은 사전 승인 된 교육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성인, 지역 사회 및 심화 교육위원회(ACFE) 를 통해 호주의 주 정부에 등록하고 자금을 지원받음. ACFE 이사회에서는 자금을 지원하여 제공하는 사전 인증 교육 및 기타 프로그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사 소통, 학습 기술, 직업 기술, 직장 복귀 준비, 읽기 및 쓰기, 수학, 영어 및 컴퓨터, 원예, 육아 또는 접대와 같은 다양한 산업에 대한 준비가 포함됨

2. 국내의 지역주민 교육지원 정책

가.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동네배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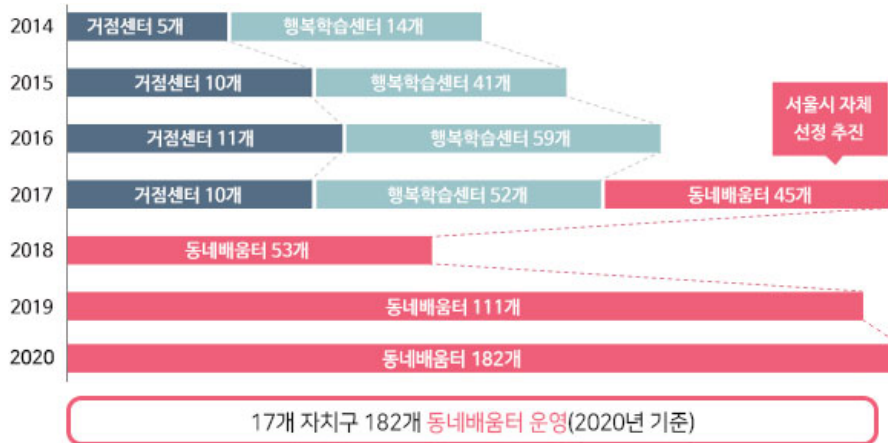
□ 동네배움터의 운영 배경

- 서울특별시의 동 단위 동네배움터는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시민 누구나 근거리 생활권에서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동 단위 평생학습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한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 운영 사업’을 추진함. 이는 2014년 평생교육법 개정을 통해 읍·면·동 단위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에 근거하고 있음
- ‘한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 운영 사업(이하 ‘동네배움터’로 적용)’은 지역 내 유휴공간을 지역 주민을 위한 학습공간으로 활용하여 주민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및 학습공동체 활동 지원 등 촘촘한 근거리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함

□ 동네배움터의 특성

- 100세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평생학습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임으로 서울시민 누구나 동네배움터에서 자신이 원하는 배움을 누릴 수 있도록 ‘1동 1동네배움터’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음
- 2014년 당시 교육부 시범사업인 ‘행복학습센터’ 명칭으로 구 단위 거점센터 5개소 및 동 단위 행복학습센터 14개로 시작하였음. 시범사업의 종료와 함께 2017년 서울시 자체사업으로 추진되면서 ‘동네배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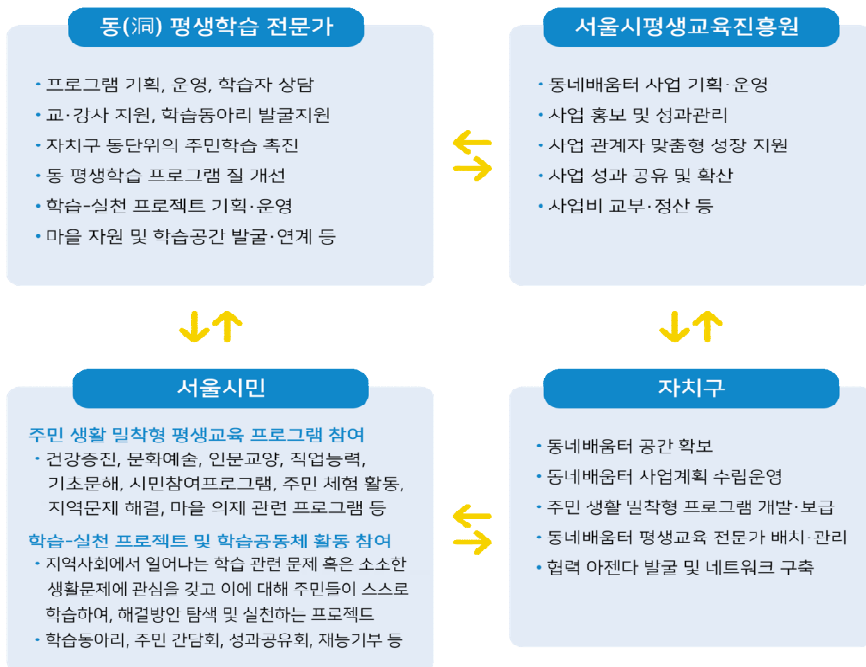
로 변경되었음. 2020년 기준으로 동네배움터가 17개 자치구에 182개소가 운영됨



[그림 II-4] 서울특별시 '동네배움터' 연도별 설치 현황

※ 자료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http://smile.seoul.kr/Seoulschool/course/>)

- 주요 사업내용은 1) 지역 내 유휴 공간 발굴을 통한 '동네 배움터 설치 및 지정', 2) 주민이 원하는 '지역·생활 밀착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3)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학습공동체 활동 지원', 3) 동네배움터 운영 지원을 위한 '동 평생학습 전문가' 배치 등임
- 사업추진 모형은 다음의 그림과 같이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이 사업의 기획과 운영·지원, 성과관리 등을 맡아 자치구의 동네배움터 공간 확보와 사업 시행을 지원함. 또 동네배움터에 배치된 동 평생학습 전문가의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여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학습동아리 발굴·지원, 마을 자원 및 학습공간 발굴·연계 등의 활성화를 도모함



[그림 II-5] 서울특별시 ‘동네배움터’ 사업추진 모형

※ 자료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http://smile.seoul.kr/Seoulschool/course/>)

□ 동네배움터의 현황

- 서울특별시 ‘동네배움터’는 다음의 <표 II-3>에서와 같이 사업이 시작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특별시 예산 투입과 자치구 대응투자 예산으로 운영되었으며, 동네배움터별 평균 지원금도 일정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었음. 또 점차적으로 자치구의 참여가 확대되어 처음 13개 자치구에서 2020년 17개 자치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동네배움터의 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났음을 알 수 있음

〈표 II-3〉 서울시 동네배움터 연도별 운영 현황

(단위 : 천원, 개)

연번	자치구명	연도별 현황				
		총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	지원금	3,978,672	270,000	300,000	1,375,946	2,032,726
2	자치구 대응투자금	1,466,343	159,622	162,439	508,087	636,195
3	동네배움터별 평균 지원금	-	6,000	5,660	7,981 (인건비 제외)	4,932 (인건비 제외)
4	사업참여 자치구 수	23	13	15	14	17
5	동네배움터 수	272	45	53	111	182
6	총 프로그램 수 (참여자수)	2,658 (26,897)	143 (1,910)	192 (2,580)	1,254 (13,307)	1,144 (13,182)
7	온라인 프로그램 수	808	-	-	-	808
8	오프라인 프로그램 수	1,749	143	192	1,254	160
9	온오프라인(병행) 프로그램 수	-	-	-	-	176
10	학습-실천 프로젝트 수 (학습공동체 횟수)	611 (965회)	- (470회)	- (495회)	257 (-)	354 (-)

※ 동네배움터 수 총계(272개)는 중복 동네배움터를 제외한 수치임

※ 출처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2020). 내부자료

- 동네배움터에서 운영된 총 프로그램 수는 2019년 1,254개로 2018년 192개에 비해 증폭하였는데, 참여자 수 또한 2018년 2,580명에서 13,307명으로 증가하였음. 여기서 유의할 점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2020년 1,144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13,182명이 참여하였다는 것임. 세부적으로 보면, 오프라인 프로그램 수가 160개이나, 온라인 프로그램 수가 808개, 온·오프라인(병행) 프로그램이 176개로 나타남. 이는 동네배움터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학습 참여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운영면에서 유연한 교육방법의 적용으로 전년도인 2019년보다 못하지만 비슷한 참여가 있었음을 가늠해 볼 수

있음. 또한 학습-실천 프로젝트 수가 2019년 257개에서 354개로 증가한 점도 매우 의미있는 결과라 할 수 있음

- 여기서 2020년 동네배움터는 182개 중 주민자치센터(62개, 34%), 도서관(34개, 19%), 그 외 마을커뮤니티 센터·학교·문화센터 등(86개, 47%)에서 운영함. 대부분 자치구가 지역 기관 단체·개인과 연계·협력하여 7개 이상 유희공간을 동네배움터 공간으로 지정함
- 이상의 내용은 다음의 <표Ⅱ-4>의 자치구별 동네배움터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음. 사업 초기인 2017년과 2018년에는 자치구별 운영 예산이 많게는 2천 4백만원에서 적게는 1천 2백만원 규모에서, 2019년 이후 많게는 1억 2천만원에서 적게는 8천만원 규모로 증대하였음. 특히 2020년에 들어서는 광진구의 경우 최대 1억4천만원으로 늘어났음을 통해 자치구별 동네배움터 사업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음

<표Ⅱ-4> 서울시 자치구별 동네배움터 연도별 운영 현황

(단위 : 천원, 개)

연번	자치구명	지원금(누적 3,978,672천원)				동네배움터 개소수 (누적 391개)				프로그램 개수 (누적 2,733개)			
		2017	2018	2019	2020	2017	2018	2019	2020	2017	2018	2019	2020
	합계	270,000	300,000	1,375,946	2,032,726	45	53	111	182	143	192	1,254	1,144
1	강남구	-	-	-	-	-	-	-	-	-	-	-	-
2	강동구	18,000	15,000	-	-	3	3	-	-	9	13	-	-
3	강북구	-	-	100,000	130,950	-	-	8	13			88	84
4	강서구	-	-	-	-	-	-	-	-	-	-	-	-
5	관악구	30,000	30,000	-	-	5	5	-	-	21	20	-	-
6	광진구	-	15,000	105,000	140,000	-	3	8	12	-	20	89	69
7	구로구	-	15,000	90,000	110,580	-	3	7	10	-	10	63	50
8	금천구	18,000	31,000	-	-	3	5	-	-	10	16	-	-
9	노원구	24,000	28,000	84,157	135,000	4	4	7	12	15	15	70	76
10	도봉구	12,000	15,000	100,000	134,000	2	3	8	10	6	14	81	67
11	동대문구	18,000	-	100,000	129,745	3	-	7	12	8	-	70	62
12	동작구	-	18,302	102,669	120,922	-	3	7	10	-	9	89	83

13	마포구	-	-	-	80,000	-	-	-	7	-	-	-	48
14	서대문구	30,000	19,440	100,000	136,190	5	4	9	15	10	9	118	107
15	서초구	12,000	-	-	-	2	-	-	-	7	-	-	-
16	성동구	-	-	100,000	130,950	-	-	8	13	-	-	97	65
17	성북구	-	-	120,000	134,000	-	-	11	13	-	-	114	70
18	송파구	18,000	15,000	-	84,000	3	3	-	8	14	9	-	46
19	양천구	-	15,000	-	-	-	3	-	-	-	8	-	-
20	영등포구	18,000	-	-	-	3	-	-	-	8	-	-	-
21	용산구	-	8,830	84,380	127,149	-	2	8	10	-	9	94	94
22	은평구	36,000	25,428	99,740	128,000	6	5	9	12	19	16	99	81
23	종로구	-	21,000	110,000	110,000	-	3	7	7	-	12	70	39
24	중구	18,000	28,000	-	77,240	3	4	-	7	10	11	-	35
25	중랑구	18,000	-	80,000	124,000	3	-	7	11	6	-	112	68

※ 출처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2020).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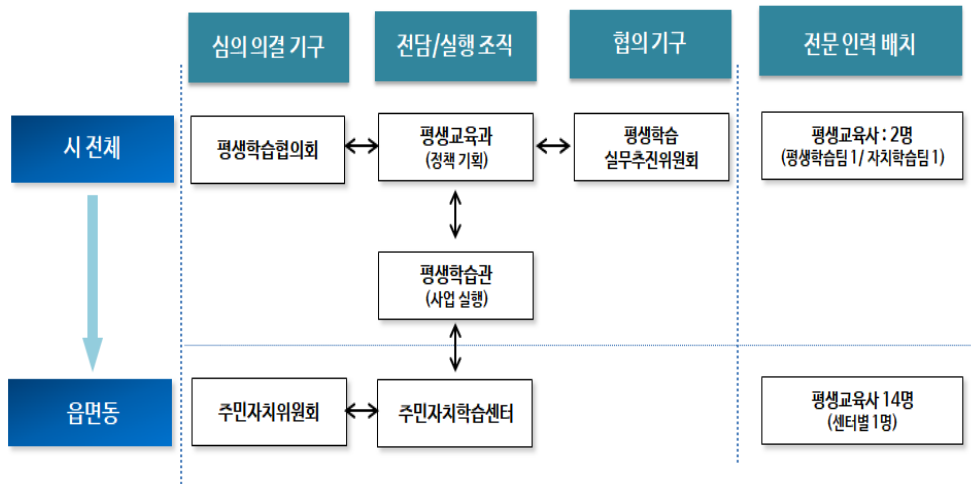
나.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 주민자치학습센터의 운영 배경

- 경기도 이천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2004년 이후 지역의 평생학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2005년부터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학습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조례를 개정하였음. 이를 통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가능한 전문인력인 평생교육사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14개 주민자치학습센터에 1명씩 배치하고,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참여 확대를 위해 생활권 단위의 평생학습 거점기관으로 자리매김함
- 이천시는 도농복합지역으로 농촌과 도시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학습을 이용한 지역 재생 운동의 실천과정으로써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였음. 특히 이천시의 생활권 단위의 평생학습센터 체계 기반의 시 전체 지역 차원에서의 평생교육 전달 체계 속에서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학습센터로 명명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면서 읍·면·동 거점으로서의 조직체계를 구성하였음

□ 주민자치학습센터의 특성

-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는 시 전체 차원에서의 평생교육 전달체계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평생교육과를 두어 평생교육과 주민자치학습센터 지원을 담당함. 2019년 시청의 조직개편으로 평생교육과가 교육청소년과로 변경되어 평생학습팀과 자치학습팀을 두고 있으며, 자치학습팀에서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지원을 담당함



[그림 II-6] 2018년 이천시 평생학습 중심의 주민교육 지원체계

-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는 <표 II-5>에서와 같이 이천시 평생학습 조례에 근거를 두어 주민자치학습센터를 읍·면·동에 설치 운영하고 있음. 또한 경비 보조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있음
- 전문인력인 평생교육사 배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학습센터에 배치·운영함으로써 읍·면·동 주민자치학습센터의 지역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도모함

〈표 II-5〉 이천시 평생학습조례에 규정된 주민자치학습센터 연계 조항

구분	내용
제2조 (정의)	5. "주민자치학습센터"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말한다.
제5조 (경비 보조 및 지원)	2. 시장은 평생학습 문화정착을 위해 이천시 평생교육관(이하 "평생교육관"라 한다) 및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평생학습 협의회 구성)	<당연직 위원> 이천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
제22조 (평생교육사 배치)	시장은 평생학습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과, 주민자치학습센터에 평생교육사를 배치 할 수 있다.

※ 자료 : 이천시(2018). <https://edu.icheon.go.kr/edu/contents.do?key=5959>

□ 주민자치학습센터의 현황

- 주민자치학습센터의 프로그램은 양적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음. 초기였던 2005년에는 121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고, 2006년 상반기에는 159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됨.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2017년에는 323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됨(홍숙화·김민호·이소연, 2019)
- 이와 같이 주민자치학습센터가 운영된 이후 가장 대표적인 성과를 꼽자면 프로그램의 활성화임.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주민 요구를 반영하면서 자연스럽게 참여자가 늘어남. 또한 읍·면·동 별로 평생학습 발표회를 계기로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증가함
- 이는 주민자치학습센터의 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의 기획·운영 과정이기도 함. 마을행사를 개편하여 짝수 년에는 주민 자치평생학습축제를, 홀수 년에는 읍·면·동 마을축제를 운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1주민자치학습센터 1특성화 사업을 운영함
- 평생교육사가 주민자치학습센터에 소속됨에 따라 이들이 행정과 민간 사이에서 매개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초기에는 평생교육사라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로 지역의 실정을 감안한 특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위촉된 각종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줄 것을 기대했음. 점차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에서 요구되는 업무도 병행하게 되면서 행정과 민간을 묶어주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됨

- 주민자치학습센터에 배치된 주민자치회 일반 운영 및 행사보조, 행정지원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서 당연히 업무량도 증가하게 되었음. 주민자치위원들의 경우 전업이 아닌 자원활동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가 나타나는데, 평생교육사들이 지원해 주면서 주민자치위원들도 더 열심히 참여하는 동기유발의 계기가 되었음
- 이와 같이 주민자치학습센터의 프로그램 활성화라는 가시적인 성과 외에도 주민자치위원들의 의식이 개선되면서 위원회가 점차 실체화 되고,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를 넘어 마을 특성화 사업으로까지 연결되고 있음

다. 창원시 평생교육센터(사회교육센터)

□ 사회교육센터의 운영 배경

- 경남 창원시는 1994년 ‘창원시평생교육원 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고, 민·관협력사업으로 사회교육센터를 1995년 시범 운영을 통해 1996년 6개 사회교육센터를 개관한 이후, 2003년에 마을 단위 27개 사회교육센터를 운영, 평생학습 환경조성,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마을단위 복지회관, 민원센터, 동민의 집 등을 생활문화 복지공간으로 지정하여 마을도서관 기능과 사회교육 기능을 함께 수행
- 창원시가 시범사업 운영을 하게 된 배경은 당시에 신도시 및 공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이주민들의 경제사회 및 문화생활에의 편익 도모와 이주민의 화합분위기 조성 및 복지증진 요구의 대응에 있음. 이를 위하여 1989년부터 이주민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1990년부터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였으나 그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였음. 이러한 여건에서 1993년 당시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책의 해’를 기점으로 도서관을 세워 보자는 주민운동을 기반으로 1994년 6월에 지역인사 15명이 모여 가칭

‘경남도서관 및 정보문화발전연구소(현재 경남정보사회연구소)’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1994년 10월에 연구소를 개소한 이후 1995년부터 사회교육센터 설치·운영이 본격화됨

- 1995년 7월 1,800여 세대가 사는 사파동성아파트 단지 내에 주민자치도서관 성격인 사파동성마을도서관을 개관을 지원하고, 8월에는 봉림복지회관을 봉림마을도서관으로 개관하여 창원시로부터 위탁받아 시범 운영하는 것을 계기로 확대됨

□ 평생교육센터(사회교육센터)의 특성

- 1997년에 창원시 인구가 50만에 육박함에 따라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1997년 7월에 전국 최초로 ‘대동제(大洞制)’를 실시하여 기존의 24개동을 12개 동으로 개편해 기존 동사무소를 문화복지센터 성격인 동민의 집으로 확대 개편함과 동시에 민원센터의 유휴공간을 문화복지 공간으로 활용하였음. 이때를 기점으로 마을도서관 운동에 경남정보사회연구소 11개, 경남여성회 3개, 나머지 단체에서 각각 1개씩 위탁받아 14개 민간단체에서 26개 사회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3년 당시 상주사회교육센터 경우는 창원시 직영으로 상주동사무소에서 운영함
- 창원시에서 사회교육센터를 설립한 동기는 시민들이 언제나 누구나 어디서나 편리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음. 주민들이 평생 학습에의 참여 여건을 조성하여 격변하는 사회 변화에 능동적인 적응 능력을 개발하기 위함임
- 또한 창원시 사회교육센터의 설립 이념은 지식 정보사회에 대비한 평생학습환경 조성, 마을도서관을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 운동, 생활공간으로 찾아가는 교육·문화서비스 구현에 있으며, 설립목표로는 전국에서 도서관이 가장 많은 도시, 지식정보사회의 중추도시로 부상, 활력과 의욕이 넘치는 시민사회 구현, 격조 높고 세련된 지역문화 창달을 제시하고 있음
- 마을마다 사회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위탁운영을 통해 민간단체를 지원하면서 전국 최초로 마을단위 평생교육 지원 체제를 마련함. 2010년 마

산시와 행정 통합으로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면서 사회교육센터를 평생 교육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행정동에 1개 이상의 평생교육센터가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일부 수행하면서 운영되고 있음

- 창원시에서는 광역 동 단위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민교육 지원이 평생교육센터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 및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이 주축이 되고 있음

□ 평생교육센터(사회교육센터)의 현황

- 창원시의 평생교육센터는 처음에는 마을도서관으로 출발하였으나 시대적 흐름과 변화 속에서 점차 시민의 문화·교육적 기능이 강조됨에 따라 1998년에 사회교육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그리고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면서 2010년 평생교육센터로 명칭 변경됨
- 1995년부터 시작된 사회교육센터에 대한 운영 평가 및 사회교육센터 위탁 운영 주체 간 이해의 차이로 2005년에는 민·관 간의 갈등을 빚기도 하였음. 이와 함께 출발당시 마을도서관으로 시작된 사회교육센터가 평생교육센터로 명칭이 변경되고, 위탁운영에 따른 운영주체의 전환 및 실무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 등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증가하면서 지역사회의 쟁점 사항이 되기도 하였음
- 2005년 당시 창원시 사회교육센터는 25개소가 운영되었는데, 이를 경남 정보사회연구소가 9개소,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5개소, 경남여성회 3개소, 창원여성의 전화 등 8개 민간단체가 1개소 씩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 기준 1개소 당 연간 3천240만원씩 총 8억 7천만원을 지원하였음. 2020년 현재 기준으로는 각 1개소 당 6천35만원씩을 26개소에 총 15억69백3십만원이 지원되었고, 이와는 별도로 공립작은도서관 19개소에 35백2십만원씩 총 6억6천9백2십만원이 지원됨
- 기존 창원시 사회교육센터는 2004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 학습도시로 선정되어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2020년 현재 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에서 평생학습, 교육정책, 학교지원, 작은도서관 지원 담당을 두어 업무를 맡고 있음. 2011

년 당시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면서 평생교육센터 및 작은도서관 운영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단체 선정에 반영하였음

- 이를 통해 창원시-마산시의 통합에 따라 모든 행정동에 평생교육센터가 운영되는 것은 향후 주민자치센터가 소학습권역 거점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특성화 프로그램 도입 비율의 확대에 대비하여, 복합화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주민자치센터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음
- 창원시 평생교육센터와 관련된 운영 현황은 2007년 당시 주민자치센터 15개, 사회교육센터 및 마을도서관 22개 운영 이후, 2010년 주민자치센터 15개, 사회교육센터 및 마을도서관 35개로 확대하여 운영 지원되었고, 통합 창원시 출범으로 주민자치센터 57개, 평생교육센터 26개, 작은도서관 31개로 확대되었음. 2019년 말 현재 평생교육센터 26개소, 작은도서관 35개소가 운영 중임(출처 : <https://www.changwon.go.kr/depart/contents.do?mId=0901010400>)
- 창원시의 평생교육센터는 대부분 1개의 도서관과 1~3개의 교육실, 사무실, 편의실로 구성되어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3개 센터에는 컴퓨터 교실을 보유하고 있음
- 평생교육센터는 운영시간을 매일 09:30 ~ 19:00까지 하며, 동절기(11월 ~ 다음 해 2월)에는 09:30 ~ 18:30까지이나 필요 시 센터별로 연장 운영할 수 있음. 다만, 토·일요일은 09:30 ~ 17:00까지 하되 일요일이 아닌 공휴일은 휴관함
- 창원시 평생교육센터 및 작은도서관 운영 규정에 근거하여 <표Ⅱ-6>에서와 같이 아동부터 노년세대까지 모든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음 또 지역의 유관기관 간의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에의 기여와 소외계층 및 저소득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제공에 대한 노력을 명시하고 있음

〈표 II-6〉 창원시 평생교육센터 및 작은도서관 운영 규정

구분	내용
제20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① 센터(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는 지역주민의 요구분석을 통해 지역특성, 시대성을 고려하고 다양한 계층(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3> ② 지역 유관기관 간의 파트너쉽 형성을 통한 연계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여야 한다. ③ 센터에서는 소외계층이나 저소득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 (학습동아리 활동원)	센터에서는 학습자의 프로그램 수강 후 심화 및 연계 프로그램으로 학습동아리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24조 (지역 인적자원 발굴 및 육성)	센터에서는 지역주민을 인적자원으로 발굴하여 강사로 활용하도록 하고, 지역 인적자원 개발 및 육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자료 : 창원시(2014).

라. 부천시 동 단위 평생학습센터 ‘학습반디’

□ 학습반디의 운영 배경

- 경기도 부천시는 2002년 평생학습도시 선정이후 지역 네트워크 기반으로 평생교육 정책을 수립·실시하고 있고, 시 직영 전담조직으로 평생학습센터를 두어 3개 구단위 시민학습원이 권역별 거점기관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부천시는 2014년 지역밀착형 근거리 평생학습 재편을 위해, 시간, 공간, 학습내용을 중심으로 혁신적 변화를 시도함. 이는 평생학습 참여 기회 격차 해소 및 신규 평생학습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 36개동 주민센터를 동평생학습센터로 지정·운영하고, 우리동네학습공간에 퇴근학습길이라는 특화사업을 만들어 전철역과 버스정류장 단위 동네로 깊숙이 들어가는 전략을 실행함

- 이를 통해 시민학습원(구단위)-학습반디(동단위)-학습공간(동네단위)로 체제를 재편하였음. 이는 지역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마을학교의 개념과 내용으로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임

□ 학습반디의 특성

- 부천시의 학습반디 사업은 동 단위의 주민센터를 동 평생학습센터인 ‘학습반디’로 지정·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생활권 단위 근거리에서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 체제 구축 및 시민교육 프로그램 보급을 통한 지역 공동체 형성을 추구하였음
- 학습반디에는 학습반디매니저를 배치하여 기존에 운영되던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과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음. 학습반디 매니저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한 ‘학습반디매니저양성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선발하여 배치하였음
- 학습반디는 부천시 평생교육과(평생학습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자치분권과(주민센터)와의 협력체계인 ‘트라이앵글’ 체제를 견고하게 구축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이를 통해 주민자치센터의 공간과 프로그램을 연계한 생활권의 평생학습센터로서 주민자치센터의 평생교육 기능의 강화를 지향하고 있음

□ 학습반디의 현황

- 학습반디 사업은 2014년 교육부 지원 ‘행복학습센터’ 사업으로 1개의 거점 센터와 3개의 학습반디를 시작으로 하여, 2017년 부천시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학습반디’라는 부천시 브랜드명으로 36개 전 동을 대상으로 동 단위 평생학습센터로 거점화하였음.

〈표 II-7〉 부천시 학습반디 지정 및 운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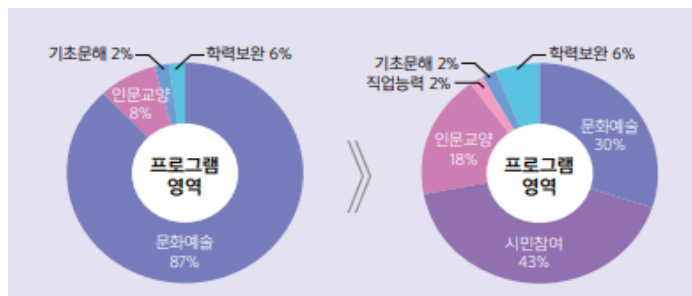
구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5차년도 (2018년)	6차년도 (2019년)
센터 수	거점 센터	1	2	2	2	2	2
	학습 반디	3	5	10	36	36	36
학습반디 매니저		5명 (거점2명)	7명 (거점2명)	13명 (거점3명)	42명 (거점6명)	40명 (거점4명)	40 (거점4명)
프로그램 수	거점 센터	1개 프로그램 (행복학습매니저 양성과정 기초)	2개 프로그램 (행복학습매니저 양성과정 기초, 심화)	2개 프로그램 (특화프로그램개발)	2개 프로그램 (행복학습매니저 양성과정 기초2)	1개 프로그램 (역량강화교육)	2개 프로그램 (역량강화교육)
	학습 반디	12개 프로그램	15개 프로그램	30개 프로그램	65개 프로그램	146개중 73개 시민교육프로그램	150개 시민교육프로그램
인원 수	실인원	242	266	489	1,310	2,926	3,000
	연인원	3,981	6,384	7,637	30,530	51,329	52,000
예산 규모	총 계	63,000	78,750	139,600	337,400	527,052	479,991
	국비	31,500	31,500	30,000	50,000	0	0
	시비	31,500	47,250	109,600	287,400	527,052	479,991

※ 출처 : 홍숙희·김민호·이소연(2019).

- 2019년 현재는 2개의 거점센터(시민학습원), 36개 동 주민센터를 학습반디로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음. 학습반디 사업 담당 평생교육사와 거점센터 담당 매니저 4명이 배치되어 있고, 36개 주민자치센터에 조성된 학습반디에는 ‘학습반디매니저’를 양성·배치하여 운영함. 2020년은 코로나19 재난기금 마련을 위한 사업비 조정되어 시비 3억8,182만원으로 예산 감액 및 프로그램을 축소 운영함
- 2018년 1월에는 동주민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기준 학습반디 사업과 매니저

의 역할을 정확하게 인식시키기 위해 공무원, 주민자치위원, 학습반디매니저를 대상으로 FGI와 설문조사를 통해 ‘부천시 학습반디 운영가이드북’을 제작하여 36개 동에 배포 함. 2018년 4월 36개동 **학습반디 운영 프로그램의 방향을 ‘일상에서의 시민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민대상 설문조사 실시 후 동의 특성과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환경, 소통, 저출산, 고령화 등 9가지 영역에서 시민교육과정이 개발 됨

- 2018년 사업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환경, 저출산고령화, 경제, 소통 영역에서 73개의 시민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며 총 4,697명의 시민이 참여하고 93%의 만족도를 보여줌
- 2018년 한 해 동안 동주민센터에서 운영된 프로그램의 영역이 아래와 같이 변화되었음.



[그림 II-7] 부천시 36개동 주민센터 프로그램 영역 변화(2018)

※ 출처 : 홍숙희·김민호·이소연(2019).

- 2020년에는 광역동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시스템 구축, 마을자치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인문학·시민성 향상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활동가 양성 및 관리, 주민자치회 사전교육 중 대·내외 협력사업 등을 중점사업으로 계획함.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따랐으나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운영 및 1:1 맞춤형 평생학습 상담과 부서(평생교육과·자치분권과)간 협업으로 주민자치회 사전교육을 운영하고, 지역연계 활동의 실천 등을 통해 나름의 성과를 남음(부천시청 내부자료, 2020)

3. 요약 및 시사점

- 외국의 주민교육 정책은 나라마다 차이점이 있지만 대체로 일찍부터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공동체를 지향하는 교육에의 참여를 독려하는 교육환경 조성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국가단위의 평생교육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 독일의 시민대학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거치면서 성인을 위한 교육제도로써 위치하여 시민성 강화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주 정부가 중심인 운영체제로 언제나, 누구든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든 원하는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시민대학마다 독자의 교육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운영인력이 배치되어 학습자의 수강료, 기초자치정부와 주 정부의 예산, 그리고 연방 및 EU 지원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음
- 일본의 공민관은 1949년에 사회교육법 제정으로 실제 생활에 입각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위해 중학교 학구마다 설치하여 유아부터 노년세대까지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학습하는 ‘장’으로서 역할을 담당하였음. 일본 전후 60년을 넘어서면서 전국에 약 18,000관의 공민관이 보급되어 정착되었고, 각 공민관 마다 3명 내외의 직원이 근무하여 교육강좌를 개설하거나, 지역의 학습동아리인 자주학습집단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최근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위한 실험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음
- 호주의 지역성인교육센터는 주 단위의 지역에서 관리하며, 규모가 작은 지역일수록 그 역할이 중요해지는데,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주로 낮은 기술력과 저학력인 학습자가 주 대상으로, 학습자의 접근성을 중시함. 성인지역사회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은 대표적으로 거주하거나 일하는 곳과 가까운 곳인 성인지역사회교육 센터/대학 및 TAFE 컬리지(colleges)와 부속기관 (TAFE와 ACE의 연계), 마을회관 및 지역센터, 지역 보건기구 및 노인복지회관, 노동자교육연합, 교회와 학교 등 다양한 곳에서 제공됨. 그 주

된 내용은 디지털 읽기, 쓰기 및 수학 기술을 향상시키고, 자격을 얻고, 직업을 얻거나, 직업을 바꾸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받을 수 있음

- 국내 관련 정책으로 마을단위 주민교육지원체제를 마련하고 있는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경기 이천시, 경남 창원시, 경기 부천시 등의 운영 현황을 살펴봄. 각 지자체마다 운영 배경과 추진 과정에 따라 각자의 맥락을 가지고 자리매김 되고 있음
- 네 가지 사례는 모두 공공시설 및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주민교육의 상시운영체제를 마련하여 거점공간으로서의 성격과 담당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실질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있음을 확인해줌. 또한 이를 위한 지자체 내의 확고한 의지와 추진력으로 시작되어 정책 수립과 추진의 지속력 담보가 가능했음을 알 수 있음

〈표Ⅱ-8〉 서울특별시·이천시·창원시·부천시 주민교육 지원체제 현황 비교

구분 (명칭)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동네배움터]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창원시 [평생교육센터]	부천시 [학습반디]
운영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7개 자치구 182개 동네배움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개 주민지원센터 14명의 평생교육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26개 평생교육센터 35개의 작은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개 행정복지센터 26개 주민지원센터 36명의 학습매니저(자원활동가)
운영 인력 특성	동 평생학습전문가(평생교육사)	임기제 평생교육사 마감	수탁 기관 채용 인력(평생교육사, 사서, 사회복지사 등 마을 활동가)	유급 자원활동가 (월59시간)
운영 체제	평생교육진흥원 -자치구연계형 (자치구 직영운영)	주민자치연계형 (읍·면·동 직영운영)	민과협력연계형 (민간위탁 운영)	주민자치연계형 (평생교육과(평생학 습센터) 직영운영)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교육청소년과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과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네배움터 사업기 획·운영 사업 홍보 및 성과 관리 사업관계자 맞춤형 성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자치센터 프로 그램 기획, 운영 및 관리 주민자치 사업 공 동 기획 마을만들기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민의 생애 주기 프로그램 기 획, 운영 및 관리 유관기관 간의 연 계·협력 소외계층 및 저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자 상담 및 관리 프로그램 요구조 사 및 분석 의견을 반영한 프 로그램 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생활밀착형 프로그램 개발·보급 프로그램 기획·운영, 학습자 상담 교·강사 지원, 학습 동아리 발굴지원 동 단위 주민학습 촉진 동 평생학습 프로그램 질관리 학습·실천 프로젝트 기획·운영 마을 자원 및 학습 공간 발굴·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 운영 예산집행 및 행정 업무 성인문해교육 발굴 및 운영 읍면동 마을 축제 기획, 운영 권역별 네트워크 사업 기획 및 운영 동아리공모사업 관리 읍면동 업무 서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득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제공 지역특화사업 운영 작은(마을)도서관 운영 지역문화행사 기획, 운영 동아리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요구 수렴 관계자와의 매개 역할 수행 및 의견 조율 지역 자원 발굴 및 연계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부 행복학습센터 사업으로 시작 자체 브랜드로 안정화 자치구 참여로 사업 확대 동 학습전문가(평생교육사) 배치 광역시(서울시) 단위의 종합 지원체제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례개정 후 추진 자치단체장의 확고한 추진력으로 시작 주민자치회 소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관협력에 의한 시범사업 계기 조례제정 및 개정 후 추진 자치단체장의 확고한 추진력으로 시작 민간위탁에 의한 지역 사회단체 역량 발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부 행복학습센터 사업으로 시작 자체 브랜드로 안정화 자원활동가를 매니저로 배치 주민자치 연계에 주력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 자치구의 지속 증가 운영 예산의 증대 프로그램과 참여자 수의 양적 증가 프로그램 운영공간 변화 참여 학습자의 주체적 공동체 활동 촉진으로 자치력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의 양적 증가 프로그램의 개편 추진 프로그램 운영공간 변화 주민자치교육분과와 협업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의 양적 증가 학습과 독서 문화 복합공간 운영 변화 인근 주민자치센터와 협업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36개 주민센터 학습반디 지정 36명 학습반디매니저 배치 일상에서의 시민 교육 활성화, 주민자치위원 교육운영, 학습동아리육성, 마을축제 확대
보완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 참여 자치구의 참여 기제 마련 필요 동네배움터의 지속 운영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이 필요함 주민자치회와 협업 노력 강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 평생교육 정책 부재로 평생교육사의 전문성이 흔들림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이 필요함 주민자치회와 평생교육과의 협업과 소통이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 지속성 담보의 한계 예산 한계에 따른 운영인력 배치의 제한 주민자치회와의 연계를 위한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수립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생학습자원활동가 처우개선 주민자치회 전환에 맞는 연계·협력 구조 필요 행정력 향상 필요 유급간사와 다른 고유업무 개발 필요

※ 출처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2020). 내부자료와 홍숙희·김민호·이소연(2019).을 수정·보완하여 사용

- 마을단위 주민교육 지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 누구든 마을 안에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과 다양한 세대별 학습 요구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의 제공이 요구됨을 알 수 있음
- 한편,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와 이천시, 청원시, 부천시의 사례는 각각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음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는 교육부 행복학습센터 사업을 시작으로 자치구의 참여를 통해 동 단위의 동네배움터를 발굴·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 기준 전체 25개 자치구 중 17개 자치구의 참여, 182개의 동네배움터를 운영함. 또 동네배움터에 동 평생학습전문가(평생교육사)의 배치로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주민생활밀착형 프로그램을 개발·보급·운영하고, 학습자 상담을 통해 주민학습을 촉진하는 운영체계를 마련함. 또한 학습-실천 프로젝트를 기획·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자치력을 기르고, 마을자원 및 학습공간 발굴·연계를 통해 지역 공동체형성을 도모함.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이 동네배움터 사업 기획·운영을 맡아 서울시 단위의 동네배움터 사업의 홍보 및 성과 관리, 사업관계자의 맞춤형 전문연수를 통한 성장 지원으로 동네배움터 사업의 확산을 도모하였음
- 이천시는 주민자치센터를 행정주도로 조례에 근거하여 주민자치학습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주민자치 업무에 평생학습 업무를 추가 해 전문인력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였고, 이로써 주민의 교육 참여 활성화 뿐 아니라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는 성과를 내고 있음
- 청원시는 대동제를 계기로 기능이 전환된 지역의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민·관협력으로 평생교육센터(사회교육센터)의 설치·운영을 제도화하고,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작은도서관의 연계·운영을 통해 교육과 독서 문화를 통합서비스로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있음
- 부천시는 행정주도이나 전문인력이 중심인 평생학습센터가 중심적인 역할을 맡아 시범 운영사업을 통해 36개 전 동에 확산하여, 지역주민을

학습반디 매니저(마을활동가)로 양성하고 배치하였음. 그리고 일상에서의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특화하기 위한 노력과 주민자치회와의 연계활동을 통해 공동체 활동으로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강화하였음

- 위에서 살펴본 국내외 사례를 통해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교육 지원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마을단위의 주민교육은 나라마다 사회적 환경과 특성을 기반으로 정책과 제도로 오랜 시간에 걸쳐 자리매김되어 왔음을 알 수 있음. 또한 국내에서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저마다의 환경과 사회적 배경을 중심으로 체계화되어 있음
- 국외 및 국내 사례들은 대부분 지역주민의 성장이 곧 지역공동체의 성장 동력임을 전제하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특히 국내 사례들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읍·면·동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과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을 통해 평생교육정책으로서 자치구 행정과 주민자치센터, 평생교육센터, 마을도서관을 연계하여 통합적 관리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제주지역에서도 자치행정국의 자치행정과와 평생교육과에서 관련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바, 타 지역 사례에서와 같이 마을단위 주민교육 지원의 활성화를 위한 통합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 추진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마을단위 주민교육과 관련하여 균형발전, 마을만들기 및 마을기업, 도시재생, 관광, 문화예술 등 다양한 사업의 영역과 부서들이 연계되어 있음. 이러한 사업들 간의 연계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주민들에게는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접근성 확보와 지역사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향과 전략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읍·면소재지의 리 지역에 위치해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국한된 주민교육 서비스는 리 단위 마을주민이 교육에 참여하기에는 교육참여

신청 방법, 농번기, 이동거리 등 많은 제약조건이 따름. 그러므로 걸어서 갈 수 있는 공간적 범위의 생활권 단위라 볼 수 있는 리 단위 마을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주민교육 지원체제에 대한 정책적 방안 모색이 요구되며,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위한 전문적 지원 노력이 필요함

II

외국 및 국내 지역주민 교육 정책



III.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교육 현황 및 지원정책 분석

1. 제주지역 사회 변천과정
2. 제주지역 마을단위 교육시설 현황
3.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교육 현황과
지원정책
4. 요약 및 시사점

Ⅲ.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교육 현황 및 지원정책 분석

1. 제주지역사회 변천과정

가. 제주 관광산업과 도시개발

- 해방직후인 1949년 제주 인구는 25만명 수준이었음. 이후 4·3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1960년까지 제주의 인구 변동 폭은 컸음
- 1960년 이후 제주 사회는 전국의 산업화와 도시화의 흐름을 따라가며 변화하기 시작함. 변화의 시작은 66년의 제주도 특정지구 지정과 71년의 제주도종합개발 10개년 계획, 1973년의 제주도 특정 지역관광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제주관광개발의 본격화임
- 당시 제주관광개발의 상징은 78년부터 시작된 중문관광단지임. 63만평에 이르는 부지에 세계적인 관광휴양지 조성을 목표로 시작된 중문관광단지는 96년에 되어서 1단계 사업이 완료됨
- 제주시는 1955년에 와서야 읍에서 시로 승격하였음. 도청 소재지였지만 인구는 5만 여명도 안 되는 작은 도시였음. 이러한 제주시가 변화하기 시작한 시기는 1970년대임. 몇 차례의 도시계획 수립과 재정비 과정을 거치면서 도시공간과 사회구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계획이 마련됨. 이를 실행한 사업이 1977년부터 시작된 200만평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신제주 건설임. 신제주 개발은 도시공간 구조의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음
- 제주시는 1985년부터 시작된 탐동해안 공유수면 일 대 약 16만 5000㎡(5만여 평)의 매립이 있었음
- 제주시는 90년대 이후 일도지구와 노형지구, 외도지구, 삼화지구, 그리고 아라동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택지 개발과 대량의 아파트가 공급되면서 오래된 도시의 쇠퇴가 나타나기 시작함
- 서귀포시도 1981년 서귀읍을 중문면과 합해 서귀포시로 승격하면서 제주 남부 중심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변화가 시작됨

나. 농어촌 지역개발

- 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감귤생산의 확대와 1971년의 새마을운동은 제주 농업과 농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음. 자급자족적인 농업생산에서 상업적 농업의 시대로 나아가게 하였으며, 마을안길 포장, 초가 지붕개량 등이 이루어지면서 농촌공간이 변화하였음
- 농업생산에서 상업적 농업 시대로의 변화는 1970년대 고구마와 유채, 감귤 등 경제작물의 등장임. 특히 감귤산업은 1990년대까지 제주농업 소득의 60%를 점유할 만큼 성장함
- 제주 지역 어촌의 자연마을은 연안 공동어장을 중심으로 형성됨. 1960년대 제주도 어업 인구는 8~9만 여명(전체 인구의 약 30%)이었으며, 이 당시 잠수에 의한 수산물 채취가 전체 생산량의 60~80%로 대부분을 차지함. 1970년대는 어업 인구의 탈어촌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시기임. 반면에 동력선이 증가하면서 생산량이 급증하였음. 1980년대는 어업 인구가 4만여명으로 감소하였으며, 1990년대는 근해어업과 육상 수조식 양식어업의 확대로 자본 집약적 생산 방식이 이뤄져서 어업 소득을 주도함
- 하지만 농업과 어업은 FTA 협상 진전에 따른 수입농수산물과의 경쟁,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에 의한 생산량 감소, 식품 안정성 수요 확산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다. 제주마을의 변화 특성

□ 행정구역

- 제주특별자치도는 1946년 도제 실시로 전라남도 관할에서 벗어나 2군 1읍 12면이 되었음. 그 후 1955년 9월에 제주읍이 시로 승격하였으며, 1956년에는 서귀·대정·한림 등 3면이 읍으로 승격하였고 한경면이 신설되어 1시 2군 3읍 10면이 되었음
- 1980년에는 애월·구좌·성산·남원 등 4면이 읍으로 승격하였으며, 1981년에는 서귀읍이 중문면과 합해 서귀포시로 승격하였음. 1985년에는 조천면이 읍으로, 1986년에는 구좌읍 연평출장소가 우도면으로 승격하면서 2시 2군 7읍 4면이 됨

-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는 하나의 광역체계로 개편되는데 북제주군은 제주시와 통합되고, 남제주군은 서귀포시와 통합되어 2개의 행정시 체계가 되었음.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하나의 광역체계와 2개 행정시, 7읍, 5면, 31동임
- 또 12개 읍·면에는 172개의 행정리, 31개 행정동에는 537개 통이 조직되어 있으며, 통·리는 4,465개의 반으로 조직되어 있음. 그리고 행정리와 통의 일부는 다시 564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음

〈표 III-1〉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구역 현황

(단위 : 개)

구 분	읍면동				통리			반	자연마을
	계	읍	면	동	계	통	리		
도	43	7	5	31	709	537	172	5,465	564
제주시	26	4	3	19	568	472	96	4,212	358
서귀포시	17	3	2	12	141	65	76	1,253	206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통계(2019)

- 행정시 읍·면·동의 자연마을 중심으로 현황을 살펴보면 제주시 동 지역은 19개의 행정동과 22개의 법정동, 그리고 78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음. 또 읍·면 지역은 4읍 3면, 84개의 법정리와 96개의 행정리, 280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음
- 서귀포시 동 지역은 12개의 행정동과 22개의 법정동, 30개의 자연마을이 있음. 그리고 읍·면 지역은 3읍 2면, 50개의 법정리와 76개의 행정리, 176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음

〈표 III-2〉 제주시·서귀포시 마을 현황

(단위 : 개)

구 분	읍면					동			자연마을
	읍	면	법정리	행정리	자연마을	행정동	법정동	자연마을	총 계
도	7	5	134	172	456	31	44	108	564
제주시	4	3	84	96	280	19	22	78	358
서귀포시	3	2	50	76	176	12	22	30	206

□ 인구 변화

- 2019년 12월 31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총 인구는 696,657명에 세대 수는 293,155가구임. 제주시 인구는 505,950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72.6%를 차지하여 서귀포시 190,707명 보다 2.65배 높은 인구 밀도를 나타내고 있음
- 읍·면·동 인구분포를 살펴보면 동지역은 493,750명으로 읍·면지역 202,907명 보다 2.4배 높은 70.8%를 차지하고 있음. 서귀포시 동 지역은 제주시 동 지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은 낮은 인구 밀도를 나타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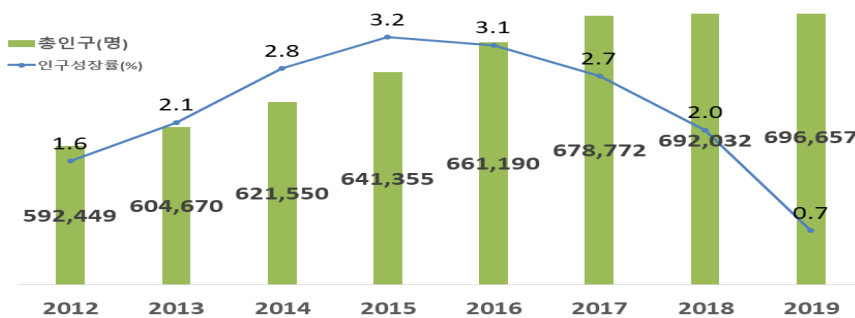
〈표 III-3〉 제주특별자치도 인구현황

(단위 : 명, 세대)

구 분	계	읍면			동	세대
		소 계	읍	면		
도	696,657	202,907	164,120	38,787	493,750	293,155
제 주 시	505,950	117,324	103,970	13,354	388,626	209,439
서귀포시	190,707	85,583	60,150	25,433	105,124	83,716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2019 주민등록통계보고서 재구성

- 2019년 12월 31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의 총 인구(외국인 포함)는 69만6,657명으로 2018년(69만2,032명)에 비해 4,625명(0.7%) 증가함. 2019년 총 인구는 10년 전인 2009년(56만7,913명)보다 22.7% 증가하였음



[그림 III-1] 제주특별자치도 연도별 인구 및 인구증가율(2012~2019)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2019 주민등록통계보고서

- 인구증가율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2016년부터 매년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으며 2017년 2.7%, 2018년 2.0%, 2019년은 0.7%로 전년대비 1.3%p 감소
- 2019년 유소년인구는 9만8,922명으로 전년도 100,183명 보다 감소한 반면, 생산가능인구 49만6,966명과 고령인구 10만769명은 전년대비 모두 증가하였음. 또 이를 전체 인구 중 차지하는 비중으로 살펴보면, 유소년인구(14.2%)와 생산가능인구(71.3%)의 비중은 전년대비 하락한 반면, 고령인구(14.5%)의 비중은 상승하였음

〈표Ⅲ-4〉 연도별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및 고령인구 추이(2012~2019)
(단위 : 명, %, 100명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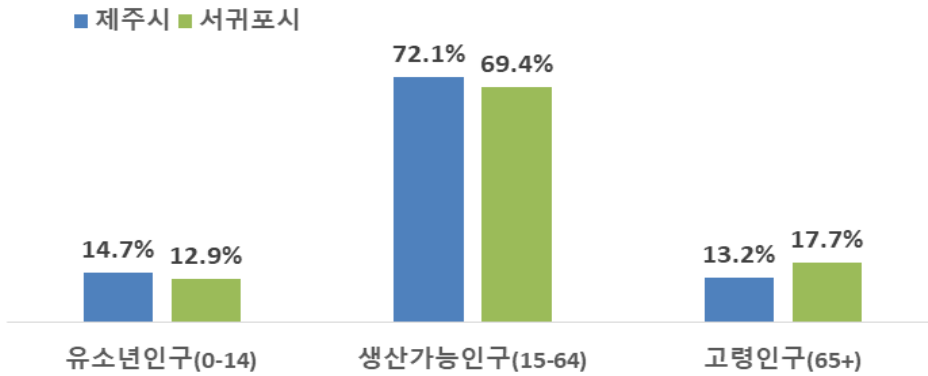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592,449	604,670	621,550	641,355	661,190	678,772	692,032	696,657
유소년인구(0~14세)	100,055	99,499	99,486	99,202	99,743	100,487	100,183	98,922
(비 중)	(16.9)	(16.5)	(16.0)	(15.5)	(15.1)	(14.8)	(14.5)	(14.2)
생산가능인구(15~64세)	416,334	425,716	439,467	456,052	472,016	484,921	495,358	496,966
(비 중)	(70.3)	(70.4)	(70.7)	(71.1)	(71.4)	(71.4)	(71.6)	(71.3)
고령인구(65세이상)	76,060	79,455	82,597	86,101	89,431	93,364	96,491	100,769
(비 중)	(12.8)	(13.1)	(13.3)	(13.4)	(13.5)	(13.8)	(13.9)	(14.5)
■ 노령화지수	76.0	79.9	83.0	86.8	89.7	92.9	96.3	101.9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2019 주민등록통계보고서 재구성

- 2019년 전체 인구 중 고령인구(65세이상)는 10만769명(14.5%)로 고령사회로 진입함. 행정시별 전년대비 고령인구 비중을 살펴보면 제주시는 13.2%로 0.4%p 증가, 서귀포시 17.7%로 0.6%p 증가하였음

(65세이상 인구 비율 : 7%이상 고령화사회, 14%이상 고령사회, 20%이상 초고령사회)

- 노령화지수는 제주시가 제주도 평균(101.9)보다 낮은 90.0인 반면 서귀포시는 137.6으로 평균보다 1.4배 높음



[그림 III-2] 행정시별 유소년 인구, 생산가능 인구, 고령 인구 비율(2019)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2019 주민등록통계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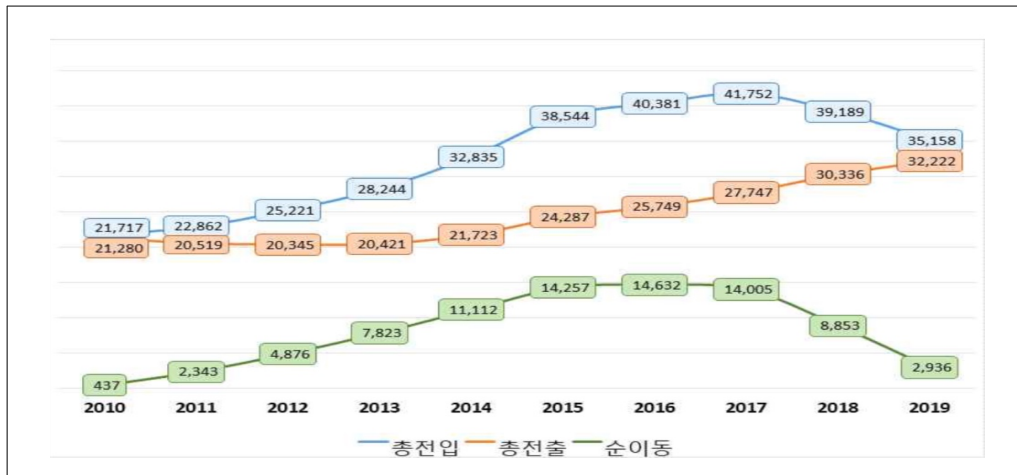
- 제주지역 전입인구 2010~2017년은 지속적 증가함. 2010년 21,717명이었던 전입인구는 2017년 41,752명으로 정점에 이른 후 2018년 39,189명, 2019년 35,158명으로 감소함. 반면 제주지역 전출인구는 2010년 21,280명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7년 27,747명, 2018년 30,336명, 2019년 32,222명 임
- 또 제주지역 순이동 인구는 2009년 -1,015명에서 2010년 437명으로 2016년 (14,632명)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7년 14,005명, 2018년 8,853명, 2019년 2,936명으로 둔화됨

<표 III-5> 제주지역 전입·전출 및 순이동 인구 현황(2009~2018년)

(단위 : 명,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입인구(A)	21,717	22,862	25,221	28,244	32,835	38,544	40,381	41,752	39,189	35,158
전출인구(B)	21,280	20,519	20,345	20,421	21,728	24,287	25,749	27,747	30,336	32,222
순이동(C=A-B)	437	2,343	4,876	7,823	11,112	14,257	14,632	14,005	8,853	2,9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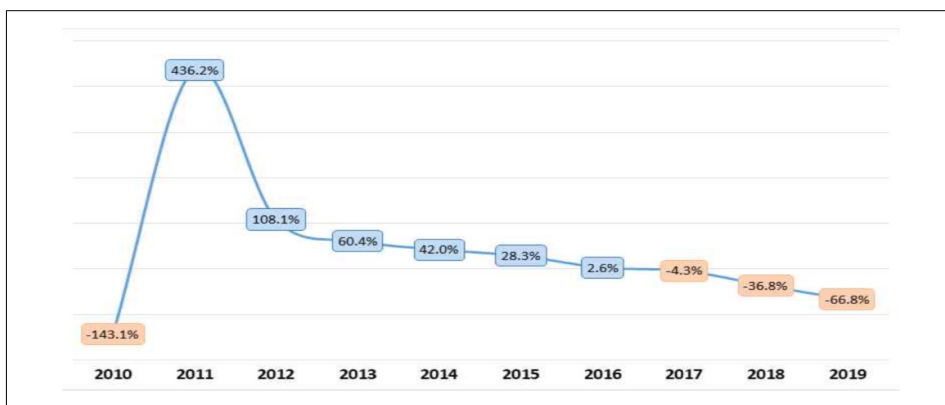
*출처 : 2020~2024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종합계획



[그림 III-3] 제주지역 전입·전출 및 순이동 변화추이(2010~2019년)

* 출처 : 2020~2024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종합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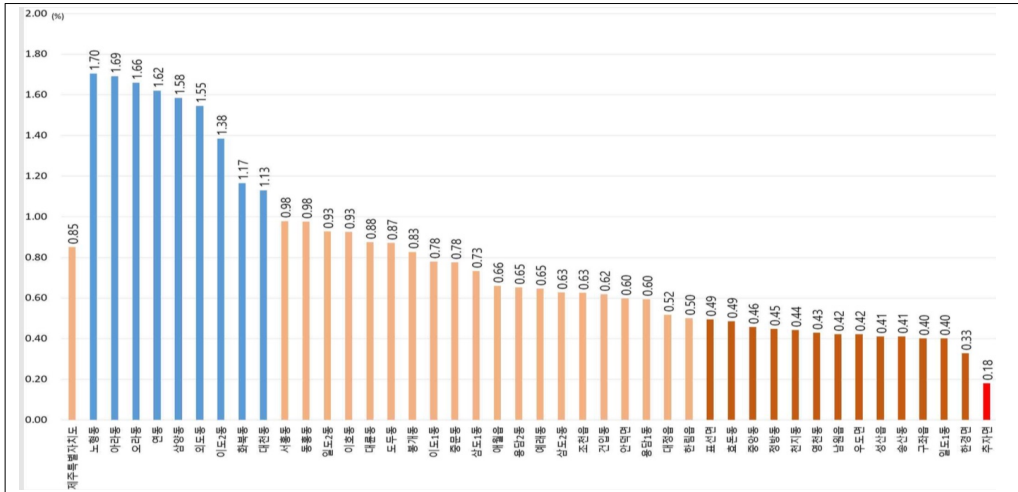
- 2018년을 기점으로 전입인구 감소세 전환 및 전출인구의 증가세 확대. 2018년 기준 제주지역 전입인구는 2017년 대비 6.1% 감소한 반면 전출인구는 9.3%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2018년 은 제주지역 순이동 인구는 2017년 대비 36.8% 감소, 2019년은 2018년 대비 66.8% 감소



[그림 III-4] 제주지역 순이동 인구 증가율 변화추이(2010~2019년)

* 출처 : 2020~2024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종합계획

- 2019년 기준 읍면동별 인구 소멸위험지역¹⁾을 살펴보면 서홍동, 동홍동, 일도 2동 등 20곳은 소멸주의에 해당되며, 표선면, 효돈동, 중앙동 등 13곳은 소멸 위험, 추자면은 0.2 미만으로 소멸고위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음



[그림 III-5] 2019년 기준 읍·면·동별 소멸위험지수

* 출처 : 2020~2024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종합계획

2. 제주지역 마을단위 교육시설 현황

가. 제주지역 평생교육 및 학습기관

- 제주지역 평생교육 및 학습기관은 크게 ①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 시설·법인 또는 단체와 ②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로 분류할 수 있음
- 이를 근거로 제주지역 평생교육 기관 624개소(2019년 기준 / 중복기관 배제, 595개소)의 현황을 살펴보면, 평생교육법령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 기관은 42개소로 그 밖의 다른 법령에 근거한 평생교육 기관 582개소 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남

1) 인구소멸지수는 20~39세 여성인구와 65세 고령인구의 상대비를 나타내는 지수로 상대비가 1.0을 인구가 유지되는 최소한의 방어선으로 보고, 상대비가 1.0 이하로 떨어지면 그 폭이 크면 클수록 인구소멸의 위험이 커짐.

- 평생교육법령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 기관 42개소는 동 지역은 33개, 읍·면 지역 9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이를 행정시별로 살펴보면, 제주시는 34개소로 동지역이 26개, 읍·면지역이 8개소임. 반면 서귀포시는 8개소로 동 지역은 7개, 읍·면 지역이 1개소 설치됨. 우리동네학습나눔터 8개소가 제주시 마을단위로 설치되어 있음

〈표 III-6〉 평생교육법령에 의한 평생교육 기관 현황

구 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비 고
		동	읍면	동	읍면	동	읍면	
계		42	33	9	26	8	7	1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1	1	-	1	-	-	-
(행정시)평생학습관		2	2	-	1	-	1	-
우리동네학습나눔터		8	-	8	-	8	-	-
(성인)문해교육지정기관		5	5	-	3	-	2	-
평생 학습 (도시) 교육 기관	평생교육대학	1	1	-	1	-	-	제주대학교
	대학부설	4	4	-	4	-	-	-
	학교	4	4	-	3	-	1	-
	원격대학	1	1	-	1	-	-	휴원1
	사업장부설	4	4	-	2	-	2	-
	시민사회단체부설	5	5	-	4	-	1	-
	언론기관 부설	2	1	1	1	-	-	1 휴원1
	지식·인력 개발	5	5	-	5	-	-	-

* 출처 : 홍숙희(2019), 2019 제주지역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p23~33.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근거한 평생교육기관 582개소 현황을 살펴보면, 시민사회단체형 평생학습기관이 84개소로 가장 많고, 박물관, 전시관, 미술관이 81개소, 지역아동센터 65개, 청소년관련시설 평생학습기관이 51개, 작은도서관 48개, 주민자치센터 43개 순임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근거한 평생교육기관 582개소를 행정시와 읍·면·동 지역으로 살펴보면, 전체 582개소 중에 제주시가 380개소, 서귀포시가 20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동 지역이 402개소로, 읍·면 지역이 180개소 보다 2배 이상 많으며, 특히 제주시 동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읍·면 지역 단위에서 평생교육기관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은 주민자치센터

와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청소년문화의집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기관들은 대부분 읍·면사무소 소재지 마을에 위치함

〈표 III-7〉 그 밖의 다른 법령에 근거한 평생교육 기관 현황

구 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비 고
		동	읍면	동	읍면	동	읍면	
계	582	402	180	285	95	117	85	
박물관, 전시관, 미술관	81	31	50	15	23	16	27	국립, 대학, 공립 17개소, 사립 62개소
과학관	2	2	-	1	-	1	-	공립 2개소
지방문화원	2	2	-	1	-	1	-	
교습 및 직업학원	27	24	3	21	1	3	2	
공공도서관	22	13	9	7	4	6	5	도교육청(제주시 3, 서귀포시 3개소)
주민자치센터	43	31	12	19	7	12	5	
작은도서관	48	33	15	23	7	10	8	휴관4개소(제주시2, 서귀 포시2 / 공립6개소 (제주시4, 서귀포시2)
문화의집	21	14	7	8	2	6	5	
지역아동센터	65	35	30	23	17	12	13	
여성관련센터	6	6	-	4	-	2	-	
청소년관련시설	51	34	17	18	9	16	8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등
노인관련시설	38	25	13	19	8	6	5	노인대학 등
장애인관련시설	39	32	7	22	6	10	1	
다문화가족관련시설	2	2	-	1	-	1	-	
사회복지관련시설	17	13	4	10	1	3	3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직업훈련기관	27	25	2	23	1	2	1	
연수형교육기관	7	3	4	1	3	2	1	인재개발원 농업기술센터 등
시민 사회 단체형 기관	비영리	16	15	1	13	-	2	1
	시민	19	17	2	17	2	-	-
	교육	5	5	-	5	-	-	-
	문화	8	8	-	7	-	1	-
	청소년	3	3	-	3	-	-	-
	여성	6	6	-	4	-	2	-
	노인	3	3	-	2	-	1	-
	장애인	11	10	1	9	1	1	-
	환경	13	10	3	9	3	1	-

* 출처 : 홍숙희(2019), 2019 제주지역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p33~77.

나. 마을단위 평생학습 기능의 공공 공간

- 마을 단위 공공 공간은 주민들의 커뮤니티를 증진하는 기능과 더불어 공적서비스를 연결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음. 또 주민들 다수의 접근 편의가 매우 높아 마을 단위 다양한 주민교육 및 학습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 「2019 제주지역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에서는 마을회관과 노인회관, 새마을문고 등을 마을 단위 평생학습 기능 공간으로 조사함. 조사 결과 제주 지역 내에는 982개소(2019년 기준)가 있으며, 노인회관 444개, 마을회관 411개, 새마을문고 127개소로 나타남. 마을회관은 전체 411개소 중 읍·면 지역이 293개소로 동 지역 118개소 보다 많고, 노인회관은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전체 982개 공간을 행정시별로 살펴보면, 제주시에 669개로, 서귀포시에 363개 분포되어 있음. 행정시 모두 동 지역보다 읍·면 지역에 공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읍·면 지역 마을회관은 서귀포시가 75%로 동 지역 보다 높고, 제주시도 69%로 동 지역 보다 높음. 또 노인회관은 서귀포시의 경우 읍·면 지역이 64%로 동 지역보다 높지만 제주시는 동 지역이 55%로 읍·면 지역보다 높음

〈표 III-8〉 마을 단위 평생학습 활용가능 공간 현황

구 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비 고
		동	읍·면	동	읍·면	동	읍·면	
계	982	394	588	281	338	113	250	
마을회관	411	118	293	78	171	40	122	
노인회관	444	216	228	163	133	53	95	
새마을문고	127	60	67	40	34	20	33	후관 : 제주시 27개소 서귀포시 10개소

* 출처 : 홍숙희(2019), 2019 제주지역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p79~107

3.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교육 현황과 지원정책

가. 읍·면·동(마을단위) 평생학습센터²⁾

- 읍·면·동평생학습센터는 읍·면·동 행복학습센터라는 명칭으로 2013년~2015년의 시·군·구 대상 국가의 시범운영을 거쳐 2016년부터 시·군·구별로 거점센터를 두고 최소 3개로 본격 운영됨. 2014년 평생교육법 개정을 통해 읍·면·동 단위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당시 행복학습센터는 평생학습 참여 확대를 위한 국가평생교육진흥 추진체제를 기반으로 각 추진 주체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분장을 실시함. 이를 위해 국가-시도, 시도-시군구, 시군구-읍면동 등 각 운영주체 간 원활한 소통과 운영주체 간 활발한 협의 활동의 발전적인 촉진제로 행복학습센터가 도입됨
- 제주지역은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이나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조례를 법률 근거로 도지사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반영하고 있음. 이와 관련 평생학습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2016년 행복학습센터운영은 거점센터 2개소(제주시·서귀포시 평생학습관), 읍면센터로 <표 III-9>와 같이 8개소를 운영함

<표 III-9> 2016년 제주지역 행복학습센터 운영 현황

거점 (2개소)	제주시 평생학습관 (읍·면 5개소)					서귀포시 평생학습관 (읍·면 3개소)		
읍·면	한림	애월	구좌	조천	한경	대정	남원	성산
장소 (8개소)	금릉 꿈차롱 작은 도서관	봉성새별 작은 도서관	하도리 사무소	함덕 새마을 작은 도서관	저지리 사무소	대정읍 주민센 터	남원1리 사무소	성산읍 주민센 터

2) 홍숙희·김민호·이소연(2019). 제주평생교육 도민의식 및 인지도 향상방안 연구. 제주 평생교육장학진흥원, p16~19. 내용 반영 및 추가 수정함

- 이후 제주시는 2017년 공모사업 종료 이후 자체 사업으로 전환 운영하였고, 서귀포시는 2017년에 5개소로 확대 운영한 후 국비지원 공모사업 종료에 따라 시민제안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 등으로 전환하여 행복학습센터 지정 운영사업을 종료함
- 2017년 자체사업으로 전환한 제주시는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우리동네 학습나눔터’ 로 <표 III-10>와 같이 지정·운영함

<표 III-10> 2018년 제주도 ‘우리동네 학습나눔터’ 운영 현황

구분	시군구	지역	기관주소
1	제주시	거점센터	제주 사라봉동길 15, 제주시 평생학습관
2	제주시	한림지역(금능리)	제주 한림읍 금능2길 1, 금능리사무소
3	제주시	한림지역(금악리)	제주 한림읍 금악로1길 15, 금악포크빌리지
4	제주시	애월지역(납읍리)	제주 애월읍 납읍로2길 3, 납읍리 새마을작은도서관
5	제주시	애월지역(광령1리)	제주 애월읍 광성로 298-1, 광령1리 새마을작은도서관
6	제주시	구좌지역(송당리)	제주 구좌읍 중산간동로 2240, 송당리 당오름 도서관
7	제주시	조천지역(신촌리)	제주 조천읍 신촌서길 63, 신촌 문화의집
8	제주시	조천지역(북촌리)	제주 조천읍 일주동로 1514, 북촌리사무소
9	제주시	한경지역(고산리)	제주 한경면 고산로1길 5, 놀빛감성학교

- 2019년에는 구좌지역 송당리가 행원리로 변경되어 행원리사무소에서 운영됨

<표 III-11> 2019년 제주도 ‘우리동네 학습나눔터’ 운영 현황

거점 (1개소)	제주시 평생학습관(읍·면 8개소)				
읍·면 (8개소)	한림	애월	구좌	조천	한경
장소 (8개소)	금능리사무소	납읍리새마을 작은도서관	행원리사무소	신촌문화의집	놀빛감성학교
	금악포크빌리지	광령1리새마을 작은도서관		북촌리사무소	

〈표 III-12〉 2019년 제주시 ‘우리동네 학습나눔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

구분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영역	교육 기간	교육 시수	연간 교육 횟수	참여 인원(명)			참여 대상
						남	여	총계	
1	영어교실	학력보완 교육	2개월	32시간	8회	6	6	12	청소년
2	미용교실	인문교양 교육	2개월	12시간	6회	6	8	14	청소년
3	클라이밍 교실	문화예술 교육	10개월	74시간	37회	5	7	12	청소년
4	독서교실	인문교양 교육	4개월	10시간	10회	6	5	11	어린이
5	마술동아리	문화예술 교육	10개월	60시간	30회	3	1	4	어린이
6	댄스동아리	문화예술 교육	10개월	60시간	30회	0	3	3	어린이
7	연극동아리	문화예술 교육	10개월	72시간	36회	4	3	7	청소년
8	밴드동아리	문화예술 교육	10개월	72시간	36회	4	5	9	청소년
9	미술교실	문화예술 교육	11개월	82시간	41회	8	7	15	청소년
10	풍물교실	문화예술 교육	10개월	66시간	33회	6	7	13	어린이
11	전래놀이 교실	문화예술 교육	2개월	10시간	5회	6	7	13	어린이
12	종이접기 교실	인문교양 교육	12개월	43시간	43회	6	7	13	어린이
13	기초학습 지원교실	기초문해 교육	12개월	186시간	93회	16	12	28	통합
14	직업체험 교실	직업능력 교육	3개월	24시간	8회	8	7	15	청소년
15	부모교육 교실	인문교양 교육	10개월	16시간	8회	-	-	-	성인

〈표 III-13〉 2020년 제주시 ‘우리동네 학습나눔터’ 운영 현황

거점 (1개소)	제주시 평생학습관 (읍·면 8개소)				
읍·면 (8개소)	한림	애월	구좌	조천	한경
장소 (8개소)	귀덕1리사무소	곽지리사무소	송당리사무소	신촌리사무소	놀빛감성 학교
	금악리 다목적회관	광령1리 새마을작은도서관		북촌리사무소	

- 제주시는 ‘우리동네 학습나눔터’ 운영을 위해 학습매니저 8명을 전담인력으로 채용하여 지역에 배치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주민이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 선정과 마을 자체 수강생 모집 및 강사 선정 등을 거쳐 5월부터 10월까지 거주자 중심의 주민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 지역 주민들을 위한 근거리 맞춤형 특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특성을 지님. 아쉽게도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사업 추진이 중지됨
- 한편,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는 평생교육기관이 미배치된 읍·면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도민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리 단위의 마을 평생학습 공간 확보 및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제주는 삶의 배움터다! 참여형 프로젝트’를 2018~9년에 추진함

〈표 III-14〉 2018~9년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마을배움터’ 운영현황

구분	시군구	마을배움터	위치
1	제주시	한림읍 귀덕1리	귀덕1리 마을회관
2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함덕리 마을회관
3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평대리 마을회관
4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2리	무릉2리 마을회관
5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2리	위미2리 마을회관

- 이는 리 단위로 진흥원과 마을회가 협약을 통해 〈표 II-6〉과 같이 ‘마을배움터’를 마련하여 마을 주민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제공 및 도민 역량 강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노력임. 마을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마을 단위의 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으로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일임. 2019년 마을배움터에 총 13개 과정의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통해 187명이 참여함

〈표 III-15〉 2019년 ‘마을배움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

구분	배움터명	프로그램명	참여인원
1	무릉리 마을배움터	짜투리 천을 활용한 퀴트 교실	21명
		천영염색을 통한 마음 치유	21명
2	위미리 마을배움터	우리 전통의 멋 한지 공예 - 1	21명
		우리 전통의 멋 한지 공예 - 2	19명
3	함덕리 마을배움터	책 속의 보물 찾기	10명
		글쑤, 꽃쑤, 나의 봄나들이	10명
		농부학교(키위반)	10명
		동백꽃이 피었습니다.	10명
		청소년 자기발견 프로젝트	10명
4	귀덕1리 마을배움터	찾아가는 퍼스널 메이크업 - 1	10명
		찾아가는 퍼스널 메이크업 - 2	10명
		신바람 나는 건강댄스	17명
5	평대리 마을배움터	향기요법과 피부케어	18명
합 계		13개 과정	187명

나.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³⁾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주민교육은 시민의 자치의식향상을 위한 교육과 문화·여가 및 복지 기능의 자율적인 참여를 돕는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음

The screenshot shows the website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Cyber Citizen Center. The main banner features an elderly couple looking at a laptop, with text about strengthening citizen participation and forming a self-help regional community. Below the banner, there are sections for 'Main Programs' and 'Program Search'. The 'Program Search' section includes filters for location (Jeju City, Jeju District, Jeju County) and category (Citizen Education, Culture & Leisure, Welfare). A table lists several programs, including 'Citizen Education' and 'Culture & Leisure' programs, with details on dates and status.

[그림 III-6]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주민자치센터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개요

- ◆ 운영공간 : 43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와 지역 내 공공형의 문화·교육 복합공간

3) 제주특별자치도사이버주민자치센터 <http://www.jeju.go.kr/jumin/>

- ◆ 프로그램 운영 및 유형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별 평균 10~20개 프로그램
 - 주민자치 : 주민자치학교 등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 시민교육 : 중국어교실, 명리학 등 지식함양 교육프로그램
 - 문화·여가 : 노래교실, 서예, 난타, 풍물교실, 댄스, 요가 등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 제주시 연동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

- ◆ 2020년 상반기 연동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총 22개 강좌가 개설되었는데, 이 중 시민교육에는 7개 강좌, 문화·여가에는 15개 프로그램이 개설되었음. 어린이 대상 2개 강좌, 다문화가정 1개 강좌, 민속보전회 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대상을 다양하게 한 측면이 있음
- ◆ 2020년 상반기 연동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역 주민은 450여명으로 1개 프로그램에 평균 20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 또 주민자치센터 외 3개 장소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는데 이는 시민들의 접근성과 참여대상을 고려한 것임

〈표 III-16〉 연동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현황(2020년 상반기)

프로그램명	기 간	대 상	장 소	수강료
기초학력 증진1반	3.2~6.27(월, 목)	어린이 10명	신제주초등학교	무료
기초학력 증진2반	3.2~6.27(월, 목)	어린이 10명	신제주초등학교	
한글교실	3.2~6.27	다문화가정 10명	주민자치센터	
사군자	3.2~6.27(매주 목)	주민 15명	롯데시티호텔 5층 문화센터	
어르신댄스	3.2~6.27(매주 월)	주민 40명	연동종합복지회관	
멜로디기타	3.2~6.27(매주 금)	주민 10명	연동종합복지회관	
한자(명심보감)	3.2~6.27(매주 목)	주민 15명	롯데시티호텔 5층 문화센터	
풍물(중급)	3.2~6.27(매주 목)	민속보전회 30명	연동종합복지회관	
스마트 폰 쉽게 알기	3.2~6.27(매주 금)	주민 20명	주민자치센터	
생활체조	3.2~6.27(화, 목)	주민 40명	연동종합복지회관	
댄스 스포츠	3.2~6.27(월, 수)	주민 10명	연동종합복지회관	

풍물기초	3.2~6.27(매주 목)	주민 15명	연동종합복지회관
요가	3.2~6.27(월, 수)	주민 40명	연동종합복지회관
명리학	3.2~6.27(매주 화)	주민 25명	롯데시티호텔 5층 문화센터
서예	3.2~6.27(매주 화)	주민 15명	롯데시티호텔 5층 문화센터
에어로빅	3.2~6.27(월, 수)	주민 40명	연동종합복지회관
한국무용(중급)	3.2~6.27(매주 토)	주민 20명	연동종합복지회관
고전무용	3.2~6.27(매주 월)	주민 25명	연동종합복지회관
장구난타	3.2~6.27(매주 화)	주민 20명	연동종합복지회관
민화	3.2~6.27(매주 목)	-	롯데시티호텔 5층 문화센터
노래교실	3.2~6.27(매주 수)	주민 20명	연동종합복지회관
중국어 기초	3.2~6.27(화,목)	주민 15명	롯데시티호텔 5층 문화센터

○ 제주시 한림읍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

- ◆ 2020년 한림읍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총 19개 강좌가 개설되었는데, 바리스타, 사물놀이, 고전무용, 요가, 난타 등 문화·여가 프로그램으로만 구성되어 있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역주민은 415명이며 1개 프로그램에 평균 22명이 참여함

〈표 III-17〉 한림읍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현황(2020)

프로그램명	기 간	대 상	장 소	수강료
바리스타 교실	4.1~6.28(매주 월)	주민 10명	귀족교회 교육관	
기타교실	3.4~5.31(매주 금)	주민 20명	주민자치센터	
사물놀이	3.2~5.30(월, 수)	주민 50명	한림체육관	
고전무용	3.2~5.30(매주 화)	주민 20명	주민자치센터	
실버웃음댄스 교실	3.4~5.31(매주 금)	주민 20명	주민자치센터	
요가 교실(기초)	3.4~5.31(매주 토)	주민 25명	주민자치센터	
난타교실	3.4~5.31(매주 월)	주민 20명	주민자치센터	
서각교실	3.4~5.31(매주 화)	주민 15명	주민자치센터	
도자공예	3.4~5.31(매주 목)	주민 20명	주민자치센터	
천연염색 교실	4.8~6.28(매주 토)	주민 15명	강사작업실	무료
난타교실	9.2~11.30(매주 월)	주민 20명	주민자치센터	

요가교실	9.2~11.30(매주 토)	주민 25명	주민자치센터
고전무용	9.2~11.30(매주 화)	주민 20명	주민자치센터
바리스타교실(핸드드립)	9.2~11.30(매주 월)	주민 10명	귀덕교회교육관
민요교실	9.2~11.30(매주 화)	주민 20명	주민자치센터
서각교실	9.2~11.30(매주 화)	주민 15명	주민자치센터
사물놀이	9.2~11.30(월, 목)	주민 50명	한림체육관
기타교실	9.2~11.30(매주 금)	주민 20명	주민자치센터
도자공예	9.2~11.30(매주 목)	주민 20명	주민자치센터

○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

- ◆ 2020년 동홍동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총 23개 강좌가 개설되었는데, 어린이 대상 3개 강좌를 제외하면 대부분 문화·여가 프로그램으로만 구성되어 있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역주민은 445명이며, 1개 프로그램에 평균 19명이 참여함

<표 III-18> 동홍동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현황(2020)

프로그램명	기 간	대 상	장 소	수강료
아동미술	8.10~10.31(매주 토)	초등부 15명	주민자치센터	재료비
한자교실	8.10~10.31(매주 토)	초등부 15명	주민자치센터	무료
제주아리랑 배우기	8.9~10.31(매주 금)	주민 20명	주민자치센터	무료
플라워아트	8.9~10.31(매주 금)	주민 20명	주민자치센터	재료비
댄스스포츠(알츠초급)	8.8~10.31(매주 목)	주민 20명	주민자치센터	무료
쑈바댄스	8.8~10.31(매주 목)	주민 20명	동홍아트홀	
난타교실(초중급)	8.7~10.31(매주 수)	주민 20명	주민자치센터	재료비
가족공예(초급)	8.7~10.31(매주 수)	주민 20명	주민자치센터	
요가수업	8.7~10.31(수, 금)	주민 20명	주민자치센터	무료
오카리나 교실	8.6~10.31(매주 화)	주민 20명	동홍아트홀	무료
도예교실	8.6~10.31(매주 화)	주민 20명	양곡공방	재료비
프리테니스	3.4~6.30(수, 금)	주민 20명	삼성여고체육관	무료
요가수업	3.5~6.30(수, 금)	주민 20명	주민자치센터	
가족공예(초급)	3.5~6.30(매주 목)	주민 20명	주민자치센터	

댄스스포츠(알츠초급)	3.5~6.30(매주 목)	주민 20명	동홍아트홀	
플라워아트	3.5~6.30(매주 금)	주민 20명	주민자치센터	재료비
오카리나 교실	3.5~6.30(매주 화)	주민 20명	주민자치센터	교재비
제주아리랑 배우기	3.5~6.30(매주 수)	주민 20명	주민자치센터	무료
제과수업	3.5~6.30(매주 목)	주민 20명	대한제과 서귀포지부	재료비
한자교실 (6급)	3.5~6.30(매주 토)	초등부 15명	주민자치센터	무료
도예교실	3.5~6.30(매주 화)	주민 20명	도담도예	재료비
전통요리수업	3.5~6.30(매주 화)	주민 20명	서귀포요리학원	재료비
난타교실(초중급)	3.5~6.30(매주 수)	주민 20명	주민자치센터	무료

○ 서귀포시 남원읍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

- ◆ 2020년 남원읍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총 14개 강좌가 개설되었는데, 시민교육 2개 강좌 외 대부분 문화·여가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역주민은 209명이며, 1개 프로그램에 평균 15명이 참여함

〈표 III-19〉 남원읍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현황(2020)

프로그램명	기 간	대 상	장 소	수강료
승마 교실(초급)	8.21~9.25(수, 금)	주민 16명	웃귀마테마타운	150,000
난타 교실(초급)	8.12~10.28(매주 월)	주민 15명	주민자치센터	무료
생활목공	8.8~11.14(매주 목)	주민 12명	주민자치센터	재료비
중국어 교실(초급)	8.7~10.30(월, 수)	주민 30명	주민자치센터	교재구입
통기타 교실	8.7~10.25(수, 금)	주민 15명	주민자치센터	악기구입
수채캘라그래피	8.7~10.30(매주 수)	주민 12명	주민자치센터	재료비
난타 교실(중급)	8.6~10.22(매주 화)	주민 15명	주민자치센터	무료
승마 교실(중급)	4.3~5.3(수, 금)	주민 16명	웃귀마테마타운	150,000
냅킨아트 교실	3.6~5.22(매주 수)	주민 15명	주민자치센터	재료비
중국어 교실	3.6~5.10(수, 금)	주민 12명	주민자치센터	교재구입
일러스트 수채화교실	3.5~5.21(매주 화)	주민 12명	-	재료비
통기타 교실	3.5~5.9(화, 목)	주민 12명	주민자치센터	악기구입
천아트 교실	3.4~5.27(매주 월)	주민 12명	주민자치센터	재료비
난타 교실	3.2~5.18(매주 토)	주민 15명	주민자치센터	무료

다. 마을(도·농)단위 주민역량강화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주민역량강화사업

○ 2016년 마을단위 주민교육 운영계획⁴⁾

- ◆ 목적 : 마을공동체의 이해와 마을의제 발굴을 위한 맞춤형 교육,
- ◆ 운영방법 : 마을공동체 발전단계와 주체에 따른 교육과 세미나 등 교육활동의 차별화
 - 강의식 교육 : 효율적이고 규모 있는 운영 가능
 - 토론식 교육 : 창의적 인재 양성 가능
 - 실습교육 : 이론 교육과 실제화를 위한 실행교육
- ◆ 운영계획 : 주민역량강화교육프로그램(50명/2회, 커뮤니티디자인,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 찾아가는 주민교육(175명/7회, 주민 맞춤형 교육), 아카데미(20명, 공동체 관리 및 리더십교육, 기본과정과 고급과정 운영), 회계교육(25명, 회계에 대한 이론, 정산관련 전문성 배양 등), 귀농귀촌인지원교육(25명, 정착기반 형성교육 및 소통 교육)
- ◆ 운영현황 : 6개 마을, 총 17회 운영, 마을발전, 공동체, 도서관, 자연해설, 카페운영, 여가활동 등 6개 유형의 교육주제로 운영됨

〈표 III-20〉 2016년 주민교육 프로그램 현황

구 분	강 좌 명	기 간	대상/인원	운영방식
귀덕2리	단계별 마을발전사업 및 사업계획 수립 방법	2016.10.24	주민	강의
봉개동	마을만들기와 공동체	2016.10.25	주민	강의
귀덕2리 내삼화리 소길리 봉개동	우리는 왜 공동체 사업을 하는가?	2016.10.25 2016.11.17 2016.12.07 2016.12.08	주민	강의
봉개동	마을과 도서관	2016.11.03	주민	강의

4)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자료제공

봉개동	트리즈	2016.11.10	주민	강의
봉개동	마을미디어 도서관	2016.11.17	주민	강의
봉개동	꽃빛 바느질	2016.11.24	주민	강의
서귀포시	마을공동체 구성원을 위한 리더십	2016.11.24	주민	강의
청수리	제주자연환경의 이해 (해설사의 역할)	2016.11.30	주민	강의
봉개동	카페운영 노하우	2016.12.01	주민	강의
청수리	자연해설 기법, 제주의 자연환경	2016.12.01	주민	강의
봉개동	도서관은 뭐하면서 놀까	2016.12.06	주민	강의
한원리	마을가꾸기 왜 해야하나	2016.12.15	주민	강의
한원리	마을가꾸기 사업의 변화	2016.12.16	주민	강의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내부자료

○ 2017년 마을단위 주민교육 운영계획⁵⁾

- ◆ 목적 : 마을공동체의 이해와 마을의제 발굴을 위한 맞춤형 교육
- ◆ 운영방법 : 마을공동체 발전단계와 주체에 따른 교육과 세미나 등 교육활동의 차별화
 - 강의식 교육 : 효율적이고 대규 있는 운영 장점
 - 토론식 교육 : 창의적 인재 양성 가능
 - 실습교육 : 이론 교육과 실제화를 위한 실행교육
- ◆ 운영기간 : 2017년 2월~11월(수시교육)
- ◆ 운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 ◆ 운영계획 : 주민역량강화교육, 찾아가는 주민교육, 지역주민이 만들어가는 아카데미 운영, 공모사업 회계교육, 귀종귀촌인 지원교육, 사업사업추진 세미나 등
- ◆ 운영현황 : 25개 마을, 총 80회 운영, 마을만들기 정책과 사례,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우쿠렐레, 주민주도형 사업 발굴, 비전수립과 자원찾기, 마을축제 기획과 운영,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커뮤니티디자

5)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자료제공

인, 마을공동사업의 이해, 베이비마사지, 동화구연, 공동주택단지
마을공동체 활성화, 행복마을콘테스트 공연 교육 등 주제 강의

〈표 III-21〉 2017년 주민교육 프로그램 현황

구 분	강 좌 명	기 간	대상/인원	운영방식
창천리	개발위원과 마을주민이 함께하는 주민교육	5.11~12(2회)	주민	강의
와산리	축제의 원형적 정의	07.14		강의
	마을비전/축제비전 수립하기			
	특화 야시장을 통한 마을활성화 방안			
청수리	체험 및 마을사업 운영방법	7.17~18(2회)	주민	강의
상가리	행복마을 콘테스트 마임교육	8.1~ 9.13(19회)	주민	공연 연습
하례1리	마을만들기 우수사례 및 공동체 역할	7.12	주민	강의
	행복마을콘테스트 공연교육	8.4~9.13(15회)	주민	공연 연습
고성1리	마을만들기 사례와 정책소개	4.22	주민	강의
고산1리	마을만들기 삶으로 말하다	4.27	주민	강의
	체험 및 해설프로그램 개발	11.17	주민	강의
건입동 동일1리 수산2리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사업	5.18 6.9 6.9	주민	강의
예래마을 일도2동 이도1동	주민주도형 사업 발굴	6.15 6.23 6.26	주민	강의
반딧불이 작은도서관	우쿨렐레	6.5/12	주민	강의
	베이비마사지	12.4/7	주민	강의
	동화구연	12.14/15	주민	강의
용흥리	마을사업의 이유, 목적, 추진배경	6.2/28	주민	강의
서사라	마을사업 발굴을 위한 마을만들기사업	5.12	주민	강의
와산리	마을사업 사례 소개	6.20	주민	강의
	마을축제 자원분석	8.23	주민	강의
	축제기획사례	8.24	주민	강의
	페스티벌 디자인 워크숍	8.23/24	주민	워크숍
	축제장 공간구성과 동선전략	8.24	주민	강의
동광리	마을자원 찾기, 마을자원 활용	7.7	주민	강의

아라동	지역주민 역량강화, 마을만들기	7.15	주민	강의
세화3리	마을사업의 이해	8.17	주민	강의
	(특강)행복한 알프스마을	10.12	주민	강의
	마을만들기사업 우리도 할 수 있다.			
태흥1리 신흥리 선흘2리	(특강)행복한 알프스마을	10.12/13	주민	3회(강의)
아라종합 사회복지 관	마을공동체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10.24/25	주민	4회(강의)
신평리	올바른 마을공동사업 및 활동의 이해	11.16	주민	강의
인성리	마을만들기사업 우리도 할 수 있다.	11.22	주민	강의
일과1리	사람중심의 마을만들기사업	11.22	주민	강의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내부자료

○ 2018년 혼디모영 주민주도학습 운영계획⁶⁾

- ◆ 목적 : 지역주민의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 지원
- ◆ 운영방법 : 주민이 원하는 시간, 주제 장소에 강사지원과 지역주민 주도의 맞춤형 교육지원, 마을공동체의 특성과 가치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지원
 - 교육대상 : 제주도내 읍·면·동 주민
 - 교육방법 : 찾아가는 맞춤형 주민교육
- ◆ 운영기간 : 2018년 1월~11월(수시교육)
- ◆ 운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 ◆ 운영계획 : 주민역량강화교육, 찾아가는 주민교육, 동아리 교육지원 등
- ◆ 운영현황 : 20개 마을, 15개 주민 공동체에 교육지원이 이루어짐. 지역주민의 교육수요를 반영한 주민교육 지원사업으로 변화하였음

6)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자료제공

〈표 III-22〉 2018년 훈디모영 주민주도학습 운영 현황

구 분	강 좌 명	기 간	대상/인원	운영방식
덕수리새 마을문고	스토리텔링 4회	1.3/4/12	주민	강의 실습
하례1리	동영상제작, PPT	1.3	주민	실습
청수리	청수산양꽃자왈의 식물 청수산양꽃자왈의 역사문화 청수산양꽃자왈의 현장답사 청수산양꽃자왈의 곤충	4.19 4.21 4.26	주민	강의 현장 교육
산양리	청수, 산양꽃자왈의 지질, 청수, 산양 꽃자왈 현장답사, 프로그램 기획, 프로그램 시연	4.27~30	주민	강의 현장 교육
신평리	단계별 마을사업 준비하기	4.14	주민	강의
서귀포혁신 2단지청년회	위빙으로 타피스트리 만들기	4.26	청년회원	실습
머체왓 협의체	체험역량강화 방문객 의사조사 및 분석	4.29	주민	강의
성산읍주민 자치위원회	주민참여예산	5.25/28	자치위원	2회(강의) 워크숍
봉아름작 은도서관	벽화그리기	5.26~6.3	어린이	4회(실습)
서부종합 사회복지관	어르신미술교실	6.12~7.16	어르신	6회(실습)
신평리	마을만들기 관련	6.25	주민	강의
보성리	바느질	7.5/9/27	주민	3회(실습)
이도2동 새마을부녀회	한방미용 피부만들기 자연연색체험	7.13 7.16	회원	실습
반딧불이 작은도서관	천연염색	7.17/24	회원	2회(실습)
송당리	노래교실	8.1~24	주민	4회(실습)
소길리	쪽 물빼기, 쪽 염색하기 동영상편집	8.1/14 10.13/20	주민	3회(강의 실습)
공동체 이음	아이들에게 유익한 전래놀이 배운다는 것과 가르친다는 것 공교육의 다양화와 교육의 미래 협동조합이 우리동네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	8.13 9.14 9.29 10.13	회원	4회(강의)
남원2리	단계별 마을만들기 사업	9.4	주민	강의
납읍리	마사지 교실	9.5~22	주민	5회(실습)
노형꿈틀 작은도서관	어린이 NIE 교육	9.20 10.5	어린이	2회(강의)

행원리	단계별 마을만들기 사업	10.4	주민	강의
우분트	MR 교육 세라믹아트	10.6 12.9	회원	2회(강의 실습)
선흘2리	제주권역 사업 사례	10.15	주민	강의
함덕리	함덕 어촌계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10.19	어촌계원	강의
조수2리	단계별 마을만들기 사업	10.29	주민	강의
청풍작은 도서관	책 읽어주기	11.21/30 12.4	유아 어린이	4회(읽기)
한수리	단계별 마을만들기 사업	11.13	주민	강의
아트팜	싱어송라이터에게 노래 배우기 서로를 이해하는 성공하는 부부싸움	11.25 12.2	회원	2회(실습 강의)
가시리체험 휴양마을 협의회	음료레시피:블루베리,유채꽃 2회 카페레시피:감귤,오디 2회	11.27 12.13	주민	2회(실습)
한라소년 합창단	다육아트, 마크라메 만들기 도예	12.1~2 12.8	회원	3회(실습)
하도리 즐거운생활	뜨개질	12.2	회원	실습
황우력 만화카페	북아트	12.2/4	회원	2회(실습)
고산1리	홍보마케팅	12.11	주민	강의
한남리	협동조합 운영 회계	12.11	주민	강의
광령2리	단계별 마을 만들기 사업	12.16	주민	강의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내부자료

○ 2019년 혼디모영 마을공동체 프로그램 운영계획⁷⁾

- ◆ 목적 : 지역주민의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 지원
- ◆ 운영방법 : 교육 수요조사에 의한 교육과정 계획 수립, 마을공동체의 특성과 가치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지원
 - 교육대상 : 제주도내 읍·면 단위 행정리 및 공동체
 - 교육방법 : 찾아가는 맞춤형 주민교육
- ◆ 운영기간 : 2019년 2월 ~ 예산 소진까지

7)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자료제공

- ◆ 운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 ◆ 운영계획 : 주민역량강화교육, 찾아가는 주민교육,
- ◆ 운영현황 : 22개 마을, 77회 주민 교육지원이 이루어짐. 체험휴양마을사무
장과 사회복지관 복지관 관련 종사자 교육 지원

〈표 III-23〉 2019년 훈디모영 마을공동체 학습 운영 현황

구 분	강 좌 명	기 간	대상/인원	운영방식
오봉리	어촌체험마을지정	3.12	주민	강의
가파도	사회적제외 이해	3.27	주민	강의
	마을기업 이해 및 지원내용 안내		주민	강의
	마을기업 설립 사례 및 지역공헌		주민	강의
	협동조합 및 법인 이해		주민	강의
	협동조합 문제 해결		주민	강의
	마을기업 4대 요건 설정		주민	강의
	마을기업 자원 조사		강의	강의
	마을문제해결및비즈니스모델 구축	3.28	주민	강의
	가파도 마을기업 마케팅 전략		주민	워크숍
	사업계획서 이론 및 실전		주민	강의
광평리	마을공동체와 마을사업체		주민	실습
	공동체사업을 위한 마을법인 설립		주민	강의
세화3리	지식재산의 이해	5.17	주민	강의
머체왓 숨길영농 조합법인	오메기떡 만들기	7.8	조합원	실습
	보리떡미니케이크 만들기	7.11	조합원	실습
	감귤참쌀떡 만들기	7.15	조합원	실습
	옛날과자 만들기, 찌쌀강정, 감귤정과	7.18/22	주민	실습
농어촌체 험사무장	전통떡 만들기(오메기, 찹쌀떡, 보리떡, 오란다, 한과)	7.17/18	체험 사무장	9회 실습
	지역특산물 활용한음식 체험발굴(고추,비트,굴,소금)	10.1		
북촌리	종합개발사업이디어발굴 2회	7.22 8.7	주민	워크숍
귀덕1리	행복마을콘테스트 퍼포먼스	8.12~26	주민	8회(공연 연습)
	마을발전계획수립을위한 전략포럼	11.15/22	주민	워크숍
와흘리	행복마을콘테스트 퍼포먼스	8.13~25	주민	7회(공연 연습)
조수1리	마을만들기사업의 이해	8.19	주민	강의

	마을발전계획수립을 위한 현장포럼	8.21/26	주민	워크숍
동회천	마을만들기 사례	8.23	주민	강의
	마을만들기사업 아이디어 발굴 및 비전찾기	9.18/25	주민	워크숍
종달어촌계	어촌 뉴딜 300간선 전략포럼 2회	9.10/17	주민	워크숍
서부종합 복지관	공동체 활성화 사례	9.25	복지관련 종사자	강의
	지역공동활성화 사업발굴 2회	10.2/16		워크숍
신양리	지역상권 활성화 중국어	9.26 10.19/26	주민	강의
	마을발전계획수립을 위한 전략포럼	10.8/10	주민	워크숍
	지역상권활성화 CS 교육	10.30/31	주민	강의
신례2리	마을발전계획수립을위한 전략포럼	10.17/18	주민	워크숍
사계리	마을발전계획수립을위한 전략포럼 3회	10.28 11.14/21	주민	워크숍
선흘1리	마을발전계획수립을위한 전략포럼	10.29 11.8	주민	워크숍
동일1리	마을발전계획수립을위한 전략포럼	11.13	주민	워크숍
일과1리	마을발전계획수립을위한 전략포럼	11.18/26, 12.12	주민	워크숍
	지식재산의 이해(특허관련)	12.21	주민	강의
어음1리	마을발전계획수립을위한 전략포럼	11.25 12.4	주민	워크숍
성읍1리	마을법인설립교육	11.27	주민	강의
산양리	마을발전계획수립을위한 전략포럼	11.28/29	주민	워크숍
명월리	마을발전계획수립을위한 전략포럼	11.29 12.3/11	주민	워크숍
용수리	마을발전계획수립을위한 전략포럼	12.12/16	주민	워크숍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내부자료

□ 제주 주민역량강화사업

○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 ◆ 목적 : 마을만들기 사업체계 이해와 타 지역의 다양한 사례를 견학을 통해 비전과 실천계획을 구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민역량교육 운영
- ◆ 운영방법
 - 기본과정 : 마을리더와 주민을 대상으로 집합교육 운영
 - 신화과정 : 기존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현장교육 운영
- ◆ 운양기관 : 제주시, 수탁기관
- ◆ 교육내용
 - 기본과정 : 마을만들기 정책이해, 리더십 및 갈등관리,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사례 연구 등

- 심화과정 : 선진우수사례 벤치마킹, 마을사업문제해결 방안도출, 네트워킹
과 정보공유 등

〈표 III-24〉 2019 제주시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세부교육내용

과정명	프로그램명	대상/인원	운영방식
기본 과정	단계별 마을사업 준비	8개 마을 34명	2h
	스토리텔링을 통한 마을자원 발굴과 활용		3h
	성평등 마을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향상		2h
	지역담은 콘텐츠, 디자인		2h
	숨 ,읽어주는 여자의 스토리텔링과 체험		2h
	멋진 리더십으로 디자인하라		3h
	어명아방마을권역 사업 및 농촌유학센터 소개		2h/현장교육
	마을사업 사례탐방(선홀1리)		3h/현장교육
	마을사업 사례탐방(세화3리)		2h/현장교육
심화 과정	엘리트 농부(주) 소개 및 견학	9개 마을 22명	3h/현장교육
	경기도 따복 공동체지원센터 견학		3h
	교류와 연대의 장		2h/현장교육
	소득·체험분야 우수마을 견학(수미마을)		3h/현장교육
	소득·체험분야 우수마을 견학(여물리마을)		3h/현장교육
	용문산 농업박물관 견학		2h/현장교육
	마을리더 역할 토론		2h
	종현마을(2008최우수어촌체험마을)소개 및 견학		3h/현장교육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내부자료

〈표 III-25〉 2020 제주시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세부교육내용

과정명	프로그램명	대상/인원	운영방식
기본 과정	마을발전 수립단계	10개 마을 33명	2h
	마을커뮤니티 비즈니스 스토리텔링부터 시작하라		3h
	마을활성화와 콘텐츠 발굴사례		2h
	성평등 마을을 위한 성인지 삼수성 향상		2h
	숨 읽어주는 여자의 스토리텔링과 체험		2h
	리더십에 대한 고정관념만 바뀌도 마을은 달라진다		3h
	제주마을기업이 살아남는 법		2h
	세화3리 허브마을		2h

심화 과정	청양알프스 마을 견학	8개 마을 23명	3h/현장교육
	교류와 연대의 장		3h
	먹방마을 견학		2h/현장교육
	서각마을 견학		3h/현장교육
	마을 리더의 역할		2h
	중리 어촌체험마을 견학		3h/현장교육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내부자료

○ 제주시 농촌현장포럼

- ◆ 목적 : 마을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워크숍, 마을을 진단하고 자원을 활용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체 중심의 협의 프로그램으로 이수 실적은 제주형 마을만들기사업 신청 시 필수 조건임
- ◆ 운영방법
 - 교육대상 : 현장포럼 참여마을 주민
 - 교육방법 : 마을(자원 및 역량)조사, 주민교육, 선진지견학, 워크숍, 심화토론
- ◆ 운영기관 : 제주시, 위탁기관
- ◆ 교육내용 : 농촌현장포럼은 마을별로 운영되며, 역량진단을 이한 자원조사와 설문조사, 마을발전사업의 이해를 돕는 주민교육 1회, 진단과 비전·발전과제 도출 과정의 포럼 2회, 견학 1회, 심화토론 1회 등으로 구성

〈표 III-26〉 제주시 농촌현장포럼 운영 현황

연도	참여 마을	시행(수탁)기관	참여인원
2018	3개 마을(대흘1,2리, 금성리)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마을별 30명
2019	3개 마을(소길리, 광령3리, 금성리)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마을별 30명
2020	3개 마을(선흘리, 북촌리, 한원리)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마을별 30명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내부자료

☐ 서귀포시 주민역량강화사업

○ 서귀포시 농촌현장포럼

- ◆ 목적 : 마을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워크숍, 마을을 진단하고 자원을 활용하여 발전과제를 도출하는 과정 학습 프로그램
- ◆ 운영방법
 - 교육대상 : 30명 내외 현장포럼 참여마을 주민(리더, 주민, 현장활동가, 퍼실리테이터, 전문가 등)
 - 교육방법 : 마을조사, 정책 및 사례강의, 견학, 워크숍
- ◆ 운양기관 : 서귀포시, 도 농촌활성화지원센터
- ◆ 교육내용 : 농촌현장포럼은 마을별로 운영되며, 세부교육 내용은 자원(설문) 조사, 마을발전사업의 이해를 돕는 전문가 강연 1회, 진단과 비전·발전과제 도출 과정의 현장포럼 2~3회, 현장 견학 1회, 계획수립에 따른 종합 강연 1회 등으로 구성

〈표 III-27〉 서귀포시 농촌현장포럼 운영 현황

구 분	참여 마을 수	대상	인원	운영방식		
				강의	워크숍	견학
2017	11	주민	1,240	22	31	9
2018	5	주민	480	9	13	2
2019	6	주민	680	14	14	6
2020	8	주민	800	16	16	8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내부자료

○ 매력있는마을만들기 교실

- ◆ 목적 : 마을만들기 이해와 마을발전 정책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 ◆ 운영방법
 - 교육대상 : 중앙공모사업 참여 희망이 있는 읍·면 지역 행정리 리더 및 주민
 - 교육방법 : 마을지원정책 및 사례강의
- ◆ 운양기관 : 서귀포시, 도 농촌활성화지원센터
- ◆ 교육내용 : 마을발전정책 및 공모 사업 이해와 마을만들기와 공동체 이해를 돕는 교육 등으로 구성

〈표 III-28〉 서귀포시 매력있는마을만들기 교실 운영 현황

구 분	교육내용	장 소	대상/인원	운영방식
201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전 사전 설명회	대정읍 표선면	대정·안덕 남원·표선·성산	4강좌
	마을공동체의 이해			
2018	제주의 마을변화와 마을만들기	대정읍 남원읍	대정·안덕 남원·표선·성산	4강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설명			
2019	마을만들기와 공동체	서귀포시청 표선면 안덕면	공무원 대정·안덕주민 남원·표선·성산	8강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설명			
	신활력플러스 사업 소개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내부자료

라.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⁸⁾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수요 증대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주체 양성을 목적으로 도시재생 대학과정을 개설하여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도시재생대학은 공통이론과정과 문제해결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통이론과정은 뉴딜사업예정지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면 총 6강(12h)시간,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사업의 이해를 중심으로 구성됨. 문제해결과정은 공통이론과정 수료자(주민)와 활동가를 대상으로 총 6강(12h)으로 이루어진 교육시간, 도시재생 뉴딜사업 발굴 및 계획수립의 교육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III-29〉 도시재생대학 과정 및 운영현황

구 분	프로그램명	기 간	대상/인원	운영방식
2017	도시재생대학 공통이론 과정	04.01~04.26	73명(41명 수료)	8회
	도시재생대학 문제해결과정	06.01~07.19	20명(15명 수료)	8회
2018 (서귀포시)	도시재생대학 공통이론 과정	04.26~05.17	17명(13명 수료)	4강(8h)
	도시재생대학 문제해결과정	05.24~07.12	11명(8명 수료)	8강(16h)

8)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센터 자료제공

2018 (대정읍)	도시재생대학 공통이론 과정	04.27~05.18	21명(19명 수료)	4강(8h)
	도시재생대학 문제해결과정	05.25~07.13	15명(13명 수료)	8강(16h)
2019 (제주시)	도시재생대학 공통이론 과정	03.22~04.04	43명(28명 수료)	6강(12h)
	도시재생대학 문제해결과정	04.16~04.30	17명(수료)	6강(12h)
2019 (서귀포시)	도시재생대학 공통이론 과정	03.21~04.04	18명(13명 수료)	4강(8h)
	도시재생대학 문제해결과정	04.23~04.30	6명(4명 수료)	6강(12h)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센터 내부자료

- 도시재생센터는 도시재생의 개념을 이해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다양한 사례 등을 중심으로 기초교육 과정을 아카데미 형식의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음
- 2018년과 2019년에 운영된 도시재생아카데미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시민들의 교육 수요를 감안하여 총 4회(8h)에 걸쳐 도시재생 트렌드 및 뉴딜사업 정책 등의 주제 강연 각 각 운영하고 있음

〈표 III-30〉 도시재생아카데미 운영현황

구 분	프로그램명	기 간	대상/인원	운영방식
2020 도시재생 아카데미	제주의 오래된 담론·해양문화와 도시재생	-	시민 및 활동가	강연
	지속가능한 제주의 도시를 향한 도시재생	-	시민 및 활동가	강연
	주거복지정책으로 바라본 도시재생	-	시민 및 활동가	강연
	제주의 미래를 가꾸는 인재육성	-	시민 및 활동가	강연
2019 (제주시)	도시재생 아카데미(상반기)	03.22~04.10	167명	4강
	도시재생 아카데미(하반기)	10.12~11.02	53명	4강
2018 (제주시)	제2기 도시재생 아카데미	03.06~03.27	53명(37명 수료)	4강
	제3기 도시재생아카데미	08.28~08.18	58명(39명 수료)	4강
2018 (서귀포시)	제2기 도시재생 아카데미	03.08~03.29	35명(29명 수료)	4강
	제3기 도시재생아카데미	08.30~09.20	34명(2명 수료)	4강
2016	제주, 기억을 거닐다	04.01~04.26	115명(22명 수료)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견학 (목포, 나주, 광주)	12.26~12.28	12명	현장교육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센터 내부자료

- 도시재생 뉴딜 전문가와 코디네이터 등 도시재행활동가 양성과정은 2017년 13강좌, 2018년 8강좌로 구성되어 운영되었으며, 교육내용은 도시재생뉴딜정책 이해, 도시재생계획의 수립, 거버넌스, 젠트리피케이션,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 주민참여와 활성화 등임. 2017년에 있었던 활동가 양성과정에서는 17명이 교육에 참여하고, 14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음

〈표 III-31〉 도시재생뉴딜전문가 및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구 분	강 의 명	대상/인원	운영방식
2018 도시재생 뉴딜전문가 교육과정	제주형 도시재생 뉴딜의 이해	시민 및 활동가	강연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정책의 흐름	시민 및 활동가	강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	시민 및 활동가	강연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시민 및 활동가	강연
	에이어매니지먼트기법 활용방안	시민 및 활동가	강연
	젠트리피케이션과 상생	시민 및 활동가	강연
	도시재생과 사회적 경제	시민 및 활동가	강연
	도시재생 뉴딜 계획수립 기본방향	시민 및 활동가	강연
2017 도시재생 뉴딜 코디네이터 현장활동가 양성과정	도시재생 뉴딜 개념 및 정책의 흐름	시민 및 활동가	강연
	도시재생사업계획 수립방법 및 전략	시민 및 활동가	강연
	제주와 만난 도시재생 뉴딜	시민 및 활동가	강연
	우리동네 살리기, 주거지지원형 뉴딜사업	시민 및 활동가	강연
	지역 거버넌스로서의 도시재생지원센터 역할	시민 및 활동가	강연
	일반 근린재생형 뉴딜사업	시민 및 활동가	강연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세입자 대책	시민 및 활동가	강연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의 특성	시민 및 활동가	강연
	도시재생 경제조직 지원체계 및 전략	시민 및 활동가	강연
	상생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뉴딜사업의 특성	시민 및 활동가	강연
	도시재생 뉴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	시민 및 활동가	강연
	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부동산 투기 대책	시민 및 활동가	강연
	워크숍(도시재생활동가 협동조합(티움))	교육 참가자	워크숍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센터 내부자료

- 도시재생대학과 도시재생아카데미 교육과정은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구의 시민과 주민, 그리고 도시재생 이론과 정책에 대한 일반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 아래의 주민교육 프로그램은 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도시와 마을들의 참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시행 지구 주민들의 이해와 필요를 바탕으로 설계된 교육내용이라고 볼 수 있음
- 도시재생 사업지구가 안고 있는 이슈와 문제해결 방법을 시민의 눈높이로 설계해보는 과정이라 볼 수 있으며, 기억하고, 관찰하며, 탐색하고, 토론하는 워크숍 형식의 학습과정임. 또 실제 생활에 필요한 오래된 기술과 생활기술을 익히는 교육을 포함하고 있음

〈표 III-32〉 도시재생뉴딜사업 주민교육프로그램 현황

구 분	강 의 명	대상/인원	운영방식
2019 도민디자인교실	도민 디자인교실 : 도장의 이해	10명	강의 실습
	도민 디자인교실 : 기초보수의 이해		
2019, 이슈발굴 및 커뮤니티활성화	사계리, 우리동네 살이기(이슈발굴)	사계리 주민	워크숍
	청년이 바라본 도시와 도시재생(이슈발굴)	청년	워크숍
2018 이슈발굴형 주민발언회	우리동네 주차장이 생겨요	대상지 주민	워크숍
	우리동네 주차장이 생겨요(피드백)	대상지 주민	토론
	원도심 주민참여형 가로쉼터 조성	대상지 주민	워크숍
	원도심 주민참여형 가로쉼터 조성(피드백)	대상지 주민	토론
	대정읍, 도시재생 이슈 찾기	주민	워크숍
	원도심 주민참여형 가로쉼터 조성계획 논의	대상지 주민	워크숍
	헬로 2019, 아듀 자양삼계탕	도시재생참가자	네트워킹워 크숍
2017 이슈발굴형 주민발언회	구 시청부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원도심 주민	워크숍
	길의 기억 찾기	원도심 주민	워크숍
	이 동네에서 살고 싶어요	원도심 주민	워크숍
	오븐 돌아보기	원도심 주민	워크숍
2017 사업주체 역량강화교육	천연염색 실습교육(사업주체 역량교육)	12명(주민협의체)	4회
	협동조합설립 및 운영(사업주체 역량교육)	13명(주민협의체)	2회
	도시재생활동가 양성과정	17명(14명 유료)	3회
	(예비)도시재생활동가 워크숍	10명 유료	4회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센터 내부자료

마. 사회적경제 주체역량 발굴 및 육성사업

- 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제주지역 마을 및 주민공동체가 지역의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성하는 커뮤니티비즈니스 수행 법인의 설립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아래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사회적경제의 역할은 제주지역의 마을 관련 다양한 사업과 주체 발굴 과정에서 경영 측면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단계로 인식하고 있어, 기존의 중간 지원 조직과 협력적 관계 속에서 지역의 커뮤니티비즈니스 주체의 사회적경제로 진입과 안정화를 위해 ①커뮤니티비즈니스 학교 ②마을공동체지원사업 ③마을기업 설립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커뮤니티비즈니스 학교⁹⁾

- ◆ 목적 : 마을 및 주민공동체 비즈니스의 지역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경제로 진입에 도움
- ◆ 운영방법
 - 교육대상 : 열린 대상으로 열어두되, (우선참여) 도내 커뮤니티비즈니스 관련 활동 법인체, 협력기관 추천 팀(사회적경제 진입 희망)
 - 교육방법 : 열린특강(1회), 기초과정(18시간), 심화과정(팀 컨설팅 3회차)으로 단계를 두어 운영
- ◆ 운영기간 : 2020.09.~12. ('21년도 상반기 운영 예정)
- ◆ 운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 ◆ 협력기관 : 제주특별자치도도시재생지원센터, 제주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균형발전지원센터, 제주시소통협력센터
- ◆ 운영현황 : 열린특강(20명), 기초과정(30명), 심화과정(4팀, 12명) 참여

9) 예산처 : 제주특별자치도

〈표 III-33〉 커뮤니티비즈니스학교 운영현황

구 분	프로그램명	기 간	대상/인원	운영방식
열린특강	커뮤니티비즈니스 열린특강	3h	20명	토크콘서트
기초과정	커뮤니티비즈니스 깊이 알기	6h	30명	강의식
	사회적경제 이해 및 BM워크숍	6h	30명	강의 및 워크숍
	지역자원이해하기 및 토크콘서트	6h	30명	외부기관 관계자 초청 토크콘서트 등
심화과정 (컨설팅)	개별 컨설팅 (BM구체화 및 사회적경제진입 설계)	3회 (2개월)	4팀(12명)	개별 컨설팅 (필요시 구성원 교육 워크숍)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부자료

□ 마을공동체지원사업¹⁰⁾

- ◆ 목적 : 마을공동체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민역량 강화 및 비즈니스 고도화를 위한 기본 및 심화 교육(실제 창업 사항에 대한 개별 컨설팅 별도)
- ◆ 운영방법 : 마을공동체의 사업의 지속성장 및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 교육대상 : 마을공동체사업 선정(34개) 마을 대표 및 실무자
 - 교육방법 : 단계별 집체교육 및 워크숍
- ◆ 운영기간 : 2018년 1월 ~ 2020년 12월
- ◆ 운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 ◆ 운영계획 : 기본 및 심화교육, 워크숍, 선정 전 교육, 신규 마을공동체 교육
- ◆ 교육내용
 - 신규 마을공동체교육 : 마을공동체사업의 이해, 행정실무교육, 법인과 협동조합의 이해, 마을만들기 사례 교육
 - 기본 및 심화교육 : 공동체 이해 및 갈등조정 교육, 마을공동체사업 사례 교육, 이슈별 교육기획(제로웨이스트, 방역과 안전관리 등)
 - 참여마을 통합워크숍 : 법인운영 실무(노무 및 세무교육 등), 홍보마케팅교육, 네트워킹

10) 예산처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 운영현황 : 마을공동체사업 대상지 34개 마을, 약 50여명 단계별 교육 참여

〈표 III-34〉 마을공동체지원사업 단계별 교육 운영현황

구 분	프로그램명	기 간	대상/인원	운영방식
2018	신규 마을공동체 교육	12.06~12.07	실무자/13	강의
	선정마을 교육	12.17~12.21	실무자/15	강의
2019	신규 마을공동체 교육	12.17~12.18	실무자/30	강의/ 워크숍
	참여마을 통합 워크숍	3.19, 6.28, 9.19	실무자/101	강의/ 워크숍
2020	신규 마을공동체 교육	12.17(예정)	실무자/10~20	강의
	기본 및 심화교육	8.4	실무자/30	강의 및 사례발표
	참여마을 통합 워크숍	10.31	실무자/26	사례발표 및 체험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부자료

- 사회적경제지원주체 역량교육 과정은 마을 및 주민공동체 단위 사업지원과 연계되어 설계되어 있음. 교육 과정은 기본과 심화, 통합과정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내용적으로는 정책이해와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이해, 사회적경제 이해, 마케팅, 홍보, 기업실무, 갈등관리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 커뮤니티비즈니스학교는 심화과정에서 기업 주체별 컨설팅으로 설계되어 있어 지역의 커뮤니티비즈니스 주체들의 사회적 경제로의 진입과 안정화를 유도하고 있음. 특히 이 과정에는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지역균형, 소통협력센터 등 지역 내 중간지원기관의 협력과 참여를 유도하는 교육설계가 이루어져 있음

□ 마을기업 설립 및 지원사업¹¹⁾

- ◆ 목적 : 마을기업 단계별(신규, 재지정, 고도화) 지정을 위한 필수 이수 교육 (행안부 지침)
마을기업 설립·운영 관련 기초 소양 및 제도 및 환경 변화 대응 능력 향상을 통한 마을기업의 전문성 제고
- ◆ 운영방법 :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내용에 근거한 교육과정 구성 운영

11) 예산처 : 행안부, 제주특별자치도

- 교육대상 : 신규·재지정·고도화 마을기업 사업 신청 희망 법인·단체 회원
- 교육방법 : 강의형, 실습형, 현장학습 등 내용에 따른 다양한 방법 활용
- ◆ 운영기간 : 마을기업 지정 등 일정에 따른 연중 실시
- ◆ 운영기관 : 사단법인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제주도 마을기업 지원기관)
- ◆ 운영계획 :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내용에 근거한 교육과정 구성 및
지속 운영 예정
- ◆ 교육내용
 - 신규 마을기업 교육

〈표 III-35〉 마을기업 설립을 위한 신규 교육 운영현황

구분	교육시간 / 필수인원	교육대상	교육시기	교육내용
입문	7시간 / 5인 이상 (대표자 필참)	마을기업 희망 법인	심사 전 (수시개최)	마을기업 및 공동체 이해, 우수사례 교육, 마을자 원 발굴 자가진단표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
기초	7시간 / 5인 이상 (대표자 필참)	신규 마을기업 지정 기업	심사 후 약정체결 전 (2~3월경)	공동체 관리, 민주적 법인운영 방안, 마을기업 갈등관리, 마케팅 및 판로 등
공통	7시간 / 2인 이상 (대표자 필참)		약정체결 후 (4~5월)	권역별업종별 네트워크 조성, 권역별 사례공유, 선배 마을기업과의 교류소통
심화	3시간 / 마을기업 조합원 70% 이상 참석		약정체결 후~ 보조금 종료 전(수시)	마을기업 경영관리 컨설팅 (재무, 회계, 인사, 성과관리 등) * 외부 전문가 활용 가능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부자료

- 전문교육

〈표 III-36〉 마을기업 설립을 위한 전문 교육 운영현황

구분	대상	내용
전문	4시간 이수효율 2년 재지정·고도화· 우수 신청 희망 마을기업	홍보, 마케팅, 브랜드 관리, 서비스 등 기업 전문성 강화 교육, 상품 및 서비스 기획개발, 특허 신청, 저작권 관리 등 기업 질적 관리 기타 마을기업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교 육, 2차·3차 사업계획서 작성 등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부자료

- ◆ 운영현황 : 18~20년 총 19회 실시(신규 마을기업 교육 39개 법인/단체 243명, 전문교육 14개 기업 83명 참여)

〈표 III-37〉 마을기업 단계별 교육 운영 현황

연 도	프로그램명	기 간	대상/인원	운영방식
2018	신규 마을기업 선정후교육	04.13.	2개 기업, 10명	4h
	마을기업 설립전교육	09.03.~09.06.	6개 법인/단체, 36명	24h
	마을기업 전문교육	4월, 6월 각 1회	4개 기업, 21명	4h
2019	마을기업 설립전교육	3월, 4월, 8월 각 1회	11개 법인/단체, 89명	16h
	마을기업 전문교육	04.17.	3개 기업, 16명	4h
2020	마을기업 입문교육	8월 2회, 10월 1회	16개 법인/단체, 63명	7h
	마을기업 기초교육	08.21.	2개 기업, 10명	7h
	마을기업 공통교육	10.06.	4개 기업, 9명	8h
	마을기업 심화교육	11.08.~09.	2개 기업, 26명	2h
	마을기업 전문교육	6월 1회, 11월 4회	7개 기업, 46명	4h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부자료

- 마을기업 관련 주체 역량교육은 신규마을기업 과정과 재지정, 고도화, 우수 마을기업 과정으로 마을기업 지정을 위한 필수 교육으로 설계되어 있음. 교육 과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신규마을기업 과정은 마을기업 정책 이해와 기업 운영 사례, 마을기업 지정을 위한 계획안 수립 실무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지정, 고도화, 우수마을기업 과정은 마을기업 정책이해, 기업 환경변화 등 전문성 향상과 마케팅 교육, 실무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18년부터 2020년 까지 마을기업 관련 주체 역량교육에 참여한 마을은 신규 마을기업 과정에는 53개 마을소재 법인과 240여명의 주민 또는 회원이 참여 하였으며, 마을기업 전문교육과정에는 14개 마을기업 83명의 조합원 또는 회원이 참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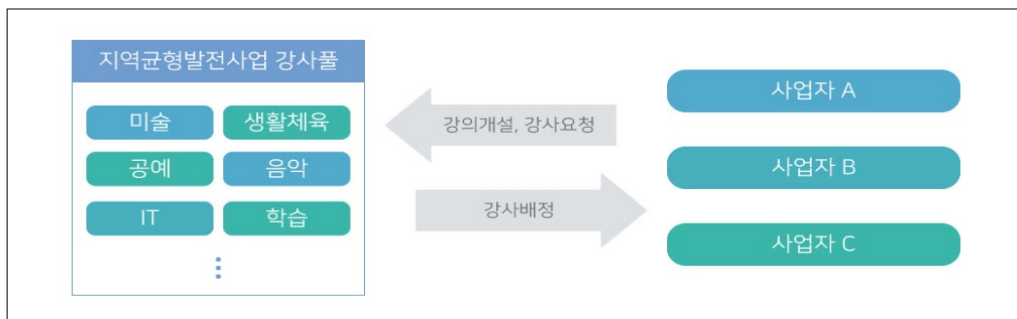
〈표 III-38〉 마을기업 교육운영 현황(2018~2020)

구분	신규마을기업 교육			마을기업전문교육		
	교육회수	마을 수	참여인원	교육회수	마을 수	참여인원
계	11	53	240	8	14	83
2018	2	8	47	2	4	21
2019	3	11	85	1	3	16
2020	6	24	108	5	7	46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부자료

바. 지역균형발전사업 주체 역량강화사업¹²⁾

-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의 교육사업은 강사지원시스템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강사지원시스템은 지역균형사업 참여주체들이 직접 강의를 개설하고 강의신청서와 월 단위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센터는 강사를 배정하고 해당하는 날짜에 강의를 열리는 구조임. 이때 센터는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연예술, 복합문화, 생활체육, 전통예술, 시각예술, 평생학습, 문화일반 등 7개 분야에 해당하는 강사를 확보하여 강사풀을 구축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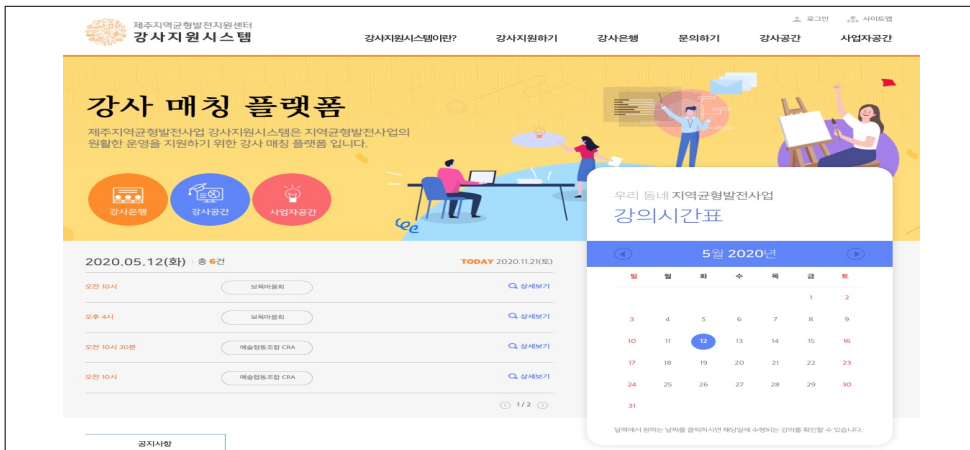


[그림 III-7] 제주지역균형발전센터의 강사지원시스템

* 출처 :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내부자료

12)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http://center.jejuessd.kr/base/main>,
강사지원시스템 <http://support.jejuessd.kr/base/main>
문화중개소 <http://start.jejuessd.kr/base/main>

-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의 강사매칭 플랫폼에 등록된 전체 강사 수는 327명이며, 평생학습 분야가 107명으로 가장 많고, 시각예술 69명, 공연예술 65명, 생활체육 33명, 복합문화 27명, 전통예술 19명, 문화일반 7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강사매칭 플랫폼에 참여하고 싶은 분야별 전문강사는 플랫폼 로그인 후 회원 등록과 개인정보취급 동의, 강사지원신청서를 작성하면 강사 등록이 이루어짐. 강사지원을 요청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주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을 받은 사업자를 지칭하며, 강사은행에 등록된 강사를 보고 자신들이 개설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계획서에 강의명과 강사명, 강의시간 등을 기재한 강의신청서를 등록하면 강사배정과 함께 정해진 날짜에 강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음



[그림 III-8]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의 강사 매칭 플랫폼

*출처 :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누리집(www.jejuessd.kr)

- 2020년 상반기(1.2~6.30) 강사매칭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강사매칭 현황을 살펴보면, 참여한 사업자는 6개 법인이며. 공연예술 5개, 전통예술 1개, 생활체육 3개, 시각예술 4개, 복합문화 3개, 평생학습 5개 등 6개 분야 26개 주제의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된 것으로 나타남
- 개설된 강좌는 총 43개로 우수암상동 17개, 예술협동조합CRA 13개, 보목마

을회 4개, 제주ICT협동조합 3, 저지리마을회 3개, 놀이마당어쭈 2개, 판포리 마을회 1개의 강좌가 개설 운영됨. 운영회수는 6개월 동안 344회 690시간, 참여인원 423명 인 것으로 나타남

〈표 III-39〉 지역균형발전사업 강사지원 실적(2020.1.2~6.30)

프로그램(강좌)	운영회수(시간)	참여인원	참여마을 및 단체(법인)
43	344(690)	423	7

* 출처 :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내부자료

- 다만 강사매칭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는 사업자가 전체 45개 사업자 중 16%에 해당하는 7개 사업자에 그치고 있으며, 또 등록된 강사풀은 327명으로 매우 다양하면서 풍부한 강사풀을 구성하고 있지만 실제 참여 강사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교육참여 인원이 1명인데도 강사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과 몇 몇 사업자 중심의 지원에 그치고 있는 점 등은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한계와 개선의 필요를 보여주고 있음

〈표 III-40〉 지역균형발전사업 강사매칭플랫폼 강사지원 현황(2020.1.2~6.30)

구 분	강 좌 명	기 간	대상/인원	운영방식
유수암 상동 마을회	하타요가	1.2~23	6명	7회(7h)
		2.2~16	5명	5회(5h)
		4.9~26	3명	6회(6h)
		5.3~31	6명	9회(9h)
		6.4~28	1명	8회(8h)
	통기타 성인반	4.7~28	5명	4회(8h)
	통기타	6.2~30	1명	5회(10h)
	양궁 아동반	4.11~25	5명	3회(6h)
		5.2~30	6명	5회(10h)
	양궁 성인반	4.11~25	11명	3회(9h)
		5.2~30	11명	5회(5h)
	유아 야외미술원데이 클래스 특강	4.20	8명	1회(2h)
	양궁 청소년	5.2~30	5명	5회(10h)

	양궁 성인반 고동우 선생님	5.10~31	5명	4회(8h)
	흙으로 주물럭 조물락	5.19~5.27	1명	3회(6h)
		6.3~24	5명	4회(8h)
	도자기 공예	5.29~7.31	1명	10회(20h)
	청소년 현악양상블 초급	5.21~7.20	1명	10회(10h)
	레고	5.29~7.31	6명	10회(10h)
	아동 과학탐험	6.3~6.24	8명	4회(4h)
	양궁 김가령 선생님 반	6.6~6.27	6명	4회(12h)
	양궁 김연주 선생님 반	6.6~6.27	6명	4회(8h)
	양궁 고동우 선생님 반	6.6~6.28	5명	4회(8h)
놀이마당 얼쑤	품물중급강좌	5.28~6.25	5명	5회(5h)
		2.5~26	1명	4회(8h)
		4.4~25	7명	4회(8h)
		5.9~30	8명	4회(8h)
	성인드림강좌	6.6~27	6명	4회(8h)
		2.6~24	7명	4회(8h)
		3.9~30	7명	4회(8h)
		4.6~27	8명	4회(8h)
		5.4~25	7명	4회(8h)
보목 마을회	제방기능사	2.17~4.10	12명	16회(64h)
		5.6~6.29	10명	16회(64h)
	마카롱반	3.19~4.16	12명	5회(15h)
	바리스타(2급)자격증반	5.11~6.9	10명	10회(30h)
	홈베이킹반	5.21~18	8명	5회(10h)
제주ICT협 동조합	3D 모델링 워크샵(기초수업)	4.10	10명	1회(3h)
	3D 프린터 워크샵(활용기초)	4.30	10명	1회(3h)
	시설하우스 시공워크샵	5.22	10명	1회(4h)
예술협동 조합CRA	유라테스, 필라테스 A	4.20~5.14	2명	12회(24h)
	크라크라 하크라 WORKSHOP 연극하기 A1-즉흥연기	4.21~5.14	10명	8회(16h)
	크라크라 하크라 WORKSHOP 글쓰기 A1-즉흥연기	4.21~5.14	10명	8회(16h)
	유라테스, 필라테스 B-1	4.22~5.27	4명	6회(6h)
	유라테스, 필라테스 B-2	4.22~5.27	4명	6회(6h)
	유라테스, 필라테스 C-1	4.24~5.29	4명	6회(6h)
	유라테스, 필라테스 C-2	4.24~5.29	4명	6회(6h)
	크라크라 하크라 WORKSHOP 연극하기 A2-역할놀이	5.19~6.11	10명	8회(16h)
	크라크라 하크라 WORKSHOP 글쓰기 A2-역할놀이	5.19~6.11	10명	8회(16h)

	크라크라 하크라 WORKSHOP 연극하기 A3-무대연기	6.16~7.9	10명	8회(16h)
	크라크라 하크라 WORKSHOP 글쓰기 A3-무대연기	6.16~7.9	10명	8회(16h)
	크라크라 하크라 연극하기 A반(성인반) - 연극하기	5.23~6.20	5명	5회(10h)
	크라크라 하크라 글쓰기 A반(성인반) - 글쓰기	5.23~6.20	5명	5회(10h)
저지리 마을회	다온테니스 교실	5.4~29	20명	8회(16h)
		6.1~29	20명	9회(18h)
	저지 다운 요가	6.1~6.29	15명	9회(18h)
	행복한 노래교실	6.5~6.26	15명	4회(8h)
판포리 마을회	포슬린아트 A	6.17~7.1	10명	5회(15h)

* 출처 :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내부자료

- 권역별 균형발전사업에서 서귀포시 동 지역 시민들은 제주 지역 내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한 우선순위 사업으로 문화여가 서비스 영역을 가장 우선하는 사업으로 선정하였으며, 이에 제주지역균형발전센터는 서귀포시 12개 동 지역을 대상으로 문화여가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제주문화중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그림 III-9] 제주문화중개소

* 출처 :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누리집(www.jejuessd.kr)

○ 제주문화중개소 단기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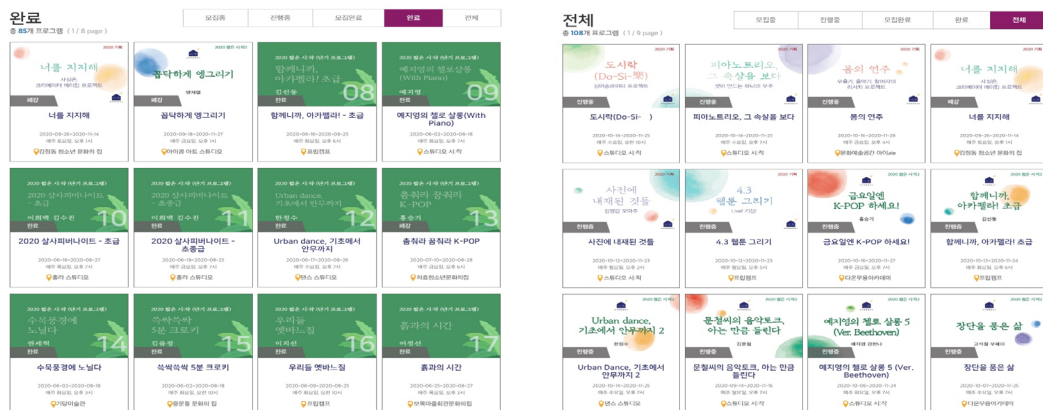
- ◆ 대상 : 서귀포시 12개 동 지역 시민을 대상(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9개 강좌, 가족 단위 1개 강좌, 수중 1인 크리에이터 등 전문가 대상의 1개 강좌 개설)
- ◆ 문화중개소의 단기프로그램은 총 41개 강좌에 506회 운영. 강좌별 평균 12회~14회 운영. 프로그램 운영기간은 상반기는 3월 5일부터 5월 30일까지 23개 강좌가 열렸으며, 하반기는 8월 17일부터 11월 18일까지 18개 강좌가 운영됨. 단기프로그램에 624명의 시민이 참여함

〈표 III-41〉 지역균형발전사업 제주문화중개소 단기 프로그램 운영현황(2019)

강좌명	기간	대상인원	운영방식
My Coloring Book	3.5~5.21	10명	12회(매주 화)
한 땀 자수 이야기	3.6~5.22	10명	14회(매주 수)
찰칵, 물속 세상을 낚는다	3.14~5.30	10명	12회(매주 목)
우리들 옛 바느질 2	3.14~5.30	10명	12회(매주 수)
와! 그림이 움직이네	3.6~5.22	10명 초등생	12회(매주 수)
오지다 청소년 영화제작랩	3.9~5.25	20명 중고생	12회(매주 토)
쓱쓱쓱 5분 크로키	3.14~5.30	20명	12회(매주 목)
쓰고 새기며 예술을 노닐다	3.12~5.28	10명	12회(매주 화)
마음글꽃 피우다	3.7~5.23	10명	12회(매주 목)
스톱모션 마을뉴스 만들어보카	3.9~5.25	15명 초등생	12회(매주 토)
인문학 그림 그리기	3.8~5.24	10명	12회(매주 금)
바다 쓰레기의 동화적 상상	3.8~5.24	10명 가족	12회(매주 금)
꼬마들의 예술기지	3.8~5.24	12명 초등생	12회(매주 금)
창작의 문을 열어다오	3.5~5.21	20명	12회(매주 화)
함께니까 더 좋다 아카펠라	3.5~5.29	20명	12회(매주 화)
춤춰라 K-POP	3.9~5.25	20명 청소년	12회(매주 토)
장구와 열애를 시작한다	3.7~5.23	15명	12회(매주 목)
예지영의 첼로살롱	3.12~5.28	15명	12회(매주 화)
생활한국춤 메소드	3.7~5.23	10명	12회(매주 목)
살사 피버나이트 (초중급)	3.6~5.29	16명	13회(매주 수)
살사 피버나이트 (초급)	3.6~5.22	16명	12회(매주 수)
바람의 노래 팬플룻	3.6~5.22	10명	12회(매주 수)

내 속의 춤추는 장단 2	3.7~5.23	10명	12회(매주 목)
클래식 음악에의 노크	8.19~11.11	20명	12회(매주 월)
청소년 미디어어티터러리시	8.24~11.16	15명	12회(매주 토)
신나는 업사이클링 환경놀이	8.17~11.16	15명 초등생	13회(매주 토)
꼬마들의 예술기지 2	8.22~11.14	15명 초등생	12회(매주 목)
스톱모션 영상기법 나무	8.24~11.16	15명 초등생	12회(매주 토)
수중 1인 크리에이터	8.22~11.7	15명 전문가	13회(매주 목)
우리들 옛 바느질 3	8.21~11.13	15명	12회(매주 수)
미술과 연애	8.23~11.15	15명	14회(매주 금)
씩씩 씩씩 5분 크로키 2	8.19~11.4	30명	12회(매주 월)
쓰고 새기며 예술에 노닐다 2	8.20~11.5	15명	13회(매주 화)
생각을 담는 사툰 화가	8.19~11.4	15명	12회(매주 월)
춤 취라 꿈 취라 K-POP 2	8.21~11.15	20명	14회(매주 수)
살사피버나이트 초중급	8.21~11.7	20명	13회(매주 목)
살사피버나이트 초급	8.20~11.5	20명	12회(매주 화)
예지영의 첼로 살롱 3	8.20~11.5	20명	12회(매주 화)
함께니가 더 좋다 아카펠라 2	8.20~11.18	20명	12회(매주 화)
덩&따드락따 우리장단	8.22~11.16	15명	14회(매주 목)
나 我 무 舞	9.7~11.17	15명 청소년	13회(매주 토)

* 출처 :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내부자료



[그림 III-10] 제주문화중개소 단기프로그램

* 출처 :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누리집(www.jejuessd.kr)

○ 제주문화중개소 장기, 동호회, 특강 프로그램(19~20)

◆ 대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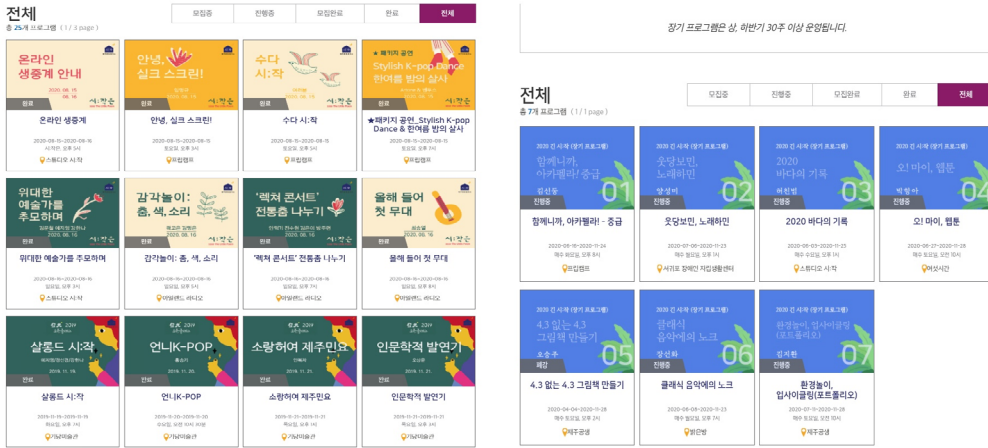
- 장기프로그램 : 서귀포시 12개 동 지역 시민(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1개 강좌, 장애인 1개 강좌, 전문가 대상 1개 강좌)
- 동호회 : 마을회, 새마을도서관, 민요합창단 등 동호회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
- 특강 및 페스티벌 : 서귀포시 12개 동 지역 시민
- ◆ 문화중개소의 장기프로그램은 2020년 4월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단기 프로그램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전문성을 높이면서 문화향유에서 창작을 통한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을 설계됨. 총 7개 강좌에 166회 운영 강좌별로 평균 24회 운영됨. 장기프로그램에 92명의 시민이 참여함
- ◆ 동호회 지원프로그램은 2019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 까지 12개 강좌, 274회 교육운영, 205명의 동호회 회원 참여. 동호회 프로그램은 마을회관, 작은도서관 등 지역 내 동호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을 찾아가는 교육지원 성격을 포함하고 있음
- ◆ 특강 및 페스티벌 프로그램은 2019년 6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까지 25개 강좌가 운영되었음. 운영방식은 특별강연, 체험, 공연, 연주, 토크, 미디어를 활용한 중계 등 다양한 형식의 기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중계인 경우 다수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음

〈표 III-42〉 제주문화중개소 장기, 동호회, 특강 프로그램 운영현황(2019~2020)

구 분	강 좌 명	기 간	대상/인원	운영방식
장기 프로그램	환경놀이, 업사이클링(포트폴리오)	20.7.11~11.28	12명 초등생	21회(매주 토)
	클래식 음악에 노크	20.6.8~11.23	15명	24회(매주 월)
	43없는 43 그림책 만들기	20.4.4~11.28	10명	31회(매주 토)
	오! 마이, 웹툰	20.6.27~11.28	12명	22회(매주 토)
	2020바다의 기록	20.6.3~11.25	15명 전문가	25회(매주 수)
	웃당보민 노래하민	20.7.6~11.23	13명 장애인	20회(매주 월)
	함께니까, 아카펠라! 중급	20.6.16~11.24	15명 초급	23회(매주 화)
동호회 프로그램	캘리다움	19.5.2~10.31	12명	24회(매주 목)
	중문마을 민요합창단	19.4.18~10.31	31명	26회(매주 목)

	우쿨우쿨 꿈틀꿈틀	19.4.18~10.31	16명	26회(매주 수)
	요리조리	19.4.17~10.28	14명	26회(매주 수)
	마니클럽	19.4.18~10.31	12명	26회(매주 목)
	막동산문화회	20.6.21~11.29	20명	21회(매주 일)
	캘리다움	20.6.18~11.26	18명	21회(매주 목)
	다붓다붓 수채 펜 드로잉	20.6.22~11.23	17명	21회(매주 월)
	중문마을 제주민요 어울림 합창단	20.6.18~11.27	27명	21회(매주 목)
	서귀포와 수다	20.6.22~11.26	10명	21회(매주 월)
	우쿨우쿨 꿈틀꿈틀	20.6.18~11.26	15명	21회(매주 목)
	파도소리	20.7.3~11.27	13명	20회(매주 금)
특강 및 페스티벌	봉찬오빠와 정원나들이	19.6.29	20명	1회(나들이)
	눈감고 음악사 더듬기	19.6.28	20명	1회(특강)
	글쓰기 좋아 해요	19.6.27	30명	1회(특강)
	나무로 똑딱똑딱	19.6.26	20명	1회(특강)
	참 궁금했던 사진 메소드 1.2	19.6.25	30명	1회(특강)
	한국춤과 숨쉬다	19.6.21	20명	1회(특강)
	막춤연구실(현대무용)	19.6.19	20명	1회(특강)
	탱고무드	19.6.18	20명	1회(특강)
	발레리나는 어때요?	19.6.18	20명	1회(특강)
	콘서트 특강, 스승을 만나다	19.6.15	50명	1회(특강)
	사랑가로구나	19.6.13	30명	1회(특강)
	그란첼로 살롱	19.6.11	50명	1회(특강)
	아카펠라 마법의 시간	19.11.22	30명	1회(강연)
	인문학적 발연기	19.11.21	20명	1회(강연)
	소랑허여 제주민요	19.11.21	30명	1회(공연)
	언니 K-POP	19.11.20	20명	1회(공연)
	살롱드 시작	19.8.19	50명	1회(공연)
	올해 들어 첫 무대	20.8.16	30명	1회(공연)
	렉처 콘서트 전통춤 나누기	20.8.16	30명	1회(공연)
	감각놀이 품, 색, 소리	20.8.16	15명	1회(공연)
	위대한 예술가를 추모하며	20.8.16	21명	1회(공연)
	패키지 공연 Stylish K-pop Dance & 한여름	20.8.15	30명	1회(공연)
	수다 시작	20.8.15	10명	1회(토크)
	안녕 실크 스크린	20.8.15	36명	1회
	온라인 생중계	20.8.15~16	99명	2회(중계)

* 출처 :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내부자료



[그림 III-11] 제주문화중개소 장기프로그램과 특강 및 페스티벌

* 출처 :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누리집(www.jejuessd.kr)

○ 지역균형발전사업의 권역별 사업, 제주문화중개소의 문화여가 프로그램은 단기프로그램, 장기프로그램, 기획프로그램, 동호회 프로그램 등 4개 영역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단기프로그램은 상·하반기를 나눠서 3개월 내외의 교육운영기간을 설정하여 운영되고 있다면 장기 프로그램은 상·하반기를 이어서 6개월 내외 과정의 프로그램임. 동호회 프로그램은 전통문화, 또는 생활문화 동아리들의 예술성, 공연성 등의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음. 특강 및 페스티벌 프로그램은 공연(음악, 연극, 뮤지컬, 춤, 연주 등), 강연, 체험, 토크, 미디어를 활용한 중계 등 다양한 형식의 연출과 구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표 III-43> 지역균형발전사업 제주문화중개소 운영실적(2019~2020)

단기(2019)			장기(2020)			동호회('19~'20)			특강('19~'20)		
개설 강좌	운영 횟수	참여 인원	개설 강좌	운영 횟수	참여 인원	개설 강좌	운영 회수	참여 인원	개설 강좌	운영 횟수	참여 인원
41	506	624	7	166	92	12	274	205	25	26	751

* 출처 :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내부자료

사. 농업분야 농업인역량강화사업

○ 농업인전문교육(2019년)

- ◆ 목적 :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미래농업인 육성을 위해 경쟁력 있는 맞춤형 농업기술 확산 교육 추진
- ◆ 운영방법 : 영농기술, 친환경 농업, 식품가공, 창농, 품목별, e-비즈니스, 농기계 안전, 현장교육, 농촌문화이해 교육 등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맞춰 실용적인 영농기술 향상에 도움이 되는 교육 운영
 - 강의식, 실습형 교육
 - 대상별, 수준별, 단계별 교육 운영
- ◆ 대 상 : 귀농·귀촌인(희망자), 신규농업인 농업(경영)인 등
- ◆ 운영기관 : 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동부농업기술센터, 서부농업기술센터 등 5개 기관

○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의 농업인전문교육은 귀농·신규농업인 교육 2개 과정, 귀농창업활성화교육 2개 과정, 농업인 전문교육 7개 과정, 농업인대학 3개 과정, e-비즈니스 활성화교육 3개 과정 등 5개 분야 17개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있음

〈표 III-44〉 2019년 기술지원조정과 농업인전문교육 운영계획

구 분	과 정 명	기간	운영 방법	인원 (명)	대 상	교육내용	장 소
기술지원조정과							
귀농신규 농업인 교육과정	귀농귀촌 교육	3.12~ 4.23	13회 60h	150	귀농귀촌자 및희망자	귀농귀촌정책 제주주요농작물재배현 황 제주농업농촌 문화 등	농업기술원 대강당
	귀농귀촌 교육	8.6~ 9.24	13회 60h	150			
귀농창업 활성화교육	귀농귀촌 활성화교육	3~4월	8회 60h	50	신규농업인 현장실교육 수료자	농업농촌 이해 및 귀농 마인드 확립 귀농창업 설계	농업기술원 세마실
	귀농귀촌 활성화교육	5~7월	8회 60h	50			
농업인 전문교육 과정	농산물가공지원교육	3~8월	20회 80h	40	교육희망자	농산물가공기초 농산물가공실습교육	농업기술원 농산물 가공실

	친환경농업교실	5.14~30	6회 24h	60	친환경재배 농가교육 희망자	친환경농업과 미생물 친환경자재 등	농업기술원 대강당
	유기농업 전문가 과정	6.14~8.16	6회 24h	60	유기농업 농가 및 교육희망자	유기농어이론교육 유기농업기능사 자격증반 유기농업실기교육	농업기술원 대강당
	스마트팜 활용교육	9~10월	5회 20h	40	교육희망 농업인	스마트팜 이해 및 활용 현장견학 및 실습	농업기술원 세미나실
	전문농업경영 CEO과정	10.14~10.30	6회 24h	40	전문교육 이수자 교육희망 전문농업인	농가경영기술 농산물유통 마케팅전략	농업기술원 세미나실
	농업농촌선도지도자 양성교육	5~8월	10회 100h	40	희망농업인	전문농업기술교육 및 농업경영마케팅 전략 농업현장교육 등	농업기술원 세미나실
	2030청년농업인 CEO과정	4~6월	10회 40h	30	만19~39세 청년농업인	품목별 영농기초교육 농업정책 지원 활용 등	농업기술원 세미나실
농업인대학(협력교육사업)	친환경농업대학	3~12월	40회	40	제주도민	친환경농업 실천교육	제주대학교
	원예치료사 양성과정	3~12월	40회	70	제주도민	원예치료 전문교육	농어업인회관
	농어촌관광경영자과정	3~12월	40회	50	제주도민	농어촌관광마케팅전략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관광대학교
원예연구과							
e-비즈니스 활성화 교육	홍보과정(중급)	2.14~4.5	10회 40h	26	e-비즈니스 기초교육 수료자 또는 희망농업인	온라인 홍보의 이해 온라인 홍보 전략 수립 SNS 활용 농산물 홍보 실습	농업기술원 IT 서비스실
	판매과정(중급)	2.11~3.29	10회 40h	26		오픈마켓의 이해 오픈마켓 활용기법 농산물온라인 판매실습	
	온라인마케팅심화과정	4.1~30	10회 40h	26		온라인유통트렌드 분석 방법 고객관리프로그램 및 기법 클라우드연계 방법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내부자료

- 2019년 제주농업기술센터의 농업인전문교육은 새해농업인실용교육 1개 과정, 과수류 4개 과정, 친환경 1개 과정, 채소류 5개 과정, 신규농업인 교육 2개 과정, 정보화교육 2개 과정, 현장교육 1개 과정, 농촌자원활용교육 5개과정, 농기계 교육 3개 과정 등 9개 분야 24개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있음

〈표 III-45〉 2019년 제주농업기술센터 농업인전문교육 운영계획

구 분	과 정 명	기간	운영 방법	인원 (명)	대 상	교육내용	장 소
실용교육	새해농업인실용 교육	1.3~ 2.15	31회 62h	1,710	희망마을	작목별 영농기술 농장시책 농약안전사용(PLS), GAP 등 감귤류 정지전정 교육	제주농업 기술센터 및 리사무소 지역농협
과수류	노지감귤정지 전정교육	2.19~ 10.17	12회 24h	480	교육 희망자	농산물우수관리제도 (GAP) 이해 노지감귤 시기별 정지전정 이론교육 노지감귤 부패과 방지 기술교육 청지전정 현장실습 등	제주농업 기술센터 교육관
	노지감귤 재배기술교육	3.6~ 9.4	4회 12h	400		노지감귤 시기별 관리요령 이론 병해충 방제기술(PLS) 현장실습 등	
	만감류 재배기술 교육	2.28~ 10.24	5회 15h	750		만감류 시기별 관리요령 이론 병해충방제기술 (PLS포함) 현장실습 등	
	키위 재배기술 교육	3.28~ 3.29	2회 8h	100		키위 품종별재배관리 기술 병해충 방제기술 (PLS 포함) 국내키위 유통 및 수출동향	
친환경	친환경기술교육	7.8~ 7.10	3회 15h	150	교육 희망자 *친환경 인증자 우대	친환경농업 의의 재배방법 GAP 및 친환경 인증 이해 미생물 농법 및 천연농약 제조실습 유용 미생물(EM) 이론 및 실습교육	제주농업 기술센터 교육관 친환경 농업학교 EM환경 센터
채소류	고추 재배기술 교육	3.22	1회 3h	100	교육 희망자	고추 재배이론(PLS포함) 농산물 우수관리제도 (GAP) 교육 농약 안전사용 사용(PLS) 교육	제주농업 기술센터 교육관
	쪽파·부추 재배 기술 교육	7.5	1회 3h	100		쪽파·부추 재배이론(PLS 포함) 농산물우수관리제도 (GAP) 교육	하귀농협 회의실

						농약안전사용(PLS) 교육	
	양배추·브로콜리 재배기술 교육	7.19	1회 3h	100		양배추·브로콜리 재배이론(PLS 포함) 농산물우수관리제도 (GAP)교육 농약 안전사용 사용(PLS) 교육	애월농협 회의실
	콩재배기술 교육	5.17 8.9	2회 6h	100		콩 재배기술(PLS 포함) 농산물 우수관리제도 (GAP) 교육 농약 안전사용(PLS)교육	제주시 함덕농협 회의실
	마늘·양파재배 기술 교육	7.16	1회 3h	100		마늘·양파재배기술(PLS 포함) 농산물우수관리제도 (GAP) 교육 농약안전사용(PLS)교육	조천농협 회의실
신규 농업인	채소재배기초실 습교육	3.5~ 5.28	7회 21h	25	귀농인 신규농업 인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5년 이내	제주시 귀농귀촌 정착 지원 소개 농작업(단호박, 옥수수) 실습 등 귀농정착 현장사례 교육 농약 안전사용(PLS)교육	제주농업 기술센터 교육장 및 농가실습 포장
	현장실습교육 (멘토멘티)	3월~ 11월	57개 월 800h	6		귀농연수생과 지역선도 농가 1:1맞춤형현장실습(5개 월) * 귀농교육 160시간(20일 기준)인정 중도포기자 제외	지역선도 농가 현장실 교육장 자가영농 지
정보화 교육	스마트폰활용기 초교육	4.8~ 4.11	4회 12h	200	교육 희망자	스마트폰 기본사용 및 기능활용 홍보를 위한 콘텐츠제작 SNS 이해, 페이스북 활용, 고객관리 등	제주농업 기술센터 교육관
	e-비즈니스 활성화 기초교육	5.20~ 9.19	16회 64h	320		SNS활용 홍보 판매이론 및 실습 블로그·초이론 및 판매 실습 블로그활용 마케팅전략	제주농업 기술센터 정보화 교육장
현장교육	농산물우수관리제도 (GAP) 기본교육	4.26 7.16 11.29	3회 6h	300	교육 희망자	GAP 제도의 이해 작물보호제 안전사용 등	제주농업 기술센터 교육관
농촌자원 활용교육	제주식문화의 이해과정	3~4월	5회 20h	150	교육 희망자	제주 식문화의 이해 및 실습	제주농업 기술센터
	전통음료와 한식디저트	4~5월	5회 20h	150		우리나라의 음료와 디저트	농촌생활 과학관
	농촌융복합산업	5~6월	5회	200		농촌융복합산업인증절차	제주농업

	이해과정		20h			사업 아이템 및 프로그램 개발	기술센터 농업인교 육장
	천연염색 전문 가 과정	5~7월	5회 20h	100		천연염색 이론 및 상품화 실습	
	농촌자원 활용 교육	2~12 월	-	-		농촌자원 활용 농산물 가공 및 상품화	-
농기계 교육과정	농기계 경정비 교육	5월~ 10월	4회 12h	80	교육 희망자	방제기 등 주요농기계 경정비 및 응급조치 요령	제주농업 기술센터 농기계 교육장
	농업기계 안전교육	5~6월 9~10 월	18회 54h	450		트랙터 농용굴삭기 등 농기계 취급 조작 실습 및 안전교육	
	여성친화형 농업기계교육	6월 10월	4회 12h	100		운반차 등 여성친화형 농기계 취급 조작 실습 및 안전 교육	

- 2019년 서귀포시농업기술센터의 농업인전문교육은 새해농업인실용교육 1개 과정, 품목별농업인전문교육 9개 과정, 신규농업인 교육 2개 과정, e-비즈니스 활성화교육 2개 과정, 농촌자원교육 3개 과정, 농기계 교육 2개 과정, 현장교육 1개 과정 등 7개 분야 20개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있음

〈표 III-46〉 2019년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농업인전문교육 운영계획

구 분	과 정 명	기간	운영 방법	인 원 (명)	대 상	교육내용	장 소
실용 교육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연말 연초	45 회 90h	20 10	마을주민 및 희망농업 인	작목별 영농기술 농장시책 농약안전사용(PLS), GAP 등	농업기술 센터 및 리사무소 지역농협
품목별 농업인 전문과 정	레드향 재배기술교육	3~9월 격월	4회 12h	100	교육희망 농업인	월별 레드향 재배기술 농약안전사용 (PLS)	농업기술 센터 농업인교 육관
	천혜향 재배기술교육	3~9월 격월	4회 12h	100		월별 천혜향 재배기술 농약안전사용 (PLS)	
	한라봉 재배기술교육	3~9월 격월	4회 12h	80		월별 한라봉 재배기술 농약안전사용 (PLS)	
	황금향 재배기술교육	4~10월 격월	4회 12h	80		월별 황금향 재배기술 농약안전사용 (PLS)	
	남진해키리향) 재배기술	4~10월 격월	4회 12h	50		월별 남진해 재배기술 농약안전사용 (PLS)	

	비가림 월동감귤 재배기술	4~10월 격월	3회 9h	50		비가림월동감귤재배기술 농약안전사용 (PLS)	
	하우스감귤 재배기술	3~9월 분기별	3회 9h	30		하우스감귤 재배기술 농약안전사용 (PLS)	
	노지감귤 재배기술	3,5,8월	3회 9h	50		고품질감귤 재배기술 농약안전사용 (PLS)	
	감귤 정지전정 교육	2~3월	4회 8h	80		정지전정 이론 및 실습	
신규 농업인	신규농업인 감귤재 배과정	3~10월	8회 32h	80	귀농인 신규농업 인	월별 감귤재배기술교육 (전정, 병해충, PLS) 감귤재배 농가 현장교육	농업기술 센터 농업인교 육관
	신규농업인 농산물 가공과정	5~6월	8회 32h	20		농산물가공의 기초이해 농산물가공 실습	농업기술 센터 농산물가 공실
e-비지 니스 활성화 교육	홍보, 판매	5월	-	40	교육희망 농업인	SNS(블로그) 활용 농 산물 홍보 기초 이론 및 실습	농업기술 센터 정보화교 육장
	홍보, 판매	8월	-	40		SNS(스토어팜) 활용 농산물 판매 기초 이 론 및 실습	
농촌 자원 교육	제주농업문화이해 과정	4~7월	-	30	교육희망 자	제주농업문화의 이해 제주농업현장학습 등	농업기술 센터 농업인교 육관
	우리쌀 활용과정	4~7월	-	20		한식의 이해 및 실습	
	전통식문화 과정	9~10월	-	20		제주전통 음식의 이해 및 실습	
농기계 교육 과정	농업인 안전 이용 기술 교육	5~10월	-	275	희망농업 인	농기계취급 조작방법 주요농기계운전실습	농업인교 육관
	여성친화형 농업 기계교육	6월	-	25	희망여성 농업인	농기계취급 조작방법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	농기계실 습장
현장 교육	농산물우수관리 제도(GAP)교육	2~10월	-	300	교육희망 농업인	GAP 제도의 이해 농약안전사용 등	각 농협

- 2019년 동부농업기술센터의 농업인전문교육은 새해농업인실용교육 1개 과정, 품목별농업인전문교육 3개 과정, 신규농업인 교육 2개 과정, 농기계 안전교육 2개 과정, 강소농교육 1개 과정, 전통식문화교육 1개 과정 등 6개 분야 10개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있음

〈표 III-47〉 2019년 동부농업기술센터 농업인전문교육 운영계획

구 분	과 정 명	기간	운영 방법	인원 (명)	대 상	교육내용	장 소
실용교육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1.10~ 1.30	20회 40h	1,170	교육 희망자	작목별 영농기술 농장시책 농약안전사용(PLS),	리사무소 지역농협
품목별 농업인 전문교육	감귤정지전정 교육	2~3월	10회 30h	300	교육 희망자	감귤(만감류)정지 전정 이론 및 현장실기	농업현장
	농산물우수관리 제도 (GAP)교육	4~10월	3회 9h	300		GAP 제도의 이해 농약안전사용 등	농업기술 센터 지역농협
	당면과제 교육	2~12월	10회 30h	500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	농업현장 지역농협
신규 농업인	신규농업인 기초과정	3~6월	10회 30h	300	교육 희망자	주요농산물재배기초기술 농기계 안전사용 경영체 등록	농업기술 센터 농업인교 육관
	영농정착 심화과정	7~11월	8회 24h	160		영농정착기술교육 농작물 재배실기	
농업기계 안전교육	농업인 안전 이용 기술 교육	5~10월	10회 30h	200	교육 희망자	농기계 안전사용 요령 현장이용기술	농업인교 육관 농기계교 육장
	여성친화형 농업 기계안전교육	4~10월	2회 6h	40		여성친화형 농기계교육	
강소농 교육	강소농 후속교육	6~10월	10 회30 h	400	교육 희망자	강소농 경영관리 역량 교육	농업기술 센터 농업인교 육관
전통 식문화	전통식문화계승 활동 지원교육	3~11월	-	100	교육 희망자	전통식문화의 우수성 녹색생활의 우수성 전통음식 제주음식 등 음식 실습	농업기술 센터 농촌생활 과학관

- 2019년 동부농업기술센터의 농업인전문교육은 새해농업인실용교육 1개 과정, 품목별농업인전문교육 5개 과정, 친환경 농업교육 2개 과정, 신규농업인 교육 3개 과정, 농촌자원활용교육 4개 과정, 농업기계교육 1개 과정 등 6개 분야 16개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있음

〈표 III-48〉 2019년 서부농업기술센터 농업인전문교육 운영계획

구 분	과 정 명	기간	운영 방법	인원 (명)	대 상	교육내용	장 소
실용교육	새해농업인실용교육	1.7~1.22	13회 26h	1,565	희망마을	작목별 영농기술 정부시책, 농약 안전사용(PLS), GAP 등	농업기술센터 교육관 사무소 지역농협
품목별 농업인 전문과정	노지감귤 전정교육	2월	4회 8h	200	교육희망자	노지감귤, 만감류 시기별 정지 전정 이론 및 현장실습	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관 농기술포장
	만감류 전정교육	2월	2회 4h	100			
	노지감귤 재배기술 교육	3~9월	4회 12h	400		노지감귤 시기별 관리 요령 이론, 병해충 방제기술	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관
	만감류 재배기술 교육	3~9월	4회 12h	400		만감류 시기별 관리요령 이론, 병해충 방제기술	
	키위 재배기술 교육	3~7월	4회 8h	100		키위 시기별 관리 요령 이론, 병해충 방제기술	
친환경	친환경 농업교육	3~9월	4회 20h	160	교육희망자	미생물 및 천연농약 제조실습	농업기술센터 교육관 친환경 농업학교
	친환경 농업 심화교육		4회 20h	160		유용 미생물(EM) 이론 및 실습교육	
신규 농업인 교육	신규농업인 과수기초	3~9월	4회 12h	120	귀농인 신규농업인	과수분야 기초교육	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관
	신규농업인 원예기초	3~9월	4회 12h	120		원예작물분야 기초교육	
	신규농업인현장실습 교육(멘토멘티)	5개월	800h	6		귀농연수생과 지역선도 농가 1:1 맞춤형	교육장 자기영농지
농촌자원 활용교육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교육	6~10월	5회 20h	150	교육희망자	농촌융복합산업의 이해 및 창업자 소양과정 가공, 체험프로그램개발	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관
	전통식문화계승과정	3~10월	5회 20h	100		우리전통식문화 이해와 실습, 우리쌀 소비확대 및 쌀의 가치	
	농산물가공식품교육	3~10월	5회 20h	150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식품기자재 이용	
	농촌자원 활용교육	2~12월	-	-		농촌자원 활용 농산물 가공 및 상품화	-
농업기계 교육	농업기계 안전교육	5~6월 9~10월	10회 30h	2500	교육희망자	트랙터, 농용굴삭기 등 농기계 취급, 조작실습 안전교육	농업교육관 농기계교육장

- 농업분야 농업인전문교육은 귀농인과 신규농업인, 그리고 기존 농업인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여 변화하는 농산업환경에 대응하는데 있음. 2019년에 계획된 농업인전문교육은 마을단위에서 운영되는 농업인 실용교육과 과수류와 채소류 등 지역별 생산품목 특성을 고려한 전문교육, 귀농인과 신규농업인 대상교육, 정보화 교육, 농촌자원활용교육, 농기계안전 교육 과정 등 7개 분야로 나뉘 교육프로그램이 설계되어 있음. 그리고 제주 농업기술센터와 서부농업기술센터는 신규농업인 대상으로 지역 내 선도농가에서 5개월, 800시간의 현장실습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2019년, 농업기술원 등 5개 농업분야 전문기관의 농업인전문교육은 총 88개 교육 과정에 19,780명의 농업인이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표 III-49〉 2019년 농업분야 농업인전문교육 운영계획

구 분	교육과정	운영횟수		시간(h)	교육인원(명)
		횟수	현장실습		
계	88	625	-	3,588	19,780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및원예연구과	18	255	-	1,632	1,076
제주농업기술센터	24	139	5개월	1,203	5,871
서귀포농업기술센터	20	76	-	220	3,232
동부농업기술센터	10	83	-	229	3,370
서부농업기술센터	16	72	5개월	304	6,231

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사업

- 농촌체험휴양마을 리더 및 사무장 역량교육
 - ◆ 목적 : 지속가능 농촌발전을 위한 핵심인재 양성. 농촌관광 활성화 정책에 대한 체감 및 성과 제고, 체험프로그램 경쟁력 강화 등 도농교류 확대와 이를 통한 농촌활력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 운영방법 : 실무역량과 체험상품의 고도화 등 농촌체험 전문역량 교육
 - 강의식, 토론식, 실습형 교육

- 기본교육, 자율교육, 심화과정 등의 수준별, 단계별 교육 운영
- ◆ 대 상 : 체험휴양마을리더 및 체험휴양마을사무장 등
- ◆ 운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 ◆ 운영현황 : 19개 마을, 연간 30명 내외

〈표Ⅲ-50〉 농촌체험휴양마을 리더 및 사무장 역량교육 운영 현황

구 분	강 좌 명	기 간	대상/인원	운영방식
2018	농촌관광정책 방향 및 관광동향	12.13~14	24명	강의 (16h)
	4차 산업 혁명과 혁신			
	웰촌 루코스 및 e-나라도움 시스템 관리운영			
	리더십 및 주민갈등관리			
	제주농촌코디네이터의 기능과 역할			
	마을관광 홍보마케팅 관리			
	소비자 트렌드의 변화에 따른 콘텐츠 개발			
	세무회계관리			
2019	농촌관광정책 방향 및 관광동향	11.26~27	-	강의 (8h)
	법인 설립과정 및 법인 운영사례			
	법인회계 실무과정			
	농촌체험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리더와 사무장의 역할			
	체험별 우수사례 및 체험마을동향			워크숍 (4h)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기획			워크숍 (4h)
	교육계획안, 시나리오 작성 및 응용/ 체험프로그램 사례 실습			
	홍보 및 사업 기획안 작성 및 응용			
2020	소셜미디어 SNS의 이해와 전략적 활용	10.27~28	27명 19개 마을	강의 (8h)
	지역주민 갈등관리를 위한 코칭 리더십			
	지역자원융복합화를 통한 제주지역 산업의 다각화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동백비누만들기 체험			실습 (1h)
	우리의 빛나는 문화유산 스토리텔링으로 가치 더하기			강의 (4h)
	제주 웰리스 관광의 활성화			

4. 요약 및 시사점

가. 읍·면·동(마을단위) 평생학습센터

- 국가사업의 시범운영 후 2016년부터 본격 운영되기 시작한 읍·면·동평생학습센터는, 제주시 평생학습관과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운영한 제주시 ‘우리동네 학습나눔터’와 ‘마을배움터’ 운영을 통해 추진됨. 주민들에게 제공된 교육 프로그램은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의 참여와 인문교양 및 문화예술교육에서 기초문해교육, 직업능력 교육 등 폭넓은 영역에 이르기 까지 주민 요구에 의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으로서 제도화 단계로 진입하지는 못했고, 예산 범위 내 추진되는 사업의 한계로 인해 제한된 마을 단위의 주민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에 국한됨

나.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 주민자치센터의 주민교육프로그램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시민의 자치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임. 교육프로그램은 주민자치 학교 등 자치역량을 위한 주민자치교육과 지식함양을 위한 시민교육, 문화·여가 및 복지 등의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민자치학교 등 자치역량을 위한 주민자치교육 부재
 - 주민자치 역량의 함양은 자치위원의 소양을 배양하는 교육과 더불어 지역 공동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지역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방법, 소통과 협상력 등의 역량을 높이는데 있을 것임. 하지만 자치역량 향상을 위한 과정은 자치위원의 선출 목적을 위한 교육 과정으로 그치고 있음
- 시민교육과 문화수준 향상 교육 등의 적절한 운영 필요
 - 시민교육은 지식함양과 시민의식 배양이라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면 문화수준 향상교육은 시민들의 문화·여가 등의 활동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 성격을 가지고 있음. 하지만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대부분 문화수준 향상 중심으로 구성 운영되는 있음.

지역적인 차이가 반영되고 지역의 언어와 역사, 전통, 문화 생산자로서 주민의 정체성 형성을 돕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에는 못 미침

- 읍·면·동 지역특성을 고려한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개발 부재
 - 일부 읍·면·동에서 지역이 가진 문화적 자산과 인적 자원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교육프로그램이 개설되고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읍·면·동은 문화·여가 중심의 비슷한 문화강좌가 열리고 있음. 따라서 지역특성이 반영되고 시민의식과 문화수준 향상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노력이 필요함
- 시민과 주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 한계
 - 주민자치센터를 벗어나서 지역 내 문화공간을 연결하는 등 시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려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읍·면 단위는 중심소재지 마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동 단위는 도심권의 일부 동 지역을 제외하면 읍·면 지역과 비슷한 여건에 놓여 시민과 주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에 한계가 있음. 도보와 대중교통 이용 시 30여분 이상의 접근 시간이 필요함

다. 마을(도·농)단위 주민역량강화사업

- 마을단위 주민역량강화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하고 있음. 교육 내용은 마을지원사업의 이해, 마을지원사업 사례, 마을발전계획 수립 현장포럼과 사업 발굴 현장포럼을 중심으로 교육강좌가 운영되고 있음
-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의 혼디모영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강좌로서 매년 20여개 마을에 80여회의 교육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주민교육 커리큘럼 전반에 대한 목표와 내용 변화 필요
 - 마을단위 교육수요 조사를 통해 역량강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단발성, 일회성 교육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공모사업 발굴하는 과정으로 역량강화사업이 진행되거나 행복마을콘테스트 등을 준

비하는 과정에 주민교육예산이 투입되고 있음

- 주민교육 공간의 편의성 등을 고려한 교육환경 변화 필요
 - 마을단위 주민교육공간은 대부분 마을회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교육내용에 따라 토론 등의 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 공간인지, 강의자와 피교육자 간의 시청각 요소가 최적화되어 있는지 여부 등 주민교육 공간의 편의성 개선 필요
- 피교육자의 참여 동기, 학습공동체 욕구가 반영된 교육강좌 개설
 - 주민교육 과정이 지나치게 마을지원사업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그 자체가 참여동기의 한계로 나타나고 있음. 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관심사와 욕구를 중심으로 형성된 학습공동체 중심의 교육강좌 개설 및 운영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라.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

- 도시재생분야의 주민역량강화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센터와 뉴딜사업지구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주관으로 도시재생대학, 도시재생아카데미, 도시재생 뉴딜전문가, 이슈발굴형 주민교육프로그램 등 4개 영역의 교육과정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도시재생 정책과 도시재생의 이해, 도시재생에 대한 이슈 발굴, 젠트리피케이션 등 도시재생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학습으로 구성되어 있음
- 다양한 주민주체들의 교육참여와 교육을 통해 주체들의 성장과정 나타나야
 - 교육의 목표와 과정에서 주민들의 성장과정이 나타나야 하지만 실제로는 과정 이수에 그치고 있음. 도시재생 지역이 안고 있는 다양한 이슈와 문제들을 주민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형성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설계가 필요함

마. 사회적경제주체 역량 발굴 및 육성사업

- 사회적경제주체역량교육은 커뮤니티비즈니스와 사회적경제의 이해를 돕는 특강, 워크숍, 토크콘서트, 개별 컨설팅 등의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커뮤니티

비즈니스학교와 구분되는 두 개 과정, 즉 마을과 주민공동체 중심의 마을(공동체)기업의 진입과 운영, 그리고 고도화를 위한 교육 과정으로 설계되어 있음

- 사회적경제주체역량교육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커뮤니티비즈니스 학교와 마을공동체지원사업 참여 공동체 교육을 주관하고 있으며, 마을기업 교육은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주관하고 있음
- 사회적경제주체역량교육 과정의 통합과 개별과정, 수준별, 분야별 교육 필요
 - 사회적경제주체역량교육 운영에 따른 결과와 효과 여부, 그리고 교육 과정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 미흡. 또 세 개 교육 과정이 예산처에 따라 각 각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은 통합과 개별과정, 또 수준별, 분야별 교육과정의 고려 필요

바. 지역균형발전사업 주체 역량강화사업

-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의 강사지원시스템은 강사(교육자), 주민(피교육자), 공간(교육장소)으로 엮어내는 구조의 교육 서비스 프로그램이며 핵심은 주민이 원하는 장소에서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리고 강사플랫폼에 등록된 전체 강사는 327명으로 6개 분야 26개 강좌를 개설할 수 있음
- 주민주도 학습공동체를 연결하는 강사지원시스템 활성화 필요
 - 강사플랫폼은 구축되었지만 실제 교육과정의 개설과 교육운영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여러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음. 현재까지 강사지원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참여마을과 법인이 7개 내외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45개 법인의 1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 개설된 강좌를 살펴보면 수강생이 1인인데도 강좌가 개설되어 강사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제주문화중개소는 서귀포시 12동 지역 시민들에게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지역균형발전사업의 권역별 사업에 해당됨. 문화중개소의 문화여가 프로그램은 단기프로그램, 장기프로그램, 기획프로그램, 동호회 프로그램 등 4개 영역으로 설계되어 있음

- 균형발전분야 우선순위 요소,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지속가능 전달체계 구축
 - 주민수요조사 및 균형발전 수준 평가를 바탕으로 우선순위 과제로 선정된 문화 서비스가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방식인지, 또는 강사를 지원 방식인지 등에 대하여 내용과 운영 측면에서의 재정립이 필요함. 강사지원시스템에서 강사(교육자), 주민(피교육자), 공간(교육장소)을 연결하는 것처럼 문화중개소의 역할도 이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음

사. 농업분야 농업인 역량강화교육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과 제주농업기술센터,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동부농업기술센터, 서부농업기술센터 등 5개 기관에서 운영 중인 농업인 전문교육은 제주 농업의 가치와 경쟁력 있는 미래농업인 육성을 목표로 다양하고 맞춤형의 농업교육을 개설하여 운영 중임. 농업인 역량교육은 지역별 농업생산물품을 고려한 강좌와 공통 과정 강좌로 구분되어 있음. 또 마을단위에서 시행되는 농업인 실용교육을 통해 보다 폭넓게 농업인 기초 교육을 시행하고 있음
- 농업인전문교육 운영에 따른 변화와 효과에 대한 모니터와 교육정책의 반영
 - 매년 2만여 농업인이 참여하는 농업인 전문교육이 실제 농업인의 전문역량 향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농업생산환경 변화에 어떤 변화와 영향을 주고 있는지 등의 조사연구 필요

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사업

- 농촌발전을 위한 핵심인재 양성과 농촌관광 활성화라는 정책의 체감 및 성과 제고, 그리고 도농교류 확대를 통한 농촌활력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체험마을 리더와 체험사무장을 대상으로 역량교육 운영
- 농촌관광 참여마을의 리더역량 제고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교육 운영
 - 제주의 농촌관광은 제주관광 변화에 영향을 받음에 따라 관광 트렌드의 변화에 대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체험휴양마을협의회의 리더 교육은 농촌관광 참여주체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고 변화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이고 실천 가능한 교육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하지만 리더 육성에 참여하는 마을의 주체들이 교육 수강 동기가 미약하여 교육 이후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음



Ⅳ.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의 학습요구 분석

1. 조사 개요
2. 조사 결과
3. 요약 및 시사점

Ⅳ.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의 학습 요구 분석

1. 조사 개요

가. 조사 설계 및 방법

- 조사 대상자는 마을단위 주민, 총 300명을 대상으로 함
- 표집방법은 제주지역 43개 읍면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별 조사 인원을 배정한 목적적 표집으로 선발함. 즉, 행정구역을 근거로 제주시 동 지역 19개, 읍·면 지역 7개(마을 수 96개), 서귀포시 동 지역 12개, 읍·면지역 5개(마을 수 76개)를 고려하여 비례할당 표집하였음
 - 표본 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pm 5.66\%$ p임
- 본 연구의 설문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면접조사 방식으로 2020년 10월 29일~11월 15일 사이에 전문 조사업체를 통해서 수행되었음

나. 조사 내용

- 설문지는 박성정 외(2002), 박영란 외(2020), 장창수(2011), 김경애 외(2014), 이해영 외(2011), 한정란(2008)의 조사 내용을 참고로 연구진이 문항을 추가하여 구성함
- 본 연구를 위한 조사 내용은 <표Ⅳ-1>과 같음(<부록 1> 참조)

<표 Ⅳ-1> 설문조사 내용

구 분	조사내용	설문 번호	문항 수
교육 참여 여부	· 마을단위 주민대상 교육 참여 여부	1	1
교육 미참여 이유 및 개선점	· 교육 미참여 이유 · 향후 참여 의향 · 참여하려는 이유	2~3	3
교육경험 및 만족도	· 참여 기간 및 참여 프로그램 · 참여 교육의 도움 정도 · 참여 교육 장소 · 참여 경로	4~8	5

참여교육 주관 기관 이용 정보	· 참여교육의 주관 기관 · 참여교육 주관 기관 이용 사유 및 시설 여건 · 참여교육 이용 중 불편함	9~10	5
분야별 교육 참여 경험과 도움 정도	· 분야별 교육 참여 여부와 도움정도	11	1
코로나로 인한 변화	· 코로나로 교육기관 휴관한 동안 대체 활동 · 코로나 이후 주민교육 참여 의향	12~13	2
주민교육 수요	· 주민교육 방법의 적합성 · 코로나로 인한 교육방법별 적합도 · 주민교육의 내용별 필요성 · 세대별 통합 프로그램 필요성 · 여성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내용, 참여 경험, 참여하지 않은 이유 · 주민의 교육 참여 제고를 위한 개선사항 · 주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14~20	9
응답자 일반적 사항	· 거주지역, 성별, 출생년도, 학력, 직업, 현재 근로여부 · 동거인, 주관적 경제상태, 정서적 교류 빈도, 공동체 활동 참여 경험	13	7

다. 설문조사 대상자 특성

□ 전체 응답자

- 전체 응답자는 총 300명이며, 여성 51.0%(153명) 남성 49.0%(147명)임. 연령대 별로는 '50세 이상 ~ 59세 미만'이 31.7%로 가장 많음
- 학력은 '대졸 이상'이 전체의 31.3%로 가장 많음
- 최종학력은 고졸이 138명으로 전체의 46.0% 차지함
- 현재 직업은 농어업, 임업과 자영업이 각각 21.7%로 가장 많음. 직장이 없는 대상자도 전체의 17.3%를 차지함
- 가족형태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 형태가 전체의 43.0%로 가장 많음
- 경제상태는 보통이라고 대답한 대상자가 전체의 70%임
- 친척, 이웃과의 교류정도는 일주일에 한 두번 교류한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116명으로 전체의 38.7%를 차지함. 거의 매일 교류가 있는 대상자도 32.0%임
- 자원봉사 및 공동체 활동 참여 여부를 살펴보면, 과거에 참여한 경험이 있지

만 현재는 참여하지 않는 비중이 전체의 42.7%로 가장 많음

〈표 IV-2〉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전체	
		빈도	%
성별	여성	153	51.0
	남성	147	49.0
	합 계	300	100.0
거주지역	제주시 동지역	66	22.0
	제주시 읍면지역	115	38.3
	서귀포시 동지역	33	11.0
	서귀포시 읍면지역	86	28.7
	합 계	300	100.0
연령	29세 이하	17	5.7
	30세 이상 ~ 39세 이하	28	9.3
	40세 이상 ~ 49세 이하	68	22.7
	50세 이상 ~ 59세 이하	94	31.3
	60세 이상 ~ 69세 이하	54	18.0
	70세 이상	39	13.0
	합 계	300	100.0
최종학력	무학	3	1.0
	서당, 초등학교 졸업	15	5.0
	중졸	30	10.0
	고졸	138	46.0
	대졸이상	114	38.0
	합 계	300	100.0
직업	농어업, 임업	65	21.7
	단순노무직	12	4.0
	서비스, 판매직	47	15.7
	사무, 관리직	61	20.3
	자영업	65	21.7
	기능직, 장치/장치기계조작/조립	8	2.7
	전문직	26	8.7
	전업주부	8	2.7
	대학생	3	1.0
	무직	5	1.7
	합 계	300	100.0
직장여부	유직	248	82.7
	무직	52	17.3
	합 계	300	100.0
거주가족형태	혼자 살고 있음	38	12.7
	배우자와 살고 있음	84	28.0
	자녀와 함께 살고 있음	14	4.7

	배우자 및 자녀와 살고 있음	129	43.0
	친구 친지와 살고 있음	8	2.7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음	21	7.0
	부모님과 배우자와 살고 있음	4	1.3
	조모와 함께 살고 있음	1	0.3
	부모 형제와 살고 있음	1	0.3
	합 계	300	100.0
경제상태	어려운편	36	12.0
	보통	212	70.0
	여유있는편	52	17.3
	합 계	300	100.0
친척, 인구, 이웃과의 교류정도	거의 매일	96	32.0
	일주일에 한 두번	116	38.7
	한달에 한 두번	68	22.7
	1년에 한두번	10	3.3
	거의 만나지 않는다	10	3.3
	합 계	300	100.0
자원봉사 및 공동체 활동 참여 여부	현재 참여하고 있음	88	29.3
	과거에 참여한 경험이 있지만, 현재는 참여하지 않음	128	42.7
	참여한 적이 없다	84	28.0
	합 계	300	100.0

□ 주민의 교육 참여에 대한 일반적 특성

- 총 300명을 대상으로 주민대상 교육의 참여정도에 대하여 살펴봄
- 주민 대상 교육 참여 경험에 대해 전체의 56.7%인 170명은 참여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앞으로 주민 교육에 대한 참여 의사를 살펴보면 대상자중 56.5%가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주민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
- 주민대상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참여 일수와 참여기간을 알아보았는데, 참여일수는 5일 이하, 10일 초과~20일 이하, 20일 초과가 고르게 각각 25.9%씩 차지하였고, 참여기간은 3년 이상~4년 미만이 전체의 41.1%로 가장 많음
- 프로그램 참여 횟수도 4회 이하, 5회 이상~9회 이하, 10회 이상~18회 이하, 20회 이상이 고루 분포하였는데, 20회 이상이 25.7%로 그중 가장 많음

〈표 IV-3〉 응답자의 주민 참여에 관한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전체	
		빈도	%
주민대상 교육 참여경험	있다	130	43.3
	없다	170	56.7
	합 계	300	100.0
앞으로 주민교육 참여 의향	그렇다	74	43.5
	아니다	96	56.5
	합 계	170	100.0
교육기간참여일수	5일 이하	7	25.9
	5일 초과 ~ 10일 이하	6	22.2
	10일 초과 ~ 20일 이하	7	25.9
	20일 초과	7	25.9
	합 계	27	100.0
주민교육참여기간	1년미만	20	15.5
	1년이상 ~ 2년 미만	19	14.7
	2년 이상 ~ 3년 미만	11	8.5
	3년 이상 ~ 4년 미만	53	41.1
	4년 이상	26	20.2
	합 계	129	100.0
프로그램 참여 횟수	4회이하	32	24.8
	5회이상 ~ 9회 이하	29	22.6
	10회이상 ~ 18회 이하	35	27.2
	20회 이상	33	25.7
	합 계	129	100.0

2. 조사 결과

가. 교육 미참여 이유 및 개선

○ 응답 대상자는 주민교육 참여경험이 없는 주민 170명임

□ 주민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 주민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복수응답으로 조사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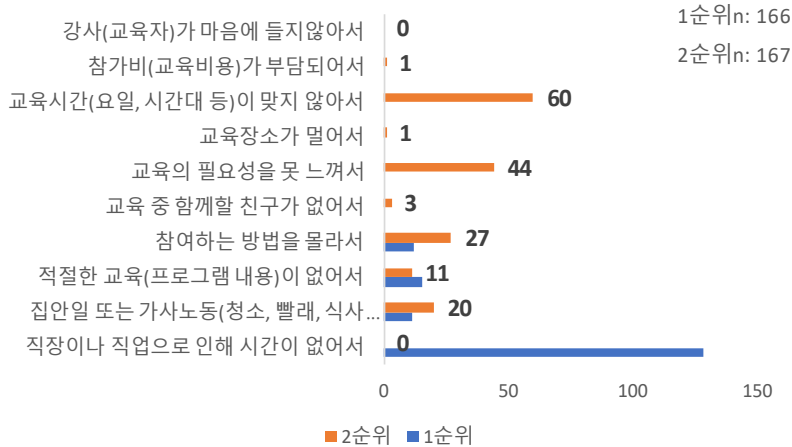
○ 주민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1순위 이유는 '직장이나 직업으로 인해 시간 없어서'가 전체의 75.3%로 가장 많음. 적절한 교육(프로그램 내용)이 없어서도 다음으로 높은 비중(8.8%)을 차지함. 2순위중 가장 큰 이유는 교육시간(요일, 시간대 등)이 맞지 않아서가 35.3%로 가장 많음

- 주민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주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와 '시간이 맞지 않아서' 라는 이유로 나타남

〈표 IV-4〉 주민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

	1순위		2순위	
	명	%	명	%
직장이나 직업으로 인해 시간이 없어서	128	75.3	0	0
집안일 또는 가사노동(청소, 빨래, 식사 챙기기 등)으로 부담이 되어서	11	6.5	20	11.8
적절한 교육(프로그램 내용)이 없어서	15	8.8	11	6.5
참여하는 방법을 몰라서	12	7.1	27	15.9
교육 중 함께할 친구가 없어서	0	0	3	1.8
교육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0	0	44	25.9
교육장소가 멀어서	0	0	1	0.6
교육시간(요일, 시간대 등)이 맞지 않아서	0	0	60	35.3
참가비(교육비용)가 부담되어서	0	0	1	0.6
강사(교육자)가 마음에 들지않아서	0	0	0	0
합 계	166	97.7	167	98.4



[그림 IV-1] 주민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 앞으로 주민 교육 참여 의향 및 이유

- '주민 교육에 참여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하여'에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1순위에서는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59.5%로 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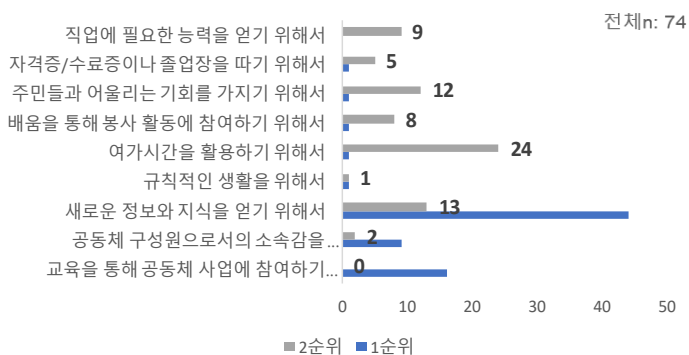
높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는 '교육을 통해 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21.6%,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서' 12.2% 순으로 나타남
- 2순위에서는 '여가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32.4% 로 가장 높게 나타남.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17.6%, '주민들과 어울리는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16.2% 순으로 나타남

〈표 IV-5〉 앞으로 주민 교육에 참여 의향 이유

(단위 : 명, %)

	1순위		2순위	
	명	%	명	%
교육을 통해 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16	21.6	0	0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서	9	12.2	2	2.7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44	59.5	13	17.6
규칙적인 생활을 위해서	1	1.4	1	1.4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1	1.4	24	32.4
배움을 통해 봉사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1	1.4	8	10.8
주민들과 어울리는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1	1.4	12	16.2
자격증/수료증이나 졸업장을 따기 위해서	1	1.4	5	6.8
직업에 필요한 능력을 얻기 위해서	0	0	9	12.1



[그림 IV-2] 앞으로 주민 교육에 참여 의향 이유

나. 교육경험 및 만족도

- 주민교육 참여경험이 있는 130명에게 교육경험 및 만족도에 대해 조사하였음

IV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의 학습 요구 분석

□ 마을단위 주민교육 중 수강한 프로그램

-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중복응답으로 수강한 프로그램은 무엇인가를 살펴봄
- 공동체 교육(지역이해하기: 마을 만들기, 도시재생, 마을발전정책 등)이 28.5%로 가장 많음. 그 다음으로 생활예술교육(댄스 스포츠, 기체조 등 생활 스포츠, 그림, 노래, 서예 등 문화예술 교육)가 25.6%로 2번째로 많은 비중 차지함. 정보화교육(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활용, 화상 회의 등 교육)이 8.7%로 세 번째로 많은 비중 차지함

〈표 IV-6〉 마을단위 주민교육 중 수강한 프로그램

(단위 : 명, %)

프로그램 명	구분	
	명	%
공동체 교육(지역이해하기: 마을 만들기, 도시재생, 마을발전정책 등)	88	28.5
갈등관리 및 의사소통 교육(대화법, 갈등관리, 회의 진행 등)	19	6.1
직업교육(농수산 기술교육, 취업·재취업교육, 창업교육, 자격증교육 등)	26	8.4
경제교육(세무/회계, 마을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 설립 등)	20	6.5
생활예술교육(댄스 스포츠, 기체조 등 생활 스포츠, 그림, 노래, 서예 등 문화예술 교육)	79	25.6
인문교육(역사, 철학, 문화, 정치, 경제 전반의 인문환경, 교양 시사 교육)	17	5.5
외국어교육(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	5	5.5
정보화교육(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활용, 화상 회의 등 교육)	27	8.7
문해교육(한글읽기, 계산하기 등)	2	0.6
건강 및 생애주기 교육(건강 식이요법, 생애주기, 신체심리, 사회적 특징)	15	4.9
양성평등 교육	2	0.1
GMO 및 토종씨앗	1	0.0
보건소 치매 교육	1	0.0
숙박업소 위생교육	1	0.0
우도 관광버스 교육	1	0.0
심폐소생술	1	0.0
복지 리더 양성 아카데미	1	0.0
청소년 지도 협의회 워크숍	1	0.0
고추장 만들기	1	0.0

□ 참여한 주민교육이 주는 도움과 이유

- 참여한 주민 교육이 주는 도움은 어떤 것이 있는지 복수응답으로 구체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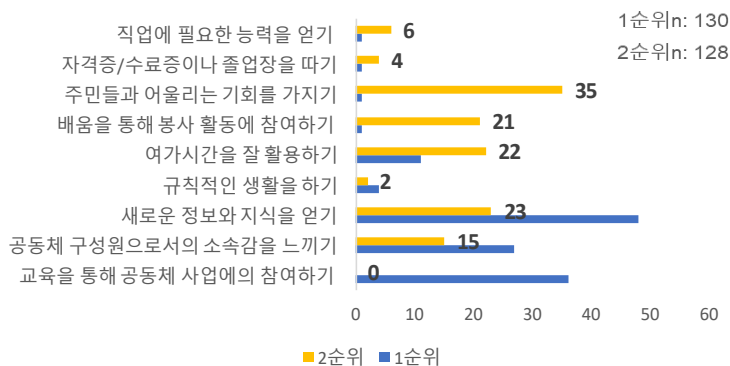
살펴봄. 그 결과 1순위 에서는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얻다가 36.9%로 가장 많음

- 그 다음으로는 '교육을 통해 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27.7%,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서' 20.8% 순으로 나타남
- 2순위에서는 '주민들과 어울리는 기회를 가지기' 27.3% 로 가장 높게 나타남.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18.0%, '여가 시간을 잘 활용하기' 17.2% 순으로 나타남

〈표 IV-7〉 참여한 교육이 주는 도움

(단위 : 명, %)

	1순위		2순위	
	명	%	명	%
교육을 통해 공동체 사업에의 참여하기	36	27.7	0	0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끼기	27	20.8	15	11.7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얻기	48	36.9	23	18.0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4	3.1	2	1.6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기	11	8.5	22	17.2
배움을 통해 봉사 활동에 참여하기	1	0.8	21	16.4
주민들과 어울리는 기회를 가지기	1	0.8	35	27.3
자격증/수료증이나 졸업장을 따기	1	0.8	4	3.1
직업에 필요한 능력을 얻기	1	0.8	6	4.7



[그림 IV-3] 참여한 교육이 주는 도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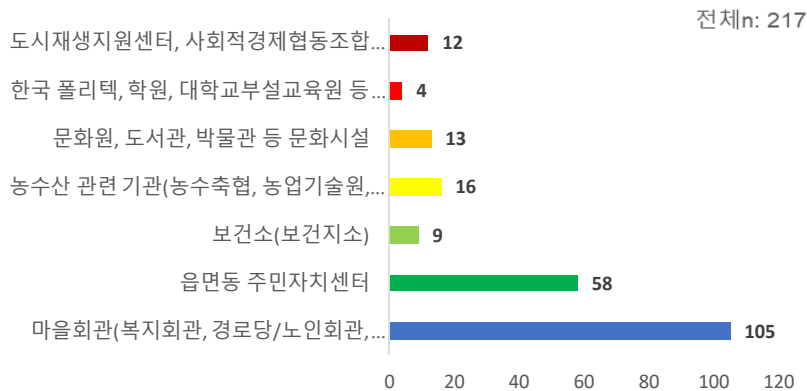
□ 참여한 교육 실시 장소

- 참여한 주민 교육이 실시된 장소를 살펴봄. 참여한 주민 교육이 주는 도움은 어떤 것이 있는지 복수응답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마을회관(복지회관, 경로당/노인회관, 마을 문화센터, 마을 문고 등)이 47.9% 가장 높음
- 그 다음으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26.5%, '농수산 관련기관' 7.3% 순으로 나타남

〈표 IV-8〉 교육실시 장소

(단위 : 명, %)

프로그램 명	구분	
	명	%
마을회관(복지회관, 경로당/노인회관, 마을 문화센터, 마을 문고 등)	105	47.9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58	26.5
보건소(보건지소)	9	4.1
농수산 관련 기관(농수축협,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16	7.3
문화원, 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시설	13	5.9
한국 폴리텍, 학원, 대학교부설교육원 등 직업훈련기관	4	1.8
도시재생지원센터, 사회적경제협동조합 등 중간지원조직	12	5.5



[그림 IV-4] 교육실시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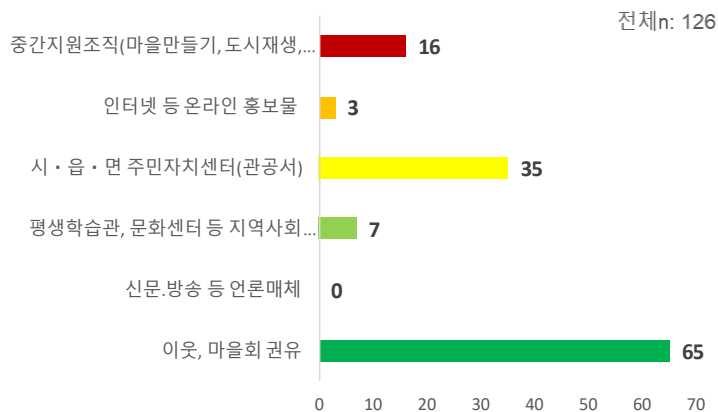
□ 주민참여 경로

- 주민 교육 참여 경로를 살펴봄. 그 결과 ‘이웃 , 마을회 권유’가 전체의 50%로 가장 많음. 다음으로 시·읍·면 주민자치센터(관공서)가 26.9%, 중간지원조직(마을만들기, 도시재생, 마을기업, 체험휴양마을 등) 홍보물이 12.3% 순으로 나타남

〈표 IV-9〉 주민교육 참여 경로

(단위 : 명, %)

프로그램 명	구분	
	명	%
이웃, 마을회 권유	65	50.0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	0	0
평생학습관, 문화센터 등 지역사회 교육기관 홍보	7	5.4
시·읍·면 주민자치센터(관공서)	35	26.9
인터넷 등 온라인 홍보물	3	2.3
중간지원조직(마을만들기, 도시재생, 마을기업, 체험휴양마을 등) 홍보물	16	12.3



[그림 IV-5] 주민교육 참여 경로

□ 주민교육 주관 단체별 실시 교육 참여 여부

- 주민교육 주관 단체별 실시한 교육에 대한 참여 여부를 알아봄
- 마을회 및 자생단체(부녀회, 새마을회, 농민회 등)의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전체의 80.8%로 가장 높음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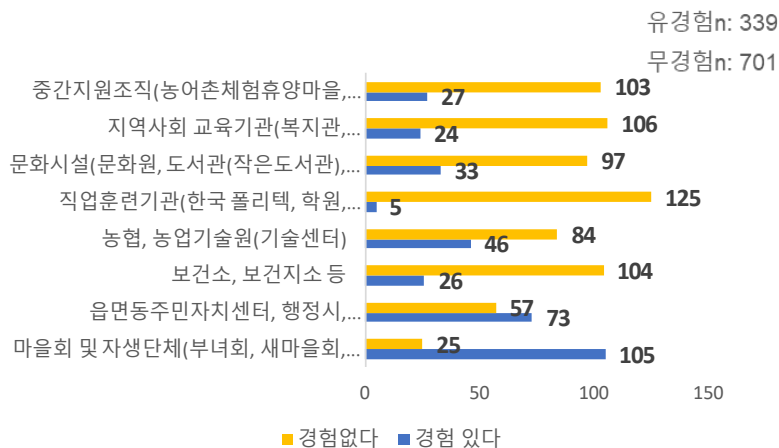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의 학습 요구 분석

- 다음으로 읍면동주민자치센터 교육인데, 참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56.2%로 나타남
- 농협, 농업기술원(기술센터)은 35.4%, 문화시설(문화원, 도서관(작은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의 집 등)은 25.4% 순으로 나타남

〈표 IV-10〉 주민교육 주관 단체별 실시 교육 참여 여부

(단위 : 명, %)

	경험 있다		경험없다		전체	
	명	%	명	%	명	%
마을회 및 자생단체(부녀회, 새마을회, 농민회 등)	105	80.8	25	19.2	130	100.0
읍면동주민자치센터, 행정시, 인재개발원 등	73	56.2	57	43.8	130	100.0
보건소, 보건지소 등	26	20.0	104	80.0	130	100.0
농협, 농업기술원(기술센터)	46	35.4	84	64.6	130	100.0
직업훈련기관(한국 폴리텍, 학원, 대학교부설교육원 등)	5	3.8	125	96.2	130	100.0
문화시설(문화원, 도서관(작은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의 집 등)	33	25.4	97	74.6	130	100.0
지역사회 교육기관(복지관, 다문화센터, 평생교육진흥원 등)	24	18.5	106	81.5	130	100.0
중간지원조직(농어촌체험휴양마을, 마을기업,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27	20.8	103	79.2	130	100.0



[그림 IV-6] 주민교육 주관 단체별 실시 교육 참여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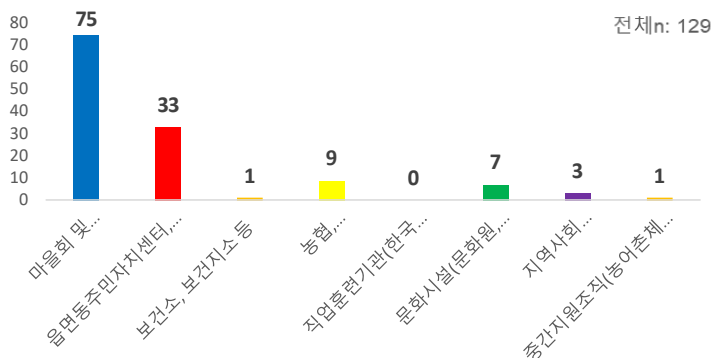
□ 가장 오래 이용한 주민교육 주관단체와 그 이유

- 주민교육 주관 단체별 가장 오래 이용한 단체와 그 이유에 대하여 살펴봄
- 마을회 및 자생단체(부녀회, 새마을회, 농민회 등)의 교육에 오래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는 전체의 57.7%로 가장 높음. 다음으로 읍면동주민자치센터 교육을 오래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5.4%를 차지함
- 오래 이용한 이유는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많아서가 66.2%, 집과 가깝거나 교통이 편해서가 28.5%로 나타남

〈표 IV-11〉 가장 오래 이용한 주민교육 주관단체의 교육

(단위 : 명, %)

기관	구분	
	명	%
마을회 및 자생단체(부녀회, 새마을회, 농민회 등)	75	57.7
읍면동주민자치센터, 행정시, 인재개발원 등	33	25.4
보건소, 보건지소 등	1	0.8
농협, 농업기술원(기술센터)	9	6.8
직업훈련기관(한국 폴리텍, 학원, 대학교부설교육원 등)	0	0
문화시설(문화원, 도서관(작은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의 집 등)	7	5.4
지역사회 교육기관(복지관, 다문화센터, 평생교육진흥원 등)	3	2.3
중간지원조직(농어촌체험휴양마을, 마을기업,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1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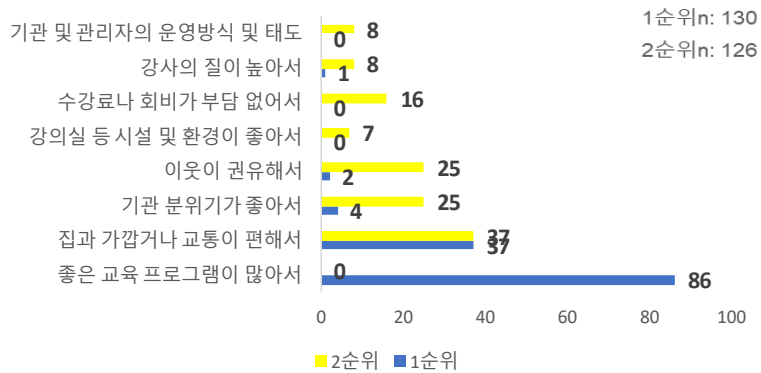


[그림 IV-7] 가장 오래 다닌 주민교육 주관단체의 교육

〈표 IV-12〉 가장 오래 다닌 이유

(단위 : 명, %)

기관	1순위		2순위	
	명	%	명	%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많아서	86	66.2	0	0
집과 가깝거나 교통이 편해서	37	28.5	37	28.9
기관 분위기가 좋아서	4	3.1	25	19.5
이웃이 권유해서	2	1.5	25	19.5
강의실 등 시설 및 환경이 좋아서	0	0	7	5.5
수강료나 회비가 부담 없어서	0	0	16	12.5
강사의 질이 높아서	1	0.8	8	6.3
기관 및 관리자의 운영방식 및 태도	0	0	8	6.3



[그림 IV-8] 가장 오래 다닌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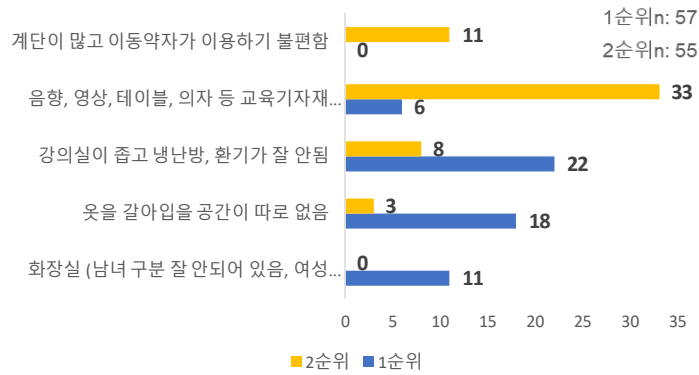
□ 주민교육 기관 시설 이용 시 불편한 점

- 주민교육 기관 시설 이용 시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인지 복수응답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봄
- 그 결과 1순위 에서는 강의실이 좁고 냉난방, 환기가 잘 안됨이 37.9%로 가장 높음. 옷을 갈아입을 공간이 따로 없음이 31.0%를 차지함
- 2순위에서는 음향, 영상, 테이블, 의자 등 교육기자재 낙후가 57.9%로 가장 높음. 또 계단이 많고 이동약자가 이용하기 불편함이 19.3%로 나타남

〈표 IV-13〉 가장 불편한 점

(단위 : 명, %)

기관	1순위		2순위	
	명	%	명	%
화장실 (남녀 구분 잘 안되어 있음, 여성 화장실 부족, 불결함 등)	11	19.0	0	0
옷을 갈아입을 공간이 따로 없음	18	31.0	3	5.3
강의실이 좁고 냉난방, 환기가 잘 안됨	22	37.9	8	14.0
음향, 영상, 테이블, 의자 등 교육기자재 낙후	6	10.3	33	57.9
계단이 많고 이동약자가 이용하기 불편함	0	0	11	19.3



[그림 IV-9] 가장 불편한 점

□ 주민교육 참여시 성차별과 성희롱 경험 여부

○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주민교육을 받을 때 성차별과 성희롱 경험이 있는 지를 살펴봄. 대상자중 129명은 성차별, 성희롱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14〉 성차별, 성희롱 경험 유무

(단위 : 명, %)

경험 여부	구분	
	명	%
경험 있다	0	0
경험 없다	12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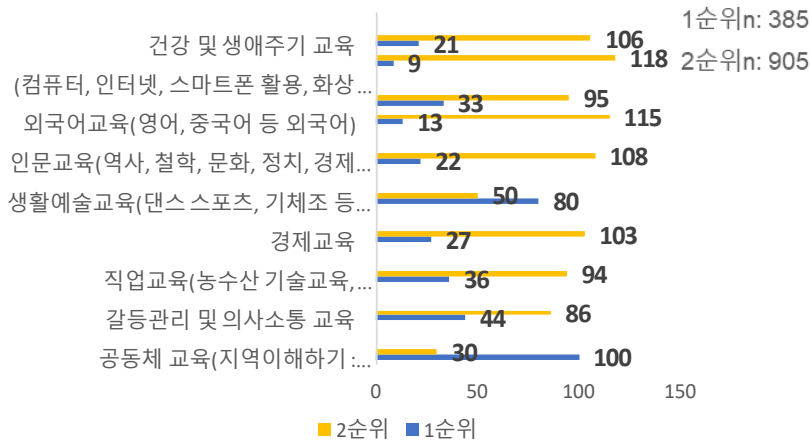
□ 주민교육 참여 교육 분야

- 여러 기관에서 주관하는 주민 교육을 대상으로 조사 대상자들에게 참여 경험 여부를 살펴본 결과 공동체 교육(지역이해하기 : 마을만들기, 도시재생, 마을 발전 정책 등)이 전체 130명 중 100명인 76.9%가 참여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생활예술교육(댄스 스포츠, 기체조 등 생활 스포츠, 그림, 노래, 서예 등 문화 예술 교육)에 61.5%가 참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갈등관리 및 의사소통 교육 (대화법, 갈등관리, 회의 진행 등) 은 33.8%가 참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15〉 주민교육 참여 교육 분야

(단위 : 명, %)

	경험 있다		경험없다		전체	
	명	%	명	%	명	%
공동체 교육(지역이해하기 : 마을만들기, 도시재생, 마을발전정책 등)	100	76.9	30	23.1	130	100.0
갈등관리 및 의사소통 교육 (대화법, 갈등관리, 회의 진행 등)	44	33.8	86	66.2	130	100.0
직업교육(농수산 기술교육, 취업제취업교육, 창업교육, 자격증 교육 등)	36	27.7	94	72.3	130	100.0
경제교육 (세무/회계, 마을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 설립 등)	27	20.8	103	79.2	130	100.0
생활예술교육(댄스 스포츠, 기체조 등 생활 스포츠, 그림, 노래, 서예 등 문화예술 교육)	80	61.5	50	38.5	130	100.0
인문교육(역사, 철학, 문화, 정치, 경제 전반의 인문환경, 교양, 시사 교육)	22	16.9	108	83.1	130	100.0
외국어교육(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	13	10.2	115	89.8	128	100.0
정보화교육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활용, 화상 회의 등)	33	25.8	95	74.2	128	100.0
문해교육(한글읽기, 계산하기 등)	9	7.1	118	92.9	127	100.0
건강 및 생애주기 교육 (건강 식이요법, 생애주기, 신체심리, 사회적 특징)	21	16.5	106	83.5	127	100.0



[그림 IV-10] 주민교육 참여 교육 분야

□ 주민교육 참여 교육분야별 도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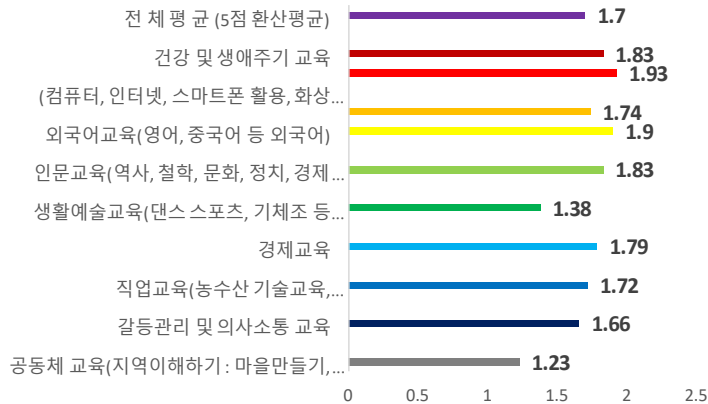
- 여러 기관에서 주관하는 주민교육 중 참여한 교육분야별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를 5점 척도로 살펴봄. 그 결과 전체 평균은 1.70으로 매우 낮은 만족도를 보임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문해교육(한글읽기, 계산하기 등)이 평균 1.93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외국어 교육(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이 평균 1.90으로 나타남
- 공동체교육(지역이해하기 : 마을만들기, 도시재생, 마을 발전 정책등)에 관한 교육이 평균 1.23으로 가장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표 IV-16> 참여 교육 분야별 도움정도

(단위 : 평균, 표준편차)

내용	구분	
	M	SD
공동체 교육(지역이해하기 : 마을만들기, 도시재생, 마을발전정책 등)	1.23	0.42
갈등관리 및 의사소통 교육(대화법, 갈등관리, 회의 진행 등)	1.66	0.47
직업교육(농수산 기술교육, (재)취업교육, 창업교육, 자격증 교육 등)	1.72	0.44
경제교육(세무/회계, 마을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 설립 등)	1.79	0.40
생활예술교육(댄스 스포츠, 기체조 등 생활 스포츠, 그림, 노래, 서예 등 문화예술 교육)	1.38	0.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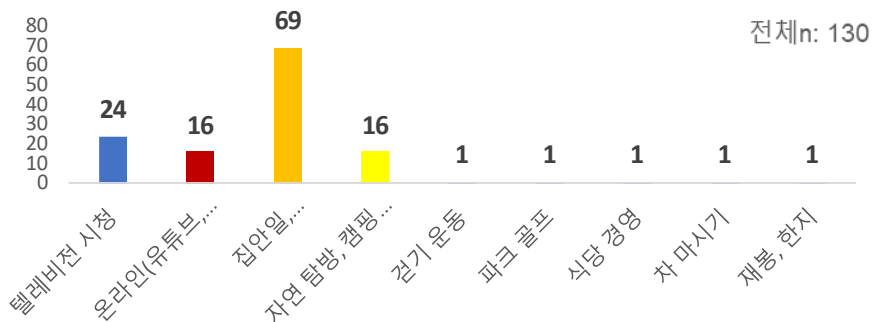
인문교육(역사, 철학, 문화, 정치, 경제 전반의 인문환경, 교양, 시사 교육)	1.83	0.37
외국어교육(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	1.90	0.30
정보화교육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활용, 화상 회의 등)	1.74	0.43
문해교육(한글읽기, 계산하기 등)	1.93	0.25
건강 및 생애주기 교육(건강 식이요법, 생애주기 신체심리, 사회적 특징)	1.83	0.37
전 체 평 균 (5점 환산평균)	1.70	0.39



[그림 IV-11] 참여 교육 분야별 도움정도

□ 코로나19로 인해 생긴 환경변화에서 일(직업) 외에 시간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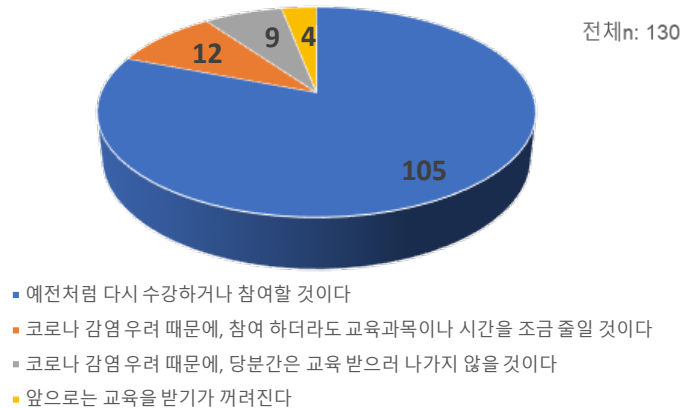
○ 조사대상자들에게 코로나로 인해 생긴 환경변화에서 일(직업)하지 않는 시간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봄. 그 결과 대상자의 53.1%가 집안일, 소일거리, 실내운동 등 실내활동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12] 일(직업) 외에 시간 활용

□ 코로나19 종료 후 주민교육 프로그램 제공시 참여 여부

- 조사대상자들에게 코로나 19 종료 후 주민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참여할 것인가를 조사하였음. 그 결과 예전처럼 다시 수강하거나 참여할 것이다가 전체의 80.8%로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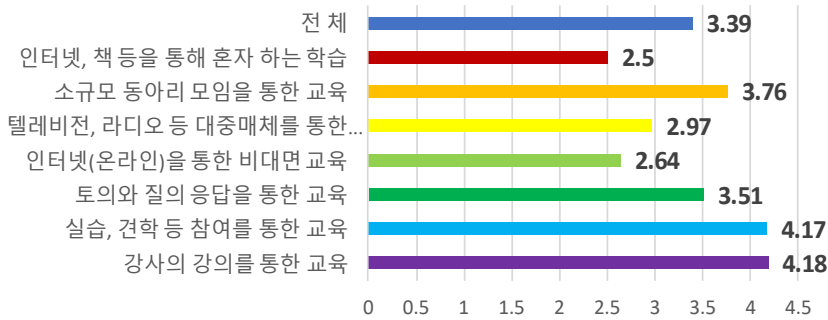
[그림 IV-13] 코로나19 종료 후 주민교육 프로그램 제공시 참여 여부

다. 주민교육 수요

- 주민교육 수요에 대해 300명에게 교육방법과 필요 교육내용, 주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및 방안 등에 대해 조사하였음

□ 주민교육에 적합한 방법

- 주민 교육에 적합한 방법을 5점 척도로 조사하였음. 그 결과 주민 교육 방법으로 제시한 교육 방법에 대해 전체 평가는 평균 3.39점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강사의 강의를 통한 교육이 평균 4.18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실습, 견학 등 참여를 통한 교육에 대한 적합성이 평균 4.17로 나타남



[그림 IV-14] 코로나19 종료 후 주민교육 적합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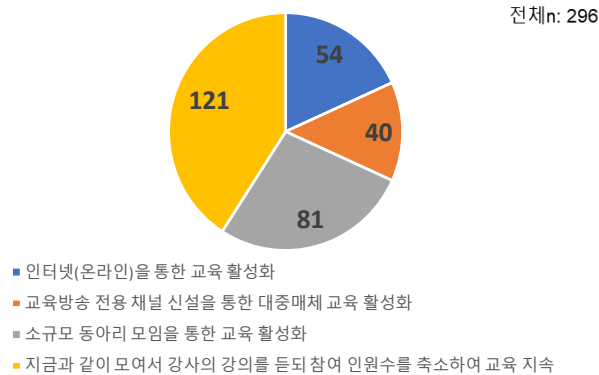
□ 코로나19로 인해 교육방법을 바꿀시 주민교육 운영 방법

- 코로나19로 인해 지금까지 교육방식이 힘들어진다면, 선호하는 주민교육 운영 방법에 대한 조사에서는 지금과 같이 모여서 강사의 강의를 듣되 참여 인원수를 축소하여 교육을 지속 했으면 하는 의견이 전체의 40.6%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V-17〉 향후 주민교육 운영방법에 대한 대안 선택

(단위 : 명, %)

주민 교육 운영 방안	구분	
	명	%
인터넷(온라인)을 통한 교육 활성화	54	18.1
교육방송 전용 채널 신설을 통한 대중매체 교육 활성화	40	13.4
소규모 동아리 모임을 통한 교육 활성화	81	27.2
지금과 같이 모여서 강사의 강의를 듣되 참여 인원수를 축소하여 교육 지속	121	40.6



[그림 IV-15] 향후 주민교육 운영방법에 대한 대안 선택

□ 주민교육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필요성 평가

- 응답자를 대상으로 시민성 강화 중심의 주민교육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필요성 정도를 평가 하였고, 그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필요성은 평균 2.27점으로 3점 - 보통이다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을 나타냄
- 세부항목으로 살펴보면 양성평등교육이 평균 2.5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문화 이해교육이 평균 2.45, 인권 교육이 평균 2.29, 생활기술교육이 평균 2.20 순으로 나타남

〈표 IV-18〉 주민 교육 프로그램 내용 필요성 평가

(단위 : 평균, 표준편차)

주민 교육 프로그램 필요성	구분	
	M	SD
생활기술 교육 (요리 강습, 목공, 공예 등)	2.20	0.97
양성평등 교육 (가사노동 분담, 성별 고정관점 및 편견 등)	2.52	1.12
인권교육 (성희롱, 성폭력, 가족폭력, 아동학대 예방 등)	2.29	1.12
자원봉사 교육 (자원봉사 방법 및 실천 등)	2.15	0.88
다문화 이해 교육 (좋은 죽음에 대한 이해, 자서전 쓰기 등)	2.45	0.98
제주역사, 마을역사 문화 등 인문 교육 (제주 신화, 해녀, 제주어, 마을 향토지 등)	2.01	0.91
전 체	2.27	0.99



[그림 IV-16] 주민 교육 프로그램 내용 필요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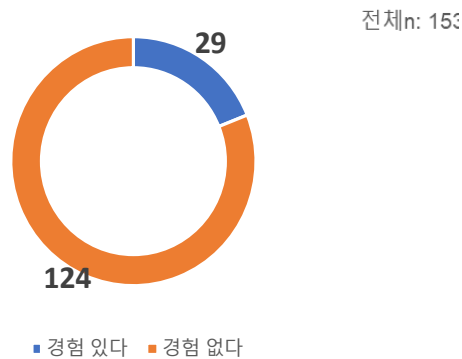
- 학교교육 자원봉사 참여 및 아동·청소년, 청년 등 다른 세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의 필요성
- 응답자를 대상으로 학교 교육 자원봉사 참여 및 아동·청소년, 청년 등 다른 세대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한 문항으로 측정하였음. 그 결과 평균 3.18 로 3점-보통이다 수준으로 나타남

〈표 IV-19〉 학교교육 자원봉사 참여 및 아동·청소년, 청년 등
다른 세대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 의 필요성

(단위 : 평균, 표준편차)

내용	평균
학교교육 자원봉사 참여 및 아동 /청소년, 청년 등 다른 세대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 의 필요성	3.18

- 여성의 자립과 역량향상을 위한 교육 참여경험 여부와 필요성 정도
- 여성 자립과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참여 경험여부와 그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봄
- 여성의 자립과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참여 경험은 참여 경험이 없다가 전체의 81.0%를 차지함
- 여성자립과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에 필요한 교육을 복수 응답으로 살펴본 결과, 1순위에서는 여성리더쉽 교육이 52.3%로 가장 높게 나옴. 미래 사회 변화 과정 25.2%, 제주 여성 정체성교육이 15.2% 순으로 나타남
- 2순위에서는 금융 경제 관련교육이 43.3%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스포츠 교육 22.0%, 미래사회 변화과정 21.3%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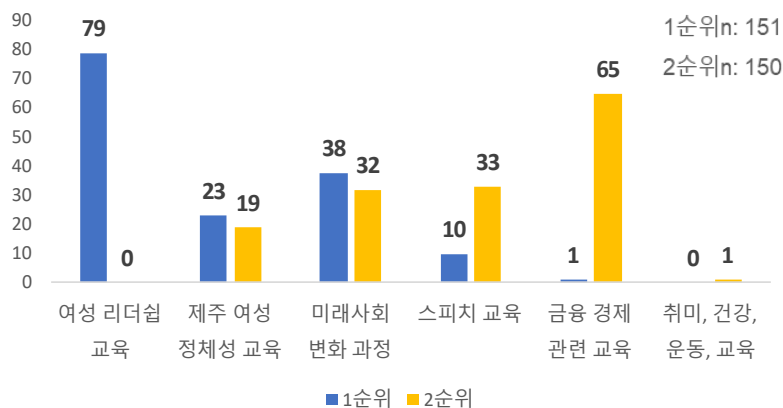


[그림 IV-17] 여성의 자립과 역량향상을 위한 교육 참여 경험 여부

〈표 IV-21〉 여성 자립과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

(단위 : 명, %)

내용	1순위		2순위	
	명	%	명	%
여성 리더쉽 교육	79	52.3	0	0
제주 여성 정체성 교육	23	15.2	19	12.7
미래사회 변화 과정	38	25.2	32	21.3
스피치 교육	10	6.6	33	22.0
금융 경제 관련 교육	1	0.7	65	43.3
취미, 건강, 운동, 교육	0	0	1	0.7
전 체	151	100.0	15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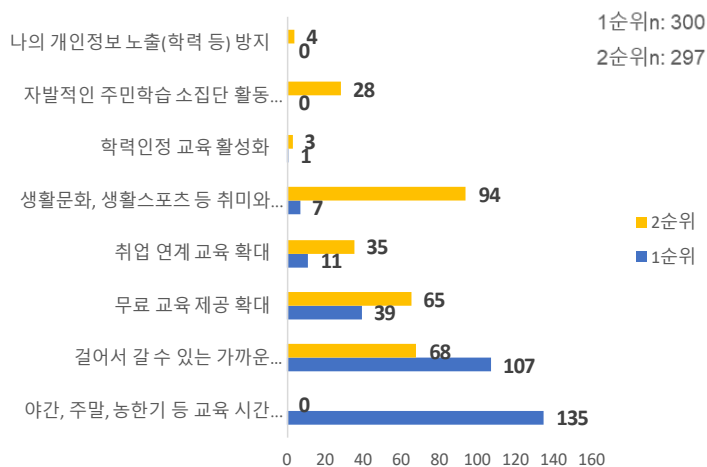
[그림 IV-18] 여성 자립과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

- 주민의 교육 참여를 높이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
- 주민의 교육 참여를 높이기 위해 개선할 점을 복수응답으로 살펴본 결과, 야간, 주말, 농한기 등 교육 시간의 다양화가 45.0%로 가장 높게 나타남. 2순위에서는 생활문화, 생활스포츠 등 취미와 여가 활동 증진 교육이 전체의 31.3%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V-21〉 주민의 교육 참여를 높이기 위해 개선할 점

(단위 : 명, %)

내용	1순위		2순위	
	명	%	명	%
야간, 주말, 농한기 등 교육 시간 다양화	135	45.0	0	0
걸어서 갈 수 있는 가까운 (마을문화센터, 주민센터, 공방,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교육 실시	107	35.7	68	22.7
무료 교육 제공 확대	39	13.0	65	21.7
취업 연계 교육 확대	11	3.7	35	11.7
생활문화, 생활스포츠 등 취미와 여가 활동 증진 교육	7	2.3	94	31.3
학력인정 교육 활성화	1	0.3	3	1.0
자발적인 주민학습 소집단 활동 지원	0	0	28	9.3
나의 개인정보 노출(학력 등) 방지	0	0	4	1.3



[그림 IV-19] 주민의 교육참여를 높이기 위해 개선할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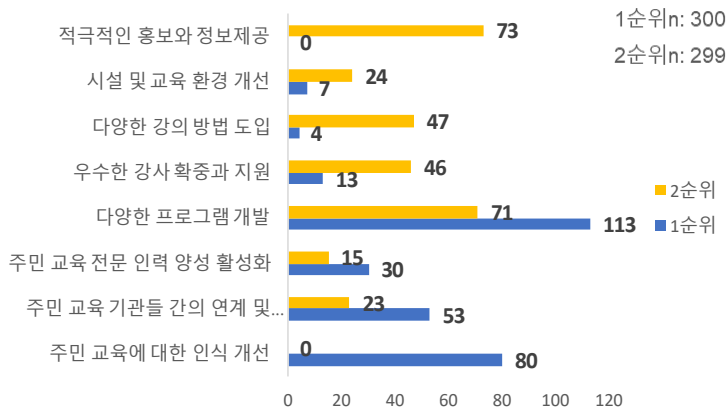
□ 제주지역 주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제주지역 주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복수응답으로 알아봄. 그 결과 제1순위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37.7%로 가장 높게 나타남. 2순위에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정보제공이 23.4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V-22〉 제주지역 주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단위 : 명, %)

내용	1순위		2순위	
	명	%	명	%
주민 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	80	26.7	0	0
주민 교육 기관들 간의 연계 및 협력 강화	53	17.7	23	7.7
주민 교육 전문 인력 양성 활성화	30	10.0	15	5.0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113	37.7	71	23.7
우수한 강사 확충과 지원	13	4.3	46	15.3
다양한 강의 방법 도입	4	1.3	47	15.7
시설 및 교육 환경 개선	7	2.3	24	8.0
적극적인 홍보와 정보제공	0	0	73	23.4



[그림 IV-20] 제주지역 주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라. 응답자 일반적 특성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 응답자 일반적 특성과 주민교육에 관한 특성 간의 분포 차이 분석
- 마을 단위 주민 총 300명을 대상으로 교육 방법과 필요한 교육내용, 주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및 방안 등 주민의 학습요구에 대해 조사하였음
 -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중 거주지역, 연령, 직업, 친구/친척과의 교류 정도, 자원봉사 및 공동체 활동 참여 경험 등 5개의 특성과 주민대상 교육에 관한 일반적인 특성 중 주민교육 참여 경험 여부, 향후 참여 의향, 참여 경로, 가장 오래 다닌 기관 유형, 코로나19로 인한 교육방법, 여성역량 교육 불참 이유, 주민교육 불참 이유, 주민교육 도움 정도, 코로나 이후 교육 방법, 주민교육 도움 사항, 주민참여 개선점, 제주지역 주민교육 활성화 필요사항, 기관 단체의 참여 유무 등과의 분포의 차이를 검증함.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결과만 요약하여 제시하였음(<표 IV-23> 참조)
 - 통계프로그램은 sps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신뢰구간 $p < .05$ 수준에서 측정함

<표 IV-23> 응답자 일반적 특성과 주민교육에 관한 특성 간 분포 차이 분석 결과 요약

주민교육 특성	응답자 일반적 특성	분포 차이 분석 결과
주민교육 참여 여부	거주지역	서귀포 지역은 주민교육 참여 경험이 있는 사람이 많고, 제주시 지역은 참여 경험이 없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연령	50세~59세에서 주민교육 참여 경험이 없는 대상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직업	농어업 또는 임업의 직업을 가지고 주민교육 참여 경험이 있는 집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친구/친척과 교류 정도	친구, 친척, 이웃과의 교류를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집단이 주민교육 참여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향후 교육 참여 의향	연령	40세~49세에서 주민교육 참여 의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직업	농어업 또는 임업의 직업을 가진 집단이 주민교육 참여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최종 학력	고졸 학력에서 주민교육 참여 의사가 없음이, 대졸 학력에서 주민교육 참여 의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참여기간	직장여부	현재 직장이 있고 ‘3년 이상~4년 미만’의 참여 기간을 가진 집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연령	50세 ~59세, 60세~69세, 70세 이상은 모두 ‘3년 이상~4년 미만’의 참여 기간을 가진 집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가족형태	배우자와 살고 있으며 참여 기간이 ‘3년 이상~4년 미만’인 집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경제상태	경제 상태가 보통인 경우 참여기간이 ‘3년 이상~4년 미만’인 응답자 집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참여경로	연령	70세 이상은 ‘이웃과 마을의 권유’로 교육에 참여하고 있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가족형태	배우자와 살고 있는 경우 ‘이웃과 마을의 권유로’ 교육에 참여하고 있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가장 오래 다닌 기관 유형	최종학력	대졸 이상, 직업이 농어업 또는 임업, 직장이 있는 집단이 ‘마을회 및 자생단체(부녀회, 새마을회, 농민회 등)’에서 가장 많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직업	
	직장여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방법	연령	50세~59세, 직업이 농어업 또는 임업, 직장이 있는 집단은 지금과 같이 모여서 강사의 강의를 듣되 참여 인원수를 축소하여 교육을 지속하는 방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직업	
	직장여부	
여성 역량교육 불참 이유	연령	50세~59세에서 ‘참여할만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가 교육 불참의 이유로 가장 많이 나타남
주민교육 불참 이유	성별	남성은 ‘직장이나 직업으로 인해 시간이 없어서’ 불참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직장여부	직장이 있는 사람도 ‘직장이나 직업으로 인해 시간이 없어서’ 불참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주민교육 도움 정도	학력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고, 직장이 있는 고졸 집단은 교육을 통해 공동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이롭다고 여긴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직장여부	
	가족형태	
주민참여 개선점	성별	남성, 직장이 있는 집단은 야간, 주말, 농한기 등 교육 기간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나타남
	직장여부	
주민교육 활성화 필요사항	연령	50세~59세와 부모와 자녀와 살고 있는 가족형태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가장 필요사항’이라고 가장 많이 나타남
	가족형태	

3. 요약 및 시사점

-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 중, 제주지역 행정구역을 근거로 제주시 동 지역 19개, 읍·면 지역 7개(마을 수 96개), 서귀포시 동 지역 12개, 읍·면지역 5개(마을 수 76개)를 고려하여 비례할당으로 표집한 300명을 대상으로 마을단위 주민교육 참여 및 미참여 이유, 만족도, 분야별 교육 참여 경험과 도움 정도, 주민교육 수요와 개선 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주민의 교육 참여에 대한 일반적 특성과 시사점

- 주민교육의 참여 경험에 대해 전체의 56.7%인 170명은 참여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 주민 교육에 대한 참여의사에 대해서도 역시 응답자 중 56.5%가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민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됨
- 주민대상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은 참여기간이 3년 이상~4년 미만이 전체의 41.1%로 가장 많았으며, 프로그램 참여 횟수도 20회 이상이 25.7%로 그중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어 주민교육 참여자와 미참여자 간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주민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주 이유는 직장이나 직업으로 인해 시간이 없어서와 시간이 맞지 않는다는 것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주민교육에 참여한다면,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교육을 통해 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가 1순위로 응답하였고,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도 2순위에서 우선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민교육의 방향성과 교육 내용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주민교육 참여 경험과 만족도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주민교육 참여 경험에 대한 중복 응답 결과는 공동체 교육(지역이해하기: 마을 만들기, 도시재생, 마을발전정책 등)이 28.5%로 가장 많음. 그 다음으로 생활예술교육(댄스 스포츠, 기체조 등 생활 스포츠, 그림, 노래, 서예 등 문화예술 교육)가 25.6%로 2번째로 많은 비중 차지함. 정보화교육(컴퓨터, 인터넷,

- 스마트폰 활용, 화상 회의 등 교육)이 8.7% 로 세 번째로 많은 비중 차지함
- 참여한 주민 교육이 주는 도움에는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얻기, 교육을 통해 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기,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기가 1순위로 응답함. 이 외에도 2순위에서 주민들과 어울리는 기회를 가지기,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얻기, 여가 시간을 잘 활용하기 등도 나타나고 있어 다양한 주민의 요구를 확인할 수 있음
 - 참여한 주민교육이 실시된 장소로는 마을회관(복지회관, 경로당/노인회관, 마을 문화센터, 마을문고 등)이 47.9%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26.5%, '농수산 관련기관' 7.3%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민교육 참여 경로로 '이웃 , 마을회 권유'가 전체의 50%로 가장 많았고, 시·읍·면 주민자치센터(관공서)가 26.9%, 중간지원조직(마을만들기, 도시재생, 마을기업, 체험휴양마을 등) 홍보물이 12.3% 순으로 나타남
 - 주민교육 주관 단체별 실시 교육 참여는 마을회 및 자생단체(부녀회, 새마을회, 농민회 등)의 교육 참여가 전체의 80.8%로 가장 높음. 다음은 읍면동주민자치센터 교육 참여 전체의 56.2%, 농협, 농업기술원(기술센터)은 35.4%, 문화시설(문화원, 도서관(작은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의 집 등)은 25.4% 순으로 나타남
 - 가장 오래 이용한 주민교육 주관 단체와 이유에 있어서는 역시 마을회 및 자생단체(부녀회, 새마을회, 농민회 등)의 교육이 57.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읍면동주민자치센터 교육을 오래 다닌 것으로 나타났는데 25.4%를 차지함. 그리고 그 이유는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많아서가 66.2%, 집과 가깝거나 교통이 편해서가 28.5%로 나타남. 이는 마을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교육이 다수 진행되고 있으며, 집과 가까운 곳에서 주민교육이 제공되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음
 - 주민교육 기관 시설 이용 시 불편사항으로 강의실이 좁고 냉난방, 환기가 잘 안됨이 37.9%로 가장 높음. 옷을 갈아입을 공간이 따로 없음이 31.0%를 차지함. 2순위에서는 음향, 영상, 테이블, 의자 등 교육기자재 낙후가 57.9%로 가장 높음. 또 계단이 많고 이동약자가 이용하기 불편함이 19.3%로 나타나고

있어 노후 교육시설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며, 제대로 교육환경을 갖출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

- 여러 기관이 주관하는 주민교육 중 교육분야별 도움정도를 5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전체 평균이 1.70으로 매우 낮은 만족도를 보임. 그 중에 문해교육(한글읽기, 계산하기 등)이 평균 1.93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그 뒤를 외국어 교육(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이 평균 1.90으로 뒤따랐는데, 공동체교육(지역이해하기 : 마을만들기, 도시재생, 마을 발전 정책등)에 관한 교육이 평균 1.23으로 가장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코로나로 인해 생긴 환경변화에서 일(직업)하지 않는 시간대의 활용은 주로 집안일, 소일거리, 실내운동 등 대상자의 53.1%가 실내활동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 코로나19 종료 후 주민교육 프로그램 제공시에는 예전처럼 다시 수강하거나 참여할 것이다가 전체의 80.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주민교육의 지속 제공이 요구되고 있음을 확인함

□ 주민교육 방법 및 교육내용 등 수요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주민교육에 적합한 방법을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주민 교육 방법으로 강사의 강의를 통한 교육이 평균 4.18로 가장 높았고, 실습, 견학 등 참여를 통한 교육에 대한 적합성이 평균 4.17로 그 뒤를 이음. 코로나19로 인해 지금까지 교육방식이 힘들어진다면, 선호하는 주민교육 운영 방법에 대한 조사에서는 지금과 같이 모여서 강사의 강의를 듣되 참여 인원수를 축소하여 교육을 지속 했으면 하는 의견이 전체의 40.6%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를 통해 기존 강의식 교육방법을 더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실습과 견학 등 참여 방식도 선호하고 있어 주민 참여 중심의 교육방법의 개발을 적극 고려해볼 수 있음
- 시민성 강화 중심의 주민교육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필요성 정도에 대해서 전체적인 필요성은 평균 2.27점으로 3점 - 보통이다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을 나타냄. 그 세부항목 중 양성평등교육이 평균 2.5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문화 이해교육이 평균 2.45, 인권 교육이 평균 2.29, 생활기

술교육이 평균 2.20 순으로 나타남. 또 학교 교육 자원봉사 참여 및 아동·청소년, 청년 등 다른 세대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한 문항으로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 평균 3.18 로 3점-보통이다 수준으로 나타남

- 여성 자립과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참여 경험이 없다는 전체의 81.0%를 차지하였고, 여성자립과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으로 1순위에서는 여성리더쉽 교육이 52.3%로 가장 높게 나옴, 미래 사회 변화 과정 25.2%, 제주 여성 정체성교육이 15.2% 순으로 나타남. 2순위에서는 금융 경제 관련교육이 43.3%, 다음으로 스피치 교육 22.0%, 미래사회 변화과정 21.3% 순으로 나타남
- 주민의 교육참여를 높이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야간, 주말, 농한기 등 교육 시간의 다양화가 45.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순위에서는 생활문화, 생활스포츠 등 취미와 여가 활동 증진 교육이 전체의 31.3%로 가장 높게 나타남. 제주지역 주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1순위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37.7%로 가장 높았고, 2순위에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정보제공이 23.4로 높게 나타남.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교육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의 개발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기를 부여하는 정책 수립과 지원이 요구됨

□ 주민교육 특성에 따른 조사 결과의 시사점

- 주민교육 참여 경험은 서귀포 지역이 참여경험이 있는 사람이 많고, 제주시 지역은 참여 경험이 없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50세~59세에서 주민교육 교육 참여 경험이 없는 대상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농어업, 임업의 직업군이 주민교육 참여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또 친구, 친척, 이웃과의 교류를 일주일에 한번 하는 집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마을대상 주민교육 참여 의사에 대해서는 40세~49세가 가장 높고, 역시 농어업, 임업의 직업을 가지고 주민교육 참여 경험이 있는 집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한편 고졸학력은 주민교육 참여 의향이 없는 집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졸학력은 주민교육 참여 의향이 있는 집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주민교육 참여 기간에 대해서는 현재 직장이 있고 3년 이상 ~ 4년 미만의 참여기간을 가진 집단이 가장 많았으며, 50세 ~59세, 60세~69세, 70세 이상은 모두 3년 이상 ~ 4년 미만의 참여기간을 가진 집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또 배우자와 살고 있으며 참여기간 3년 이상 ~ 4년 미만인 집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경제상태가 보통인 경우에 참여기간 3년 이상 ~ 4년 미만인 응답자 집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주민교육 참여 경로에 대해서는 70세 이상은 이웃과 마을의 권유 경로로 인한 집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배우자와 살고 있는 이웃과 마을의 권유 경로 집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가장 오래 이용한 주민교육 기관 유형에 대해서는 대졸이상, 직업이 농어업,임업, 직장이 있는 집단은 마을회 및 자생단체(부녀회, 새마을회, 농민회 등)에서 가장 많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 이후 교육방법에 대해서는 50세~59세, 직업이 농어업,임업), 직장이 있는 집단은 지금과 같이 모여서 강사의 강의를 듣되 참여 인원수를 축소하여 교육을 지속하는 방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여성역량 교육 불참 이유에 대해 50세~59세가 참여할만한 프로그램이 부족한 이유의 집단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함
- 주민교육 불참 이유에 대해 남성은 직장이나 직업으로 인해 시간이 없어서 불참하는 집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직장이 있는 사람도 직장이나 직업으로 인해 시간이 없어서 불참하는 집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주민교육의 도움 사항에 대해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이, 직장이 있고, 고졸 집단은 교육을 통해 공동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이롭다고 여기는 집단의 분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주민교육 참여를 높이기 위한 개선사항에 대해 남성이고, 직장이 있는 집단은 야간, 주말, 농한기 등 교육기간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집단의 분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더불어 제주지역 주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50세~59세)와 부모와 자녀와 살고 있는 가족형태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가장 필요사항이라는 집단의 분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V.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교육 지원 활성화 방안 모색

1. FGI 조사 개요
2. FGI 결과
3. 요약 및 시사점

V.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교육 지원 활성화 방안 모색

1. FGI 조사 개요

가. FGI 대상 및 기간

-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교육 지원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관련 정책 및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 초점 집단 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을 실시함
- 조사 대상자는 본 연구주제에 대한 전문성이 인정되는 인력풀로 구성하였으며, 조사 대상의 특성 및 수집의견 영역에 따라서 주민교육 관련 마을 단위 및 지역 단위 지원 기관, 마을 및 지역 단위를 아우르며 문화예술, 마을만들기 등 다양한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집단으로 구분하였음
- 제주지역 마을단위 지원 사업 관계자, 지역단위 지원사업 관계자, 마을 교육 관련 분야별 전문가 등 3개 집단, 10명임
- 마을 단위 주민교육은 지원정책에 따라 그리고 관계 기관에 따라 지원 및 운영을 달리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마을 단위 지원 관련 그룹 1과 지역 단위 지원 관련 그룹 2 대상의 FGI는 교육을 지원하는 기관의 현장 실무자 관점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그룹 3은 제주지역 사회적 환경 변화, 주민 인식 변화를 포함하는 주민교육 관련 그간의 변화와 주민교육 현주소를 짚어보고 주민교육 활성화 차원의 통합적 의견을 듣기 위해 구분하였음
- 조사 대상의 특성 및 수집의견 영역에 따라서 <표 V-1>과 같이 구분하여 2020년 7월 7일에서 7월 8일 사이에 진행함

〈표 V-1〉 관계자 심층 면담 대상 및 일정

구분		대상 특성	일정
1그룹	마을단위 지원 사업 관계자	1. 전국체험휴양마을협의회 대표	7.7.(화) 10:00
		2. 균형발전사업 관련 기관 대표	
		3. 주민교육 관련 행정 실무자	
2그룹	지역단위 지원사업 관계자	4. 사회적경제사업 관련 기관 실무자	7.7.(화) 13:30
		5. 마을만들기사업 관련 기관 실무자	
		6. 도시재생사업 관련 실무자	
3그룹	분야별 전문가	7. 문화예술 분야 교육지원 관계자	7.8.(수) 10:00
		8. 마을단위 교육 지원 관계자	
		9. 마을회 대표	
		10. 마을정책 지원 관계자	

나. FGI 방법 및 내용

□ 면접 방법

- 면접 방법은 마을단위 주민교육 지원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3개의 대상별 특성에 따른 사전 질문지를 마련하고, 초점집단면접조사 전에 어떠한 연구인지, 구체적인 질문사항은 무엇인지를 구두 및 이메일로 고지하였음. 또한 FGI 사전에 준비한 질문지를 제시하여 면담 참여 대상자들이 연구 과제 전반에 대한 상황 파악을 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분석하여 자료화함
- 본 연구의 목적이 마을 단위 주민교육 지원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교육 현장의 변화와 현안 과제 탐색을 통해 주민교육 지원체제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토론(Open Discussion)이 활용됨. 공개토론은 논의 방법이나 프로세스를 구조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참여자들 간에 스스럼없는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이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법(Kaner et al., 2017)으로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적합한 방법임
- 해당 FGI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마을 단위 주민교육 지원 현황과 문제점

을 파악하고자 반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지를 사용하여 진행하였음

□ 주요 면접 내용

- 주요한 면접 질문은 각 기관에서 실시하거나 전문가 본인이 직접 수행하는 마을 단위 또는 지역 단위 주민교육 현황, 교육 프로그램 계획 시 주민 의견 반영 정도, 마을 및 지역 단위 주민교육에 대한 요구와 수요 변화, 수요자 맞춤형(기초 또는 심화, 워크숍, 세미나, 원포인트 강의 등) 교육 도입 여부, 주민교육 프로그램 대상과 영역에 대한 구분과 차이, 주민교육 운영지원 정책 현황 및 실태, 향후 추진이 필요한 프로그램, 교육 및 역량개발 프로그램 실천 방안, 현안 과제, 주민교육의 효율적 운영과 정책적 지원에 대한 의견 등임
- 심층 면담 조사 결과 수집된 질적 자료를 내용분석 방법에 따라 분석함. 즉 수집된 의견을 정리하여 제주지역 마을 단위 주민교육 지원 및 활성화 관련 주요 사항들에 대해 코딩(coding) 작업을 실시하였고, 코딩된 내용을 면담 내용에 따라 상위 범주화한 후 이를 다시 하위 범주로 구분함. 이를 정리하면 <표 V-2>와 같음

<표 V-2> 심층 면담 조사 내용

구 분	조사내용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교육의 특성과 참여 현황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주민교육의 의미 ·제주지역 인구구조 특성과 변화에 의한 교육 운영 현황 ·고령사회 진입과 마을의 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 현황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와 장애요인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교육 교육지원 현황 및 실태, 현안과제	·지원기관에서의 교육 지원 현황 및 과제 ·지원기관에서의 교육 프로그램 특성 및 교육 여건 ·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와 과제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 교육 지원의 효과성 제고와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마을단위 주민교육 지원 정책의 기본 특성 ·마을단위 주민교육 지원 정책추진의 장애요인 ·마을단위 주민교육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 방향 ·마을단위 주민교육 지원 정책의 성과와 발전 과제

2. FGI 조사 결과

가. 제주지역 마을 단위 주민교육의 변화와 지원정책 여건

□ 사회 환경 변화, 제주지역 특수성 등 여건 고려

- 마을 내 선주민과 정착 주민 인구 구성비 격차(마을에 따라서 3:7 또는 2:8이 되고 있음)에 기반한 소통 어려움 해결 : 교육 프로그램 참여 정도는 선주민이 소극적인 반면 정착 주민은 적극적이므로 정착 주민이 프로그램 참여도가 높은 편임. 상호 이해와 삶의 동화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였음(전문가7).

“8:2, 7:3 정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애들이 어머니 아버지 고향이 ㅇㅇ인 애들이 20~30%밖에 안 된단 얘기죠. 이미 역전되어 버렸어요. 지역 분들이 느끼는 건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지역에서는 뭔가 인원을 구성해야 되는데 프로그램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끝까지 참여하는 분들이 마을 주민이긴 한데 이주민이 많다 이거죠. 거기서 오는 이질감이 또 있어요. 실제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거에 약간 소극적이죠. 저희 동네는 그나마 작년부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해서 이주민들하고도 친해요. 친해서 그나마 좀 나은데 처음 이걸 시도하는 동네들. 아마 분명히 100%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원주민들로만 하기에는 이게 잘 학습이 안 될거고. 이주민들이 하면 동화가 안 될거고. 이런 면에서 같이 접근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원주민들하고 이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된다면” (전문가9, 2020.7.8.).

- 마을 리더(이장) 역할 확장에 따른 마을 주민이 일군(리더)으로 성장하는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필요 : 이장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주민 관점에서 각종 마을 사업이 이장 중심으로 변화되어 보이고 교육도 이장 중심으로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함(전문가8, 전문가9). 이는 주민 스스로 교육 수강 동기부여를 하지 못하는 상황과도 연결되므로 마을 주민이 주민으로서 수강하는 기본과정, 마을 활동가 과정, 마을 리더과정, 지역 리더과정 등 단계별 교육 과정이 필요하고 이를 수강해야만 지역사회 리더로 발탁되는 시스템구축

및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마을 포럼 가보면 첫날은 이만큼 모이는데 둘째 날은 이게 안 모입니다. 많이 안모여요. 그렇게 되더라고요...지역 리더라는 게...권력독점이 아니라 니가 알아서 다 해라 이거야. 뒤에서 비판은 하는데 자기가 도와주는 건 그렇게 많지가 않아...이장 같은 것도 교육 시스템을 이수해야 이장이 된다 던가 이런 부분이 되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전문가8, 2020.7.8.)

“동네 이장이 역할은 지금 점점 많아져요. 제가 3년 해보면서 제가 첫해보다 도 지금이 물론 제가 뭐 활동을 조금 더 해서 그런지 몰라도 역할은 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이 지역주민들 이것도 리더십의 문제겠쥬. 지역주민들 많이 아우르지 못한 리더십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아우르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하다. 교육의 힘이 필요해요” (전문가9, 2020.7.8.)

- IT 기술 발전에 따른 학습환경 변화를 반영 : Youtube, TED, 버스킹 등 다양한 소통 방식이 새롭게 대두되면서 학습 수요층 다양화를 반영(제주특별자치도, 2020)하는 프로그램 도입은 중요함(전문가1). 이는 개인의 사회변화 대응, 역량 강화 개발 수단으로 주민교육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시대 대면과 비대면 교육의 장점들을 융합한 다면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도입을 통해 주민이 변화하는 사회적 여건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토대가 될 것임.

“말씀하셨던 게 유튜브 말씀하셨잖아요...교육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언택트 시대에 뭘 하느냐...도올 강의 있으면 중용 강의 들으러 가? 안 가지요. 유튜브로 하루 종일 중용을 듣는 거야. 1020세대뿐 만 아니라 자연적으로 이미 사회적 변화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교육 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예요. 수많은 커리큘럼에 대한, 내가 혼자서 강의실에 안가도 교육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야 한다. 이미 많은 사람이 적응이 됐어. 그러니깐 (나는) 65세 다 됐는데, 늙은 놈이 맨날 중용만 듣고 있던 말이지. 그제 나뿐만이 아니라는 얘기지.” (전문가 1, 2020.7.7.)

- 제주지역 인구 구조 변화 반영 : 저출산 고령화 심화현상에 따른 제주 성인 인구의 지속적 증가와 베이비부머 세대인 5060 세대와 고령인구 비중 확대 (제주특별자치도, 2020)로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필요해 보임

□ 여건을 반영하고 변화에 대응하는 주민교육 프로그램 모색

- **선주민과 정착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그 혜택을 가져갈 수 있는 공동체 활성화 마을 단위 프로그램 개발 필요**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 단위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주민교육 학습 효과도 높이고 선주민과 정착 주민 간 교류와 화합을 도모할 필요 있음. 이러한 마을 단위 프로그램 설계과정에 주민이 참여하고 운영도하면서 주민이 교육 소비자에만 머무르지 않고 프로그램 생산과 소비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혜택을 가져갈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해 보임. 이는 주민이 리더로 성장하는 단계별 리더양성 교육과정과도 연계될 수 있는데 기본 교육을 통해 공동체 일원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역할과 참여의 가치를 인식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회인 육성과도 관계가 있다고 하겠음

- **프로그램 제공 방법, 교육 장소, 교육과정 설계 방법 등 변화 필요** :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경우 문화예술 또는 여가 관련 프로그램이 다수를 이루고 있지만 조금씩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는 프로그램들이 제시되고 있고 교육 장소 또한 주민자치 센터 위주에서 마을 단위 경로당, 체험마을 강당, 복합문화공간 등 찾아가는 서비스로 주민교육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전문가5).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보면 한 10년 전하고 달라진 지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여전히 문화, 여가 중심의 프로그램이라는 건 맞지만 그 안에서 조금씩 지역의 특성들이 반영되는 프로그램들이 제시가 되어있고. 또 하나는 공간이 (주민자치)센터 내로 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거. 센터 밖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마을 회관이나 노인회관 이런데 어떤 지역의 유휴공간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프로그램이 가고 있다고 하는 거는 상당히 바람직한 형태의 변화들이긴 하지요.(전문가 5. 2020.7.7.)

□ 교육 목적이 명확하고 혜택의 주체가 주민인 주민 참여형(주민이 디자인하는) 마을 단위 교육 프로그램 확대

- 최근에 진행되는 마을 단위 교육 프로그램들은 2000년대 초반 추진되었던 마을만들기 사업, 신문화공간 조성 사업 등과 연계한 주민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 목적이 불분명하고 교육동기 부여정도가 낮아 주민의 교육 참여가 저조한 실정임. 또한 주민역량강화 교육이라는 프로그램들이 차별화 없이 추진됨으로서 주민들의 교육 동기를 저하시키고 교육 참여 감소로 이어짐
- 소수더라도 교육 혜택 주체인 주민이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확대 필요: 주민이 원하는 교육에 대한 수요조사(욕구조사)를 선행하고 이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을 주민과 지원기관(부서)이 함께 계획하는 주민 참여형 마을 단위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전문가1). 또한 기존 욕구 조사는 대표성을 가진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경우 '과연 대표성이 맞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샘플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전문가8)

“말씀 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받는 사람들은 아주 그들은 새로운 교육이라는 걸증을 갖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전화 와서 교육 또 언제 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지극히 일부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어떤 공동체 사업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그들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 것들을 조금씩 채울 수 있다는 그런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저 역시 마찬가지로 교육 소비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교육 사업을 찾아가 하려고 합니다. 근데 갔더니 채워질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아니한 것이에요.” (전문가 1, 2020.7.7.)

“저가 생각하기에는 한번 마을 단위로, 마을발전 계획 보다는 마을발전계획유, 무형의 자원조사 보다는 좀 욕구 조사를 하는 게 중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전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의미 있는 샘플링을 해서 욕구조사라는 걸 좀 하고 그게 실은 나는 교육프로그램에 연결된다고 봐요. 교육에 상당히 중요한. 그렇지 않고 이제 저희도 현장 포럼하면서 유연하게 해본다 해서 첫 회차는 그냥 전문가 와서 자기가 아는 것들을 막 나열하는 것 보단 그 욕구를 풀어내는 작업을 해봤는데 것 도 문제점이 뭐냐면, 모이는 사람 자체가 대표성이 그렇잖아요. 이장님 봐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동장님이나, 그런 것들 해서 그분들이 얘기하게 되면 이게 제대로 된 욕구인가. 우리 마을 주민들이 생각하는 대표의 욕구인가 하는 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에 없어요.” (전문가8, 2020.7.8.)

- 마을 공동체나 공동체 일원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목적의 교육,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여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이 교육과정에 녹아 있어 프로그램 확대 : 마을 공동체나 공동체 일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인식 개선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고 나타남(전문가8)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떤 특정 사업을 위해서, 그 안에 교육이 있었고, 어떤 필요한 자문을 한 거고, 홍보를 한 거고, 행사를 한 거고 이렇게 한 거였기 때문에 목적이 분명했어요. 예를 들어 준비단계라면 뭘 알아야 주민들이 의견을 내놓은 거니깐 주민들한테 정보를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한 교육 목적이었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주민한테 필요한 과제는 잘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게 목적이었고. 세 번째는 각 분야마다 전문적으로 필요한 일을 하는 게 목적이어서. 지금 그런 사업의 문제점은 이장님을 중심으로, 친한 사람이든 아니면 거기에 그 사업을 얻으려고 하든, 의무적으로 하든, 그거 위주로 모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사업들은. 경제 사업이든, 복지 사업이든, 문화 사업이든. 그렇다보니까 약간 지속성은 떨어지는 감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은 우리가 교육이라는 걸 접근할 때 그게 어떤 주민의 개인이든,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어르신의 문제든, 아니면 어르신들 그룹이든, 부녀회든 청년이든 간에. 개인이든 그룹이든 마을 자치든 간에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접근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또 그걸 인식도 해줘야 하는 거고.” (전문가 8, 2020. 7. 8.)

나. 제주지역 마을 단위 주민교육 지원정책 현황 및 실태, 현안과제

□ 마을 단위 주민교육 지원정책 현황 및 실태

- 읍·면·동(마을단위)평생학습센터 :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와의 제도적 연계와 예산의 한계로 인해 매우 소수의 마을에 국한된 사업으로 운영됨. 보다 대다수의 마을 주민이 요구하는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타 지역의 사례와 같이 공공 정책으로서 체계성을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 모색이 요구됨

- **주민자치 프로그램** : 제주 도내 43개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제공 되는 주민교육 프로그램으로 건강과 취미활동 목적, 문화예술 향유 목적, 이 주 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육 등 목적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됨. 문제점은 1) 교육 수혜자들이 대부분 고정적이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변화하려는 경향이 약하다는 점, 2) 교육 장소가 주로 읍면동 소재지에 위치한 주민 자치센터이므로 중산간 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수혜를 못받는다 점, 3) 일정 인원(5명 이상) 이상 모집이 되어야 교육이 제공된다는 점 등임. 교육 기획이나 운영 전담자가 있는 중간지원조직과 달리 주민자치센터는 전담자 부재로 관리 위주 운영이 되고 있고 ‘교육 소비자만 양성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전문가3, 전문가5)

“참여가 가장 문제인데, 젊으신 분들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이 신청을 하는데 새로운 걸 발굴하고 그런것 보다는 기존의 것을 유지하는 경향들이 강하기는 합니다. 어떤 읍면동과는 비슷하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거기인 경향이 많아서.” (전문가 3, 2020.7.7.)

“마을 주민들 애로사항을 제가 좀 잘 아는데 모으려고 하면 저녁시간에 모아야 하고 이렇게 또 한두 명 가지고는 교육시키지 못하는데 일정규모 이상 모으려면 이게 상당히 성인교육이고 하다보니깐 상당히 애로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시키는 분하고 마을 분들하고 다툼이 있는 것도 알고. 왜냐하면 그 교육시킨 쪽에서 일정정도 규모가 있어야 무료사업이든 뭐든 실적 부담도 컸는데, 마을 주민들도 ‘아이고 10명만 왔는데 그럼 안 되냐’ 이렇게 뭐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좀 갈등도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전문가 3, 2020.7.7.)

“읍면동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있긴 하지만 그 수혜를 못 받는 주민들이 특히나 중산간 지역 주민들이 많다는 얘기에요.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가 5, 2020.7.7.)

- **리더육성 교육** : 휴양마을 사무장에 대한 실무자교육, 이장에 대한 리더 육성 교육, 농촌관광, 크리에이터 육성교육 등이 정부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다함. 리더육성 교육의 경우 교육 수강 동기 부여가 약하고 이는 실천할 수 있는 동기와 연관있다고 함. 주민이 공동체 일원으로 역할제고를 위한 단계별(주

민, 마을 활동가, 마을 리더, 지역 리더 등) 주민교육 프로그램 및 시스템 마련 필요(전문가1)

“실무적인 것은 사무장. 그리고 또 하나는 리더 육성 교육. 그리고 농촌관광. 요즘 그 트렌드, 요즘은 이제 유튜버 만들기 교육. 그것을 중앙정부 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죠. 역량이 갖춰진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줘야 차기 리더 육성에도 고민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현재의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강의실 안에서 정말 눈을 크게 부릅뜨고 긴장하면서 무엇인가 더 얻고자 하는 그런 동기를 주지 못하고 있단 얘기죠. 교육의 전제가 뭘니까. 실천이죠. 실천할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는”(전문가1, 2020. 7.7.)

- **문화중개소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균형발전지원센터가 지원하는 권역 균형사업의 일환으로 3년째 추진하고 있는 강사지원시스템 운영사업임. 강사(교육자), 주민(피교육자), 공간(교육장소)으로 엮어내는 구조의 교육 서비스 프로그램이며 핵심은 주민이 원하는 장소에서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함. 강사풀을 구축한 교육 서비스 인력제공 플랫폼은 되었지만 주민이 원하는 교육 측면, 교육 성과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효과가 있었느냐는 없는 실정이라고 함(전문가2)

“권역 균형사업은 시범사업으로 3년차 정도. 그 중에 하나가 문화 휴게소 사업입니다. 교육이면 결국은 여기 주체는 강사하고 주민하고 필요한 요소가 공간 이 세 가지라고 봤거든요. 주민 주도로 바꿔보자라고 해서 기획한 게 우리가 강사 풀을 구축해놓으면 주민이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받게 하는 그런 구조를 설계해놨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완벽하게 돌아가지는 않아요. 강사풀을 구축을 하다 보니깐 지금 한 220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긍정적인 효과가 마을에서 균형사업 계획을 짤 때 강사 풀을 보고 짜는 거예요.”(전문가2, 2020.7.7.)

- **사회적경제 학습동아리 지원사업** : 사회적경제 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넓히기 위해 기업, 단체,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학습동아리에 대해 학습비를 지원하는 사업임(뉴스스토리, <http://www.news-story.co.kr>). 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사

회적경제 학습을 전제로 하는 경우 100만원에서 200만원 지원을 하고 있다 함. 주민교육은 학습동아리 형식이므로 교육 욕구를 직접 수용할 수 있으므로 만족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학습동아리 참가 주민이 예산을 직접 집행하는 데서 오는 사업 공급자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전문가4)

“저희도 학습 동아리 형식으로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거나 그 2차년도 때는 약간 예산을 줄여서 100만원 이내에서 예산을. 그니까 방식은 여러 가지인데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저희는 이제 사회적경제 학습이라는 제약조건이 있었지만 학습 동아리 형식으로 했을 때 만족도가 제일 높았기는 해요. 공급하는 입장에서 장점은 다양한 학습에 대한 욕구들을 저희가 수용할 수 있기때문에 그 부분에 장점이 있었던 반면에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관리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있었어요. 최소한 한두 번 이상 돈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들한테도, 학습 동아리한테도 사실 제약조건들을 달수밖에 없는것 같아요. 저희도 행정의 공공의 예산이다 보니 자꾸 제약조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해 어떤 미스가 생기면 그다음에는 또 한두 개씩 보완해서 뭔가를 좀 단서 조항들이 자꾸자꾸 생겨나는 사실 그런 아쉬움은 있었어요. 근데 그 방법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이 보조금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된다면 사실 저는 제일 좋은 방식이라고는 생각하고.” (전문가4. 2020.7.7)

- **혼디모영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에서는 주민교육 기본 교육, 활동가 양성관련 혼디모영 활동가 역량강화사업, 정착주민 대상 제주이해하기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남. 혼디모영 프로그램 및 제주이해프로그램은 기 설계된 교육을 제공하는 반면 주민대상 교육은 욕구조사를 토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실무차원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전문가5). 수요(욕구)조사 기반 교육과정 설계가 시스템화 되고 민간, 중간지원조직 및 행정이 시스템 공유와 확산을통해 우수 시스템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함

“세 가지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마을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누군가를 양성하기 위한 우리가 마을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을 활동가들을

양성하기 위한 그 교육이 이뤄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작년부터 저희들이 정착주민 관련된 업무들을 하고 있어요...양성이라든지 제주이야기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짜인 커리큘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커리큘럼 고대로, 그리고 원하는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두가지 교육 프로그램 이고....첫 번째 주민교육 프로그램은 이게 상당히 저희들이 사업을 해나가면서 가장 힘들고 애로사항도 많고 공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저희들이 어떤 짜인 커리큘럼을 가지고 마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직접 마을로 가서 주민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주민들이 얘기하던 도중에 우리는 이런 교육을 받고 싶다는 얘기도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저희들이 얘기 듣다 보면 이런 교육을 받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제시도 해요. 그렇게 해서 서로가 맞아떨어졌을 때 교육을 진행하거든요.” (전문가5. 2020.7.7.)

- **도시재생 아카데미** : 제주특별자치도도시재생지원센터는 사업지역과 활성화 지역내 주민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아카데미를 일년에 1~2회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도시재생아카데미는 기초과정, 심화과정으로 단계별 진행되며 과정 이수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까지 가능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함(전문가6)

“저희 사업은 교육비도 사업비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할때는 지역 내에 설정된 사업지역 내에서만 교육이 가능하고요. 도시재생 사업 경우에 제주 지역에 광역센터(인) 도센터가 있고, 각 뉴딜 사업지 별로 현장지원센터가 나눠져 있어요. 서로 독립적인 법인이고요. 그래서 광역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년에 한차례나 두 차례, 올해처럼 코로나 상황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데, 한차례 정도 진행되는데 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도시재생 대학을 합니다. 제주도 도시계획 전략계획에 설정되어 있는 그 전역에 활성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 내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저희 사업은 사업지역하고 활성화 지역 하고 그거에 딱 묶여있는. 한계성을 좀 가지고 있다는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가 하는 교육은 첫째로 도시재생대학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것은 뭐 도시재생의 개발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기초과정을 거친 다음에 심화과정, 심화과정이 끝나면 참여자들이 본인의 지역에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화를 하는 것이. 기초단위 사업계획까지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 과정, 교육 과정입니다.” (전문가6,

2020.7.7.)

-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 도시재생코디네이터는 도시재생 대학 졸업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전문가양성교육과정으로 년1회 추진하고 있음. 도시재생 아카데미 및 코디네이터 과정의 목적은 도시재생지역내 주민 대상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이 향후 지역 내 문제를 찾아내고 사업화(문제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함
- 문제점은 교육과정 목표와 같이 주민들이 점진적으로 성장하여 사회적 경제 조직도 구성하고 사업화도 하는 성과가 나와야하지만 현실은 어려운 실정이고 민간, 중간지원조직 및 행정이 협업하고 교류하는 협업 지원체제가 구축되지 않아 여러 가지 제약조건을 제공하는 실정이라고 함(전문가6)

“도시재생 코디네이터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전문가 양성 교육이죠. 그러니까 도시재생대학을 졸업한분들 중에 더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지역에서 여러 가지 적응 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 도시 재생에 관한 관심이 있거나 이런 분들을 모아서 코디네이터 양성 교육을 해드립니다. 저희들은 도시재생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 사전 단계로써의 주민들의 교육을 시키는, 중요하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분들이 자기지역 내에서 사업을 발굴하는 거, 발굴된 사업이 결과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는 커다란 사업에 일정부분 반영이 되거나 거기 한 거점공간이든 하나의 어떤 사업으로서 배치가 될 수 있는,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도식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 교육을 하는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 역량을 강화시키고 이분들이 지역 내 문제를 찾아내서 이것을 사업화 시키고 결과적으로 국가사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6)

□ 마을 단위 주민 교육 현안 과제

- **교육 내용(강의 내용) 전반적인 검토 필요** : 실제 필요한 교육인지 검토없이, 기존 교육관련 성과 측정 없이 교육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단발성, 일회성으로 끝나는 교육들이 많은 점은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교육 커리큘

럼 전반을 점검하고 이에 다른 교육 성과도 측정하고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함(전문가1, 전문가7). 또한 자아실현이나 행복감이 높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경우 지속가능성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전문가8)

- 이는 단발성 예산에 의해 추진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주민교육과 연계 설계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유하고 활용한다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역량 강화라는 표현이 주어진 목적에 맞게 이 가치를 만들어내는 힘을, 교육들을 만들어 주는 건데 십수년 동안 하면서 그거를 확인했던 과정이 있었을까? 없단 얘기죠. 사업비만 그냥 던져버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회사에 자기네들 마진 딱 챙기고 그냥 교육시간만 이수하고 보고서만 내버리면 그만인데. 그래서 이제 차라리 교육 사업에 대한 것이 철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사설기관에서 하는 게 더 실리적이 아닐까? 그 대신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려면 일단은 지역주민이 커리큘럼 전체를 다시 한 번 검토 해야 된다. 전반적인 것을.” (전문가1, 2020.7.7.)

“문제점 들이라고 하면 지속가능하게 하는 것이 과연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게 처음 대부분이 약간 단발성으로 끝나 버리는 게 아쉽다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요, 마을 분들도 같이 뭔가를 만들고 어떤 교육을 통해서 본인이 자아실현이나 행복감이 높아지고 전과 다른 교육을 받았다는 그 체감이 좋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어가게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단발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게 유지되지 않는 것이 조금 저는 안타깝고, ” (전문가7. 2020.7.8.)

“어떻게 했냐면 요구조사를 한 건데, 설문지도 돌려보고 이제 설문지 돌리기 바로 전으로 들어가면 1년 전에 지역역량강화교육을 통해서 인문학적인 교육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나서 프로젝트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서로 주셔서 그거를 ‘뮤지컬 하죠’, ‘자 저희 자원조사 합시다’ 이게 아니라 일단은 큰 틀에서 약속은 했지만. 이게 뮤지컬로 갈지, 뭐 연극으로 갈지 이거는 저는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 전에 자원조사를 한거죠. 나름. 나름 그러니까 체계적이거나 또는 아주 전문적이거나. 그만큼의 예산투입이 된건

아니었지만 제 판에는 요구조사가 필요하고 정말 여기에 참여하실 분이 리더, 이장님의 말씀만 믿을 수는 없는 거죠. 몇 명이 참여할지 모르니까. 그러면 어르신들 경로당 가사 뭐 옛날얘기 나 이런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하고, 그룹별로 인터뷰를 하고. 또 개별적으로 계속 얘기를 듣고. 그리고 중간에 설문조사도 해요. 중산간 마을에서 내가 살면서 예를 들어 우리 뭐 소품이나 이런 것들을 보관하고 계십니까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뭔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사전에 설문조사를 꼭 했는데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한집, 한집 다 다니고 싶었어요. 사실은. 모이셔서 설문지 나눠줘서 하세요. 그러면 뻘하잖아요, 인원이 많이 안 모일거니까. 일단 또 사무장님과 이장님의 도움을 받아 했죠. 그런 설문조사를 거쳤고, 어느 정도 니즈가 있다는 것을 파악을 했고, 그다음에 교육을 했죠. 문화예술 교육 일종의. 그래서 모두가 다 그 교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문을 열어 놓고, 춤도 가르쳐드리고, 노래도 가르쳐드리고, 연기도 가르쳐드리고. 열어 놓고 물론 우리가 대본을 사전에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 대본에 다 드리고, 읽어보시고, 관심이 있고 이런 분들은 교육에 참여를 해주세요. 그리고 춤, 노래, 연기, 대본 이런 거 다 하고 나서 그다음에 뭘 했느냐 정말 참여하실분. 신청해주세요. 근데 그때 물론 이장님이 막 개발 위원들 막 참여해라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젊은 이주민, 이런 분들이 오셨어요. 참여했는데, 시간대가 다른 거예요. 일하는 시간대가. 그러니까 참여를 하고 싶어도 약간은 서먹하고 어색하나 참여할 수 없기도 하고, 물리적인 시간도 안 되고. 그니까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 오래 사셨던 어르신들 중심으로 24명이 모여진 거죠. 분명히 그때는 외부에서 살러 들어오신 분들의 니즈는 있었는데,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모여야 되니까 우리는 발일하고. 언제? 주말. 뭐 이래도 되는데 이주민 그분들은 펜션을 하니까 주말은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니까 어떤 콘텐츠를 교육을 함에 있어서도 이렇게 분야가 다르고 내업이 다르면, 역으로 생각해서 거기에 맞는 시간대와 그분들을 위한 교육이 특성화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걸 느꼈어요. 그걸 하면서. 그래서 결론은 그 뮤지컬 30분짜리 만드는데 1년 걸렸죠.” (전문가8, 2020.7.8.).

○ 교육 방식 및 교육공간 변화 : 강의식 방식에서 탈피하여 참여식 방식으로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전문가7). 기존에 실시되는 리더양성 교육 또한 강의식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수강 후 전문역량 강화 여부에 신뢰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나타남. 교육공간 또한 교육 목적이나 대상에 따라 교육 효과 제고 차원에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함(전문가7)

“강의 자체 내용과 강의 운영 방식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이제 는 정말 그냥 피피티 놓고 앞에서 강사하고, 이런 교육방식을 저희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이 시대는 끝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나 름 그런 일방적 소통의 강의방식. 그리고 모인 주민들의 처음 온 사람. 그 다음 이 교육을 너무 많이 받은 분. 또 새롭게 이 지역에 살려 오신 분들. 또는 여기 토박이. 이렇게 다른 니즈가 다른 분들이 앉아있는 것에 강사가 일방적으로 교육하는 거는 이제 그거는 다르게 방향을 바꿔가야 되지 않 을까 하고...” (전문가7, 2020.7.8.)

“공간도 마찬가지로 공간이 굉장히 삭막하죠. 의자 테이블 뭐 여러 가지. 그 러나 이것에 대해서 타파할 방법은 솔직히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 면 리모델링할 때도 입찰을 통해서 하게 되고, 디자인을 아무리 저희가 예쁘게 해달라 해도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 뻔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꾸미고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있어서 교육적 환경조성이 저는 나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연출가로서 이거는 직업적인 건데 항상 공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뭔가 콘텐츠를 만들 때. 강의도 교육장 환경이 되게 조성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 (전문가7, 2020.7.8.)

- **교육자(강사) 기준(수준)** : 강사풀들에 대한 강사들에 대한 근본적인 재교육, 강사로서의 스킬들, 기법들을 잘 갖춰서 동기를 부여하고 참여를 높이는 등 주민교육 활성화를 이끌어내야 하지만 기획의 목적과 방향성에 맞는 교육 체계는 없고 사업에 의해, 예산에 의해 교육이 제공되는, 이것이 제주지역 마을단위 교육 프로그램의 현실로 인식되고 있음(전문가1)

“우리가 강사의 자질이나 강사 하고자 하는 내용의 가치를 누가 정하느냐... 행정적인 자료나 교육과정을 볼 때에는 아 이사람 마을사람인데, 한 시간에 삼만 원 짜리야. 이런 우리 이미 만들어진 강사에 대한 매뉴얼이 한번 이미 되어있는걸 벗어나지 못해. 그러 소중한 가치에 대한 것을 정립할 필

요가 있는 것이고...” (전문가1, 2020.7.7.)

- **피교육자 참여 및 실천 동기부여** : 교육 수강이 추후 활동(실천)으로 이어지고 성과 확인이 다음 활동에 인센티브로 작용되는 교육 체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예를 들어 일꾼들을 키우기 위한 기본적인 사람을 기초적인 직무부터 리더십까지 키울 수 있는 과정, 도민들의 지역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참여구조부터 마을 단위 참여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에서, 마을 일꾼, 읍면단위의 지도자, 지역차원에서 실제 거버넌스(governance)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도 단위의 리더까지 키우는 그 과정으로서의 교육 체계가 필요하다고 나타남(전문가1)

“실천이죠. 실천할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마을에 이장 선출에 관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도 그걸 행정에서 유도를 하는 거예요. 역량이 갖춰진 사람이 마을 이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적어도 지침은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아 마을에서 이장들은 어느 정도 교육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이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2013년도에 했던 일 중에 하나.” (전문가1, 2020.7.7.)

- **교육참여자 집단의 화합을 유도하고 갈등을 관리하는 목적의 교육 필요** : 마을에 다양성, 차이를 인정하는 문화, 보듬는 문화를 인식하고 인식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예산이 마을로 유입되는 국가단위 지원사업의 경우 이익 발생에 따른 갈등 양상이 관찰되고 있어 주민 화합 유도 및 갈등 관리에 기여하는 프로그램 개발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함(전문가3, 전문가9)

“공모가 채택이 되면 예산이 반영되는 그런 부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말씀하셨듯이 그 이후에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비가 이익이 발생할 때도 있고, 협동조합 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그러면 이익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민들 간의 갈등이 일어나서, 어떤 사업을 차라리 안하느니만 못하게. 이런 부분들이 마을마다 비일비재, 개발 사업에 따른 갈등.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 발굴로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이런 부분만이 아니고 차후에 사후관리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

든 아니면 센터 차원에서든 그 교육이라던가, 합의를 이끌어 내서 그런 게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전문가3, 2020.7.7.)

“교육이 그게 어려운 게 뭔가 정하고 이런 게 쉽지가 않아요. 그 안에서도 또 부녀회장이 정하면 옆에서 또 건드리는 사람은 또 이거 왜 이거보다 이게 좋은데 뭐 이거 하고. 하여간 뭔가 일을 벌이면 얘기듣기 힘들고, 안 벌리면 아무 얘기도 안 듣고 아무얘기도 안 듣는데, 일을 벌이면 그렇게 되는 거죠...그래서 사무장님하고 저하고 늘 고민하고. 사무장님조차도 ‘어 이장님 저 이런저런 얘기 들린다. 조심해야된다’ 뭐 이런...” (전문가9, 2020.7.8.)

- **교육지원형태로서 학습동아리 사업 필요** : 학습동아리 형태의 주민참여 교육 형태는 의사소통 훈련, 상호존중 훈련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갈등 해소 과정을 경험하고 방안을 배우는 과정임. 학습동아리 지원은 교육 방법론 차원에서 좋은 도구임. 다만 교육 지원 단위로만 인식되는 점, 현행 예산 집행 방법 등은 극복되어야할 어려움으로 인식되고 있음.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것들을 파악하고 엮어 서로 연계시키고 특화시키는 방안이 모색되면 좋겠다고 함(전문가4)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관리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최소한 한두 번 이상 돈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들한테도, 학습동아리한테도 사실 제약조건들을 달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도 행정의 공공의 예산이다 보니깐 자꾸 제약조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해 어떤 미스가 생기면 그다음에는 또 한두 개씩 보완해서 뭔가를 좀 단서조항들이 자꾸자꾸 생겨나는 사실 그런 아쉬움은 있었어요. 근데 그 방법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이 보조금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조금 더 해결이 된다면 사실 저는 제일 좋은 방식이라고는 생각하고.” (전문가4, 2020.7.7.)

- **공적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적정 인원의 규모 논의 필요** : 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의 경우 중간지원조직별 지원 규모가 다르게 설되어 있고 도시재생분야의 경우 10명으로 운영하고 있어 규모에 관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함(전문가6)

“코로나 시대가 되면 사실은 대규모 교육 보다는 소규모...3명, 5명 정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주민협의체라는 것을 구상하게 되어있어요. 그니까 10명 단위로...지역단위에서 10명이 그렇게 한 주제를 가지고 와서 서로 이제 역할을 하기 쉽지 않으니깐. 처음부터. 그러면 제가 들어오는 거 보면 보통은 3명. 처음 들어올 때. 뭐 3명, 많으면 다섯 명 겨우 이정도 거든요. 근데 이게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제도적 근거도 없고. 행정에서는 지원 해주겠다고 하는데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 하나가 있고요.” (전문가6, 2020.7.7.)

다.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교육 지원 체제 구축 및 활성화 방안 모색

□ 제주지역 마을 단위 주민교육 확대 및 지원

- 공동체 일원 및 공동체 현안을 찾아내고 해결하는 방식이 교육과정에 녹아있는 프로그램 확대 필요 : 욕구조사를 기반으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촘촘한 설계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음(전문가7)

“요구조사에 대한 거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구조사를 좀 더 세분화하게 계층별로 다양하게 해서 오히려 이게 상향식(Bottom-Up)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 욕구를 조사하다 보면 어느 계층에 뭐가 취약하고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생길 거잖아요. 마을이 모두다 소득사업 하고 싶고, 모두다 환경정비 사업 하고 싶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요구사업을, 요구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일종의 편셋으로 설계한다? 편셋설계가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좀 했어요(전문가7, 2020.7.7.)

- 맞춤형 전문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제공하고 마을 단위에서 주민들이 또는 공동체가 선택할 수 있는 교육 체계 마련 필요 :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어른들이 참여하여 만든다든가, 주민 이해 및 동화 프로그램을 선주민과 정착주민이 함께 설계하고 참가한다든가 하는 탄력적인 프로그램 확대 필요. 이 경우 마을 내 교육 콘텐츠 팀이나 그룹이 있다면 결국 마을에서 요구조사부

터 교육 과정 설계까지 주민 참여형으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제주지역 마을 단위 주민교육 지원체제 구축

- **민간, 중간지원조직, 행정 등 네트워크 협력이 가능한 교육 운영체제, 지속가능한 제주형 모델 구축 필요** : 주민자치센터 이용자(교육 소비자)가 마을 기업관련 주민교육, 도시재생 관련 주민교육 등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교육 소비자, 강사, 중간조직, 행정 등이 협업하고 네트워크 하는 구조를 도출하여 제주지역에 맞는 지속가능한 제주형 모델을 만드는 것도 방안이라는 의견이 있었음(전문가6)

“말씀처럼 이 사업에 나중에 지속 가능해야 되는 게 가장 어느 교육이든, 교육의 결과물로써의 그런 것들이 상당히 고민되는 지점이거든요. 지속가능. 그래서 우리가 도시재생사업 교육 해내고, 역량이 강화된 주민들이 아까 말씀처럼 사회적 경제분야. 뭐 이렇게 진출을 해서 이분들이 거기서 어떤 본인들의 자립을, 자립 기반을 다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역 내에서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어떤 결과적으로 성과가 나오면 좋은데 사실은 그게 상당히 어렵, 쉽지만은 않다. 상당히 쉽지만은 않다. 이게 계획적으로는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각각의 지점들에 있어서 행정상 지원이라든지, 민간차원에서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기반적으로 구축되지 않으면 이런 어떤 사회적 자원들이 커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떤 제약요건을 가질 수도 있어요. 행정 지원 자체가. 제약을 시켜버리는, 이분들이 자라나는 것을 제약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가 되고 제주지역에 맞는 모델, 이런 연구가 되어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전문가6. 2020.7.7.)

- **중간지원조직 운영 프로세스 새롭게 바라보기** : 중간지원조직들은 기관별 설립 목적에 따라 수행 업무 형태와 역할에 차이는 있으나 공통된 역할은 공동체 지원임(김진솔 외, 2018). 다만 공동체 지원이란 측면에서 지원되는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각 조직이 가져가야 할 역할에 대한 충분한 이해, 그 역할에 맞춰서 수행하는 역량이 좀더 필요하다고 나타남(전문가8). 마을단위 주민교육 성과가 제대로 발현되어 지역사회로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선순환 형태로 가려면 민간, 중간지원조직, 행정 등이 각각의 역할 수행에 가

치를 둘 필요가 있음

“행정에서의 역할은 사업으로 접근해서 그걸 자원조사 하고 교육하고 이런 것들은 각 민간이든 어떤 개별 전문가든 어떤 컨설팅 그룹이든 주민들은 다 하는 사람이 있으니 말기고, 행정그룹은 그 욕구조사를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틀을 조례상으로 반영하든 간에.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실은 그 내용은 사회적 경제영역에서 당장 필요한 일이고, 사회적경제 참여한 사람들은 무슨 달나라에서 온 사람 아니잖아예. 주민이고 시민이고 뭔가 문제가 해결하는 사람들이니까 필요한 거고. 또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하는 그 정책영역에서 필요한 거고. 평생교육에서도 필요한 거고. 복지부서에도, 문화부서에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정책적으로 우선순위 뒤서 해결하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행정에서 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행정은 제가 제일 필요한 게 그거인 것 같고. 두 번째로 중간지원그룹은 그 내용을 직접 실행을 하든 그럴 수 있잖아요. 행정에서 행정은 그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면 직접 실행을 하든 뭐든 간에 좀 그거를 어떻게 풀어낼 거냐. 그러면 뭘 아까같이 아마 지금 중간지원한테 욕구조사하라고 그러면은 뻔하잖아예. 뭐 필요합니까 해서 이렇게, 동네에는 뭐있습니까, 뭐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런 걸 어떻게 해 낼 거냐. 그게 뭐 연구를 선행 연구를 하든 그 매뉴얼을 만들든 그런 것들을..” (전문가8, 2020.7.8.)

3. 요약 및 시사점

-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관련 정책 및 현장 전문가들 대상의 초점 집단 면접(FGI)을 통해 제주지역 마을단위에서 수행되는 주민교육의 변화, 지원정책 현황 및 실태, 현안과제, 주민교육 지원체제 및 활성화 정책 방안을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교육의 변화

- 제주지역 인구 구조 변화, IT 기술 발전에 따른 학습환경 변화 등의 사회 환경 변화, 마을 내 선주민과 정착 주민(이주민) 인구 구성비 불균형 및 마을 리더(이장) 역할 확대 등 제주지역 여건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교육은 제주특별자치도 산하의 행정시 및 도내 43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정부·민간·주민 등의 공동체 활성화 주체를 연계·조정·지원하기 위한 기능을 지닌 중간지원조직(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제주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영역(전국체험휴양마을협의체, 문화예술기획공모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업 또는 콘텐츠 그룹) 등에서 주민교육이 실시되고 지원되고 있음을 확인함

- 마을단위 주민교육은 저출산·고령화 심화 현상에 따른 제주 성인 인구의 지속적 증가, 베이비부머 세대인 5060세대 및 고령인구 비중 증대로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유튜브(Youtube), 테드(TED), 웨비나(Webinar) 등 다양한 소통방식이 대두됨에 따라 코로나 같은 감염병 시대에도 대응 가능한 대면과 비대면의 장점을 융합한 프로그램 개발과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특히 마을 내 선주민과 정착 주민(이주민) 인구 구성비 불균형 현상은 각기 다른 환경에서 성장해 온 주민들 간의 문화 동화, 이해 증진 및 소통을 목표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함. 마을 리더(이장) 역할 증대는 리더 역량 배양을 위한 교육 제공의 필요성과 마을 내에서 단계별로 마을 인재(활동가)를 양성하여 지역단위 거버넌스 구축의 중심 인재로 성장시키는 교육 프로그램 요구로 이어지는 한편 마을 리더의 역할 비대화 측면은 주민 스스로 교육 수강 동기가 저하되는 현상과 연계되고 있어 이 두 가지 측면을 수용하고 개선할 수 있는 주민자치(민주주의와 거버넌스) 인식 확대 목적의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주민이라면 소수가 원하더라도 교육을 지원해야 하고 주민이 원하는 교육 요구조사에 기반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주민과 지원기관이 함께 계획하는 주민 참여형 마을단위 교육 프로그램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함. 요구조사에 있어서는 조사 대상의 대표성 개선 등 기존 요구조사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표본 설정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추구함으로써 개선할 수 있다고 하였음. 이미 중간지원조직에서 도입하여 지원하는 방식인 지역 공동체와 공동체

구성원이 당면한 문제해결 방식이 교육과정에 녹아있고, 그 성과가 문제해결로 연계되는 교육 프로그램 설계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음. 이는 주민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와도 연결되어 있음

- 최근에 진행되는 마을 단위 교육 프로그램들은 2000년대 초반에 실시되었던 주민 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 목적과 교육 대상이 불분명하고 주민역량 교육이라는 프로그램들이 차별화없이 실시되고 있어 주민을 대상화하는 경향도 있다고 하였음. 이는 주민교육에 있어 교육 목적과 혜택이 명확한 주민참여형 마을 단위 교육과정 설계와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데 최근 사례들은 이러한 방안들이 교육 현장에서 조금씩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줌.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여전히 문화, 여가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조금씩 주민 참여형 마을 단위 프로그램이 도입되면서 교육을 실시하는 장소도 주민자치센터 위주에서 마을 단위 경로당, 체험마을 강당, 복합문화공간 등으로 변화되고 있었음. 제주시 한 마을에서는 교육대상인 선주민과 정착 주민(이주민)이 마을단위 프로그램 설계과정에 참여하고 운영도 함께 하면서 혜택도 가져가는 프로그램을 전개하기도 하였음

□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교육 지원정책 현황 및 실태, 현안과제

- 행정조직에서 운영하는 읍·면·동(마을단위)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간지원조직 및 민간에서 실시하는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교육은 각각 운영 기관의 특성과 방식에 따라 상이한 제공 현황과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고, 저마다의 과제가 도출되었음
 - 읍·면·동(마을단위)평생학습센터의 프로그램은 주민의 생활공간인 마을을 중심으로 주민 요구 맞춤형으로 운영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제한된 재원으로 인해 소수의 마을과 주민의 참여에 그치는 한계를 지님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도내 43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주로 건강과 취미활동 도모, 문화예술 향유 도모, 한국어 교육 등이 목적임. 교육이 주로 읍면동 소재지에 위치한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5인 이상 모집이 되어야 교육이 제공되기 때문에 강사, 프로그램 내용, 수강자가 거의 변함이 없고 관리 위주의 교육 운영이 이뤄지고 있음

- 문화중개소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균형발전지원센터가 3년째 추진해 온 권역별 균형발전사업의 일환임.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주민이 원하는 장소에서 교육이 가능하도록 강사를 지원하는 목적의 본 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교육 공급자, 수요자 및 공간을 매칭하는 형태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제공되고 있음. 강사 풀의 일종인 온라인 교육서비스 인력 제공 플랫폼 구축에는 기여하였으나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 제공 여부 등 교육 성과 측면은 확인이 어려움
 - 사회적경제 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사회경제적 학습을 전제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된 학습동아리에게 100만원~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임. 학습동아리 형태의 주민교육은 주민 욕구를 직접 수용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는 장점은 있지만 학습동아리 참가주민이 예산을 직접 집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은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스웨덴의 ‘스터디 서클’ 사례와 같이 교육 자체도 중요하지만 소모임 구성원으로 운영에 동참하여 리더로서 성장하기 위한 훈련과정 속에서 구성원 상호존중, 갈등관리 및 해소 방법 등을 배우고 가르치는 장이라고 할 수 있음. 예산지원에 기반한 학습동아리 지원방식과 더불어 학습동아리 등 소규모 그룹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 마련이 요구됨.
 - 도시재생 아카데미와 도시재생코디네이터 교육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임. 도시재생 아카데미는 도시재생 사업지역과 활성화 지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연 1~2회 실시하고 있으며 기초과정, 심화과정 등 단계별 과정으로 추진함. 도시재생 코디네이터는 도시재생 아카데미 졸업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전문가양성교육과정으로 연 1회 실시함. 문제점은 사업지역 및 활성화 지역 내 주민들이 점진적으로 성장, 궁극적으로는 사회적경제조직 구성과 사업화 성과를 이끌어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마을 단위 주민 교육영역에서 도출된 일반적인 문제는 마을단위 주민교육이 실제로 필요한 교육인지에 대한 검토, 실시된 교육에 대한 성과 측정이 없이

교육이 지원되고 있다는 것임. 기획의 목적과 방향성에 맞는 교육 체계가 아니라 사업에 의해, 예산에 의해 교육이 지원되고 있어 지원되는 교육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임. 단순 강의 방식에서 참여 방식으로 변환을 시도하는 한편 교육 제공 가능 인원의 적정규모나 교육 공간에 대해서도 교육 목적과 대상에 따라 융통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주민이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 제공, 강사 재교육을 통한 교육 내용의 질적 향상, 교육 수강이 추후 활동(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 지원체계 마련은 수강자의 교육 참여 및 실천 동기 부여를 이끌어낼 것임. 특히 의사소통 훈련, 상호존중 훈련, 갈등관리 훈련 차원에서 유의미한 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은 지속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기능들을 활동 속에 녹여내는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함

VI. 논의 및 정책 제언

1. 요약 논의

2. 정책 제언

가.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교육 정책 방향

나.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교육 지원 정책 과제

Ⅵ. 논의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논의

- 본 연구는 많은 사회적 변화와 새로운 도전의 시대를 맞닥뜨리게 된 제주사회는 삶의 형태가 바뀌고 있는 가운데, 특히 도시성의 강화로 분주해진 생활방식과 도외 인구유입의 증가로 인한 마을 구성원의 다양화, 그리고 생활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 양상이 나타남에 따른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마을’ 지원 정책이 투입되고 있음에 주목하였음. 특히 주민 대상 교육이 개별 사업단위별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그침에 따라 주민의 지속적인 성장지원이 부재한 여건임을 확인함. 이에 제주지역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적 역량 갖추기와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단위 주민교육 지원체제의 전면적인 혁신, 그리고 생활계인 ‘마을’중심의 삶을 실천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주지역의 공동 과제와 역할 수행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제주 마을단위 주민을 위한 교육지원 현황과 국내외 지역주민 교육지원 정책의 파악을,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의 교육지원 요구를 조사하고, 마을단위 주민을 위한 교육지원 관련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초점 집단면접을 실시하여 마을단위 주민의 교육지원 효과성 제고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음
- 외국의 주민교육 정책은 나라마다의 차이점이 있지만 대체로 일찍부터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공동체를 지향하는 교육에의 참여를 독려하는 교육환경의 조성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국가단위의 평생교육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 독일의 시민대학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거치면서 성인을 위한 교육제도로써 위치하여 시민성 강화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주 정부가 중심인 운영체제로 언제나, 누구든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든 원하는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시민대학마다 독자의 교육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운영인력이 배치되어 학

습자의 수강료, 기초자치정부와 주 정부의 예산, 그리고 연방 및 EU 지원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음

- 일본의 공민관은 1949년에 사회교육법 제정으로 실제 생활에 입각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위해 중학교 학구마다 설치하여 유년부터 노년세대까지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학습하는 ‘장’으로서 역할을 담당하였음. 일본 전후 60년을 넘어서면서 전국에 약 18,000개의 공민관이 보급되어 정착되었고, 각 공민관 마다 3명 내외의 직원이 근무하여 교육강좌를 개설하거나, 지역의 학습동아리인 자주학습집단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최근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위한 실험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음
- 호주의 지역성인교육센터는 주 단위의 지역에서 관리하며, 규모가 작은 지역일수록 그 역할이 중요해지는데,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주로 낮은 기술력과 저학력인 학습자가 주 대상으로 학습자의 접근성을 중시함. 성인지역사회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은 대표적으로 거주하거나 일하는 곳과 가까운 곳인 성인지역사회교육 센터/대학 및 TAFE 컬리지(colleges)와 부속기관 (TAFE와 ACE의 연계), 마을회관 및 지역센터, 지역 보건기구 및 노인복지회관, 노동자교육연합, 교회와 학교 등 다양한 곳에서 제공됨. 그 주된 내용은 디지털 읽기, 쓰기 및 수학 기술을 향상시키고, 자격을 얻고, 직업을 얻거나, 직업을 바꾸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받을 수 있음
- 국내 관련 정책으로 마을단위 주민교육지원체제를 마련하고 있는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경기 이천시, 경남 창원시, 경기 부천시의 운영 현황을 살펴봄. 각 지자체마다 운영 배경과 추진 과정에 따라 각자의 맥락을 가지고 자리매김 되고 있음
- 네 가지 사례는 모두 공공시설 및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교육의 상시운영체제를 마련하여 거점공간으로서의 성격과 담당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실질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있음을 확인해줌. 또한 이를 위한 지자체 내의 확고한 의지와 추진력으로 시작되어 정책 수립과 추진의 지속력 담

보가 가능했음을 알 수 있음

- 그리고 마을단위 주민교육 지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 누구든 마을 안에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과 다양한 세대별 학습 요구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의 제공이 요구됨을 알 수 있음
- 한편,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와 이천시와 청원시, 부천시의 사례는 각각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음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는 교육부 행복학습센터 사업을 시작으로 자치구의 참여를 통해 동 단위의 동네배움터를 발굴·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 기준 전체 25개 자치구 중 17개 자치구의 참여, 182개의 동네배움터를 운영함. 또 동네배움터에 동 평생학습전문가(평생교육사)의 배치로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주민생활밀착형 프로그램을 개발·보급·운영하고, 학습자 상담을 통해 주민학습을 촉진하는 운영체계를 마련함. 또한 학습-실천 프로젝트를 기획·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자치력을 기르고, 마을자원 및 학습공간 발굴·연계를 통해 지역 공동체형성을 도모함.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이 동네배움터 사업 기획·운영을 맡아 서울시 단위의 동네배움터 사업의 홍보 및 성과 관리, 사업관계자의 맞춤형 전문연수를 통한 성장 지원으로 동네배움터 사업의 확산을 도모하였음
- 이천시는 주민자치센터를 행정주도로 조례에 근거하여 주민자치학습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주민자치 업무에 평생학습 업무의 추가 반영을 통해 전문인력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였고, 이로써 주민의 교육 참여 활성화 뿐 아니라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는 성과를 내고 있음
- 청원시는 대동제를 계기로 기능이 전환된 지역의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민·관협력으로 평생교육센터(사회교육센터)의 설치·운영을 제도화하고,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작은도서관의 연계·운영을 통해 교육과 독서 문화를 통합서비스로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있음
- 부천시는 행정주도이나 전문인력이 중심인 평생학습센터의 추동으로

시범 운영사업인 학습반디를 36개 전 동지역 확산·운영과 지역주민을 학습반디 매니저(마을활동가)로 양성하고 배치하였고, 일상에서의 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특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 더불어 주민자치회와의 연계활동을 통해 주민 주도의 공동체 활동에의 지역주민의 참여를 강화하였음

- 위에서 살펴본 국내외 사례를 통해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교육 지원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마을단위의 주민교육은 나라마다의 사회적 환경과 특성을 기반으로 정책과 제도로 오랜 시간에 걸쳐 자리매김되어 왔음을 알 수 있음. 또한 국내에서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저마다의 환경과 사회적 배경을 중심으로 체계화되어 있음
- 국내외 사례들은 대부분 지역주민의 성장이 곧 지역공동체의 성장의 동력임을 전제하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특히 국내 사례들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읍·면·동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과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을 통해 평생교육정책으로서 주민자치센터와 평생교육센터, 마을도서관을 연계하여 통합적 관리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제주지역에서도 특별자치행정국의 자치행정과와 평생교육과에서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바, 타 지역 사례에서와 같이 마을단위 주민교육 지원의 활성화를 위한 통합지원체제 구축을 중심으로 정책 추진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마을단위 주민교육과 관련하여 평생교육을 비롯하여 균형발전, 마을만들기 및 마을기업, 도시재생, 관광, 문화예술 등 다양한 사업의 영역과 부서들이 연계되어 있음. 이러한 사업들 간의 연계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주민들에게는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접근성 확보와 지역사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향과 전략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읍·면소재지에 위치해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국한된 주민교육 서비스는 리 단위 마을주민이 교육에 참여하기에는 많은 제약조건이 따름. 교육에의 참여 신청 방법으로부터 시작하여 농번기에는 시간을 내기가 어렵고, 걸어서 가기에는 어려운 이동거리 등 지리적 제한성 등이 존재함. 그러므로 걸어서 갈 수 있는 공간적 범위의 생활권 단위라 볼 수 있는 리 단위 마을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주민교육 지원체제에 대한 정책적 방안 모색이 요구되며,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위한 전문적 지원 노력이 필요함
- 마을(도·농)단위 주민역량강화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하고 있음. 교육 내용은 마을지원사업의 이해, 마을지원사업 사례, 마을발전계획 수립 현장포럼과 사업 발굴 현장포럼을 중심으로 교육 강좌가 운영되고 있음.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의 혼디모영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강좌로서 매년 20여개 마을의 80여회의 교육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도시재생분야의 주민역량강화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센터와 뉴딜사업지구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주관으로 도시재생대학, 도시재생아카데미, 도시재생 뉴딜전문가, 이슈발굴형 주민교육프로그램 등 4개 영역의 교육과정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도시재생 정책과 도시재생의 이해, 도시재생에 대한 이슈 발굴, 젠트리피케이션 등 도시재생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학습으로 구성되어 있음
- 사회적경제주체 역량 발굴 및 육성사업은 사회적경제주체 역량교육으로 커뮤니티비즈니스와 사회적경제의 이해를 돕는 특강, 워크숍, 토크콘서트, 개별 컨설팅 등의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커뮤니티비즈니스학교와 구분되는 두 개 과정, 즉 마을과 주민공동체 중심의 마을(공동체)기업의 진입과 운영, 그리고 고도화를 위한 교육 과정으로 설계되어 있음. 이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커뮤니티비즈니스 학교와 마을공동체지원사업 참여 공동체 교육을 주관하고 있으며, 마을기업 교육은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주관하고 있음
- 지역균형발전사업 주체 역량강화사업 관련해서는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에서

강사지원시스템으로 강사(교육자), 주민(피교육자), 공간(교육장소)으로 엮어내는 구조의 교육 서비스 프로그램이며 핵심은 주민이 원하는 장소에서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리고 강사플랫폼에 등록된 전체 강사는 327명으로 6개 분야 26개 강좌를 개설할 수 있음. 더불어 제주문화중개소는 서귀포시 12동 지역 시민들에게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지역균형발전사업의 권역별 사업에 해당됨. 문화중개소의 문화여가 프로그램은 단기프로그램, 장기프로그램, 기획프로그램, 동호회 프로그램 등 4개 영역으로 설계되어 있음

- 농업분야 농업인역량강화교육 관련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과 제주 농업기술센터,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동부농업기술센터, 서부농업기술센터 등 5개 기관에서 운영 중임. 농업인 전문교육은 제주 농업의 가치와 경쟁력 있는 미래농업인 육성을 목표로 다양하고 맞춤형의 농업교육을 개설하여 운영 중임. 농업인 역량교육은 지역별 농업생산품목을 고려한 강좌와 공통 과정 강좌로 구분되어 있음. 또 마을단위에서 시행되는 농업인 실용교육을 통해 보다 폭넓게 농업인 기초 교육을 시행하고 있음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사업은 농촌발전을 위한 핵심인재 양성과 농촌 관광 활성화라는 정책의 체감 및 성과 제고, 그리고 도농교류 확대를 통한 농촌활력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체험마을 리더와 체험사무장을 대상으로 역량교육을 운영함
- 이와 같이 마을단위 주민교육 지원은 주민자치센터센터의 주민교육 프로그램 외에도 도시재생사업과 사회적경제, 지역균형발전, 농업분야,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추진됨. 이를 종합하여 제고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다양한 주민주체들의 교육 참여와 교육을 통해 주체들의 성장과정이 나타나야 하지만 실제로는 과정 이수에 그치고 있음. 지역이 안고 있는 다양한 이슈와 문제들을 주민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형성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설계가 필요함
 - 사회적경제 주체 역량 발굴 및 육성사업을 위해 사회적경제 주체 역량교육 과

정이 세 개의 교육과정으로 분리·운영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통합과 개별과정, 수준별, 분야별 교육과정 운영이 고려되어야 함. 이를 위해 사회적 경제 주체 역량교육 운영에 따른 결과와 효과 여부, 그리고 교육 과정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지표가 마련되어야 함

- 지역균형발전사업 주체 역량강화사업은 주민주도 학습공동체를 연결하는 강사 지원시스템의 활성화 노력이 필요함. 현재 강사 플랫폼은 구축되었지만 실제 교육과정의 개설과 교육운영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여러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음. 현재까지 강사지원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참여마을과 법인이 7개 내외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45개 법인의 1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 개설된 강좌를 살펴보면 수강생이 1인인 경우에도 강좌가 개설되어 강사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를 통해 균형발전분야 우선순위 요소,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지속가능 전달체계의 구축이 요구됨을 알 수 있음. 또한 주민수요조사 및 균형발전 수준 평가를 바탕으로 우선순위 과제로 선정된 문화 서비스가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방식인지, 또는 강사를 지원하는 방식인지 등에 대하여 내용과 운영 측면에서의 재정립이 필요함. 강사지원시스템에서 강사(교육자), 주민(피교육자), 공간(교육장소)을 연결하는 것처럼 문화중개소의 역할도 이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음
- 농업분야 농업인역량강화교육 관련해서는 농업인전문교육 운영에 따른 변화와 효과에 대한 모니터와 그 결과를 교육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요구됨. 매년 2만여 농업인이 참여하는 농업인 전문교육이 실제 농업인의 전문역량 향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농업 생산환경 변화에 어떤 변화와 영향을 주고 있는지 등의 조사연구가 필요함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사업과 관련해서는 농촌관광 참여마을의 리더 역량 제고에 대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교육 운영이 요구됨. 제주의 농촌관광은 제주관광 변화에 영향을 받음에 따라 관광 트렌드의 변화에 대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체험휴양마을협의회의 리더 교육은 농촌관광 참여주체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고 변화에 대응하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교육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하지만 리더 육성에 참여하는 마을의 주체들이 교육 수

강 동기가 미약하여 교육 이후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후속 노력이 필요함

-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논의하면, 주민교육의 참여 경험에 대해 전체의 56.7%인 170명은 참여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 주민 교육에 대한 참여의사에 대해서도 역시 응답자 중 56.5%가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민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됨. 주민대상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은 참여기간이 3년 이상~4년 미만이 전체의 41.1%로 가장 많았으며, 프로그램 참여 횟수도 20회 이상이 25.7%로 그중 가장 많게 나타나고 있어 주민교육 참여자와 미참여자 간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주민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주 이유는 직장이나 직업으로 인해 시간이 없어서와 시간이 맞지 않는다는 것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주민교육에 참여한다면,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교육을 통해 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가 1순위로 응답하였고,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도 2순위에서 우선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민교육의 방향성과 교육 내용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주민교육 참여 경험은 공동체 교육(지역이해하기: 마을 만들기, 도시재생, 마을발전정책 등)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생활예술교육(댄스 스포츠, 기체조 등 생활 스포츠, 그림, 노래, 서예 등 문화예술 교육)이었음. 참여한 주민교육은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얻기, 교육을 통해 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기,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기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주민교육에 참여한 장소로는 마을회관(복지회관, 경로당/노인회관, 마을 문화센터, 마을 문고 등)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임. 또한 주민교육 참여 경로로 '이웃 , 마을회 권유'가 전체의 50%를 차지하였고, 시·읍·면 주민자치센터(관공서), 중간지원조직(마을만들기, 도시재생, 마을기업, 체험휴양마을 등) 홍보물 순으로 나타남
- 주민교육 주관 단체별 실시 교육 참여는 마을회 및 자생단체(부녀회, 새마을회, 농민회 등)의 교육 참여가 가장 높음. 다음은 읍·면·동주민자치센터 , 농협,

농업기술원(기술센터), 문화시설(문화원, 도서관(작은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의 집 등) 순으로 나타남. 이와 함께 가장 오래 이용한 주민교육 주관 단체와 이유에 있어서는 역시 마을회 및 자생단체(부녀회, 새마을회, 농민회 등)의 교육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읍·면·동주민자치센터 교육을 오래 다닌 것으로 나타남. 그 이유는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많아서, 그리고 집과 가깝거나 교통이 편해서 로 나타남. 이는 마을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교육이 다수 진행되고 있으며, 집과 가까운 곳에서 주민교육이 제공되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음

- 주민교육 기관 시설 이용 시 불편사항으로 1순위 답변에서는 강의실이 좁고 냉난방, 환기가 잘 안됨이 가장 높았고, 옷을 갈아입을 공간이 따로 없음이 제시됨. 2순위에서는 음향, 영상, 테이블, 의자 등 교육기자재 낙후가 가장 높았고, 계단이 많고 이동약자가 이용하기 불편함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노후 교육시설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며, 제대로 교육환경을 갖출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
- 여러 기관이 주관하는 주민교육 중 교육분야별 도움정도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만족도를 보임. 그 중에 문해교육(한글읽기, 계산하기 등)이 가장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그 뒤로 외국어 교육(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 공동체교육(지역이해하기 : 마을만들기, 도시재생, 마을 발전 정책등)에 관한 교육 순으로 나타남
- 코로나-19로 인해 생긴 환경변화에서 일(직업)하지 않는 시간대의 활용은 주로 집안일, 소일거리, 실내운동 등 실내 활동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 코로나 19 종료 후 주민교육 프로그램 제공시에는 예전처럼 다시 수강하거나 참여할 것이다가 전체의 80.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주민교육의 지속 제공이 요구되고 있음을 확인함
- 주민교육 적합한 방법으로는 기존 방식인 강사의 강의를 통한 교육을 가장 선호하였고, 실습, 견학 등 참여를 통한 교육이 그 뒤를 이음.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의 주민교육 운영 방법은 지금과 같이 모여서 강사의 강의를 듣되 참여 인원수를 축소하여 교육을 지속했으면 하는 의견이 전체의 40.6%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를 통해 기존 강의식 교육방법을 더 선호하고

-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실습과 견학 등 참여 방식도 선호하고 있어 주민 참여 중심의 교육방법의 개발을 적극 고려해볼 수 있음
- 시민성 강화 중심의 주민교육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필요성 정도에 대해서 전체적인 필요성은 '보통이다'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을 나타냈는데, 양성평등교육, 다문화 이해교육, 생활기술교육 순으로 나타남. 또 학교 교육 자원봉사 참여 및 아동·청소년, 청년 등 다른 세대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보통이다' 수준으로 나타남
 - 여성 자립과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에 대해서는 참여 경험이 없다가 전체의 81.0%를 차지하였고, 여성자립과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으로 1순위에서는 여성리더쉽 교육, 미래 사회 변화 과정, 제주 여성 정체성교육 순으로 나타남. 2순위에서는 금융 경제 관련교육, 스피치 교육, 미래사회 변화과정 순으로 나타남
 - 주민의 교육참여를 높이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1순위에서 야간, 주말, 농한기 등 교육 시간의 다양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2순위에서는 생활문화, 생활스포츠등 취미와 여가 활동 증진 교육이 가장 높게 나타남. 제주지역 주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1순위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가장 높았고, 2순위에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정보제공이 높게 나타남.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교육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의 개발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기를 부여하는 정책 수립과 지원이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음
 - 한편 주민교육 참여 경험은 서귀포 지역이 참여경험이 있는 사람이 많고, 제주시 지역은 참여 경험이 없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50세~59세에서 주민교육 교육 참여 경험이 없는 대상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농어업, 임업의 직업군이 주민교육 참여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또 친구, 친척, 이웃과의 교류를 일주일에 한번 하는 집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마을대상 주민교육 참여 의사에 대해서는 40세~49세가 가장 높고, 역시 농어업, 임업의 직업을 가지고 주민교육 참여 경험이 있는 집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한편 고졸학력은 주민교육 참여 의향이 없는 집단

- 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졸학력은 주민교육 참여 의향이 있는 집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여성역량 교육 불참 이유에 대해 50세~59세가 참여할만한 프로그램이 부족한 이유의 집단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함. 주민교육 불참 이유에 대해 남성은 직장이나 직업으로 인해 시간이 없어서 불참하는 집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직장이 있는 사람도 직장이나 직업으로 인해 시간이 없어서 불참하는 집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주민교육 참여를 높이기 위한 개선사항에 대해 남성이고, 직장이 있는 집단은 야간, 주말, 농한기 등 교육기간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집단의 분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교육관련 정책 및 현장 전문가들이 초점집단면접에서 제시한 의견은 제주지역 인구 구조 변화, IT 기술 발전에 따른 학습 환경 변화 등의 사회 환경 변화, 마을 내 선주민과 정착 주민 인구 구성비 불균형 및 마을 리더(이장) 역할 확대 등 제주지역 여건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저출산·고령화 심화 현상에 따른 제주 성인 인구의 지속적 증가, 베이비부머 세대인 5060세대 및 고령인구 비중 증대로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 지원을 위해 주민과 지원기관이 함께 계획하는 주민 참여형 마을단위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가 요구되며, 지역 공동체와 공동체 구성원이 당면한 문제해결로 연계되는 교육 프로그램 설계의 중요성이 강조됨. 이를 통해 주민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로 이어질 수 있음
 - 최근에 진행되는 마을 단위 교육 프로그램들이 상대적으로 교육 목적과 교육 대상이 불분명하고 주민을 대상화하는 경향으로 주민역량교육이라는 프로그램들이 차별화 없이 실시되고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주민 참여형 마을 단위 프로그램의 도입하거나, 주민자치센터 위주의 교육 장소에서 마을 단위 마을회관, 경로당, 체험마을 강당, 복합문화공간 등으로 변화되는 사례가 생겨남
 - 그 동안 제주에서 마을단위 주민교육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온 행정

조직에서 운영하는 제주시 우리동네학습나눔터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간지원조직 및 민간에서 실시하는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교육은 각각 운영 기관의 특성과 방식에 따라 상이한 제공 현황과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고, 저마다의 과제가 도출되었음

- 마을 단위 주민 교육영역에서 도출된 일반적인 문제는 마을단위 주민교육이 실제로 필요한 교육인지에 대한 검토, 실시된 교육에 대한 성과 측정 없이 교육이 지원되고 있다는 것임. 기획의 목적과 방향성에 맞는 교육 체계가 아니라 사업에 의해, 예산에 의해 교육이 지원되고 있어 지원되는 교육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임
- 단순 강의 방식에서 참여 방식으로 변환을 시도하는 한편 교육 제공 가능 인원의 적정규모나 교육 공간에 대해서도 교육 목적과 대상에 따라 융통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주민이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 제공, 강사 재교육을 통한 교육 내용의 질적 향상, 교육 수강이 추후 활동(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 지원체계 마련은 수강자의 교육 참여 및 실천 동기 부여를 이끌어낼 것임. 특히 의사소통 훈련, 상호존중 훈련, 갈등관리 훈련 차원에서 유의미한 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은 지속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기능들을 활동 속에 녹여내는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함

2. 정책 제언

- 근래 사회 변화가 가속화 되면서 ‘마을’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집중되고 있음. 이는 ‘공동체’로서 가치의 재발견과 함께 코로나-19 상황의 지속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상의 회복’과 ‘삶의 안전망’이 되는 ‘공간’이자 사람 간의 ‘관계성’을 내포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음
- 마을공동체에서의 학습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정책단위의 목표실현을 위한 교육 제공 서비스를 넘어서 주민이 스스로 변화된 사회 안에서 주체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 갖추기와 동시에 함께 더불어 살아

가는 마을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무와 역할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함

- 마을단위 주민교육은 거주지를 중심으로 걸어갈 수 있는 생활권 범위에서 언제든지 원하는 학습 참여의 기회 제공으로 학습의 ‘일상성’을 보장하고, 주민의 사회적 변화 대응을 위한 개인의 성장과 지속가능한 공동체 형성을 위한 방향성을 지향해야 함
- 본 장에서는 국내외 지역주민 교육지원 정책,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교육 현황 및 지원정책, 마을단위 주민 대상의 구조화된 설문지 조사 및 FGI(Focus Group Interview, 초점집단면접) 조사 결과, 전문가 자문내용 그리고 연구진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교육의 활성화 및 정책 대응 과제들을 정책과제들을 제시하였음

가.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교육 정책 방향

- 제주특별자치도가 향후 마을단위 주민 교육지원의 효과성 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은 크게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교육 지원체제 구축, 주민교육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환경 조성, 주민교육의 질적 향상, 학습 결과의 지역사회 실천 순환과정 마련으로 제시함

1) 마을단위 주민교육 지원체제 구축

- 제주지역 마을단위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유·아동부터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에 이르는 인구로 구성되며, 선주민과 이주민, 여성과 남성, 부모와 자녀, 고학력자와 저학력자,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직장인을 비롯한 농업인·수산업인과 관광업 등 종사자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지닌 구성원들의 집합체임. 즉 마을은 다양한 특성을 지닌 구성원들이 함께 살고 있는 생활공간이자 삶을 일구어가는 생활세계이자 지역공동체임. 그러므로 마을에서의 주민교육은 다양한 대상과 영역, 그리고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이뿐만 아니라 급격한 사회적 변화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삶에 이르기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 근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

되면서 사회적 여파의 막강함을 체감하였음. 더불어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음.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를 이해하고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그러므로 마을에서의 주민을 위한 교육은 다양한 주민의 특성을 고려하고, 주민의 요구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변화에 따라 주민에게 필요한 교육을 모두 포함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마을단위 주민 요구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운영 주체와 예산 및 공간의 확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운영 성과 관리 및 평가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종합 지원체제의 구축이 우선 되어야 할 것임

2) 마을단위 주민교육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환경 조성

- 마을에서 주민의 교육 참여 활성화를 도모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은 주민 교육 공간의 편의성 등을 고려한 교육환경의 조성임. 앞서 마을 주민 대상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주로 마을회와 연관된 교육과 마을회관에서 실시된 교육 참여가 가장 많았으며, 향후에도 교육실시 장소로 집과 가까운 곳인 마을회관을 1순위로 희망함. 이와 같이 마을회관을 비롯하여 마을 내에서 주민들의 생활공간과 가장 가까운 근거리에 학습공간이 위치할 수 있게 하여 주민의 교육 참여의 접근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중요함
- 마을 주민교육 공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한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함. 주민들이 참여하는 교육과정의 특성과 교육내용에 따라 강의 및 실습, 발표와 토론 등의 활동을 원활하게 전개할 수 있는 교육 공간인지, 강사 및 학습자 간의 시청각 요소가 최적화되어 있는지 여부 등 주민교육 공간의 확충 및 개선이 필요함
- 또한 마을단위 주민교육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정보제공이 체계 마련이 요구됨. 대부분 마을 교육 참여 경로가 이웃의 권유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바,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확보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교육 참여 동기를 유발할 수 있음

3) 마을단위 주민교육의 질적 향상

- 마을단위 주민교육의 효과성 증진은 주민교육의 제공 범위와 내용의 수준에 따라 달라짐. 이를 위해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의 개발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기를 부여하는 정책 수립과 지원이 요구됨. 마을단위의 주민교육은 개인 학습자로서의 주민이 희망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뿐만 아니라 주민이 마을 구성원으로서 갖춰야할 역량 갖추기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또한 마을 구성원인 주민들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여 살아가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 즉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을 단위의 주민교육 참여자 중 농업과 임업 관계자가 교육 참여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마을에는 농업과 임업 종사자를 포함하여 자영업 및 서비스업을 비롯하여 직장인, 전업주부도 마을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음. 그러므로 읍·면지역이라 해서 농촌지역으로 규정하여 농업 관련 교육만을 제공하는데 그쳐서는 안 될 것임. 또 마을단위 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되는 단발성, 일회성 교육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민교육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대한 목표와 내용 변화를 통해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이 요구됨

4) 학습결과와 지역사회 실천 순환과정 마련

- 주민의 성장은 개인을 넘어서 속해 있는 가족과 집단, 공동체의 성장으로 이어짐. 즉 마을과 지역사회의 성장·발전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성취에서 공동체의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활동 참여 계기 마련이 제공되어야 함
- 이를 위해 주민 요구를 반영한 교육 지원뿐만 아니라 주민과 지원기관이 함께 계획하는 주민 참여형 마을단위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가 요구되며, 지역 공동체와 공동체 구성원이 당면한 문제해결로 연계되는 교육 프로그램 설계의 중요성이 강조됨.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민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로 이어질 수 있음

- 마을단위 주민교육은 교육 참여 주민들이 지식 습득 과정에 머물기 보다는 배움의 결과가 나눔의 실천을 통해 내재화하여 거듭 성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지역사회문제 해결 노력 전개로 이어질 수 있는 촉진 활동의 지원이 요구됨

나.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교육 지원 정책 과제

- 제주지역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적 역량 갖추기와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단위 주민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해 제주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해나가는 사회적 노력이 중요해짐. 이를 위한 마을단위 주민교육 지원 정책의 새로운 방향 설정에 따른 향후 정책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교육 지원의 효과성 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들은 앞서 언급한 정책방향과 연계하여 마을단위 주민교육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주민교육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환경 조성, 마을단위 주민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주민의 학습-실천-성장의 선순환과정 중심의 마을공동체 형성으로 나누어 제언하였음

1) 마을단위 주민교육 지원체제 구축 및 제도 개선

- 사회변화의 가속화로 발생하는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마을’ 지원 정책과 함께 각종 주민 대상 교육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주민 성장지원은 부재한 여건임. 더불어 제주지역 평생교육 기관도 동 지역 중심의 배치로 읍·면단위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가 매우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음
- 특히 제주지역은 동지역을 비롯하여 읍·면의 리 단위 마을 중심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을 중심의 주민교육 지원체제의 형성이 중요함. 그리고 마을단위 주민 요구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서 기존 주민교육 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비롯하여 현안으로 제기되는 정책 과제의 반영과 제도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함

□ 마을단위 모든 주민대상으로의 교육 지원 접근 필요

- 마을에서 살아가는 주민은 마을의 역사·문화와 경제 활동을 비롯한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구성원임. 그 동안 마을에서 진행되는 교육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한 교육이 다수를 이루어 전 주민 대상의 교육 제공은 매우 제한되었음
- 지난 2010년을 기점으로 제주지역에 늘어난 이주 정착민들로 인해 기존 마을의 정주민보다 이주 정착민이 많은 마을이 생겨나기도 하였음. 또한 노인 인구 구성비가 초고령 사회로 들어선 마을이 읍·면지역에 대수 편중되어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마을의 인구구성의 변화로 제주지역은 새로운 과제들의 등장은 또 다른 도전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임
- 제주지역의 유·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등 모든 주민이 제외됨 없이 교육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적 관점에서의 교육 지원이 요구됨. 이는 항상적으로 제주사회에서 제기되어 온 읍·면지역의 교육격차 해소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적 편차를 줄이는 적극적 투자로서 제주지역 내의 마을단위 균형발전을 이루는 과정이 될 것임

□ 마을단위 주민교육 지원 사업 간의 연계와 행정 부서 간 역할 정립 및 제고

- 앞서 살펴 본바와 같이 마을단위 주민교육 지원은 평생교육을 비롯하여 주민 자치, 지역균형발전, 농업인 역량강화, 마을만들기 및 마을기업, 도시재생, 관광, 문화예술, 농촌휴향마을, 문화예술 등 다양한 사업들이 마을에 적용되어 실시되고 있음. 즉 각각의 정책 및 사업들의 추진과정으로 다양한 교육들이 마을 주민들에게 제공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교육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교육 참여를 희망해도 제한된 정보 제공으로 인해 참여의 어려움을 제기하거나 원치 않는 교육에 '동원'되었다는 인식을 하고 있음
- 마을단위 주민교육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 부서가 <표 VII-1>에서와 같이 다양함에 따라 행정 부서 간의 사업추진 내용과 과정에 대한 사전 협의를 거쳐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그 결과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뿐만 아니라 주민의 참여 확대와 자발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임. 이를 위해

서는 주민의 교육 지원에 관한 중간 매개자이자 조정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행정부서와 실행 기관의 지정이 요구됨

〈표 VI-1〉 마을 주민교육 지원사업 관련 운영 현황

마을 주민 교육 지원사업	소관 부서	실행 기관
읍·면·동평생학습센터 (우리동네학습나눔터, 마을 배움터)	도 평생교육과, 제주시 자치행정과,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주시 직영(평생학습관), 서귀포시 직영(평생학습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도 자치행정과, 행정시 자치행정과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마을만들기 주민역량강화	도 자치행정과	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	도 도시계획재생과	도 도시재생센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회적경제주체 역량교육	도 경제정책과	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지역균형발전 주체역량강화 및 문화중개소	도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농업인역량강화교육	도 농업기술원	제주, 서귀포, 동부, 서부 농업기술센터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도 자치행정과	도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지역 문화예술교육 지원	도 문화정책과	제주문화예술재단

□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교육 지원체제 구축

- 마을 주민교육 지원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의 일환인 평생교육 전달체계를 도입하는 방식의 마을단위 주민교육 지원체제 마련이 요구됨. 앞서 국내외 사례를 통해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 쌓기와 다양한 주민의 요구를 수렴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항상적으로 제공되는 제도적 접근의 중요성을 확인함
- 제주에서도 주민자치센터 및 마을단위 교육지원시설(마을회관, 경로당, 마을문고) 등의 공간과 주민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생활권의 평생학습센터로서 주민자치센터의 평생교육 기능의 강화를 지향하는 지원

체제가 필요함. 도내 43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가칭)읍·면·동 평생학습센터(주민자치학습센터)로 활용하는 마을단위 주민교육 지원체제가 필요하며,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과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지원을 담당할 수 있음

- 이와 함께 서울특별시, 경기 이천시 및 부천시, 경남 창원시와 같이 공동체 구성원과 공동체의 현안을 찾아내고 해결하는 방식이 교육과정에 반영된 교육 프로그램 확대, 요구조사 등 촘촘한 설계가 요구되는 주민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서 교육 기획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인 평생교육사의 배치가 필요함. 평생교육사 배치를 통해 마을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생애주기 프로그램 및 유관기관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주민교육의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음
- 또한 전담 전문인력(평생교육사) 외에 마을주민이 자원활동가로 참여하는 지원체제(부천시의 학습반디 매니저)를 마련하여, 일상에서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마을 단위에서 주민 자치 역량의 강화와 훈련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제도 마련 및 재원의 확보가 요구됨
- 이와 같은 지원체제 구축을 통해 일상에서의 시민교육(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통해 지역의 리더 발굴 및 양성을 기대할 수 있음. 이를 종합하여 마을단위 주민교육 지원체제 구축을 제시하면, 다음의 <표 VI-2>와 같음

<표 VI-2>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교육 지원체제(안)

구 분	세부사항	내용
교육 공간 (잠재)	중규모(주민센터)	·제주시 지역 : 22개 읍면동 주민센터 ·서귀포시지역 : 11개 읍면동 주민센터
	소규모(마을회관, 노인회관, 새마을문고)	·제주시 읍면지역 : 338개소 ·서귀포시 읍면지역 : 250개소
운영인력	전담인력	·교육기획자(평생교육사) 배치(주민센터 당 1인/총 43명) - 프로그램 기획 운영

		- 유관기관 연계, 마을 주민과 마을 주민교육 콘텐츠 그룹 매개 활동 전개
	주민 활동가	·100여 명의 마을활동가 활용/월00시간
전담인력 역할	마을특화 프로그램 제공	·요구조사(교육요구 수렴) ·지역 자원발굴 및 연계 ·지역 특화 프로그램 기획 운영 ·지역문제 해결형 프로그램 기획 운영
	생애주기 프로그램 제공	·지역 주민의 생애주기 프로그램 기획, 운영 및 관리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소모임 활동 지원
	유관기관 연계 프로그램	·도내 중간지원조직과 연계 협력 ·지역문제 해결형 프로그램 공동 기획 운영
주민 활동가	마을자원 발굴, 강사 지원	·마을 공간 및 자원 발굴 ·인력(강사, 교육 콘텐츠 그룹) 플랫폼 운영/지원 ·마을강사 발굴 및 관리, 강사-프로그램 매칭 등
운영체제	주민자치연계형	평생교육과(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 지원
담당부서	도 평생교육과, 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기대효과	·일상에서의 시민교육(평생교육) 활성화 ·문제해결형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다각화·다양화된 마을단위 문제 개선 ·마을 활동가, 지역 활동가, 지역 지도자를 양성하는 토양으로서의 마을단위 주민교육프로그램 위상 강화	

□ 마을 주민교육 지원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

- 위에서 제시한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교육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마을 주민 교육의 지원을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행정(도 평생교육과, 행정시)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반영하여, 전담인력 인건비 등 경비 보조 및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함
- 경기 부천시시의 경우, 다음과 같이 ‘부천시 평생학습 기본 조례’에 제5장 동 평생학습센터에 제24조(설치 및 운영), 제25조(기능), 제26조(운영 요원)를 두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

〈표 VI-3〉 부천시 평생학습 기본 조례의 동 평생학습센터 반영 내용

구 분	조 례	내 용
제 5 장 동(洞)평 생 학 습 센 터	제24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21조3에 따라 시민의 근거리에서 평생학습 접근성 향상과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주시 지역 : 22개 읍면동 주민센터
	제25조(기능)	동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자치회 연계협력으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특성화 및 학습공동체 육성 지원 2. 시민학습동아리 육성 및 활동지원 3. 시민교육 및 인문학 강좌 운영 4.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교육 운영 5. 학습상담소 운영 및 시민역량진단 개발 6. 그 밖에 평생학습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6조(운영 요원)	시장은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대부분 마을단위의 주민교육 사업이 도 정책사업의 필요에 따라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마을에 적용되어 왔음. 실제 정책과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하향식으로 적용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겠으나, 마을의 요구를 반영하여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주민교육 사업이 마련되어 시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함.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을 주민의 관점에서 필요한 교육을 요구하여 시행할 수 있는 경험의 축적을 통해 마을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주민역량강화 사업의 경우에는 마을단위 교육수요 조사를 통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단발성, 일회성 교육의 한계를 벗어나고 못하고 있음. 특히 공모사업 발굴하는 과정으로 역량강화사업이 진행되거나 행복마을콘테스트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 주민교육예산이 투입되고 있음. 무엇보다 교육 참여자의 참여 동기, 학습공동체 형성의 요구가 반영된 교육 강좌 개설이 요구되는 것임. 주민교육 과정이 지나치게 사업 목적 수행 위주로 설

계되어 있다면 그 자체가 참여 동기의 한계로 나타나고 있음. 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관심사와 요구 중심의 교육운영을 전제로 하는 사업 추진 방식의 개선이 필요함

2) 주민교육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환경 조성

- 주민교육의 참여 기회 확대는 기존 아동·청소년을 위한 초·중등 학교에서의 교육기회 제공과 같이 공공 지원체계로서 언제든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되어야 함. 학교 교육은 제도적 측면의 형식 교육이라면, 평생 교육 영역에서는 형식교육 뿐만 아니라 비형식교육, 무형식교육을 포함하고 있음. 주민 누구나 원하거나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 권리로서 접근되어야 하며, 이는 우리나라 헌법과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을 통해 이미 보장하고 있음
- 무엇보다 학교 졸업 이후의 계속교육(평생교육)은 사회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학력이 높은 특정한 계층의 전유물이라는 인식부터 개선되어야 함. 급격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 누구나 평생에 걸친 학습이 요구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임.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이 살고 있는 생활공간 가까이에서 언제든지 원하는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주어지는 것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조건인 것임

□ 주민 교육 참여 확대를 위한 종합 정보 제공

- 마을에서의 주민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위해, 무엇을, 왜, 어떻게 교육이 진행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 우선되어야 함. 무엇보다 주민의 관점에서 필요한 교육을 비롯하여 마을에 지원되는 정책사업 및 관련 교육 정보를 집약한 종합적 정보 제공이면 그 실효성이 커질 수 있을 것임
- 더불어 마을 주민교육 지원 운영체계에 대한 이해 정보, 아동·청소년, 중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대상별, 생애주기별 지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행정에서의 지원 사항과 주민 생활전반에 걸친 정보를 통해 관련 사업 간의 연계와 활용 가능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음

- 마을단위 주민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부재하거나 부정적 경험을 한 주민들의 경우는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된다고 해도 교육 참여의 필요성을 각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주민들이 쉽게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인책과 방안을 모색할 필요 있음
- 마을에서의 주민교육 경험에 대한 설문에서 마을주민 간의 소개와 추천으로 참여한 경우가 많음을 확인하였음. 이는 마을이 생활공간으로서 주민 간의 일상적 교감과 친밀감이 형성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함. 주민교육에 대한 입소문이 가장 효과적인 홍보 수단이 될 수도 있으나 근래 마을에 정착한 이주민의 경우는 정보의 소외감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그러므로 주민의 특성을 고려하여 마을단위 정보 전달 방법을 체계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또 인쇄물과 이메일, 전화 상담 등 다양한 홍보 방법의 활용과 이용자 중심의 쌍방향 소통 채널 확보를 통해 종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마을 교육 공간 조성 및 배치
- 마을단위의 주민교육 공간은 교육 실시 공간을 넘어서 마을 주민의 만남과 소통의 공간이자 지역사회 문제를 토론하고 실천 방안을 논의 하는 구심점이 되는 공동의 공간이기도 함. 그래서 더욱 열려있어야 하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여 공동체에 기여함으로써 마을 공동체를 느끼고, 확인할 수 있음으로써, 그 무형의 실체를 체감하여 확인할 수 있는 공간임
-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교육을 제공하는 주민자치센터가 있으나, 읍면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어 그 외 리 단위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별도의 교통수단을 이용해야만 참여가 가능함. 이로 인해 리 단위 마을 주민의 참여 여건은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음. 특히 생업과 병행해 교육 참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걸어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 위치가 우선되어야 하며, 실제 설문 응답에서도 마을회관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었음
- 마을의 구성원인 주민들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마을의 유형·무형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존에 마을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간으로서 걸어갈 있는 근거리에 있는 마을회관

이 가장 애용되고 있는바, 마을회관에 유휴 공간을 확보하여 교육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함. 이외에 마을회관과 연계 운영이 되고 있는 마을(작은)도서관과 경로당 공간도 주민 교육공간으로 활용 가능할 것임

- 제주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공공의 주민편의시설이 전 지역에 기 배치되어 있음으로 해서 이를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함. 실제 각종 정부 지원 정책과 관련해 특정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되어 있는 많은 시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관련 사업의 이해 관계자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어 모든 주민들이 활용하기에는 일정한 거리감이 형성되어 있음. 향후 이러한 공간들을 발굴하여 주민들을 위한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할 수 있는 마을 주민의 교육공간으로의 전환을 통해 사업 간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임

□ 마을단위 주민 교육 시설 확충 및 학습 환경 조성

- 마을 교육 공간을 마을에 위치한 유휴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설의 확충 및 보완을 통해 교육 효과를 증진하는 노력이 요구됨. 특히 마을회관이 마을 주민이 보다 쉽게 교육 참여하기에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으나 대부분 교육 시설로서는 부족한 여건을 지니고 있음. 이는 마을회의 임원 회의와 주민 행사를 위한 공유 공간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임
- 그 동안 마을에서 실시된 주민교육 대부분이 마을회관의 회의실을 활용하여 진행되었으나, 강의실로의 활용에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용이 어렵거나,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많은 한계가 나타났음. 주민교육 참여시 이용한 마을의 기관 시설에 대한 설문 답변 중 강의실이 좁고 냉난방, 환기가 잘 안된다는 의견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옷을 갈아입을 공간이 따로 없음이 제시되었음. 이를 고려하여 교육시설 전용 공간을 확보하여 마을 주민교육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접근이 필요함
-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매년 공공행정에서 실시하고 있는 마을복지회관 유지보수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고려할 수 있음. 이 사업은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간 공모를 통해 마을회에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고유의 기능을 유지하는 건축물로서 마을회관 용도의 건축물이나 내부시설에 한 해 지원하고 있음. 그리고 장비지원의 경우 내용연수

가 경과되고,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장비에 한해 지원하여 노후된 마을복지회관 유지보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음

- 더불어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근래 늘어나는 마을에 위치한 동네서점과 책방들과 연계한 주민교육 공간으로의 확장도 고려해 볼 만함. 무엇보다 독서토론을 중심으로 하는 학습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할 것임

□ 교육과정 특성 및 내용, 방법에 따른 교육 기자재 확충 및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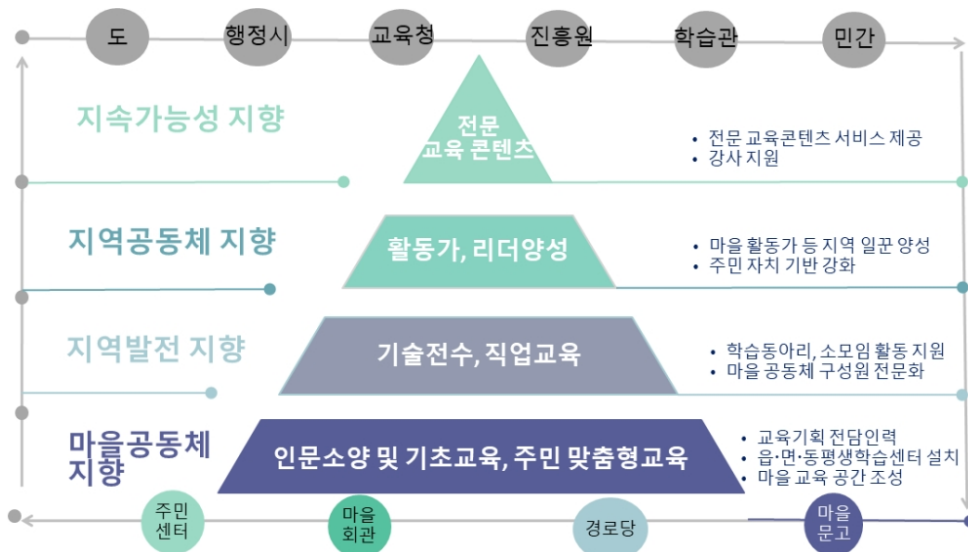
- 주민교육의 효과성 증진을 위해서는 좋은 교육과정 및 강사의 확보에 그치지 않고, 교육과정별 운영 특성에 맞는 교육 기자재 마련이 요구됨. 앞서 주민 설문 응답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음향, 영상, 테이블, 의자 등 교육기자재 낙후가 높게 나타났으며, 시설 내 계단이 많고 이동약자가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노후 교육시설에 대한 개선과 교육환경 갖추기를 제시함
- 교육 참여자들에게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해서는 관련한 교육 기자재의 확보가 필요함. 교육프로그램 운영 중에 교육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빔 프로젝터와 스크린 장치, 강의용 컴퓨터 설치, 비대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노트북과 인터넷 연결망 등 기본 환경 갖추기임. 대부분의 주민자치센터에는 교육기자재들이 설치되어 있으나 마을에서는 미비한 상황임.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모든 마을에 교육기자재를 갖추기는 어려움이 예상되나 점차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으며, 우선적으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하거나 공공 교육지원체계를 통해 교육기자재를 대여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의 마련도 고려할 수 있음

3) 마을단위 주민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 제주지역 마을 단위의 주민교육은 앞서 논의를 통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에 따라 기 실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또한 각각의 운영주체들에 의해서 매우 다양한 영역의 교육 프로그램들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주민의 성장 지원을 위한 접근보다 각 사업 추진 목적을 위한 수단적 과정으로서 적용된 주민교육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음. 이와 같이 마을에서의 주민을 위한 교육지원은 나름 양적으로 확대되어 왔음을 알 수 있음. 이 지점에서 주민교육을 “왜?”하는가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요구되는 바임

- 다양한 주민교육이 실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동안의 주민교육을 통해 주민들이 사회변화와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한 이해, 그리고 당면한 삶의 문제 해결과정에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왔는지, 더불어 성숙한 시민성을 함양하고, 함께 살아가는 포용력을 갖추므로써 공동체 형성을 지향하는 공공적 가치를 증진해 왔는지에 질문이기도 함
- 기존 주민교육이 대부분 강사의 내용 전달 중심의 강의식으로 진행되면서 주민의 수동적 참여로 인해 교육적 성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주민을 교육의 주체로 바로 세우기 위한 주민 참여형 교육으로의 전환이 요구됨. 이를 위해서는 주민의 수요와 요구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을 비롯하여 강사와 참여 주민간의 상호 소통 중심의 토론과 체험학습, 실습 등의 다양한 교육방법 적용으로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단위 주민의 교육지원 방향성 정립 필요
- 읍·면 단위에서 주민 대상 교육은 대체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마을단위 주민교육은 특정한 사업의 수행을 담당하는 기관 및 단체들이 제공하는 교육으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음. 이를 통해 마을단위의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교육은 미비하다고 할 수 있음. 이는 그 동안 생활공간 중심의 주민 교육은 주민의 삶의 필수적인 요소이자 권리라는 측면에서의 접근이 부재하였다는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이제 급격한 사회변화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당면 과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 저출산과 고령화, 인공지능의 등장, 디지털화 등은 세계화 현상과 함께 삶의 방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따라 그 어느 시대보다 마을공동체의 가치가 중요시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집중되고 있음. 또한 개개인의 역량이 곧 지역사회와 국가의 성장 수준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평생학습이 강조되고 있음
- 그러므로 그 동안 추진해온 주민자치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특정한 주제 중심의 주민교육에 이르기까지의 현황 분석과 재구조화를 통해 마을(리) 단위 주민교육으로의 확장이 요구됨. 그 주민교육과정 운영 체계는 다음의 [그림 VI-1]에서와 같이 주민의 성장 지원을 위한 제도적 접근이 바람직함

- 마을단위 주민교육의 지향점은 기본적으로 마을 주민의 관점에서 마을공동체 기반의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음. 또한 인문소양 및 기초교육과 주민 맞춤형교육을 토대로 기술전수 및 직업교육, 활동가 및 리더양성, 그리고 전문교육콘텐츠의 제공으로 진행할 수 있음. 그 동안의 주민교육에서는 대부분 인문역량 기본교육 및 주민맞춤형 교육이 미비한 상태에서 여타의 교육과정들이 비정기적으로 제공됨으로써 교육과정 간의 연계성 확보가 어려웠다고 할 수 있음. 그러므로 향후 특정한 목적 수행을 위한 주민교육 운영도 마을단위 주민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자리매김하여, 연계 운영을 통해 교육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임



[그림 VI-1]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교육과정 운영체계

- 주민의 생애주기별 성장 지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 마을에는 유·아동부터 청소년, 여성, 청년, 중장년, 노년 등 다양한 구성의 주민이 살고 있음. 또한 농업인을 비롯한 다양한 직군의 직업을 지닌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음. 마을은 마을주민 누구나 저마다의 고충과 어려움을 지니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기도 함
- 우리는 인간이 살아온 역사를 통틀어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오래 살아가는 수

명 연장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음. 이로 인해 누구나가 삶의 주기의 변화를 겪고 있음으로 해서 달라진 삶의 의제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함

- 특히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소멸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여건을 고려할 때, 유·아동과 아동청소년의 성장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과 그 부모를 위한 자녀교육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요구됨.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속으로 가정과 마을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었음. 또한 청년에게는 자신의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직업적 경험과 다양한 체험의 기회 제공, 그리고 중장년에게는 길어진 베이비부머로서 중장년의 삶의 특성과 의제, 새로운 경제적 환경에 대한 이해, 초고령화되는 노년 대상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요구됨. 또한 마을에 정착한 이주민을 위한 지역사회 이해과정 등을 포함한 주민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는 마을교육 지원체계의 구축도 요구되고 있음

□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이해 및 자치역량 강화, 리더십 훈련 과정 마련

-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주민 참여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마을에 대한 자긍심으로부터 시작됨. 즉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과 마을의 역사·문화 이해를 통한 정체성 강화와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함.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체 지향의 교육과정의 제공이 필요함. 실제 각 마을마다 마을의 역사를 담은 발간된 리지(里誌)를 활용하고, 마을의 역사를 기억하는 어른을 강사로 모셔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음
- 또한 마을리더의 양성은 마을 주민의 자치역량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 주민 자치 역량의 강화는 주민의 지역 공동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지역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방법, 소통과 협상력, 그리고 높은 시민의식 갖추기에 있을 것임. 이는 자치위원의 선출 목적을 위한 특정 시간으로 주어진 교육 과정으로 담아내기 어려움. 무엇보다 마을단위에서 일상적인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주민자치의식과 리더십 훈련 과정을 마을 주민교육 프로그램으로 마련함으로써 마을의 현안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주민참여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

을 제공할 수 있음

- 학습과 실천의 경험을 제공하는 학습동아리 활동 및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지원
- 주민교육에서의 학습의 과정은 지식 전달과 전수의 과정을 넘어서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경험을 통해 비로소 완성되는 경험학습의 과정임. 이는 교육을 개인의 입신양명의 수단으로 여겨온 사회적 인식을 넘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상호학습의 경험을 쌓는 집단학습 과정으로서의 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해 구현할 수 있음. 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해 공동의 주제 중심의 숙고와 토론, 나눔 활동 전개 통한 지속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음
- 학습동아리에서 학습은 ‘민주적인 조건’위에서 이루어짐(박상옥 외, 2014). 민주적 ‘학습조건’에서 학습동아리 참여자들은 지식, 태도, 가치 등을 누군가로부터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경험을 나누고, 생활에서 ‘실천하는 과정’에서 학습함. 이를 통해 학습결과로 개인의 지적 성장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변화와 실천적 지식을 만들어가면서 개인과 집단 모두의 성장을 함께 일구어갈 수 있음
- 또한 마을의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의 지원은 주민들이 구체적인 생활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하는 실천과정임. 이를 통해 마을의 환경 정비, 생활쓰레기 줄이기, 육아 품앗이, 공유경제,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활동 등 다양한 참여 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발굴하여 해결해가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게 함. 성인들은 자신들의 요구와 관심이 학습을 통하여 충족되는 경험을 하게 될 때에 학습에 대한 동기화가 활발해짐
- 이와 같이 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해 의사소통과 상호존중의 훈련으로 갈등 해소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마을 구성원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넓혀가기 때문에 마을공동체 형성의 토대가 됨. 더불어 마을의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주민 스스로 마을공동체의 주체로서 성장해 갈 수 있음

4) 주민의 학습-실천-성장의 선순환과정 중심의 마을공동체 형성

- 오늘날의 마을공동체는 단순히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구성체에 머물

지 않고, 마을의 구성원들이 지속가능한 생활터전을 만들어가는 노력의 과정이자 그 산물로서 일궈고 있음. 인구소멸이 예측되는 농촌 마을 살리기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도시 생활공동체 중심의 다양한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노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마을공동체 형성을 지향하고 있음. 이는 마을의 구성원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마을공동체의 일원으로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구체적인 실천 활동을 통해 성취해갈 수 있는 것임. 또한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있다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일상적 학습을 통해 배운 것을 실천하는 과정이 우선될 때 실현 가능성이 열려 있음

- 근래 제주지역이 자연 경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부러움의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실상은 4.3사건을 비롯한 근현대사의 아픔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지역임. 그리고 한라산을 중심으로 산남·산북으로, 그리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행정권역으로 생활권이 나뉘어 있어 다양한 생활·문화적 특성을 지닌 지역임. 실제 각 마을마다 나름의 역사와 생활방식, 언어, 풍습을 비롯하여 농산물 재배 작물과 경제활동 등 매우 다양한 특성을 발견할 수 있음. 그러므로 마을마다의 역사·문화적 자산을 발굴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총체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제주사회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이기도 함
- 제주의 리 단위 마을은 대다수의 마을이 1,000명 내외의 인구로 구성되어 있거나 5,000명이 넘는 마을도 존재함. 이는 타 시·도의 읍·면 단위의 인구가 1,000명 내외인 곳이 다수인 것과 비교하면, 제주의 리 단위 마을의 규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더불어 면 단위의 마을에서 고령인구의 현저한 증가 및 마을 내 선주민과 정착 주민(이주민)의 인구 구성비 불균형, 마을 리더(이장) 역할 확대 등 제주지역 여건을 고려할 때 리 단위의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삶과 학습 현장으로서의 마을의 복원과 마을공동체 형성 지향

- 우리사회에서 ‘주민의 자치활동을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지원은 2000년부터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사무의 일환이

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음.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으로 생긴 여유시설과 공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각종 문화·복지·편의 시설·운명을 통해 주민의 복지 및 편의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음. 이러한 취지는 행정력에 의한 운영체제로 자리매김 되면서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공간으로 인식하기에 이르렀음

- ‘지역공동체’는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상호 간의 작용을 통해 형성된 연대감을 바탕으로 공동으로 추구하는 가치와 제도를 위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 하에 살아가는 집단’으로 설명되는데, 실질적인 ‘자치 활동’에 근간을 두고 있음. 이를 통해 지리적 영역의 공유, 주민 간의 상호작용, 공통의 가치체계와 목표, 연대감의 형성이라는 4가지의 세부 요소를 확인할 수 있음. 즉 주민 자신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범위일 때 비로소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임. 그러므로 주민들의 ‘자치 활동’의 장은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을 기초단위로 삼아 펼쳐질 때 비로소 체감할 수 있으며, ‘실사구시’를 추구할 수 있음에 따라 ‘마을공동체’ 형성이 우선 되어야 함. 주민의 실질적 연대와 통합은 공공행정의 단위를 넘어서 주민의 일상적인 삶이 펼쳐지는 ‘마을’의 복원으로부터 시작됨. 이는 곧 주민이 자신의 생활공간인 마을에서 ‘자치 활동’의 참여를 통해 배우고 실천하는 장이 마련하는 것으로 주민과 공동체의 지속 성장의 토대가 될 것임

□ 마을 주민교육의 실질적 주체로서의 마을회의 기능 강화

- 제주지역은 읍·면·동, 법정동·리, 행정동·리, 자연마을로 구분하고 있는데,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 행정동 31개와 행정리 172개가, 자연마을이 동지역에 108개, 읍면지역에 456개로 모두 564개로 구성되어 있음. 대체로 마을 주민이 마을총회를 통해 이장을 선출하지만, 행정(읍·면·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어 이중적 구조로 되어있으며, 행정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하여 마을회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장 1인이 배치되어 있음. 마을회가 소유하거나 활용하는 마을회관인 마을복지회관이 410개소(제주시 249, 서귀포시 161)이 있어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 이와 같이 제주의 리 단위 마을에는 마을회를 중심으로 마을회관이 설치·운

영되고 있으며, 주민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 내에 주민교육 공간을 기 확보하고 있음. 이는 주민들이 교육에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최적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자치센터보다 마을회가 주민교육 추진 주체로서의 정립이 더 바람직함을 보여주는 것임. 반면에 마을회에서 직접 주민교육을 기획하여 운영하기에는 담당인력의 미 배치 등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것이 현실임. 그러므로 마을회에서는 연간 주민의 교육 요구 조사와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방향은 설정하여 마을 자치 활동의 일환으로 공식화하고, 실제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은 공공적 지원체계를 통해 실현할 수 있음

□ 마을 주민교육 지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마을 주민교육에 참여한 주민들이 설문에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얻기, 교육을 통해 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기, 공동체 구성원으로 소속감을 느끼기 등을 우선적으로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바와 같이 다양한 주민의 요구를 확인할 수 있음. 단지 새로운 지식 습득과 기술 익히기에 국한하지 않고,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일체감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임
- 마을 주민교육은 주요 참여 대상이 성인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교사 중심의 학교교육 방식과는 다른 성인학습의 특징을 고려해야함. 앞서 설문에서 주민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직장이나 직업으로 인해 시간이 없어서와 시간이 맞지 않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주민교육에 참여한다면,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와 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가시간 활용하기로 다양한 요구를 나타내고 있어 주민교육 지원에 대한 방향성 제고를 확인할 수 있음
- 성인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관심 있는 분야와 문제 탐구 방법을 배우는 자기주도학습을 자연스럽게 선호하며, 자신에게 내재적인 의미가 있는 학습에 참여하도록 스스로 동기 부여한다는 특징을 지님. 그러므로 마을 주민교육 지원은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학습요구를 설계하도록 도움을 주고, 이를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즉 마을 주민은 계몽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학습의 주체로 인식 되어야 하며, 주민 스스로의 학습을 도움으로써 지속 성장을 지원하는 접근이 요구됨. 그래서 마을 주민들도 마을 안에서 일과 학습

의 병행이 가능해야하며, 이를 위해서 농번기와 농한기로 구분되는 농업종사자와 자영업자, 그리고 주부와 직장인 등 주민교육 참여 대상의 시간적 특성을 고려하는 차별화 전략을 모색해야함

□ 마을 주민의 학습결과 내재화 중심으로의 관점 전환

- 마을 주민교육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우리사회에서 교육의 일반적 가치로 여겨지는 사회경제적 성공에서 주민의 삶 자체의 질적 향상으로의 전환이 요구됨
- 국가나 사회가 사회제도로써 학교교육을 운영하는 이유는 교육이 결과적으로 어떤 목적을 실현, 가치를 생산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기 때문임. 이는 대체로 개인적 성공, 사회적·정치적 체제유지, 경제적 생산성 향상, 도덕적 질서 회복, 인력 배양 및 양성 등으로 제시되는 교육의 외재적 가치를 중심으로 인식함. 즉 개인적 혹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이 되는 것임
- 여기서 더 나아가 학습자에게 있어 교육의 본질적 의미와 가치를 살펴보면,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사는 삶 자체가 질 높은 삶으로서 교육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내면의 눈인 ‘안목’을 형성하고, 사회의 지식, 규범, 기술, 예술 등을 배워 인간세계와 자연세계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갖추고, 인간의 역사와 문명에 대한 세련되고 비판적 안목을 형성하는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할 것임
- 마을 주민교육을 통해 이르고자 하는 학습결과는 궁극적으로 참다운 것과 고귀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삶에 대하여 비판적 사고를 형성하는 것으로써, 스스로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하는 그 자체로서 의미와 가치를 지님

□ 마을 주민교육 범위 · 방법 · 내용의 확장 및 프로그램의 전문화 지원

- 마을 주민교육은 마을 안(공유 공간)에서 주민을 중심에 두고 일상적 학습을 지원하는 접근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교육 내용, 교육 방식 및 교육공간의 변화, 교육자(강사)의 기준과 수준, 참여 주민의 학습동기와 실천 의지의 강화, 교육참여자 집단의 화합의 유도과 갈등관리 목적의 교육이 필요하고, 자발적 집단 학습과 실천을 촉진하는 학습동아리 육성 등을 지원하는 형태로서 주민교육을 확장할 수 있음

- 무엇보다 공공정책 및 사업추진을 위한 수단으로서 제공하는 교육의 범위와 방법이 우선시 되는 것에서 벗어나, 마을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중심으로 교육을 재편하여 주민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먼저 선행 되어야함. 그 이유는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성인 학습자인 주민들의 학습에 대한 강력한 동기는 외면의 이익보다 내적 동기와 내적 호기심에 있기 때문임. 자신이 왜 배워야 하는지 알아야 자기주도적으로 변함. 성인의 축적된 경험은 귀중한 학습자원이 되며, 삶의 과업과 문제들을 통해 배울 준비를 함. 더불어 즉각적인 실행과 적용을 통해 배우는 것을 선호함
- 그래서 마을 주민교육의 범위와 방법, 내용에 있어 견고함에서 유연함으로 이동하고, 과업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의 학습분위기 변화, 집단 통제 중심에서 개개인의 에너지를 표현하는 운영방식으로의 전환, 주민 모두의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과 정책결정으로 열린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
- 모든 마을 주민들이 마을 안에서 배우고, 익히며, 성장해가는 공동체 형성은 마을의 아동·청소년의 생활 보장과 학습지원으로 시작되어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다양한 정보의 수집과 발신을 통한 끊임없는 도전과 작은 성공 경험의 축적 등을 통해 실현할 수 있음. 이러한 환경은 자라나는 후세대의 정체성 강화 계기 마련하고, 비로소 마을의 내발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마을 주민의 구성 특성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교육 추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의 평생교육진흥원과 동네배움터 간의 직접적인 사업지원체계구축 사례와 같이 마을 주민교육을 위한 전문적 지원이 요구됨. 제주지역에서도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마을 주민교육지원체계 구축하여 전문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 또 현재 제주지역의 마을단위 지원사업이 대부분 행정의 보조금 지원사업 방식이 적용됨에 따라 자부담이 의무 적용되고 있음. 아무리 마을 구성원의 성장이 곧 마을의 성장 동력임을 강조한다 한들 선뜻 주민교육 사업 신청하기에는 자부담이 장애물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요구됨. 주민교육의 확장과 활성화는 공공적 지원 정책으로 삼아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마을 공간의 진화를 통해 마을 주민의 생활과 삶의 변화를 모색할 만한 공공적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음

- 향후에는 주민자치회와 마을회에 이르는 관련 사업 간의 연계와 활용, 다양한 행정·공공·민간 조직과 집단 단위의 수준별, 단계별 정보제공과 협력, 실무자 및 교육 강사의 전문화 등을 모색하는 네트워크 활성화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교육 운영체계로서 제주형 모델의 구축이 필요함
-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VI-4>와 같음

<표 VI-4>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교육 지원 정책 과제(안)

구 분	주요 과제	비고
마을단위 주민교육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단위 모든 주민대상으로의 교육 지원 접근 · 마을단위 주민교육 지원 사업 간의 연계와 행정 부서 간의 역할 정립 및 제고 ·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교육 지원체제 구축 · 마을 주민교육 지원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 필요 	
주민교육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교육 참여 확대를 위한 종합 정보 제공 ·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마을 교육 공간 조성 및 배치 · 마을단위 주민 교육 시설 확충 및 학습 환경 조성 · 교육과정 특성 및 내용, 방법에 따른 교육 기자재 확충 및 개선 	
마을단위 주민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단위 주민의 교육지원 방향성 정립 필요 · 주민의 생애주기별 성장 지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이해 및 자치역량 강화, 리더십 훈련 과정 마련 · 학습과 실천의 경험을 제공하는 학습동아리 활동 및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지원 	
주민의 학습-실천-성장의 선순환과정 중심의 마을공동체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과 학습 현장으로서의 마을의 복원과 마을공동체 형성 지향 · 마을 주민교육의 실질적 주체로서의 마을회의 기능 강화 · 마을 주민교육 지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 마을 주민의 학습결과 내재화 중심으로의 관점 전환 · 마을 주민교육 범위·방법·내용의 확장 및 프로그램의 전문화 지원 	

참고문헌

- 강대중 외(2020). **코로나19, 한국 교육의 잠을 깨우다**. 서울: 지식공작소.
- 구자인(2020). ‘역량강화’라는 이름의 주민교육 달라져야 한다.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6237>
- 구자인·유정규·곽동원·최태영(2011). **마을만들기, 진안군 10년의 경험과 시스템: 더디가도 제대로 가는 길**. 안양: 국토연구원.
- 권두승(2005). 미국의 21C 지역사회학습센터(21stCCLC)의 성립배경 및 운영성과 분석. **평생교육학연구**, 11(4), 111-138.
- 김경애 외(2014).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경애·김정원(2007). 교육지원체제로서 지역네트워크 형성과정에 대한 사례연구. **평생교육연구**, 13(3), 117-142.
- 김윤정(2008). **일본 평생교육 정책동향**. 서울: 평생교육진흥원.
- 김진술, 남윤섭, 안동훈, 안현준, 임현정. (2018).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기능에 대한 탐색적 연구-제주특별자치도 4개 중간지원조직을 중심으로”. **제주발전연구**, 22, 183-206.
- 김찬호(2002). 지역이 배움터가 될 때. 이남주 외. **마을 전체가 배움터이다**. 20-28. 서울: 한국 YMCA 전국연맹.
- 데우치 아키토시, 오지마 미와(2010). 공민관, 小林文人·伊藤長和·양병찬 공편(2010). **일본의 사회교육평생학습: 풀뿌리 주민 자치와 문화 창조를 향하여**. 서울: 학지사.
-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편)(2013). **마을만들기 중간지원: 마을만들기지원 센터의 전국적 현황과 전망**. 안양: 국토연구원.
- 박상옥(2010). 지역사회와 학습의 관계 탐색: 지역사회 형성 및 발전과정으로서 학습활동. **평생교육학연구**, 16(2), 145-164.
- 박상옥·이지혜·홍숙희·박혜원(2014). **평생학습동아리 운영자료 개발**.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박성정·정민승(2002). **대학평생교육원의 운영방안**. 서울: 여성정책연구원.

- 박신영(2004). 창원시 평생교육정책 집행 및 성과에 관한 평가연구-사회교육센터운영 위탁사업을 대상으로-. 석사학위 논문. 부산대학교.
- 박영란·장혜경(2002). **고령사회대비 여성노인정책 수립방안연구**. 서울:여성가족부
- 박진도(2011). **순환과 공생의 지역만들기: 농촌지역의 내발적 발전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우사.
- 변종임·이경아·양병찬·김경희·양홍권(2006). **창원시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 창원시·한국교육개발원.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2020). 서울시 자치구별 동네배움터 연도별 운영 현황.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2020). 서울시 동네배움터 연도별 운영 현황.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
- 양병찬(2008). 농촌 학교와 지역의 협력을 통한 지역교육공동체 형성: 충남 홍동지역 ‘풀무교육공동체’ 사례를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14(3), 129-151.
- 양병찬(2014). 자자체 마을만들기사업에서 ‘마을학교’의 평생교육적 의미 :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평생교육**, 2(1), 1-25.
- 이왕기·이용식·채은경·유홍민·김미정·김종호·민운기·박은희·안미숙·이혜경(2013).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기본계획**. 인천: 인천광역시.
- 이지혜·홍숙희(2007). 학습으로서의 네트워킹: 부천지역 교육안전망 사례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13(3), 215-243.
- 이혜영 외(2011). **교육복지 통합적 지원체제 구축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장창수(2011). **노인교육 프로그램 선호도에 대한 연구**. 대전: 대전세종연구원.
- 정현경(2013). 일본 지역주민들의 마을 놀이터 ‘공민관’. **해외평생학습동향**. 수원: 수원평생학습관.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2019). 내부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센터(2020). 내부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2020). 내부자료.
- 제주특별자치도(2019).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종합계획.
- 제주특별자치도(2019). 주민등록통계보고서.
- 제주특별자치도(2019). 행정통계.
- 제주특별자치도(2020).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과.
- 제주특별자치도사이버주민자치센터 <http://www.jeju.go.kr/jumin/>
- 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2020). 내부자료.
- 지희숙(2008). 지역공동체학습을 통한 지역 네트워크 형성과정 연구: 부산 반송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대학원
- 창원시(2012). **창원시 평생학습도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창원시.
- 한정란(2008). **노인교육 체계화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세종:보건복지부.
- 홍숙희(2011). 지역거버넌스에 의한 부천 지역평생교육체제 형성과정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숙희(2019). **2019 제주지역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 제주: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 홍숙희·김민호·이소연(2019). **제주평생교육 도민의식 및 인지도 향상 방안 연구**. 제주;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 홍지오·김용련(2018). 마을교육공동체 구축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육주민자치 실현에 관한 연구: 서종면 교육주민자치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36(5), 139-165.
- Durkheim, E.(2019). 뒤르껼: 교육과 사회학 (이종각 옮김). 서울: 배영사. (원저 1922년 출간)
- DVV(독일성인교육협회) International(2015). Lifelong Learning for all: German Adult Education Centres(VHS), German Adult Education

- Association(DVV) and DVV International.
- English, L. M. & Mayo, P.(2012). adult education and citizenship: A contested terrain. In L. M. English & P. Mayo(eds.). *Learning with adults: A critical pedagogical introduction* (pp.37-41). Rotterdam: Sense.
- Faure, et.al.(1972). *Learning to be: The world of education today and tomorrow*. UNESCO.
- Habermas, J.(2006). **의사소통이론 2: 기능주의적 이성 비판을 위하여** (장춘익 옮김). 서울: 나남 (원저 1981년 출간).
- Hillery, G.(1955). Definitions of community: Areas of agreement. *Rural Sociology*, 20, 111-123.
- Illich, I.(2009). **학교 없는 사회**(박홍규 역). 서울: 생각나무 (원저 1971년 출간).
- Kaner, Lind, Toldi, Fisk, & Berger(2017), **민주적 결정방법론 :퍼실리테이션 가이드** (구기욱 옮김). 서울: 쿠퍼북스 (원저 2007년 출간)
- Kaner, S. with Lind L, Toldi C, Fisk S and Berger D (2007). Facilitator' s Guide to Participatory Decision-making. CA:Community At Work.
- Mezirow, J. (1996). Contemporay paradigms of learning. *Adult Education Quarterly*, 46(3), 158-173 (1996).
- Norberg-Hodge, H.(2007). **오래된 미래: 라다크로부터 배우다**(양희승 옮김). 서울: 중앙books (원저는 1992년 출간).
- 경기도 이천시(2018) 웹사이트.
<https://edu.icheon.go.kr/edu/contents.do?key=5959>
- 경남 창원시 웹사이트.
<https://www.changwon.go.kr/depart/contents.do?mId=0901010400>
- 독일성인교육협회-시민대학 웹사이트 www.dvv-vhs.de.
- 독일성인교육협회-인터내셔널 웹사이트 www.dvv-international.de.
- 부천시청(2020). 동 평생학습 활성화 ‘학습반디’ 운영. 부천시청 내부자료.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웹사이트

(<http://smile.seoul.kr/Seoulschool/course/>)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강사지원시스템 웹사이트

<http://support.jejuessd.kr/base/main>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웹사이트 <http://www.jejuessd.kr/base/main>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제주문화중개소 웹사이트

<http://start.jejuessd.kr/base/main>

제주특별자치도사이버주민센터 웹사이트

<http://www.jeu.go.kr/jumin/index.htm>

호주 빅토리아 주의 지역학습망 웹사이트

<http://learnlocal.org.au/find-a-learn-local/>

마을 단위 주민교육 전문가 심층 면담 (F.G.I.) (2020.7.7.; 7.8)

【부록 1】 설문지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교육 지원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

--	--	--	--	--	--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는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대상 교육지원 실태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제주지역 주민의 교육 참여 환경 및 요구 중심의 주민교육 정책 수립에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솔직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문1. 귀하는 과거 3년간 (2017~2019) 마을단위 주민대상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그렇다 (👉 A 영역 문4번으로) ② 아니다 (👉 문 2번으로 계속)

마을단위 주민대상 교육이란?

제주 도민인 귀하께서 거주하는 제주 도내 읍·면·동지역에서 경험한 모든 종류의 교육

문2. 지금까지 주민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를 두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① 직장이나 직업으로 인해 시간이 없어서
- ② 집안일 또는 가사노동(청소, 빨래, 식사 챙기기 등)으로 부담이 되어서
- ③ 적절한 교육(프로그램 내용)이 없어서
- ④ 참여하는 방법을 몰라서
- ⑤ 교육 중 함께할 친구가 없어서

- ⑥ 교육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 ⑦ 교육장소가 떨어져서
- ⑧ 교육시간(요일, 시간대 등)이 맞지 않아서
- ⑨ 참가비(교육비용)가 부담되어서
- ⑩ 강사(교육자)가 마음에 들지않아서
- ⑪ 기타 ()

문3. 귀하께서는 앞으로는 주민교육에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 ① 그렇다 (☞ 문 3_1로 이동 후 계속 답변) ② 아니다 (☞ B 영역 문 21번으로 이동)

문3_1. 위 3번에서 ‘그렇다’ 라고 응답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를 두 가지만 체크(✓)해주시시오.

- ① 교육을 통해 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 ②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서
- ③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 ④ 규칙적인 생활을 위해서
- ⑤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 ⑥ 배움을 통해 봉사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 ⑦ 주민들과 어울리는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 ⑧ 자격증/수료증이나 졸업장을 따기 위해서
- ⑨ 직업에 필요한 능력을 얻기 위해서
- ⑩ 기타 ()

A 교육 경험 및 만족도

문4. 귀하께서 지금까지 주민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일수/회)은 얼마나 됩니까?

[]년 []개월 []일 []회

문5. 귀하는 어떤 마을단위 주민대상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셨습니다까? (수강 했던 프로그램에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 ① 공동체 교육(지역이해하기: 마을 만들기, 도시재생, 마을발전정책 등)
- ② 갈등관리 및 의사소통 교육(대화법, 갈등관리, 회의 진행 등)
- ③ 직업교육(농수산 기술교육, 취업,재취업교육, 창업교육, 자격증교육 등)
- ④ 경제교육(세무/회계, 마을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 설립 등)
- ⑤ 생활예술교육(댄스 스포츠, 기체조 등 생활 스포츠, 그림, 노래, 서예 등 문화예술 교육)
- ⑥ 인문교육(역사, 철학, 문화, 정치, 경제 전반의 인문환경, 교양 시사 교육)

- ⑦ 외국어교육(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
- ⑧ 정보화교육(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활용, 화상 회의 등 교육)
- ⑨ 문해교육(한글읽기, 계산하기 등)
- ⑩ 건강 및 생애주기 교육(건강 식이요법, 생애주기, 신체심리, 사회적 특징)
- ⑪ 기타() ※ 필요시 교육명을 직접 기재하십시오.

문6. 귀하께서 지금까지 참여한 교육으로 본인에게 가장 도움이 된 두 가지만 체크(✓)해주십시오.

- ① 교육을 통해 공동체 사업에의 참여하기
- ②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끼기
- ③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얻기
- ④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 ⑤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기
- ⑥ 배움을 통해 봉사 활동에 참여하기
- ⑦ 주민들과 어울리는 기회를 가지기
- ⑧ 자격증/수료증이나 졸업장을 따기
- ⑨ 직업에 필요한 능력을 얻기
- ⑩ 기타()

문7. 귀하께서 참여한 교육이 실시된 장소는 다음 중 어디인가요? [해당되는 장소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① 마을회관(복지회관, 경로당/노인회관, 마을 문화센터, 마을 문고 등)
- ②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③ 보건소(보건지소)
- ④ 농수산 관련 기관(농수축협,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 ⑤ 문화원, 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시설
- ⑥ 한국 폴리텍, 학원, 대학교부설교육원 등 직업훈련기관
- ⑦ 도시재생지원센터, 사회적경제협동조합 등 중간지원조직
- ⑧ 기타() ※ 필요시 장소명을 직접 기재하십시오.

문8. 귀하께서는 주민교육에 대해 어떻게 알고 참여하게 되셨습니까?

- ① 이웃, 마을회 권유
- ②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
- ③ 평생학습관, 문화센터 등 지역사회 교육기관 홍보
- ④ 시·읍·면 주민자치센터(관공서)
- ⑤ 인터넷 등 온라인 홍보물
- ⑥ 중간지원조직(마을만들기, 도시재생, 마을기업, 체험휴양마을 등) 홍보물
- ⑦ 기타 ()

문9. 귀하께서 참여한 교육의 주관 기관(단체)에 대한 참여 경험을 ✓표 해 주십시오.

기관 유형	참여 경험	
1) 마을회 및 자생단체(부녀회, 새마을회, 농민회 등)	① 있다	② 없다
2) 읍면동주민자치센터, 행정시, 인재개발원 등	① 있다	② 없다
3) 보건소, 보건지소 등	① 있다	② 없다
4) 농협, 농업기술원(기술센터)	① 있다	② 없다
5) 직업훈련기관(한국 폴리텍, 학원, 대학교부설교육원 등)	① 있다	② 없다
6) 문화시설(문화원, 도서관(작은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의 집 등)	① 있다	② 없다
7) 지역사회 교육기관(복지관, 다문화센터, 평생교육진흥원 등)	① 있다	② 없다
8) 중간지원조직(농어촌체험휴양마을, 마을기업,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① 있다	② 없다
9) 기타 () ※ 주관기관(단체)명을 직접 기재하십시오.		

문10. 위 9번의 기관 유형 중, 귀하께서 가장 오래 다닌 기관의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번

문10_1. 그 기관에 오래 다닌 가장 중요한 이유 **두 가지**만 체크(✓)해주시시오.

- ①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많아서
③ 기관 분위기가 좋아서
⑤ 강의실 등 시설 및 환경이 좋아서
⑦ 강사의 질이 높아서
- ② 집과 가깝거나 교통이 편해서
④ 이웃이 권유해서
⑥ 수강료나 회비가 부담 없어서
⑧ 기관 및 관리자의 운영방식 및 태도
- ⑨ 기타 ()

문10_2. 귀하께서 그 기관 시설 이용시 느낀 가장 큰 불편함 두 가지만 체크(✓)해주시시오.

- ① 화장실 (남녀 구분 잘 안되어 있음, 여성 화장실 부족, 불결함 등)
- ② 옷을 갈아입을 공간이 따로 없음
- ③ 강의실이 좁고 냉난방, 환기가 잘 안됨
- ④ 음향, 영상, 테이블, 의자 등 교육기자재 낙후
- ⑤ 계단이 많고 이동약자가 이용하기 불편함
- ⑥ 기타()

문10_3. 귀하께서는 그 기관에서 교육을 받으시면서 성차별이나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① 그렇다 (👉 10_4로 이동) ② 아니다 (👉 11번으로 계속)

문10_4. 누구로부터 그러한 경험을 하셨습니까?

- ① 교육생 ② 강사 ③ 운영직원 ④ 기타 ()

문11. 다음 중 귀하께서 지금까지 참가해보신 교육 분야와 각 교육이 본인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 체크(✓)해주십시오.

주민교육 분야	11_1. 참여 경험	11_2. 도움 정도				
		매우 도움 됨	약간 도움 됨	보통	별로 도움 안됨	전혀 도움 안됨
1) 공동체 교육(지역이해하기 : 마을만들기, 도시재생, 마을발전정책 등)	① 있다 → ② 없다	①	②	③	④	⑤
2) 갈등관리 및 의사소통 교육 (대화법, 갈등관리, 회의 진행 등)	① 있다 → ② 없다	①	②	③	④	⑤
3) 직업교육(농수산 기술교육, 취업제취업교육, 창업교육, 자격증 교육 등)	① 있다 → ② 없다	①	②	③	④	⑤
4) 경제교육(세무/회계, 마을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 설립 등)	① 있다 → ② 없다	①	②	③	④	⑤
5) 생활예술교육(댄스 스포츠, 기체조 등 생활 스포츠, 그림, 노래, 서예 등 문화예술 교육)	① 있다 → ② 없다	①	②	③	④	⑤
6) 인문교육(역사, 철학, 문화, 정치, 경제 전반의 인문환경, 교양, 시사 교육)	① 있다 → ② 없다	①	②	③	④	⑤
7) 외국어교육(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	① 있다 → ② 없다	①	②	③	④	⑤
8) 정보화교육(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활용, 화상회의 등)	① 있다 → ② 없다	①	②	③	④	⑤
9) 문해교육(한글읽기, 계산하기 등)	① 있다 → ② 없다	①	②	③	④	⑤
10) 건강 및 생애주기 교육(건강 식이요법, 생애주기, 신체심리, 사회적 특징)	① 있다 → ② 없다	①	②	③	④	⑤
11) 기타 () ※ 교육명을 직접 기재하십시오.	① 있다 → ② 없다	①	②	③	④	⑤

문12. 코로나 19로 인해 평소 제공되던 주민교육 프로그램 감소로 교육 참여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일(직업) 외에 주로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냈는지 한 가지만 체크(✓)해주십시오.

- ① 텔레비전 시청
- ② 온라인(유튜브, 줌 등) 활용 : 교육프로그램 검색 및 학습 활동
- ③ 집안일, 소일거리, 실내운동 등 실내 활동
- ④ 자연 탐방, 캠핑 등 야외 활동
- ⑤ 기타 새로운 취미활동 ()

문13. 코로나19가 끝나고 향후 주민교육기관이 다시 문을 열고, 주민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귀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① 예전처럼 다시 수강하거나 참여할 것이다
- ② 코로나 감염 우려 때문에, 참여 하더라도 교육과목이나 시간을 조금 줄일 것이다
- ③ 코로나 감염 우려 때문에, 당분간은 교육 받으러 나가지 않을 것이다
- ④ 앞으로는 교육을 받기가 꺼려진다

B 주민교육 수요 (공통 문항)

문14. 귀하께서는 아래의 각 교육 방법이 주민교육에 어느 정도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 방법	매우 적합	약간 부합	보통	약간 부적 합	매우 부적 합
1) 강사의 강의를 통한 교육	①	②	③	④	⑤
2) 실습, 견학 등 참여를 통한 교육	①	②	③	④	⑤
3) 토의와 질의 응답을 통한 교육	①	②	③	④	⑤
4) 인터넷(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교육	①	②	③	④	⑤
5) 텔레비전,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	①	②	③	④	⑤
6) 소규모 동아리 모임을 통한 교육	①	②	③	④	⑤
7) 인터넷, 책 등을 통해 혼자 하는 학습	①	②	③	④	⑤

문15. 코로나로 인해 앞으로는 지금과 같은 교육방식이 힘들어진다면, 귀하께서는 향후 주민교육이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인터넷(온라인)을 통한 교육 활성화
- ② 교육방송 전용 채널 신설을 통한 대중매체 교육 활성화
- ③ 소규모 동아리 모임을 통한 교육 활성화
- ④ 지금과 같이 모여서 강사의 강의를 듣되 참여 인원수를 축소하여 교육 지속
- ⑤ 기타()

문16. 귀하께서는 다음의 교육 내용들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 내용	매우 필요 함	약간 필요 함	보통	별로 필요 없음	전혀 필요 없음
1) 생활기술 교육 (요리 강습, 목공, 공예 등)	①	②	③	④	⑤
2) 양성평등 교육 (가사노동 분담, 성별 고정관점 및 편견 등)	①	②	③	④	⑤
3) 인권교육 (성희롱, 성폭력, 가족폭력, 아동학대 예방 등)	①	②	③	④	⑤
4) 자원봉사 교육 (자원봉사 방법 및 실천 등)	①	②	③	④	⑤
5) 다문화 이해 교육 (좋은 죽음에 대한 이해, 자서전 쓰기 등)	①	②	③	④	⑤
6) 제주역사, 마을역사 문화 등 인문 교육 (제주 신화, 해녀, 제주어, 마을 향토지 등)	①	②	③	④	⑤

문17. 귀하께서는 학교 교육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거나, 아동·청소년, 청년 등 다른 세대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함 ② 약간 필요함 ③ 별로 필요 없음 ④ 전혀 필요 없음

문18. **[여성만 응답]** 귀하께서는 여성으로서의 자립과 역량을 기르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다음의 보기 중에서 **두 가지**만 체크(✓)해주시시오.

- ① 여성 리더십 교육 ② 제주여성정체성 교육 ③ 미래사회 변화과정
④ 스피치 교육 ⑤ 금융경제관련 교육 ⑥ 기타()

문18_1. 지금까지 그러한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그렇다 (☞ 문 19으로 이동) ② 아니다 (☞ 문 19_2번으로)

문18_2. **[문18_1번 ② 아니다 응답자만]** '아니다' 라고 응답하신 경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흥미 부족 ② 가족의 이해부족
③ 학습비 부담 ④ 교육시간의 불편
⑤ 참여할만한 프로그램 부족 ⑥ 가사부담(육아 포함)
⑦ 기타 ()

문19. 주민들의 교육참여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을 **두 가지**만 체크(✓)해주시시오.

- ① 야간, 주말, 농한기 등 교육 시간 다양화
② 걸어서 갈 수 있는 가까운 (마을문화센터, 주민센터, 공방,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교육 실시

- ③ 무료 교육 제공 확대
- ④ 취업 연계 교육 확대
- ⑤ 생활문화, 생활스포츠 등 취미와 여가 활동 증진 교육
- ⑥ 학력인정 교육 활성화
- ⑦ 자발적인 주민학습 소집단 활동 지원
- ⑧ 나의 개인정보 노출(학력 등) 방지
- ⑨ 기타 ()

문20. 제주지역 주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다음의 보기 중에서 **두 가지**만 체크(✓)해 주십시오.

- ① 주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② 주민교육 기관들 간의 연계 및 협력 강화
- ③ 주민교육 전문 인력 양성 활성화 ④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⑤ 우수한 강사 확충과 지원 ⑥ 다양한 강의 방법 도입
- ⑦ 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 ⑧ 적극적인 홍보와 정보 제공
- ⑨ 기타()

C 응답자 특성

* 다음 질문은 귀하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하시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안에 적어 주십시오.

문21. 귀하의 현재 거주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제주시 동지역 ② 제주시 읍면지역 ③ 서귀포시 동지역 ④ 서귀포시 읍면지역

문2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여성 ② 남성

문23. 귀하의 출생년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년)

문24.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무학 ② 서당/초등학교 졸업 ③ 중졸
- ④ 고졸 ⑤ 대졸 이상

문25. 지금까지 귀하께서 가장 오래 일하신 직업은 무엇입니까?

- | | | |
|-----------|----------|-------------------------------|
| ① 농어업, 임업 | ② 단순 노무직 | ③ 서비스, 판매직 |
| ④ 사무, 관리직 | ⑤ 자영업 | ⑥ 기능직, 장치·장치기계 조작·조립 |
| ⑦ 전문직 | ⑧ 전업주부 | ⑨ 기타 () |

문26. 현재 귀하는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문27. 현재 귀하는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 ① 혼자 살고 있음 ② 배우자와 살고 있음 ③ 자녀와 함께 살고 있음
④ 배우자 및 자녀와 살고 있음 ⑤ 친구, 친지와 살고 있음 ⑥ 기타 ()

문28. 귀하의 현재 경제 상태는 또래 다른 친구들에 비해 어떻습니까?

- ① 매우 어려움 ② 조금 어려운 편 ③ 보통
④ 여유 있는 편 ⑤ 매우 여유 있음

문29. 귀하는 가까이 사는 친구, 친척, 이웃들과 얼마나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 ① 거의 매일 ② 일주일에 한 두번 ③ 한달에 한 두번
④ 1년에 한 두번 ⑤ 거의 만나지 않음

문30. 귀하께서는 자원봉사 및 공동체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현재 참여하고 있음 ② 과거에 참여한 경험이 있지만, 현재는 참여하지 않음
③ 참여한 적이 없음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대한 동의

수집 목적 및 개인정보항목	제주지역 주민교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 응답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보유기간 및 개인정보 파기	용역수행 완료 및 사업 관련 모든 행정절차를 마친 후 즉시 파기 - 용역수행을 위해 인쇄된 종이문서 파기 - 용역수행업체 관련자 PC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 삭제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응답자 이름		응답자 연락처	
면접원		면접일시	2020년 월 일 (오전/오후) 시 분 ~ 시 분

*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교육 지원 실태조사

발행인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발행일 2020년 12월
발행처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전략기획부)
 (632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2동) 4층
 Tel) 064-726-9850 Fax) 064-726-9848
 Home Page : www.jiles.or.kr
제 작 희망나래일터(064-751-5152)

☐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복제나 복제는 금합니다.

ISBN 979-11-972960-3-1



<비매품>

